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편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경기학연구센터가 기획하였고 관련전문가가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주년 기념도서로 기획, 발간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기획도서인 만큼, 경기도의 관점에서 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일부나마 밝히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이 발굴조사한 유적을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경기도의 유적·유구·유물을 선정하여, 고고학적·역사적·문화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경기고고학개론’이 없습니다. 이 책이 이런 부족함을 조금 이나마 대신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경기도에서의 발굴 성과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모자란 부분은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경기 발굴 10년의 발자취』(2009년 발간)를 함께 보시면 어느 정도 충족되리라 봅니다.

다수가 집필에 참여하였기에 초고의 내용 중에는 집필지침에서 벗어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편집자가 첨삭을 가하고 논평을 더하였으므로 개별 원고에 대한 집필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고 편집자가 첨삭을 하였으며, 유적의 성격에 따라 서술방식이 달랐기에 내용이 균질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유적 개보식, 신문 칼럼식, 역사 논평식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이 책은 고고학이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풍부하고 알차게 하는 데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현실적 목적에서 기획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2019년 편집자 김성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 1부 우리나라의 역사 경기도에서 발원하다.

- 01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과 주먹도끼 _16
- 02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_19
- 03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의 좀돌날 문화 _23
- 04 구석기시대의 옷 재단용 흑연 _27
- 05 고양 도내동 구석기유적 _29
- 06 하남 미사동 구석기유적과 흑요석 좀돌날 몸돌 _32
- 07 포천 늘거리 구석기유적과 흑요석 _34

■ 2부 경기도에 온전한 신석기마을 드러나다.

- 01 시흥 능곡동 신석기마을유적과 주거지 _38
- 02 시흥 능곡동 신석기 마을유적과 빗살무늬토기 _42
- 03 안산 신길동 유적과 이형토기 _46
- 04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신석기시대 유적의 특징 _49

■ 3부 경기도 청동기문화의 저수지가 되다.

- 01 광명 가학동 고인돌 _54
- 02 여주 혼암리 선사유적과 혼암리식 토기 _58
- 03 안양 관양동 유적 _61
- 04 수원 금곡동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유물 _64
- 05 안성 반제리 유적과 환호 _68
- 06 화성 정문리 환호유적 _72
- 07 화성 동학산 고지성 취락과 초기철기시대 환호 _76
- 08 평택 토진리 유적의 화장묘 _81
- 09 오산 가장동 알바위 제사유적과 환호 _83
- 10 하남 덕풍골 제의 유적 _87
- 11 안성 공도 만정리 철기시대 무덤과 청동검 _90
- 12 파주 와동리 출토 중국식동검 _95

■ 4부 한성백제의 기층문화, 경기 땅에서 발굴된다.

- | | |
|--|--------------------------------------|
| 01 가평 대성리 마을유적 _100 | 15 길성리토성과 소근산성 _149 |
| 02 가평 대성리 마을 유적의 외래계 유물
_103 | 16 하남 갑일동 백제고분군 _153 |
| 03 화성 발안리 유적의 여·철자형 집자리와
토기 시루 _107 | 17 화성 마하리의 백제고분 _157 |
| 04 남양주 장현리 유적과 난방시설 _113 | 18 용인 마북동 EMS 부지 내 주구토광묘
_160 |
| 05 하남 미사리 유적과 여자형 주거지 _118 | 19 화성 요리 백제고분 출토 금동관 _164 |
| 06 수원 서둔동 유적 _121 | 20 오산 수청동 유적과 매홀 _169 |
| 07 김포 운양동 유적과 중국계 유물 _124 | 21 오산 수청동 유적의 청자반구호 _172 |
| 08 연천 학곡리·삼곡리 적석총과
백제초기사 _127 | 22 오산 수청동 백제 분묘군 출토 구슬 제품
_175 |
| 09 광주 곤지암 적석총 _130 | 23 화성 석우리 먹실 유적과 저장시설 _179 |
| 10 가평 달전리 토광묘 출토 철극 _133 | 24 용인 구갈리유적의 원형수혈과 그 용도
_182 |
| 11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과 낙랑계토기 _136 | 25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적의 파쇄토기와
돌랭이 _186 |
| 12 화성 기안리 유적의 노 시설과 송풍관
_140 | 26 파주 다율동 유적과 백제 토기가마군 _190 |
| 13 평택 마두리 유적 출토 마형대구 _143 | 27 하남 미사리 백제 경작유구 _193 |
| 14 파주 육계토성과 하북위례성 _146 | |

■ 5부 고구려의 기상, 경기도에서 만나다.

01 안성 도기동 산성과 경기도 _198

02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_202

03 연천 호로고루와 토고 _204

04 고구려 고분과 그 분포 의미 _210

■ 6부 신라의 지방통치방식, 경기도에서 찾아지다.

01 하남 이성산성과 신라유물 _216

02 안성 죽주산성과 죽산현 _219

03 용인 구성의 할미산성과 보정동 고분군 _223

04 경기지역의 신라산성과 명문기와 _226

05 화성 백곡리 고분군과 원효의 깨달음 _230

06 오산 가수동 유적과 신라마을 _233

07 광주 대쌍령리 유적과 '남한산조사(南漢山助畵)'명 청동방울 _237

08 영흥선(靈興船), 경기만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난파선 _241

■ 7부 고려의 건국, 경기도가 한반도의 배꼽이 되다

- | | |
|--------------------------------------|--------------------------------------|
| 01 하남 교산동 건물지와 광주객사 _246 | 12 용인 처인성과 출토 대도 _287 |
| 02 하남 천왕사지와 그 문화재적 의미 _251 | 1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_291 |
| 03 여주 원향사지와 청동소종 _256 | 14 용인 마북동 고려무덤과 고려 묘제 _294 |
| 04 여주 고달사지와 원향사지 출토 중국
송대 자기 _258 | 15 용인 제일리 분묘군과 청동술가락 _298 |
| 05 여주 원향사지와 청자접시 _262 | 16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가마터와 제기
_302 |
| 06 여주 원향사지와 명문기와 _265 | 17 용인 보정리 청자가마터와 청자 불상 _306 |
| 07 여주 고달사지와 쌍사자석등 _268 | 18 용인 죽전 도기 가마터와
'사운서' 명도기 편 _310 |
| 08 여주 고달사지 출토 대형 악연 _272 | 19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와 명문기와 _312 |
| 09 고려 남경길과 혜음원지 _276 | |
| 10 안성 봉업사지와 명문기와 _280 | |
| 11 북한산 중흥산성과 그 범위 비정 _283 | |

■ 8부 조선의 개국으로 경기도! 근본의 땅으로 자리매김하다.

- 01 광주 백자요지와 분원 _316
- 02 포천 길명리의 조선시대 흑유자기 가마터 _320
- 03 문산 당동리 출토 중국 청화백자 _324
- 04 남양주 평내 기와가마터와 가마 구조 _327
- 05 오산 세교지구의 숯가마와 숯의 생산 유통 _330
- 06 파주 당하리 유적의 조선시대 석화가마와 교하현 _333
- 07 남한산성 인화관지와 조선시대 객사 _338
- 08 남한산성 연무관지와 상량문 _342
- 09 남한산성 한흥사지 _345
- 10 남한산성 남웅성과 추정 노대 _348
- 11 북한산성의 성벽과 시설물 _356
- 12 북한산성 성랑지와 조선후기의 군초소 _359
- 13 북한산성 돈대의 발굴과 그 의미 _363
- 14 북한산성 행궁지 _366
- 15 새로 찾은 북한산성 근대 기록사진 _369
- 16 남양주 평내 유적의 내시 묘역과 정계동묘 _373
- 17 남인의 거두 우성전의 생부 우연겸 묘와 만사 _377
- 18 구 건릉 재실지 _382
- 19 용건릉 내 정조 초상지 _385
- 20 화협옹주 묘 출토 일괄 유물 _388
- 21 안산 신길동 유적 출토 무구 _392
- 22 파주 동패리 유적과 방제경 _395
- 23 용인 서천동 '음성박씨 묘'와 출토복식 _399
- 24 용인전투와 임진산성, 그리고 황자총통 _403
- 25 여주 파사성과 조선시대 포루 _406
- 26 양주 관아지 발굴과 읍치소 _410
- 27 용인 양지향교 발굴과 향교건축 _413
- 28 회암사지와 북한행궁의 온돌시설 _416
- 29 양주 회암사지의 청동금탁과 명문 _421
- 30 화성 만년제, 정조를 말하다 _426
- 31 여주 삼합리 · 가야리 경작유구와 조선시대 농경지 _429

1부

우리나라의 역사 경기도에서 발원하다.

01

연천 전곡리 구석기유적과 주먹도끼



전곡리 구석기유적 전경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은 1978년 미군 병사 그렉 보웬Greg Bowen이 처음 발견한 이후 10차례 이상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유물은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현무암 대지 위에 형성된 깊이 약 3~8m 정도의 퇴적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채집된 석기는 4천여 점 이상인데, 그중에서도 주먹도끼가 단연 돋보인다. 유적의 연대는 약 30만년 전후에 현무암 대지가 형성된 사실과 퇴적층이 만들어지는 데에 걸린 시간을 감안하여 20만년 전후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대부분의 교과서와 교양도서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고학회가 펴낸 『한국고고학 강의』라는 개론서에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근거로 들어 10만년 이전으로 소급될 수 없다는 주장을 소개하면서 유적의 정확한 편년 설정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쨌든 이 유적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의 석기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세계 전기구석기문화가 유럽·아프리카의 아슐리안 문화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짝개문화전통으로 나누어진다는 기존의 H모비우스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전곡리 주먹도끼

이상이 전곡리 유적과 그곳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적 설명이다. 주먹도끼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고 크기가 큰 작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정형성을 띠고 있으며 규격화되어 있다. 이런 주먹도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감의 선택, 기본적인 형태 만들기, 세부적인 잔손질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전 공정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야 만족스러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마음 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설계도에 따라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손놀림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아동심리발달 단계에서 12세 정도가 되면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형식적 조작기’ 수준의 인지능력, 즉 추상적인 개념에 대하여 논리적·체계적·연역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어야 주먹도끼처럼 3차원적이며 대칭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형식적 조작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언어적 지능이 비로소 발달하게 된다. 결국 주먹도끼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추상적 관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 주먹도끼가 지금으로부터 176만년 전(케냐, Kokiselei 4) 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류는 유인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주먹도끼는 전면^{全面}을 가공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손에 잡히는 부분은 원래대로 두고, 날 부분만을 가공한 경우가 절대적이다. 또 잔손질을 정교하게 가하지 않은 편이어서 거칠고 투박하다. 이런 까닭에 아프리카·유럽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아슐리안 주먹도끼에 비하면 초라한 편이다. 이는 그 쪽의 재질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한 플린트(^{flint}, 입자가 매우 고운 부싷돌)를 소재로 삼은 데에 비하여, 우리는 석질이 단단하여 마음먹은 대로 모양을 낼 수 없는 규암^{珪巖}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전국리유적 출토 주먹도끼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선사시대 유물이다. 그런데 이 유물에 대한 가치는 전기구석기시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는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의 끝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사실에만 집중되었다. 그러나 주먹도끼는 그 자체만으로 예술성을 지니고 있으며,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 인간이 입체적 사고와 추상적 관념을 지녔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유럽 문화와는 다른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렇듯 유물 1점이 지닌 가치는 넓고도 깊은데, 지금 우리의 역사 교육은 유물이 지닌 민족사적 가치에만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흥미롭게 가공하여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런 작업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저절로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

02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삼리 구석기유적 전경

민선 2기 시절 경기도에서는 문화사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사 장소로 경기도 광주 시 곤지암읍 삼리 11번지 일대의 경기도 종축장 부지를 선정했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재 지표조사 의무제도에 따라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62,433㎡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결과, 총 조사지점 5개 중 4군데에서 구석기시대인의 행위가 이루어졌던 문화층이 발견되었고, 지층도 형성시기를 달리하는 3개의 문화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으며, 3,900여 점의 구석기 유물을 수습했다. 출토유물은 석영이나 규암으로 만든 주먹도끼·여러면석기·찍개·긁개·밀개·톱니날·몸돌·격지 등과 함께 유리질의 흑요석(黑曜石)으로 만든 뚜르개·새기개·슴베찌르개·좁돌날 등이었으며, 조성시기는 유물의 형식을 통하여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40,000~15,000년 전으로 편년되었다.

발굴 당시, 경기도 지역에서 흑요석제의 석기들이 정식으로 발굴된 사례가 없었고, 출토 유물도 정교하게 제작된 수작이었다. 학술적 가치는 나중에 제7차 한국사 국사교과서 20쪽에 사진과 함께 소개될 정도였다. 구석기 학계는 흥분했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대책을 경기도에 요구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엑스포 행사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적의 원형보존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



제7차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실린 삼리출토 흑요석제 석기

하면서 구석기 유적 전시관을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대안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받아들여져 엑스포 행사장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시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건립되지 않았고, 구석기 학계는 유적의 근본적인 보존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도 종축장 부지 중에서 엑스포 행사부지로 개발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 147,103㎡를 경기도 기념물 제188호로 2003년에 지정하였다. 그런데 문화재지정구역은 정식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형과 지면을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그 범위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만 13년이 지났다. 과거 발굴지역에 건립된 엑스포 행사장을 경기도자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에서 소규모의 일시적인 활용(구석기 전시체험관, 영상체험관 등)이 있기는 했으나 방치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으로 문화재지정구역 주변 300m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도자기 엑스포 부지에 스포츠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계기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정 당시 유적에 대한 정식적인 학술조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로 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민원을 해소하고 스포츠밸리와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육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도 기초자료의 확보는 필요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

한 결과, 기존의 3개 문화층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제4문화층이 존재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고, 2000년 조사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흑요석제 석기의 격지도 다수 수습했으며, 제2문화층에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도 다시 확인했다. 한편으로 과거 경기도종축장 시설 공사로 인하여 유물이 집중 분포하는 제1문화층과 제2문화층이 심하게 훼손된 사실과, 전체지역 중에서 구석기시대의 토층이 남아 있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방치와 다름이 없는 문화재보존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제 유적지 주변에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통과하고,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도 지나게 되었다. 이렇듯 교통여건이 좋아졌으니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문화유산적 가치도 배가되고 있다. 경기도내 한강을 중심으로 북으로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과 남으로는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흙속의 진주’에 아직도 무관심하고 무심無心하다.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은 선사체육 체험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경기남부 선사박물관으로 꾸미기에도 손색이 없다. ‘겉으로는 보존이요 실제로는 방치’인 기존의 문화유산의 보존방안에서 벗어나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을 잘 활용하면 연천 전곡리유적에 버금가는 유적공원이 될 것이다. 교통인프라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전곡리 유적을 더 능가하는 선사공원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대로 방치해 두기엔 아까운 공간이고, 투입input만큼 좋은 성과outcome가 나올 것이 확실한 유적이다.

03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의 좀돌날 문화



호평동 구석기 유적 발굴 모습



호평동 구석기유적 출토 쯤돌날 몸돌, 쯤돌날

남양주 호평동 후기구석기유적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2002~2004년 1지역(A~D)을 중심으로 4지역까지 발굴조사를,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된 후인 2007~2008년 1지역의 C구역 추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층 2개층을 확인하였고 특히 1지역 전체면적의 1/6만 발굴하였음에도 1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재 발굴 이외 지역은 보존되어 유적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호평동 유적이 후기구석기연구에서 중요한 이유는 첫째 흑요석의 사용연대가 2만4천년 경(보정전)으로 가장 이른 시기군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이 흑요석이 쯤돌날 제작에 특화되어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백두산 계열 산지라는 점이다. 특히 흑요석이 1지역 2문화층 A구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는데, 흑요석

은 1지역 전체 돌감 중 약 22%를 차지할 정도로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쓰인 돌감이다.

호평동 출토 흑요석 줌돌날몸돌과 관련 석기는 줌돌날 제작 기법 복원에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줌돌날과 몸돌의 형태, 몸돌에 남겨진 고정구의 흔적을 통해 눌러떼기 사용을, 대다수가 2~3등분으로 깨진 줌돌날과 날에 남겨진 접착의 흔적을 통해 복합석기의 날로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되붙는 흑요석 석기와 최종 산물인 줌돌날에 잔손질을 베풀어 도구를 만들거나 몸돌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격지나 여기에 만든 도구를 통해 흑요석 돌감사용 전략을 복원할 수 있다.

약 2만 4천년 전 경, 백두산 흑요석을 사용해 눌러떼기에 의한 줌돌날 제작이 이 유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과 연관지어 중요하다. 먼저 백두산 흑요석의 유입과 눌러떼기 줌돌날 제작기법이 동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다. 밑감을 다듬어 줌돌날을 떼어낼 부분을 눌러서 떼는 기법은 약 3만 5천년 전에 시베리아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여 확산된 석기제작 기술로 한반도에는 2만 5천년 전 즈음에 등장하는데 그 중 이른시기 유적이 호평동 유적인 셈이다.

호평동 유적에서 줌돌날 제작은 흑요석, 혼펠스, 유문암, 석영 등의 돌감을 활용했다. 호평동유적의 층군이 크게 2개의 문화층으로 나뉘나 세분해서 보면 2문화층 내에서도 흑요석 중심 층과 혼펠스 중심 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상한연대는 2만 4천 년 전, 1만 8천 년 전이다. 향후 두 연대 상의 석기제작 체계의 차이점을 흑요석과 혼펠스 그리고 줌돌날 제작방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유적 간 흑요석 반입량, 줌돌날 제작기법 등을 비교한다면 한반도 내

에서 흑요석과 함께 등장한 눌러떼기에 의한 줍돌날 제작방법이 어떤 식으로 지역화되어 변화해 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적은 이런 발굴성과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현장 고고학자는 어때야 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발굴이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책임자는 고고학자가 발굴현장에서 보여야 할 모습을 교과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 유적이 지닌 모든 고고학적 정보를 최대한 그리고 최선으로 얻고자 애썼다. 아울러 탄탄한 고고학적 소양과 능력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룩해 냈다. 뿐만 아니라 현장고고학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정리하고 이를 정확한 서술과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하여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는 곧 ‘발굴은 기록’이라는 고고학의 자명한 사실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이 유적의 발굴조사보고서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문화재청 평가를 받고, 우리나라 구석기발굴보고서의 바이블이 되었으며, 세계 구석기 고고학계로부터 호평을 받은 데에는 위와 같은 이유가 있다.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은 경기문화재연구원 최고의 발굴실적이다. 이런 발굴실적은 그야말로 현장책임자의 영입이 단초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역량과 성실함,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믿고 어려운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의 지원을 한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역할도 일익을 하였다. 어쨌든 발굴이 사업이 되고, 발굴이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고고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또 순수한 학술발굴을 위한 국가적 학술지원이 없는 작금의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감안할 때, 호평동 구석기유적과 같은 좋은 사례는 쉽게 출현되지 않을 듯하다.

04

구석기시대의 옷 재단용 흑연



호평동 구석기유적 출토 흑연

세계적인 고고학자 브라이언 페이건Brian M. Fagan은 그의 저서 『크로마뇽』(더숲, 2012)에서 ‘빙하시대라는 혹독한 기후에서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멸종한 데에 반하여, 현생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바늘이 있었기에 가죽조각들을 꿰어서 만든 맞춤옷을 만들 수 있

었고 빙하시대라는 혹독한 기후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이전, 한반도에 살던 현생 인류들도 맞춤옷을 지었을까 추측이 되지만, 그것을 입증할 뼈바늘이 아직까지 출토된 적이 없다. 그러나 후기구석기시대 맞춤옷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던 바, 그것은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에서 발굴된 길이 5cm의 흑연¹⁾黑鉛

덩어리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손에 꼭 쥐기 알맞은 크기와 모양이면서 몸통의 가장자리 중심선을 따라 날이 서 있다. 이 날은 흑연 덩어리인 유물로 선을 긋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짚게 해 준다. 아울러 이 흑연과 함께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었을 길이 2cm 크기의 뚜르개가 여러 점 출토되어, 옷감을 꿰매는 행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케 해 준다.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 유적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돌감을 이용한, 돌날, 줍돌날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흑요석을 사용한 줍돌날 석기 제작이 특징적이다. 굽개, 밀개, 뚜르개, 새기개 등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흑요석제 석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의자로 사용되었을 대형 석재와 불을 피웠던 흔적이 확인되어 그곳에서 실제 작업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유적의 연대는 탄소연대 측정 등을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3만년에서 1만 5천년 사이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출토 유물 중 일부는 제7차 국정 국사교과서에 사진이 실렸고,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지점은 현장 보존되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구석기 발굴조사 보고서 중에서 가장 우수한 보고서라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을 통해 출토된 유물로 지금부터 3~1만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다. 알맞은 높이와 형태의 돌의자에 앉아 흑연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돌칼로 재단한 옷감 조각들을 흑요석 뚜르개로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연결하여 맞춤옷을 만들고 있는 구석기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구석기 유물을 단순한 돌조각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돌조각들은 우리가 먼 과거로 여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타임머신인 것이다.

05

고양 도내동 구석기유적



도내동 구석기유적

고양 도내동 구석기유적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개설사업” 구간에서 확인되었으며 겨레문화재연구원이 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총 47,00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석기의 종류는 몸돌, 격지, 찌개, 밀개, 굽개 등 다양하며, 암질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영 및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자



도내동 유적 몸돌 석기(상), 주먹도끼·주먹찌르개·찍개(중), 숭배형 석기(하)

같은 밑감으로 한 석기도 공반 출토된다. 유적의 생성 시기는 석기와 층위 양상으로 볼 때,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동 구석기 유적은 석기 재료의 획득이 가능한 ‘돌감 원산지’와 석기 제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작장’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유적에서 직접적으로 획득이 불가능한 강자갈 등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질 좋은 규암 등 외래암질로 제작된 석기가 출토되는 것은 다양

한 집단이 경유 혹은 점유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기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주먹도끼, 찌개, 주먹찌르개 등과 더불어 돌날, 스페찌르개, 밀개 등 후기 구석기시대의 성격을 지니는 석기들이 공반하여 출토되었다. 따라서 본 유적은 중기 구석기시대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토된 석기를 정리·분석중에 있으며, 지질·지형분석, OSL·AMS 연대분석, 사용흔 분석, 이미지지스캔 등 다양한 방법의 자연과학분석을 진행 중이다. 차후 본 유적의 연구성과가 더해진다면 한강 유역의 구석기 문화를 보다 더 폭넓게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유적은 경기도에서 발견 사례가 드문 한강 하류와 인접한 지점에서 출토된 점, 다량의 다양한 석기가 출토된 점, 경기도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의 석기 제작장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06

하남 미사동 구석기유적과 흑요석 줌돌날 몸돌



미사동 유적 흑요석 줌돌날 몸돌

하남 미사동 구석기유적은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대규모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과거에도 몇 점의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어 하남 일대에 구석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 유적이 조사되면서 이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하남 미사동 구석기 유적에서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3-D지점의 1문화층에서 출토된 흑요석 줌돌날몸돌 1점이다. 이 몸돌은 크기가 14.5×11×14

mm이며 무게는 2.0g이고 형태는 원뿔모양이다. 양 측면을 골고루 다듬은 뒤 평평한 면을 때려 마지막에 7개의 줍돌날을 생산했다.

이 줍돌날 몸돌의 크기는 어린아이 새끼손가락의 한 마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이런 극소형의 석기가 몸돌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작은 석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구석기인의 손재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났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흑요석처럼 다루기 힘든 석재를 가지고 이처럼 정교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인지 능력이 거의 지금 우리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돌감을 분석하고 이를 다루는 능력이 ‘달통’의 경지였음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손재주와 인지능력을 가진 구석기인이라면 동굴벽화에 크게 뒤지지 않는 예술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는 소질도 갖추고, 또 초보적 수준을 벗어난 예술행위를 했으리라 충분히 짐작된다. 다만 그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쉽을 뿐이다.

어쨌든 이런 초소형의 줍돌날 몸돌이 경기도 하남에서 출토된 사실은 한강 유역에 살았던 경기도 지역의 후기구석기인들의 인지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미터^{barometer}이기에 그 학술적 가치가 남다르다. 앞으로 이 정도의 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남 미사리 구석기유적도 전곡리유적과 마찬가지로 벽돌공장이 자리한 주변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양질의 점토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기에, 그곳에 벽돌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다. 이에 고고학적 지표조사 때에는 지난 1970~1980년대에 제작된 1:5,000 축척지도를 구하여 이를 반드시 참고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겠다.

07

포천 늘거리 구석기유적과 흑요석



늘거리 구석기유적과 출토유물

포천 중리 늘거리 유적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기호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한 곳으로 한탄강과 철원분지와 인접한 유적이다. 유적의 각 지점은 한탄강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진 사면부나 한탄강과 접한 나지막한 독립 구릉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철원분지와 맞닿아 있다.

조사 결과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층위에서 채취한 숯을 이용한 연대측정 결과를 통해 3문화층(2지층, 명갈색점토층)은 $19,250 \pm 140$, $19,520 \pm 120$, $19,590 \pm 120$, $19,770 \pm 130$, $21,240 \pm 150$ BP 등 20,000BP를 전후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문화층(3지층, 암갈색 점토층)의 연대는 유물이 출토된 레벨에서 20cm 아래에서 출토된 숯의 연대인 $33,060 \pm 290$ BP, $31,590 \pm 290$ BP 값을 토대로 보면

21,000~33,000BP 사이의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3개의 문화층에서 11,068점, 지표 및 교란층과 시굴조사 당시 산발적으로 수습된 석기 4,924점 등 모두 15,992점이다. 3문화층에서 7,963점, 2문화층에서 2,790점, 1문화층에서 315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석기는 몸돌, 돌날몸돌, 줍돌날몸돌, 격지, 돌날, 줍돌날,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찌개, 주먹대패, 굽개, 밀개, 홈날, 톱니날, 뚜르개, 새기개, 켜기, 망치돌, 모루돌 등이 있다.

석기제작에 사용된 돌감은 석영이 가장 많으며, 응회암과 흑요석, 반암, 안산암, 수정, 규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응회암이 2,873점, 흑요석이 1,719점이 출토되었다. 응회암과 반암, 안산암, 섬록암은 유적이 위치한 철원분지에서 기원한 돌감으로 산지와 인접된 유적에서 돌감이용 양상을 잘 엿볼 수 있다. 흑요석은 단일유적으로는 남한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색깔별로 네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흑요석은 원산지분석을 통해 백두산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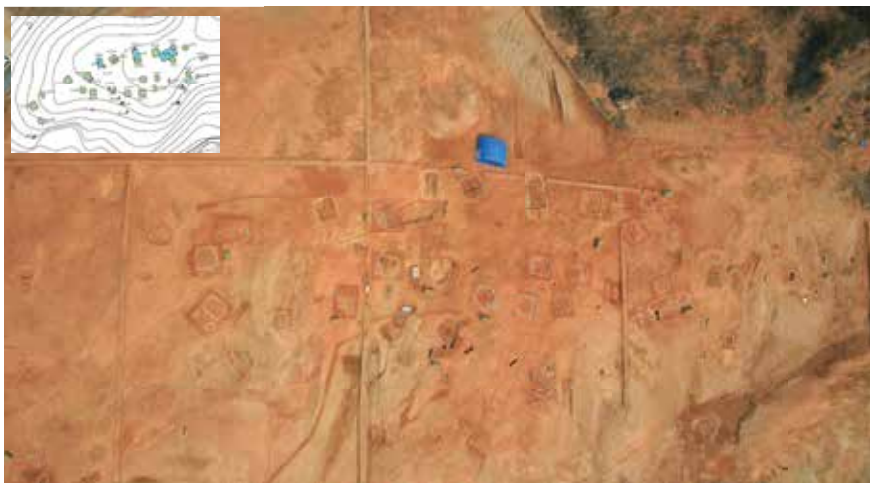
늘거리 유적은 한탄강 유역에서 발굴된 대단위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라는 점과 응회암을 비롯한 철원분지 기원의 돌감의 획득과 소비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점, 백두산 기원의 흑요석이 가장 많이 출토되어 남양주 호평동 유적과 함께 수렵채집민의 이동과 교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늘거리유적과 한탄강변에 위치한 주변의 구석기유적을 통해보면 한탄강 유역은 당시 구석기인들이 장기간 살았던 중요한 생활터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부

경기도에 온전한 신석기마을 드러나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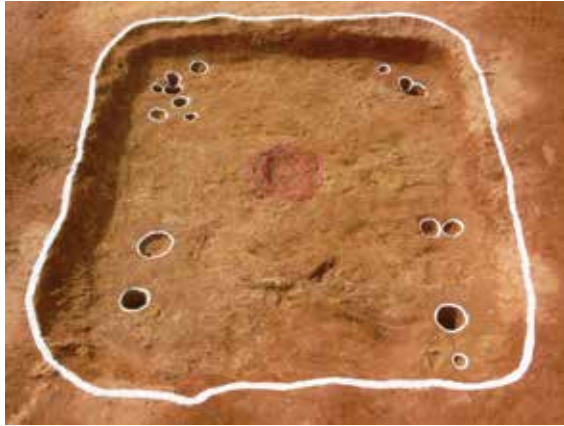
시흥 능곡동 신석기마을유적과 주거지



능곡동 신석기 마을 전경과 배치도(연두색 부분)

경기도가 속한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는 기원전 4,500년을 전후한 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시기에 중서부지방에 신석기인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전 지구적으로 따뜻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빙기 때는 육지였던 서해가 이때부터 바다로 변하게 되는데 기원전 5,000년 이전까지는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변 지형이 불안정하여 인간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기원전 5,000년 이후부터는 해수면 상승의 둔

화로 서해안에 갯벌이 형성되고 한강과 같은 큰 강 주변의 지형과 식생이 안정되면서 풍부한 식량자원이 공급되어 신석기인의 활동이 본격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능곡동 신석기 주거지

신석기시대 전기 내륙지역에서는 주로 큰 강 하류지대의 자연제방에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을 형성하고 안정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채집, 사냥, 물고기잡이, 초보적인 농경을 통해 풍부한 식량을 조달하여 약 기원전 4,500~3,600년에 걸쳐 정주성이 높은 안정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내륙 지역에서 약 1,000년간 유지된 안정된 신석기사회는 중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자연제방에 위치했던 마을이 대부분 해체되어 구릉 지역으로 이동하고 마을의 규모는 크게 축소된다.

하지만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는 대규모 마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 이 시기에 식량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당시 신석기집단의 정주성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에는 전기부터 시작된 초기농경의 강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여러 유적에서 탄화된 곡물과 토기압흔

분석(토기에 찍힌 식물종자, 벌레 등을 분석하여 선사시대 농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 조, 기장 등의 재배작물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초기농경의 적극적인 증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 지역 마을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해안 및 도서 지역에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는 이유는 바다자원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이런 해안 및 도서지역의 신석기 마을은 대체로 25개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가 시흥 능곡동 유적으로 시흥시 능곡동 산15 일대에 위치한다. 현재는 해안선과 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간척사업 이전에는 주변에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은 해발 30m 내외의 구릉에 위치하는데 24개의 주거지가 등고선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방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3.5~4m 내외인 것이 대부분이나 정상부에는 5m가 넘는 경우도 있다.

주거지는 땅을 파서 만든 움집 형태로 바닥에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 판 구멍과 난방과 취사를 위한 화덕자리가 남아 있다. 기둥은 네 모서리에 하나씩 세우는 4주식이 일반적이지만 규모가 큰 주거지에는 보조 기둥을 세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화덕자리는 바닥의 중앙에 땅을 낮게 파서 원형 또는 방형의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식량의 저장을 위한 구덩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주거지 안에서는 토기와 석기가 주로 출토되었지만 조, 기장, 도토리 등 식물유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토기는 무늬가 새겨진 것과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새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기의 형태는 바닥이 둥글거나 뾰족한 포탄형으로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무늬는 아가리 부위에는 짧은 빗금무늬를 새기고 몸통에는 생선뼈무늬를 새긴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바닥에는 무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늦은 시기로 갈수록

무늬가 새겨진 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석기는 공이돌, 갈판, 갈돌, 돌도끼, 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식물성 식량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많이 출토된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 신석기시대 중기에 속하는 다른 유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시흥 능곡동 유적은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안산 대부북동 유적 등과 함께 경기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문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이다. 이런 중요성을 인정 받아 발굴조사 이후 현장보존 되어 선사유적 공원이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원에는 유적을 설명하는 안내판과 더불어 움집을 복원하고 내부에 신석기인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아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능곡동 유적의 마을 구조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심부가 공터(空地(공터))로 남아 있는 점이다. 모계사회로 유명한 트로브리안드 섬의 마을 구조에서의 공터를 연상케 한다. 능곡동 유적이 원형이 잘 보존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공터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어찌 보면 이튼바 마을 공동의 공간, 즉 광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능곡동 유적에서 주목되는 바는 과거 해안에 연한 마을이었음에도 어로도구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는 신석기시대 하안과 해안 주변 마을의 주된 생업경제를 어로로 한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능곡동 유적은 갯골을 통하여 오이도 패총과 연결된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능곡동 유적의 주민들은 오이도와 같은 주변 일대에서 식량을 채취하고, 그곳에서 1차 가공을 하여 무게가 나가는 껍데기 등은 버리고 알맹이만 챙겨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 본다.

02

시흥 능곡동 신석기 마을유적과 빗살무늬토기



능곡동 신석기 마을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7년까지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은 서울 암사동 유적이었다. 그런데 이 암사동유적은 마을 전체가 발굴된 것도 아니었고, 시기도 기원전 4,000~3,500년 사이의 신석기시대 전기에 국한되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문화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한계는 암사동 유적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197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줄곧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학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의 신석기문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유적이 시흥 능곡동 유적이다. 이 유적은 2007년 시흥시 능곡동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한 것으로, 과거 해안선에 인접했던 해발 30m의 작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유구로는 말각방형의 주거지 24기가 정형성을 보이면서 확인되었고, 유물은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망치돌, 갈돌, 갈판, 화살촉, 굴지구 등과 같은 석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유적의 연대는 집자리 규모와 형태, 토기의 형식 등에 의거하여 신석기



능곡동 굴지구



능곡동 망치돌, 석촉

시대 중기(기원전 3,600~2,500년)로 추정되었다.

이 유적의 발굴로 신석기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게 되면, 취락의 입지가 하천변의 충적대지에서 해안가의 구릉 지대로 옮겨간 사실, 당시 마을의 구조는 중앙의 공터를 중심으로 20~30호의 가옥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출토유물 중에 어망추와 낚시 같은 어로도구가 전혀 출토되지 않은 반면에, 갈돌과 갈판 그리고 땅을 파기 위한 굴지구掘地具가 출토되어 농경이 생업경제였고 어로는 보조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유물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형태 복원이 가능한 7점의 빗살무늬토기였다. 몸통 전체에 단일의 문양만을 넣은 동일계 문양과 함께, 입술·몸통·바닥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문양을 넣은 구분계 문양도 함께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7점 이상의 완전한 형태를 갖춘 토기가 출토된 사례가 없었고, 구분계와 동일계가 함께 출토되어, 능곡동 출토 빗살무늬토기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신석기 토기가 되었다.

토기에는 인간이 처음으로 터득한 과학적 경험과 지식이 녹아 있다. 흙을 물과 반죽하여 손으로 빚으면 형태를 갖춘 용기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불에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화학적 원리의 이해가 그것이다. 또 흙 반죽에 운모·석영·장석 등의 돌가루를 섞으면 단단해진다는 물리적 지식도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토기는 소조塑造의 지식이 적용된 것이며, 인간이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 이기利器이다. 한편, 빗살무늬토기의 경우 그릇 표면을 캔버스로 삼아 기하학적 문양을 새겼다. 또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태양, 비, 번개 등을 상징하는 것들을 새겨, 농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염원도 담았다.

이처럼 시흥 능곡동 유적이 지닌 고고학적 가치는 높고, 그곳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술적·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발굴 완료 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는 유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최근에 복원된 주거지 몇 기만이 남아 있고, 유적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해설이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유적공원이 지닌 근본적 문제이며 일반인이 발굴유적을 멀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막대한 복원 비용이 투입된 유적공원들이 ‘사장死藏’의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경기도 전체의 유적공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시흥 능곡동 유적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 내용을 대폭 보완·교체하고, 유적을 관리하고 해설할 수 있는 상주인력의 배치를 제안한다.

03

안산 신길동 유적과 이형토기



신길동 신석기 5호 주거지



신길동 출토 신석기시대 유물 각종

신길동 유적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89-1답 일원으로 안산시의 서북부에 해당하며 시흥시와 접하고 있다. 유적은 비교적 평탄한 낮은 구릉상에 입지하며, 유적 주변의 경작지대는 원래 넓은 갯벌을 이루고 있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화 되었다.

신길동 유적은 2005~2007년에 걸쳐 5개 지점을 시·발굴조사하였는데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Ⅲ지점에서 1기, Ⅳ지점에서 23기 등 모두 24기가 조사되었고, 발굴조사 후 선사유적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주거지가 입지한 곳은 해발 18~20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구릉으로, 동쪽에 10기, 서쪽에 13기 두 개의 군으로 분포한 양상을 보이며,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평면 형태는 방형으로 내부에는 중앙에 구덩식 화덕자리 1기와 모서리에 한 개씩의 기둥구멍이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주거지는 화덕자리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도 있으며 4개의 기둥구멍 외에 보조 기둥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빗살무늬토기의 무늬는 배치상으로 볼 때 구분문계와 동일문계로 나눌 수 있으며, 구분문계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분문계토기는 대체로 구연부에 눌러서 짚은 빗금무늬를 새기고 몸통에는 가로생선뼈 무늬, 바닥에는 무늬를 새기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동일문계토기는 가로생선뼈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기의 기형은 일부 바닥이 편평한 토기를 제외하면 둥근 바닥을 가진 포탄형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토기의 무늬와 형태의 특징으로 볼 때 안산 신길동 유적은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며, 절대연대측정 결과로 볼 때 기원전 3,500년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된다. 석기는 42점이 출토되었는데 갈돌, 갈판과 같은 식량가공구가 26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식량 채집구(굴지구, 돌칼 등) 8점, 목제가공구 4점, 기타용도미상의 석기 4점이 출토되었고, 화살촉이나 어망추 같은 수렵어로구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안산 신길동 유적은 직선거리로 약 5km 떨어진 시흥 능곡동 유적과 주거지의 배치형태는 다르지만 주거지의 형태, 토기 형태와 무늬, 석기구성 등 아주 유사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고 절대연대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경기 해안 및 도서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마을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길동 유적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3호주거지와 1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이형토기가 있다. 3호 주거지 토기는 원통형의 아가리와 목, 바둑알 모양의 몸통과 바닥을 가진 특이한 형태로 높이가 8.7cm에 불과한 소형토기지만 무늬를 정성스럽게 새기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 공들여 만든 토기임을 알 수 있다. 바탕흙에는 석면과 활석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단단하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가 다른 유적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어 비교는 어렵지만 의례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16호 주거지 토기는 마치 생수통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몸통 전체에 과상점열문을 촘촘히 새겨 넣었으며, 바탕흙에는 활석과 석면이 포함되어 표면은 단단하고 매끄럽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1~2점 정도로 수량이 아주 적다. 입구가 좁아 물과 같은 액체류를 보관한 용도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토기의 형태와 문양이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여 신석기시대 토기 생산과 유통 관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문자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의 유물은 용도나 기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 방법의 눈부신 발전과 자료증가에 힘입어 선사시대 문화상을 밝히는데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04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신석기시대 유적의 특징



호평동 지새울 신석기 주거지와 야외노지,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유적이 대부분 강이나 하천의 충적지 또는 그 주위의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유적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한강의 지류인 왕숙천과 만나는 사능천 주변으로 사능천 최상류 계곡부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입지환경은 깊은 내륙산간에서도 신석기인들의 활동범위가 매우 넓었

음을 의미한다.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3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을 띠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노지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위석식노지, 수혈식노지, 적석식노지가 출토되었는데 이처럼 호평동 유적에서 노지의 형태가 다양한 것은 당시 살림살이에서 노지의 형태에 따라 쓰임새가 각기 달랐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거지 주변으로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는 다량의 숯과 탄화된 도토리가 찾아졌다. 신석기시대 주요 식량자원이었던 도토리는 큰 강이나 바닷가와 떨어진 내륙에서는 중요한 먹거리였을 것이다. 도토리는 가을에 쉽게 얻을 수 있으나 독특한 떫은 맛 때문에 가공공정을 거쳐야 무리없이 먹을 수 있다. 즉 떫은맛(타닌)을 제거하기 위해 며칠동안 물에 우려내거나 삶거나 불에 한 번 굽는 방법을 쓴다. 금강유역의 진안 진그늘 유적에서 적석유구의 잔존지방산분석을 참고할 때 적석유구는 도토리 껍질을 벗기고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굽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점으로 볼 때 호평동 신석기 유적에서 출토된 노지와 수혈들은 도토리 가공을 위한 유구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물의 양은 많지 않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지만 석기에서 특별한 양상이 관찰된다. 주로 출토된 석기는 편석기로 주변의 맥석영을 이용해 간단히 떼어서 만든 고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흔적들로 보아 무엇



지세울 유적 출토 도토리

을 찢거나 자르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호평동 유적과 같은 한강유역 구릉에 위치한 유적들에서는 이러한 석영제 고석들이 다수 출토되지만 호평동 유적에서는 다른 유적과 달리 편암을 이용한 따비가 한점도 출토되지 않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석영제 고석이 출토된 한강유역의 유적으로는 광주 신대리 유적, 양주 옥정동 유적, 시흥 광석동 유적, 인천 검단 유적 등에서 확인되며 이들 모두는 구릉상에 위치한 1~3기의 독립주거지유적으로 남양주 호평동 신석기유적과 같이 도토리 채집을 위한 목적을 가진 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고된 원반형 석기에는 움푹움푹 파진 흔적들이 관찰되는데, 도토리나 다른 씨앗을 놓고 고석으로 찢을 때 남겨진 흔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반형석기에 대해 중국 신석기 유적에서는 지름 10cm이상의 것은 나뭇가지를 치는 농사용도구로, 10cm이하는 팔매돌과 같이 공격용 무기로 보기도 하지만 호평동 유적과 같은 흠은 확인되지 않아 연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호평동 지새울 신석기유적은 큰 강과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라고 작지만 수량이 풍부한 개천이 흐르고 도토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신석기인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There is a paucity of data on the epidemiology of *S. flexneri* in the United Kingdom. In the 1970s, *S. flexneri* was the most commonly isolated serotype from patients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in the United Kingdom [12]. In the 1980s, *S. flexneri* was the most commonly isolated serotype from patients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in the United Kingdom [13]. In the 1990s, *S. flexneri* was the most commonly isolated serotype from patients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in the United Kingdom [14].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In the 1990s, the incidence of *S. flexneri* has increased in the United Kingdom [10]. In the United States, *S. flexneri*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common serotype in children with acute bacterial dysentery [11].

3부

경기도 청동기문화의 저수지가 되다.

01

광명 가학동 고인돌



가학동 고인돌 복원 전경(좌), 출토 석기류(우)

광명 가학동 고인돌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104번지 일대로, 광명시의 최남단지역인 별말에 해당한다. 별말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이 고인돌을 ‘장사 바위’로 불려왔다. 당초 6기로 알려진 고인돌은 조사 결과 최대 10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덮개돌이 유실되어 원래 모습은 잘 알 수 없다. 현재 5기가 복원되어 있다.

광명 가학동 고인돌은 1996년부터 1997년 까지 한양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유적으로, 인근의 시흥 조남동·계수동 고인돌과 함께 경기남부 지역에서 많지 않게 발견된 탁자식 고인돌 중의 하나이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한반도에는 약 3만 기가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는 약 700기가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500기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인돌의 형식은 크게 탁자식, 개석식, 기반식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광명 가학동 고인돌은 이 중에서 탁자식에 해당한다. 탁자식 중에서도 덮개돌에 비해 꺾돌의 높이가 상당히 낮은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형식을 알 수 있는 고인돌 중 약 15%가 탁자식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석식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반식 고인돌은 호남과 영남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반면 한강유역 중심의 경기지역에서는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 점에서 지역적 차이점이 찾아진다.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비율은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도 경기지역은 한반도의 점이지대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의 입지는 주로 평지나 구릉 및 산의 마루나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산이나 구릉의 입지 비율이 평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더욱이 산과 구릉에 입지한 경우 비교적 먼 곳까지 시야가 확보되는 조망권이 유리한 곳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인돌이 무덤으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멀리서도 바라보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기념물로서의 성격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주위에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고인돌의 방향을 물줄기의 흐름과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축조하였다는 견해도 일찍부터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광명 가학동 고인돌유적도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구릉의 마루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목감천의 지류인 가학천이 흐르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고인돌유적이 입지한 곳은 터골산 북쪽의 동서로 이어진 구릉 마루에 해당하는데, 이 곳은 마치 ‘말안장’ 모양과 비슷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경기지역의 평택 수월암리 고인돌유적과 유사하다.

광명 가학동 고인돌의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과 나란하게 2줄로 조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고인돌의 방향성과 같다. 덮개돌은 길이 2m 내외이고,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삼각형 두 가지로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고인돌의 내부 및 주변에서 토기 아가리에 구멍이 뚫린 구멍무늬토기[공렬토기], 돌화살촉, 반달돌칼, 간돌검 조각 등이 나왔다. 습베가 있는 돌화살촉은 모두 1단으로 제작되어 있어 청동기시대 중기를 전후한 시기에 고인돌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1호 고인돌 아래에서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이 곳이 무덤 공간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미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단독으로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인돌 유적 일대에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광명 가학동 고인돌은 경기지역에서 군집을 이룬 고인돌의 조사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개석식과 탁자식이 혼재되어 있는 다른 군집 고인돌 유적과 비교할 수 있는 점, 한반도의 점이적 위치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탁자식 고인돌로서 한반도의 지역적, 형식적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점, 향후 11호 고인돌 아래의 집자리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조사될 경우 고인돌의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유리한 점 등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큰 바위를 신성시하는 토속 민간신앙이 사라져가면서 고인돌과 마을이 사라지고 공동체라는 연대감이 사라져간다. 그 위에 ‘도시’라는 부동산과 ‘우리

것'이 아닌 '내 것'만 중시되는 현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수많은 분쟁과 범죄를 양산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고인돌이 내 땅 위의 '바위'가 아닌 우리의 '기념물'로 인식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경기지역 고인돌은 타 지역의 그것에 비하여 한 유적 내에서의 군집의 수, 고인돌 자체의 크기, 출토유물의 품격 등에서 열세이다. 또 경남 지역에서 최근 들어 조사되는 묘역을 갖춘 대형의 고인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영남지역과 같은 대형의 방어용 환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진주 대평리 유적과 같은 대규모 청동기취락이 아직 발굴되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의 관점에서 이런 '규모에 있어서의 격차'의 이유를 밝히고자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아직은 없었다고 본다. 향후 경기도의 선사시대를 좀 더 생생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02

여주 혼암리 선사유적과 혼암리식 토기



혼암리 유적 청동기시대의 혼암리식 토기(좌)와 한성백제기의 여(呂)자형 주거지

고고학에서 유적이나 유물의 이름을 지을 때 처음 발견된 곳이나 가장 대표적인 장소를 본 따서 명명하기도 한다. 청동기시대의 가락동식 주거지, 역삼동식 토기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소개할 혼암리식 토기도 여주 혼암리 선사유적(경기도 기념물 제155호)에서 확인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혼암리식 토기는 겹아가리에 구멍무늬와 빗금 장식이 있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 양식을 말하며, 분포는 금강 중상류를 제외한 남한 전역은 물론 제주도까지 이른다. 여기서 토기의 아가리 부분 즉 입술 주변을 돌아가며 구멍을 뚫

은 스타일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방의 토기 양식이므로, 혼암리식 토기의 속성 중의 일부는 동북지방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한강 유역 신석기 문화에 동북지방의 영향이 크게 확인되지 않는 점과 혼암리식 토기의 시작이 청동기시대 전기인 사실을 연결할 때, 양 지역 사이의 문화 교류는 청동기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성백제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여_ㅁ자형·철_ㅁ자형 주거지가 있다. 구조적으로 네모난 주거지의 입구를 돌출시켜 출입시설이나 부속실을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며, 주거 내부에는 난방과 조리를 위한 터널형 노지_ㅁ를 갖추고 있다. 이들 주거지도 중국 길림성 동부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들도 그곳의 토기 스타일과 연결되고 있다.

이렇듯 경기 문화의 형성에는 두만강 유역과 연해주의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문화의 전파는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이 구획한 6대로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흥대로_ㅁ(한양에서 함경도 경흥까지의 대로)와 엇비슷했을 듯하다. 그 이유는 근대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 한강유역에서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북상하여 철령을 넘어서 동해안을 끼고 두만강 유역으로 가는 길이 인마_ㅁ와 물자_ㅁ의 이동에 가장 적합한 교통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구려의 북쪽 세력인 말갈도 이 길을 통하여 백제를 노략질하려 왔고, 진흥왕도 한강 유역을 점령한 다음, 이 교통로를 따라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한편, 경기도에 살았던 선사와 고대 사람들은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문화(혹은 초원문화)의 영향과 함께 서북지방을 경유한 요녕 지방의 문화도

받아들였으며 발해만을 통하여 중국 중원의 문화도 수용했다. 그리고 이들 문화를 융합시켜 ‘한강 스타일’을 만들어 한반도 남부로 파급시켰다. 이처럼 경기 지역은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드는 결절지結節地(문물이 집중되는 곳)였고 새로운 문화의 생산지生産地였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의 공급지供給地였다. 인체에 비유하면 심장이었고 차바퀴로 말하자면 허브였다. 지방시대가 열리면서 자기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자 지역학이 발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의 고유성 즉 ‘경기성京畿性’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성에 선사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문화의 허브’로서의 경기도의 특성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륙문화뿐만 아니라 북방의 초원문화가 유입되어 경기지역의 문화원형이 되었던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03

안양 관양동 유적



관양동 유적 전경

안양 관양동 유적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 15번지 일대에서 확인된 청동기 시대 유적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였던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정에서 확인되어 조사하였다.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인덕원 사거리의 북서측(인덕원역 8번출구 방향) 산 지이며, 관악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최말단부 중 남사면(해발 57~64m)에 해당된다. 발굴조사 지역은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원지형의 훼손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남쪽에는 동→서 방향

으로 흘러 안양천으로 합수되는 학의천이 위치하고 있다. 관양동 유적은 전면
에 하천이 위치하는 완만한 가지능선의 남사면이라는 유리한 입지조건과 지형
의 훼손이 적어 유적이 잘 남아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는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석기시대~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으나 유적의 중심은 수혈주거지
8기와 수혈구덩이 4기가 확인된 청동기시대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 3기, 장방형 3기, 삭평되어 평
면형태를 알 수 없는 2기이고 방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중앙 장축선상을 따라 화덕자리 1~3개소가 있으며, 한쪽 단벽에 치우쳐 저장
공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중심 주공이 확인되며, 벽가 주
공은 2호와 8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수혈구
덩이는 한번의 길이가 2m를 넘지 않는 소형의 것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계통
이며, 내부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류는 호형토기와 중형 및 소형의 심발형토기, 굽다리토기 등으로 구
성된다. 호형토기는 직립한 구연에 동체 중상단에서 최대경을 갖는 형태이며,
굽다리토기는 짧고 두툼한 굽다리에 얇은 투공이 된 형태이다. 심발형토기에서
확인되는 문양요소는 구순각목공렬, 공렬, 구순각목 등 역삼동식토기의 형태를 나
타내며 무문의 심발형토기도 확인된다.

석기류는 석창, 이단경축·삼각만입촉·
일단경축, 합인석부(원통부·사릉부), 단인
석부(대패날석기·석착), 주형석도, 갈판, 갈
돌, 원반형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관양동 유적 갈돌과 갈판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시기구분은 ‘미사리유형’·‘가락동유형’·‘혼암리유형’·‘역삼동유형’ 등의 여러 문화유형이 혼재하는 전기前期와 ‘역삼동유형’ 위주로 확인되는 중기中期로 나눌 수 있는데, 관양동유적은 유구와 유물의 구성으로 보아 주로 중기의 ‘역삼동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에 관양동유적이 조사될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 남서부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조사된 예는 부천 고강동, 군포 대야미동, 화성 천천리, 평택 현화리, 평택 지제동 정도로 많지 않았다. 이에 관양동유적은 비슷한 시기에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조사된 시흥 계수동, 수원 율전동, 용인 봉명리, 용인 죽전 대덕골 유적과 함께 자료 및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지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완료 후 주거지 2기를 복원·전시하였다.

유적은 폭 15~18m 정도의 상수도관 매설부지(약 1,790㎡)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주변지역으로 더 많은 유구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도 지역 대형 청동기시대 유적이 개발로 인하여 기록보존만 하고 멸실된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관양동유적은 원형이 잘 보존된 청동기시대 취락이라는 점에 문화재적 가치가 남다르다. 특히 과천과 의왕, 그리고 안양의 도심에 지척에 두고 있고 있기에 향후 부분적인 발굴을 거쳐 유적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04

수원 금곡동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유물



금곡동 화재 집자리



금곡동 집자리

선사시대 집자리는 일정 깊이로 땅을 파서 집을 짓는 반움집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반움집의 구조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장점을 갖지만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청동기시대에도 이러한 반움집의 전통이 이어져 오지만 지역과 시기 마다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며 변화한다.

예를 들어 집자리 평면형태의 흐름을 보면, 중부지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에는 주로 방형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 시기에 장방형으로, 다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장방형(좁고 긴네모꼴)으로 바뀐 후 다시 장방형으로 변화한다.



금곡동 유적 출토유물

이 장방형은 또다시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순환’이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수원 금곡동 유적은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집자리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국토지공사의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호매실택지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하였는데, 청동기시대 유적이 입지한 곳은 권선구 금곡동 409-1임 일원으로 해발 50m 내외의 야트막한 언덕이다.

조사된 집자리는 모두 21기로, 평면형태로 보면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길이가 최소 7m에서 최대 15m까지, 너비는 최소 2m에서 최대 4m까지 다양하다. 집자리 바닥에서는 화덕자리, 기둥구멍, 저장구덩이, 벽구시설, 작업구덩이 등이 확인되었다. 화덕자리는 집자리 바닥을 얇게 파내고 사용한 것과 바닥 위에 그대로 불을 뿜 두 종류로 집자리 중앙에 일정 간격을 두고 1열로 확인된다. 기둥구멍은 화덕자리와 같이 중앙 축선상에 있는 중심 기둥구멍과 벽쪽에 붙어서 확인되는 벽가 기둥구멍이 있다. 저장구덩이는 주로 모서리나 단벽에 조성하였는데, 3호 집자리의 저장구덩이들 속에는 토기가 그

대로 세워진 채 발견되어 흥미롭다. 경기지역에서 토기가 저장구덩이에 속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가평 달전리, 평택 소사동, 오산 내삼미동, 화성 천천리 유적 등이 있으며, 특히 시흥 계수동, 오산 내삼미동, 화성 동학산 유적의 일부 집자리에서는 저장구덩이 속에 토기가 거꾸로 박힌 채 출토된 바 있다.

금곡동 3호 집자리와 같이 저장공 속에 토기가 남겨진 채로 폐기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거꾸로 토기를 얹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로 생각한다.

금곡동 유적 출토유물은 크게 토기와 석기로 구분된다. 토기는 민무늬토기인 바리와 항아리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토기의 입술 또는 아가리에 새긴 무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곡동유적의 토기무늬는 구멍을 뚫은 ‘공렬문’, 입술에 눌러 찍은 ‘각목문’으로 대표되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구순각목공렬문’이 주로 새겨진 무늬이다. 청동기시대 한강유역에서는 구순각목공렬문 이전에 돌대문, 이중구연, 단사선, X문, 단종선 무늬가 성행하였고, 이후에는 이 두 가지 무늬가 해체되어 각목문만 남거나 공렬문만 남고 마지막에는 무늬가 사라져서 순수하게 민무늬화 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석기는 반달돌칼, 갈판, 갈돌, 숫돌, 대롱옥, 가락바퀴, 돌도끼, 간돌검, 돌화살촉 등이 있다. 간돌검은 손잡이를 2단으로 만든 ‘이단병식’, 손잡이 양측에 홈을 낸 ‘유구식^{有溝式}’이고, 돌화살촉은 스페가 1단인 ‘일단경식’, 2단인 ‘이단경식’과 밑이 삼각형 모양으로 홈이 패인 ‘삼각만입’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양상을 종합해 볼 때 금곡동 유적은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원 금곡동 유적 3호 집자리와 12호 집자리에서는 화재로 인해 바

닥에 불탄 목재와 탄화물이 그대로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집자리의 구조 및 생활상의 복원 활용이 가치가 크다. 또한 2호 집자리는 폐기되고 난 후 움이 어느 정도 매몰된 이후에 얇은 구덩이를 재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어 최근의 사례들을 모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는 재사용의 용도도 궁금 하지만 큰 시차를 두지 않고 같은 장소가 반복적으로 점유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원 금곡동 유적은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한 수원 서둔동·이목동·율전동, 화성 천천리 유적과 함께 도시화된 수원지역의 청동기시대 마을 경관을 가늠할 수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자료이다. 더욱이 이 일대에서 20기 이상의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한 곳에서 발굴조사된 경우는 금곡동 유적이 유일하다.

05

안성 반제리 유적과 환호



반제리 유적 전경

안성 반제리 유적은 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음성간 도로건설 공사구간에서 확인되어 2004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원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총 13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 고고학계로부터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점토띠토기문화

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 유적이다.

안성 반제리 유적이 중요하게 평가된 이유는 가장 먼저 환호와 목책열의 존재, 그리고 환호와 취락이 동시에 확인된 점, 두 번째로 초기철기시대 집자리 72기가 한 유적에서 발견된 점, 세 번째로 생활유적과 무덤이 같이 나온 점이다. 환호의 기능에 대해서는 방어, 경계, 의례 등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안성 반제리유적은 기존에 발견된 환호 유구보다도 특히 의례나 경계, 즉 제의적 면모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 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제리 유적에서 가장 높은 곳의 지형은 두 개의 봉우리 및 봉우리를 잇는 완만한 능선을 가지고 있어 마치 낙타의 등 모양과 비슷한 말안장 모양을 하고 있다. 환호는 이 중에서 높은 봉우리인 매봉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고, 집자리는 이 두 봉우리를 에워싸듯이 조성되어 있다. 환호의 평면 형태는 봉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원형에 가깝고 내부의 지름은 약 38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경기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초기철기시대 환호는 부천 고강동, 화성 동학산, 수원 율전동, 오산 가장동, 오산 청학동, 화성 정문리 유적이다. 이들 환호는 작은 봉우리를 에워싼 규모가 작은 것과 구릉의 상단부 전체를 둘러싼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경계와 의례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만, 작은 환호는 환호 유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 공간을 신성한 공간 또는 종교나 제사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천 고강동 유적이 있었는데 중부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자료가 없었던 차에 안성 반제리유적이 발굴되면서 다시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반제리 유적 원형점토띠 토기(상) 검은 간토기·두형토기(하)

더불어 환호의 서쪽 내부에서 20개의 작은 구덩이로 구성된 반원형의 목책열이 찾아진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초기철기시대 환호에서 이러한 목책열이 찾아진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긴 장대를 땅에 박고 그 끝에 깃과 같은 장식을 달아서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표징을 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점토띠토기문화의 유적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자리의 숫자가 적게 발견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하나의 마을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되어 왔었다. 그런데 안성 반제리 유적에서 집자리가 72

기가 발견되면서 점토띠토기문화기의 마을 연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점토띠토기문화 유적에는 삶의 공간이 집자리와 죽음의 공간인 무덤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강릉 방동리, 합천 영창리 유적의 예가 있지만 방동리 유적에서는 무덤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합천 영창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자리가 잘 남아있지 않아 한계를 가진다.

안성 반제리 유적에는 구릉의 남쪽 사면부인 해발 67~73m 사이에서 3기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 옹형의 원형점토띠토기와 검은간토기가 세트로나 오거나 검은간토기만 단독으로 나왔다. 집자리 간의 중복, 환호를 파괴하고 조성된 집자리 등을 볼 때 안성 반제리유적은 단일 시기의 마을은 아니다.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이지만 이 무덤과 같은 시기의 집자리를 찾게 된다면 당시 마을의 경관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안성 반제리 유적은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수의 원형점토띠토기 단계 집자리가 발견된 유적임과 동시에 제의 공간으로 추정되는 환호가 반원형의 목책열과 함께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고고학계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06

화성 정문리 환호유적



정문리 환호유적 원경

화성 정문리 환호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단계의 이중환호, 고려~조선시대의 주거지 등 모두 3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구릉 정상부에 조영된 이중환호가 유적의 중심이다. 유적은 해발 38m의 독립된 구릉지로 동쪽으로는 황구지천과 진위천이 합류해 남쪽으로 흘러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는데 이중환호가 위치하는 구릉의 정상부는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유리한



환호 내 집석부



정문리 환호 출토유물

입지이다.

정문리 이중환호는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을 감싸고 조영되었으며, 남아 있는 형태로 미루어 보아 출입시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환호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전체 규모는 환호의 바깥을 기준으로 길이는 52m, 추정 너비는 43m 가량이다. 안쪽 환호의 바닥 6곳에 크기 30cm 내외의 작은 할석들이 다량 노출되었는데 특히 출입구에 가까운 끝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작은 할석이 노출된 부분에서 원형점토대토기 파편과 목탄이 포함된 소토가 다량 확인되었다. 환호의 내부공간은 길이 36m, 추정 너비 26m이며, 면적은 750m² 가량으로 공지空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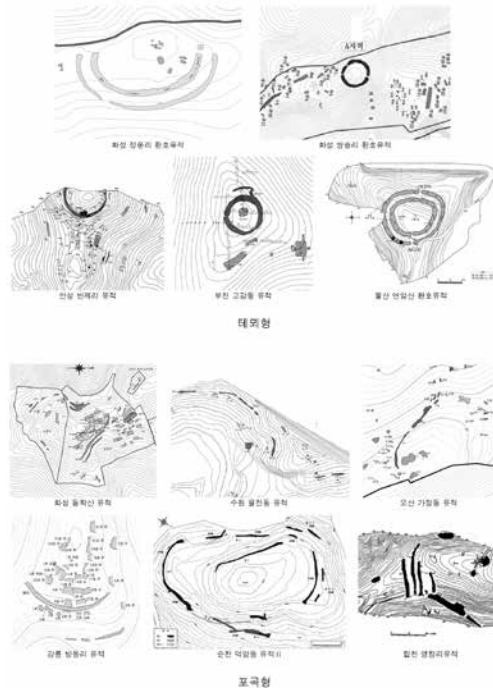
환호는 1줄로 돌아가는 단독 환호와 여러 겹이 확인되는 다중 환호로 구분되며, 산과 구릉의 정상부만 감싸고 있는 테괴형과 정상부 외에도 곡간부를 포함하는 포곡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테괴형 환호유적은 정문리 이중환호, 화성 쌍송리 유적, 안성 반재리 유적, 부천 고강동 유적, 울산 연암동 환호유적 등을 들 수 있는데 울산 연암동은 이중환호로 정문리 이중환호와 가장 유사하

며, 나머지는 단독환호이다. 포곡형 환호유적은 화성 동학산 유적, 수원 읍전동 유적, 오산 가장동 유적, 강릉 방동리 유적, 합천 영창리 유적, 순천 덕암동 유적 등이 있다.

정문리 이중환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환호유적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산과 구릉 정상부의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 유리한 고지에 위치한다. 둘째, 환호 내·외부에 수혈을 제외한 환호와 관련된 주거지 등의 유구가 없고, 내부공간에는 석축, 알바위, 자연암반이 제단시설로 이용되거

나 공지^{空地}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환호 바닥에서는 의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파쇄된 토기편 매납, 다량의 목탄을 포함하는 소토면 그리고 집석부 등이 확인된다. 넷째 청동기시대 전기에 조영된 유적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집중적으로 조영되는 점이다. 이러한 환호유적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고지성 환호는 천신의례 등과 관련된 제장^{祭場}이었을



환호유적의 다양한 형태

것으로 생각된다.

환호유적의 출토유물은 구연부 내면이 짧게 외반하는 원형의 점토대토기, 구연부가 직립·외반하는 흑도장경호, 조합식 우각형파수 등의 유물 조합상이 확인되는데, 안성 반제리, 화성 동학산, 수원 울전동 등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정문리 이중환호는 유물의 조합상이 다양하지 않고, 시기차가 크지 않으며, 유구의 수축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걸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토유물로 본 정문리 환호의 연대는 B.C. 5C 이전으로 비정된 안성 반제리 유적 보다는 후행하며, 수원 울전동 유적과 화성 동학산 유적과 유사한 시기로 청동기시대 후기인 B.C. 5C~4C에 조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정문리 이중환호에서 채취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AMS) 측정 결과가 B.C. 6C~4C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과도 부합한다.

청동기시대 후기(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정문리 이중환호는 시야가 탁트인 구릉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테괴형으로 경기지역 환호유적의 세분된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주변 환호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의례행위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파악됨에 따라 원형점토대토기 시기의 환호 유적들이 천신의례 관련 제장祭場일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07

화성 동학산 고지성 취락과 초기철기시대 환호



동학산 유적 전경

화성 동학산 유적은 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산154-2번지 일원이며, 정상부 해발 122m에 이르는 동학산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삼성전자에서 시행한 화성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2000년에 한신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2003~2004년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총 10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확인된 청동기시대 집자리 44기 및 초기 철기시대 환호가 주목된다.

동학산 유적의 지형은 중앙에 해발 122m의 정상부를 기점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성 산지이다. 북쪽으로는 정상보다 10m 정도 낮은 봉우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정상부에서 이어지는 완만한 능선부가 형성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두 군데로 나뉘어 분포하는데, 북쪽 봉우리 부근과 남쪽에 위치한 구릉 능선부를 중심으로 확인되며, 해발고도 100~120m 사이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마을은 일반적으로 하천변이나 해안 또는 나지막한 구릉과 산지에 입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지막한 구릉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해발 100m 이상의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간혹 확인된다. 경기지역에서 이 정도로 높은 곳에 청동기시대 집자리가 조성된 곳은 하남 덕풍골, 부천 고강동, 화성 고금산, 여주 혼암리, 안성 반제리, 남양주 호평동, 수원 율전동 유적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수십기 이상의 집자리가 확인되어 하나의 마을 단위로 볼 수 있는 유적은 소수에 불과해서 화성 동학산 유적은 총 44기가 확인된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화성 동학산 유적은 집자리의 중복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 시기의 마을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점유되었던 곳이나 하나의 마을 단위였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 유적을 ‘고지성 취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청동기시대에는 왜 고지성 취락을 조성할까?



동학산 집자리



동학산 환호 평면과 단면, 유물 출토 상태

그리고 이러한 마을의 조성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고지성 취락을 조성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또한 산지에 마을이 들어선 데 대해 수렵과 채집이 중요시되었던 시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산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나무, 땔감의 공급과 식량자원의 채집 및 수렵에 유리하다. 또한 방어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산의 정상부는 일반적으로 급경사면과 완사면을 가지므로 완사면의 경계에만 집중하면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산의 정상부가 가장 멀리 시야가 확보되는 점, 위에서 아래로 공격할 수 있는 점은 방어의 측면에서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방어의 대상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맹수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한편 화성 쌍송리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소형의 환구 유구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환구는 작은 구릉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어 부천 고강동의 적석환구유구 및 안성 반제리의 환호와 마찬가지로

초기철기시대의 제의유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화성 동학산 유적에서도 청동기시대 집자리를 파괴하고 조성된 초기철기시대 환호가 확인되었다.

환호는 수원 울전동 유적에 이어 확인된 다중의 환호로 주목받았는데 남동쪽의 완만한 정상부를 감싸듯이 모두 4열로 조성되었으며 파괴가 심해 출입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 공간에서 거주나 생활 흔적이 나오지 않아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로 본다면 화성 동학산 정상부는 청동기시대에는 고지성 취락이 있었고, 초기철기시대에는 환호가 중심이 되는 제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성 동학산 유적에서 확인된 고지성 취락은 어떤 목적에서 조성된 것일까? 방어일까? 생업경제일까? 아니면 제사를 포함한 복합적인 것일까?

청동기시대 중기에 접어들면 고지성 취락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농경지에 대한 접근성이 유리한 쪽으로 입지가 변화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초기철기시대에 주로 발견되는 높은 곳에서의 제의 흔적이 화성 쌍송리와 같이 청동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확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지역에서 화성 동학산 유적 조사이전에 산 정상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소수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 즉 취락의 단위로 해석하기 보다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만 언급되었지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 동학산 유적 조사성과로 청동기시대 고지성 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유적을 확보하게 되었고, 취락 연구에서 산 정상부 입지에 대한 연구가 재개되었

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또한 같은 장소를 두고 이후 초기철기 시대에도 계속 점유되었다는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볼 때 ‘가장 높은 곳’에 대해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하였으며,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앞으로 고고학자가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한다.

화성 동학산 유적이 초기철기시대 연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동착 거푸집이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착 거푸집은 전남 영암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으나 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은 화성 동학산 거푸집이 최초이다. 이후 덕동 유물산포지에서 동추와 동착이 함께 새겨진 거푸집이 수습되었으나 파손품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알기 어렵다. 남한에서 초기철기시대 청동제품이 확인된 것도 드물지만 청동제품

을 직접 생산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인 거푸집이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연유로 동학산 유적은 동착 거푸집은 가치있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더불어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경기지역 뿐만아니라 남한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학산 동착 거푸집

08

평택 토진리 유적의 화장묘



평택 토진리 화장묘 전경



화장묘 세부(상), 마제석검 출토상태(하)

석관묘(돌널무덤)는 고인돌, 석개토광묘, 옹관묘와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으로 중국 동북지방, 한반도, 일본 등 폭넓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보이고 출토유물도 차이를 보인다. 중국 요녕성 지역의 까양싸양 유적에서는 장방형의 적석묘역 내에 판돌로 축

조된 전형적인 석관묘가 조사되었으며, 석관내부에서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다양한 청동기와 함께 각종무기,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압록강의 강계 풍릉리 석관묘는 피장자의 머리 쪽이 넓고 발쪽이 좁은 두광축협식이며, 유물은 청동단추, 흑도장경호가 출토되었다.

평택 토진리 유적에서 출토된 석관묘는 구릉 정상부의 기반암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석관은 석영제 자연판석 5매로 만들었으며, 굴광과 석관 사이에 돌을 채운 형식으로 한변이 불과 50cm내외에 불과한 소형이기에 주목된다. 특히 석관묘와 접한 북쪽에서 소토층이 확인되어 흥미롭다.

석관묘의 장축은 남-북방향으로 석관 내부와 소토층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다. 인골은 사지골(四肢骨) 일부로 확인되었으며 두께가 불에 의해 얇아졌음을 감안하더라도 4mm이상이어서 성인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뼈파편의 피질표면에서 균열이 확인되어 화장골(火葬骨)임이 판명되었는데 표면이 백색의 석회질을 띠고 있어 700~800℃정도의 열에 의해 노천에서 화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노천에서 성인을 화장한 후 인골과 솥을 소토층에 옮기고 다시 뼈만 선별하여 석관묘 내부에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석관묘 내부에서 석촉과 석검 1점씩이 출토되었다.

경기지역에서 화장묘는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광주 역동 유적, 안산 선부동 유적에서 확인되었지만, 소토층과 같이 확인된 예가 없어 평택 토진리 유적은 더욱 주목된다. 한편 진주 남강유적에서는 확인된 석관묘는 길이 80cm, 너비 25cm이며 석관 주위에 보석(補石)이 깔려 있고,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여 비교의 대상이 되나, 분석결과 5세 전후의 소아가 매장된 것으로 판명되어 토진리 석관묘와 차이를 보인다.

09

오산 가장동 알바위 제사유적과 환호



가장동 유적 전경



가장동 알바위 제사유적



알바위 제사유적 바위 틈에서 발견된 돌도끼

제사를 지낸다. 가족이 모여 죽은 조상을 기억하면서 집안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일년 내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술을 따라 올리면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뒷동산에 모여서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며 함께 지내기도 한다.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쯤 전의 청동기 시대 말기 또는 철기시대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냈을까?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철기시대 사람들의 제사와 관련되는 유적과 유물이 오산 가장동에서 확인되었다.

오산 가장동 제사유적은 가장동 산 23번지 일원의 해발 80m 내외의 구릉성산지 평탄면과 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이 유적은 2005년과 2006년에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였는데, 청동기시대 유구로는 집터와 움구덩이 13기, 도랑 유구 2기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로는 돌도끼 1점을 비롯하여 원형점토 대토기의 아가리 조각, 굽다리토기豆形土器의 몸통과 굽다리 조각들, 조합식우각형토기손잡이 조각, 가락바퀴, 무문토기 아가리와 바닥 조각 등 다량의 토기 조각들이 수습되었다. 이런 청동기시대 유구 이외에도 신석기시대 구덩이,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고려시대 석곽묘·토광묘, 조선시대 토광묘·회곽묘 등이 발굴되었다.

이들 유구 중에서도 구릉 꼭대기에 있는 여러 개의 자연 암반과 점토대토기가 다량 확인된 도랑유구는 제사행위가 이루어졌던 특별한 공간으로 판단된다. 보고지는 오산 가장동유적에서 드러난 현상, 즉 연속성과 규칙성이 부족한 환호가 확인된 점, 제사용으로 추정되는 굽다리토기가 다량 확인된 점, 완전한 형태의 그릇이 확인되지 않고 그릇을 깨뜨려서 뿌린 것 같은 토기 조각들이 다

량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훼손·폐기 등의 의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환호 내부에서 주거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토기 조각이 매납된 수혈 유구가 다량 확인되는 점, 인접한 봉우리에 신앙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알바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사^{祭祀}유적으로 추정했다.

알바위 제사유적은 가장동 유적 구릉 정상부의 알바위라 불리는 자연 바위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에서 석부^{石斧} 1점이 채집된 것도 흥미롭다. 환호와 더불어 자연 바위군도 의례행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오산 가장동유적 환호의 성격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의례 행위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적의 발굴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암반의 바위 틈에서는 간돌도끼 1점이 찾아진 점이다. 이 간돌도끼는 주변에 알바위가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제사행위와 관련된 수혈유구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신앙적 목적을 지닌 의례 행위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알바위 제사유적 주변에서는 신석기시대의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신석기시대에 알바위를 중심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의 행위가 있었던 신성한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랑유구^{溝狀遺構}는 폭이 96~164cm이며 깊이는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50cm 되는 도랑의 길이가 60여 m 가량 남아 있는데, 경기지역의 유사사례를 참고할 때 환호유구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지형과 삭평된 부분을 감안하면 원래 환호의 모습은 타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환호에서는 아가리에 점토피를 돌려 붙인 점토대토기와 굽다리토기^{두형토기}, 파수달린 토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환호 내부에서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은 데에 비하여 토기편들이 다량으로 묻힌 부정형의 대형 수혈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제사와 의례 관련

행위가 이 환호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청동기시대에는 삶의 방식이 다원화 되고 철기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사회가 더욱 복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은 살림살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제사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나 철기시대의 마을 경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의례 공간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마을을 감싸는 환호環濠가 만들어졌던 청동기시대 중기와 달리 환호가 구릉의 정상부 또는 그곳에 가까운 고지대에 마련되는데 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의 제사를 지냈던 의례용 환호일 가능성 높다.

가장동 제의유적은 조망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며 살림살이 공간인 집터가 있는 공간들과는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도랑)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상 생활의 공간과 제의와 같은 특수한 행위를 위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분리시킨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한편, 오산 가장동유적의 환호와 비교되는 유구들이 화성 동학산유적, 안성 반제리유적, 수원 울전동유적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공간 역시 의례공간으로 파악된다. 특히, 안성 반제리유적에서도 환호 내부의 구릉 정상부에 커다란 자연 바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오산 가장동유적과 매우 흡사하며 비교되는 자료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화성 동학산 제사유적이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대단위 제사유적이라면, 오산 가장동 제사유적은 분지형 지형의 나지막한 구릉에 있으며 규모도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10

하남 덕풍골 제의 유적



덕풍골 제의 유적 전경



덕풍골 제의 유적 계단시설

하남 이성산의 덕풍골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 꼭대기의 커다란 바위 아래 모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이들은 흰옷을 입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서서 모두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연신 손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질러댔다. 어떤 때는 모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큰 절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제사지내는 모습을 연상하여 서술한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제사 유적이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05년 5월 세종대박물관이 청동기시대에 제사 의식을 치른 곳으로 보이

는 바위 유적을 하남시 ‘덕풍골’ 야산 정상에서 확인하였다. 바위 유적은 자연 암반 위에 큰 바위 3개가 가운데와 가장자리에 얹혀 있는 상태이고, 주변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들이 흩어져 있다.

제사바위 유적은 산능선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 자연상태의 암반, 즉 큰 바위덩어리들이다. 바위제사유적 큰 바위(동서 18m, 남북 16m, 높이 6m)와 그 위에 얹힌 3개의 바위로 덕풍골유적은 산능선의 꼭대기에 솟은 여러 개의 커다란 바위를 숭배하던 유적이다. 특히 바위 남쪽면에 인공적으로 바위를 깨뜨려 내는 방식으로 가공해 만든 3단의 계단시설도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단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다. 1단은 너비 2.4m, 높이 1.2m이고, 2단은 너비 1.2m, 높이 0.4~0.6m, 3단은 바닥이 편평하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는데 너비 2.5~3m, 높이 1.3m로 마련되어 있다. 2006년 조사에서는 계단 시설 위의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인공적으로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석축시설과 아마도 제물(祭物)을 올려 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판자돌이 1개 찾아졌다.

바위 틈 곳곳에서 청동기시대의 전형적 토기인 민무늬토기조각 등이 발견되었고, 그 주변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조사단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조사단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 구멍무늬토기와 거친 빗살무늬 새김 민무늬토기, 반달모양 돌칼 등의 출토유물에 주목해 바위 유적 또한 이 시대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바위 유적 주변 구릉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가 발굴되었는데, 바위 유적에서 제사를 지낸 집단들의 거주지로 추정된다.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로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

기조각^{孔列土器片}, 흙으로 빚은 길쭉한 그물추, 돌도끼, 흙자귀, 겹아가리토기^{二重口緣土器}편, 반달돌칼^{半月形石刀}, 대팻날도끼^{扁平偏刃石斧}, 돌화살촉, 갈돌, 가락바퀴 등의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는 삶의 방식이 다원화 되면서 사회가 복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당시 사람들은 살림살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제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역사적 추이의 일면이 바로 이 제사유적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런 덕풍골 제의 유구와 유사한 제의 유구, 즉 산봉우리의 자연바위를 대상으로 한 제의 공간으로는 오산 가장동 유적과 김해 구관동 유적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본 제의 유구는 한강본류 문화권에서 확인된 산정상부의 선사시대 제의유구라는 점에서 고고학적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제의 유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4기의 주거지도 함께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제의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하여 원삼국시기의 타날문토기, 신라토기 등이 주변에서 확인되어, 이 제의유구가 장구한 시간 동안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이 제의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높여준다. 어쨌든 제천의식, 바위숭배 신앙과 연계하여 민속신앙적으로 고찰해 볼 만한 대상이다.

11

안성 공도 만정리 철기시대 무덤과 청동검



만정리 신기유적 4지점 1호 목관묘

청동기시대 말기에 북방지역으로부터 덧띠토기와 검은간토기를 만들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경기, 충청지역에도 들어와 기존의 청동기사회의 문화를 변화시켜갔다. 덧띠토기문화를 전파시킨 집단은 멀리 중국 요령지방의 선진 문물을 경험한 세력이다. 처음에는 높고 외딴 산의 정상부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래 살던 청동기인들과 대립 또는 고립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차 재지세력과 융합을 이루며 후기 청동기사회의 주류

로 떠올랐다.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식동검을 소유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 집단은 점차 첨단문물인 철제농구와 무기류를 사용하고 빠른 속도로 주변에 보급하여 점차 농업생산력을 높이며 여러 지역의 집단을 통합하여 갔다.

이 시기 집은 여전히 움집이 주를 이루었다. 무덤은 널무덤·독무덤 등이 널리 이용되었다. 토기는 덧띠토기와 함께 검은간토기·굽다리토기·뿔손잡이토기가 성행하였다. 이후



2지점 목관묘 출토 무경식·삼각형석촉·철촉·동촉

철기의 보급은 더욱 확대되었고 변화의 물결은 속도를 더해 갔으며, 안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급속한 진전을 이루며 사회가 발전해갔다.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유적 중 하나가 안성 만정리 유적에서 발견된 초기철기시대 유구로, 2지점 나구역과 4지점, 6지점에서 철기시대 무덤이 각 1기 씩 조사되었다. 2지점 목관묘는 길이 241cm, 너비 80cm 남은 깊이 14cm이고, 무경식 삼각형 석촉 8점·동촉 2점·용도 미상 동제품 1점·철촉 2점이 출토되었다. 4지점 목관묘는 길이 220cm, 너비 80cm, 깊이 75cm이며 서쪽 단벽과 북쪽 장벽이 2단으로 굴광되었다. 목관은 통나무관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식동검의 봉부 끝과 병부가 포함된 결입부 이하의 몸통 부분이 분리된 채 통나무관 외부의 충전토에서 출토되었다. 6지점 목관묘는 길이 206cm, 너비 73cm, 남은 깊이 15cm이며, 흑도장경호·변형점토대토기·옥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는데, 옥장신구는 목관 내 피장자의 목부분에 끼묻고 토기



만정리 1호 목관묘 출토 한국식동검

는 피장자의 발치 쪽 목관 외부 충전토에 매납한 것으로 보인다.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4지점 1호 목관묘에서는 한국식동검 한 개체 분을 파손하여 그 일부만 부장한 예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부분은 봉부 일부와 결입부 이하의 검신과 자루 부분이다. 부장상태는 봉부와 검신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렬로 가지런히 끼워놓았는데 출토 위치 상 목관 내부에 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검의 몸통 일부가 결실된 채 봉부와 자루 일부분이 매납되거나 발견된 사례는 논산 원북리 나지구 10호 목관묘, 제주 종달리, 파주 목동리 등이 있다. 원북리 청동검은 검신 일부와 자루 부분이 결실된 상태이다. 제주 종달리 한국식동검편은 퇴장유구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제1절대 부분이 결실된 채 봉부와 기부만 발견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파주 목동리처럼 무덤에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검신 일부가 없이 봉부와 자루부분만 출토된 종달리 한국식동검은 해안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검신부가 부러져 두 부분으로 나뉜 것으로 전체적인 길이 등은 명확하지 않다. 복원 길이는 26.6cm이다. 봉부가 길고 기부가 직선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스페바로 위쪽까지 마연이 되어 있다. 제1절대 부분이 결실되어 실제 길이는 이보다

훨씬 길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덤 속에 부장품을 넣을 때 깨뜨려 넣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파궤(破毀) 또는 궤기(毀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파산(破散) 행위가 더욱 적절한 표현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처럼 한국식동검의 검신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루 일부를 잘라내고 부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한편, 부장하지 않은 검신 일부를 재가공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한 부분이 절단된 동검은 신표(信標)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주몽과 유리왕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왕 조의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하다. “유리는 주몽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예씨(禮氏)이다. 처음에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잉태하고 주몽이 떠난 뒤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유리이다. (주몽이 졸본으로 떠난 후 유리가 자라서) “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라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남쪽 땅으로 달아나서 나라를 열고 왕을 칭하였다. 갈 때에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물건을 남겨 두었는데 일곱 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십시오. 만약 이것을 찾을 수 있다면 곧 나의 아들이요.’라 하셨다.”고 하였다. 유리가 이 말을 듣고 산골짜기로 가서 그것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피곤하여 돌아왔다. 하루는 아침에 마루 위에 있는데 기둥과 초석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렸다. 곧바로 가서 보니 초석이 일곱 모를 하고 있었다. 이에 기둥 아래를 뒤져서 부러진 칼 한 조각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옥지^{屋智} · 구추^{句鄒} · 도조^{都祖} 등 세 사람과 함께 졸본으로 가서 부왕을 뵈고 부러진 칼을 바쳤다.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러진 칼을 꺼내어 이를 합치니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왕이 이를 기뻐하고 그를 태자로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기서 거울을 반으로 잘라 신표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도 그런 신표의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안성 만정리 출토 청동 단검의 파편이 신표로 이용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열어준다.

12

파주 와동리 출토 중국식동검



와동리 중국식동검

2011년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지역 내 파주 와동리 Ⅲ유적 14지점 집터의 퇴적토 상부에서 검신과 자루 일부만 남은 중국식동검 조각 1점이 발견되었다. 관부에 나비형 칼코가 있고, 검신의 능각은 약하게 형성되었으며 횡방향의 연마 흔적이 희미하다. 검신 단면은 납작한 룡형이지만 날 쪽으로 가면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으며 날 쪽은 예리해진다. 자루는 유절병식으로 2개의 절대가 약간 어긋난 형태로 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푸른 녹이 덮여있다. 검신과 자루를 하나의 거푸집에 부어 만든 일주식(鑄式) 동검으로 검자루 끝이 결실되어 탕구흔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남은 길이 10.2cm, 폭 4.7cm, 두께 0.4~1.2cm, 남은 무게 74g이다.

파주 와동리 동검은 2/3이상이 결실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연한 녹이 덮여 있고 자루에는 2개의 절대가 돌려져 있어 전형적인 중국식동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원주 상림리유적 출토 동검과 비슷하지만 인부에 연마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이 동검의 납동위원소분석 결과, 와동리 중국식동검은 영역D(다뉴 정문경이나 한국식동검 등 야요이시대에 일본으로 전해진 한반도계 유물로 일컬어지는 자료가 위치하는 영역(라인))에 위치하며 한반도계 유물과 공통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영역D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반도산 납 원료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중국식 동검편은 경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발굴된 것이다. 다만 이 동검이 유입된 배경과 경로, 그리고 동검을 받아들여 사용 또는 폐기한 집단의 성격 등에 관해서는 관련 정보가 미약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검을 중국식동검(또는 도씨검이나 동주식동검)이라 한다. ‘도씨검桃氏劍’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례』 고공기考工記에 ‘도씨위검桃氏爲劍’이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지만, 지역명을 따 ‘한국식동검韓國式銅劍’ ‘요령식동검遼寧式銅劍’과 같이 ‘중국식동검中國式銅劍’으로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요령식동검이나 한국식동검이 검신과 자루를 짜맞추는 조합식인데 반하여 중국식동검은 검신과 자루를 한 몸통으로 만든 ‘일주식’이며, 형태도 요령식동검이나 한국식동검과는 차이가 현저하다. 칼날이 직선적이고 손잡이는 칼날과 함께 주조하였는데 중간에 마디모양의 돌기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식동검은 주로 오吳 · 월越 · 초楚 등 양쯔강 유역에서 춘추 후기春秋後期 전반(서기전 6세기 후반)경에 정형화되었다. 그 분포권은 대략 산둥반도山東半島 이남의 허난河南 · 장쑤江蘇 · 안후이安徽 · 후베이湖北 · 후난湖南 등지이다. 그 중에는 “월왕구천검越王句踐劍” · “오왕부차검吳王夫差劍” 등의 명문이 상감되어 있어 연대가 확실한 예가 있다.

한국에서 출토된 유적을 북쪽에서부터 살펴보면, 평양 석암리, 평원 신송리, 재령 고산리, 파주 와동리, 익산 신통리, 완주 상림리, 함평 초포리 등이며 해미나 대동강변 출토품으로 전해지는 것들도 몇 예가 있다. 중국식동검의 유입 원인과 경로에 대하여는 우선 파주 와동리 중국식동검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중국식동검의 출토 지점은 모두 서해안과 인접한 지역이다.

유입 시기는 중국의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해가는 시기부터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진한고체기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3~2세기로 추정된다. 유입 경로는 첫째, 요서지역을 경유하여 북쪽지역, 둘째 산둥반도 지역에서 서해를 건너, 셋째 양쯔강 유역에서 서해를 건너 서해안의 여러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상정할 수 있으며, 중국식동검을 모방하여 한국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 중국식동검의 거푸집이 발견된 예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

청동의 재질로 보아 북한지역 출토품은 중국에서 완제품이 수입된 것으로 여겨지고, 호남지역 출토품은 현지에서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주 와동리 중국식동검은 중국이나 평양지역 출토 중국식동검과는 달리 표면에 연녹색의 녹이 덮여 있고 동질도 기포가 많아 보이는 등 거칠다. 병부 단면이 볼록렌즈형을 띠는 점에서도 중국에서 제작되어 유입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한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동검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발굴된 중국식동검이다. 그리고 이 유물이 발굴된 곳은 서해안과 인접한 파주 운정지구이다. 파주 운정지구는 인문지리적으로 조선시대 파주문화권에 속한 곳이 아니라 교하문화권에 속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 교하에는 원삼국시기에는 신분고국^{臣濱沽國}, 삼국시대에는 천정

구泉井口로 비정되는 지역이다. 이런 교하영역에서 제의토기와 함께 이런 중국 식동검이 출토된 점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즉 운정지구가 최소한 범 서해문화권에 속했을 개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마한소국 연맹체의 구심체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4부

한성백제의
기층문화,
경기 땅에서
발굴되다.

01

가평 대성리 마을유적



대성리 유적전경



현장설명회(상), 출토유물(하)

가평 대성리 유적은 1998년 경춘선 복선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림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2003년 경기대학교박물관의 시굴조사를 통해 대성리 유적 일대의 전면적인 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집자리 27동, 원삼국시대 집자리 43동 등 14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이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에서 원삼국시대 집자리 11동 등 28기의 유구를 추가로 발굴조사하였다.

대성리 유적은 북한강변의 자연제방에 입지한 청동기 및 원삼국시대의 마을 유적이다. 이 가운데 원삼국시대 마을은 전기와 후기 두 단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전기의 마을에서는 부뚜막이 설치된 방형 집자리와 작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49호 수혈에서는 말 이빨을 매납한, 일종의 제사유구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화분형토기, 낙랑토기, 철경동축, 소칼 등 낙랑유물이 대부분이다.

원삼국시대 후기의 마을에서는 방형의 집자리와 더불어 ‘여름’·‘철뽕’자형 집자리가 조사되었으며, 작은 굴립주 건물지와 구상유구가 각각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집자리 바닥에는 공통적으로 점토를 깔았으나, 집자리의 평면 형태에



대성리 주거지

따라 취사 및 난방 시설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여름’자형 집자리는 무시설 식 노지인 반면, ‘철쭉’자형은 부석식 노지이고, 방형 집자리에서는 ‘ㄱ’자 형태의 터널형 노지가 조사되었다. 이 집자리 가운데 일부에서는 철기와 함께 철재, 노벽편, 모루돌 등이 출토되어 마을 내부에서 단야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유물 중에는 낙랑계토기와 청동 단추, 야요이계토기가 포함되어 있어 당시 이 지역 집단의 성격 및 대외교류의 정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차편년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외에도 이 대성리유적은 과학적인 여러 가지 연대 측정의 결과 그 중심 연대가 3세기로 밝혀졌다. 이처럼 조성시간이 150년 정도로 한정된 유적이기에, 이 유적에 출토된 유물조합상과 개별 유물의 형식은 경기지역 출토 유사 형식의 유물에 대한 표지형식이 되기에 충분하고, 기존의 편년을 재조정할 수 있는 편년자료로 볼 수 있다.

이런 학술적 의미와 함께 이 유적은 고고학적 과제도 남기고 있다. 본 유적에서는 화재주거지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데에 비하여 대성리 유적을 비롯한 백제시대의 마을 유적에서 화재주거지가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는 점은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단서라 할 수 있다. 또 갑자기 마을이 폐기된 점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자연재방이라는 최적의 입지에 자리한 이 유적에서 4세기 이후의 유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치,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백제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리라 생각해 본다.

02

가평 대성리 마을 유적의 외래계 유물



대성리 화분형 토기



대성리 철경동촉·청동관·청동단추



대성리 낙랑계토기

가평 대성리 유적은 중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원삼국 초현기 마을 유적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다. 특히 낙랑군 설치 직후의 토기, 철기류 등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전국계戰國系 토기 및 철기류, 낙랑계樂浪系 토기, 한계漢系 철기 등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풍부하게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평 대성리 유적은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2월 10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집자리 27동, 수혈 6기, 경작유구 1기, 원삼국시대 집자리 43동, 수혈 56기 등 14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2009년 5월 24일부터 동년 7월 3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삼국시대 집자리 11동, 수혈 11기 등 3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가평 대성리 유적은 출토 유물의 특징을 기준으로 전기마을과 후기마을로 나눌 수 있다. 전기마을은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 가운데 B 지구에 한정된다. 집자리는 주로 원형과 방형의 형태이며, 출토 유물 가운데 서북한지역 낙랑 무덤에서 출토되는 화분모양토기花盆形土器, 철경동촉鐵莖銅鏃, 장방형주조쇠도끼長方形鑄造鐵斧, 전국계 토기 등 낙랑군 설치(기원전 108년) 직후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기원전 1세기 전반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후기마을은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조사구역 전역에서 확인되었다. 후기마을의 집자리는 출입구가 돌출한 여·철자형으로서 출토 유물은 서북한지역의 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한 낙랑계토기가 주를 이룬다. 후기마을은 대체로 타날문 취사용기가 등장하기 직전 단계로서 기원후

2세기를 중심 연대로 한다.

전기마을의 외래계유물 가운데 화분모양토기는 내형틀을 제작하여 대량으로 생산한 취사용기이다. 당시 중부지역에서는 취사용기로 중도식무문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화분모양토기는 중부지역의 원삼국 초현기 마을유적에서 소량만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대성리 전기마을에서는 다수의 화분모양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서북한지역에서 이주한 유이민의 존재가 상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풍부한 철기제작(단야조업) 흔적으로 볼 때 철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집단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철경동축은 전국시대 이래 한대(漢代)를 대표하는 화살촉이다. 철경동축은 화살촉의 몸통을 청동으로 제작하고, 목부분을 철기로 제작하여 결합한 특징적인 화살촉으로서 중부지역에서도 초기 마을유적에서만 발견된다. 그리고 신부가 긴 장방형주조쇠도끼는 영남지역의 초기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대구 팔달동 무덤 출토품과 같은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기마을의 외래유물은 일반 취사용기와 무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유물의 성격상 한계 보다는 전국계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기마을의 외래계 유물은 서북한지역의 낙랑토기 제작기법을 모방하여 만든 낙랑계토기로 대표된다. 낙랑계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토기의 모양을 만들면서 형성된 성형 타날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짧은목항아리(단경호)短頸壺의 목부분 외면에 세로방향으로 승문의 타날 흔적이 잘 남아 있다. 그리고 이와 대칭하여 토기의 목 부분 안쪽에는 가로방향의 내박자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모든 낙랑계토기의 바깥면에는 강한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

여 횡방향의 요철면(凹凸面)이 남는 경우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낙랑계토기 기종으로는 짧은목항아리, 납작밑긴목항아리(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동이모양토기(분형토기)盆形土器, 시루 등이 대표적이다. 낙랑계토기는 서북한지역에서 낙랑토기를 제작하던 공인이 중부지역에 이주한 후 현지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과, 중부지역의 공인이 낙랑토기 제작방법을 배운 후 현지에서 모방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낙랑계토기는 기원후 1세기 후반부터 기원후 3세기 전반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만 제작되었다. 낙랑계토기가 소멸하는 시기는 타날문토기 생산체제가 완성되어 안정적으로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는 시점이다. 이후 토기 생산은 토착적인 타날문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03

화성 발안리 유적의 여·철자형 집자리와 토기 시루



발안리 마을유적 전경

화성 발안리 마을 유적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원삼국~백제의 마을 유적으로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확인된 마을 유적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발안천이 곡류하는 지점의 안쪽 충적대지에서 원삼국~백제 수혈 집자리 57동, 구상유구 63기, 굴립주 건물지 30동, 작은 수혈유구 196기, 옹관묘 4기, 야외노지 5개 등 총 370여 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중복과 유물의 공반 관계를 통해 경질무문토기 단계에서 백제토기 단계로의 집자리 변화 과정과 더불어 마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집자리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의 ‘철^ㅍ’자형 집자리에서 방형의 4주식 집자리로 변화되며 주축 방향이 북서-남동향에서 남-북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취사 및 난방 시설은 이른 단계에는 노지만이 발견되나, 노지와 ‘ㄱ’자 형태의 외줄구들이 공존하는 단계를 거쳐 마지막에 부뚜막만이 시설되는 단계로 변화한다. 또한 유물 양상에서도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웅의 기능을 장란형토기(長卵形土器)가 대체하며 이전 시기보다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출현하는 변화가 관찰된다. 철기는 극소수 집자리에서 소량이 출토되다가 늦은 시기에는 철도자, 철촉, 주조철부, 철검 등 다양한 철기가 출현한다.

발안리 마을 유적은 초기에 집자리가 열상으로 배치된 형태이었으나, 나중에 정연하진 않지만 군집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등 경질무문토기 단계에서 백제토기 단계로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백제 중앙과 비교되는 지방의 한 단위 마을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된다.

발안리 유적에서는 여^ㅍ · 철^ㅍ자형 집자리가 출토된 점이 가장 주목된다. 이런 유형의 집자리의 분포범위는 영서지역, 영동지역, 임진한탄강 유역, 하구를



여자형 집자리 복원도

제외한 한강(남한강·북한강)유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방형(方形) 집자리 분포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입지조건은 하천과 하천이 만나서 만들어진 넓은 충적대지상에 위치하는 공통점이 있다. 여·철자형 집자리는 원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기존의 수직방향의 출입 방식에서 수평방향 출입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철자형 집자리는 한반도의 동북지역에 위치하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과 루트는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권 → 원산 → 임진강 상류, 북한강 상류, 영동지역 등 주로 중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 발안리 유적은 서해안의 방형 집자리 분포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철자형 집자리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철자형 집자리 분포권에서만 확인되는 외줄구들도 확인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입지조건에 있어서도 서해안 일대 방형 집자리들이 주로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달리 하천의 충적대지에 축조된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그런데 화성 발안리 유

적과 비교되는 주변의 유적에서는 모두 방형의 집자리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화성 발안리 유적은 여·철자형 집자리 분포권이 서해안으로 침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진출한 후 마을을 만들었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삼국시대가 되면 여·철자형 집자리에 방형 집자리의 특징인 4주식 구조가 결합되면서 변형된 여·철자형 집자리로 변화한다. 이후 화성 발안리 유적에서 여·철자형 집자리는 사라지고 방형의 4주식 집자리로 통일되어 가는 점이 특징이다.

한반도의 취사방식은 청동기시대까지 취사용기를 노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단독취사방식만이 있었다. 그러나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각형점토대토기로 제작된 시루가 등장한다. 대부분 삼한^{三韓}이 위치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중부지역에서도 화성 도이리 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로 제작된 시루가 출토되었다. 시루의 등장은 복합취사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복합취사방식은 기존의 끓이는 취사방식에서 찌는 취사방식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원삼국시대 초기에는 중도식무문토기로 시루를 제작하였다. 형태적인 특징에서 서북한지역 낙랑 시루의 기형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 자비용기로는 장동옹이 사용되었다. 원삼국시대 중기에는 낙랑계토기를 이용하여 시루를 제작한다. 자비용기는 중도식무문토기 장동옹 이외에 타날문 유경호를 처음으로 사용한다. 원삼국시대 후기에는 타날문토기 생산체제가 정착하면서 타날문토기 시루가 제작된다. 이후 타날문토기로 시루 기종이 한정된다. 이 시기에 타날문 장란형토기가 등장하면서 취사방식은 모두 타날문 시루+장란형토기로 단일화된다.

화성 발안리 1호 집자리 시루는 타날문 유경호와 결합된 상태로 외줄구들의 고래 중앙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화구^{火口}에서 대형의 중도식무



발안리 1호 집자리 출토 시루와 유경호

문토기 시루가 함께 발견되었다. 식사 인원에 따라 용량이 다른 시루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이다. 소형 시루는 입술이 살짝 밖으로 벌어진 형태로서 직경 1cm 미만의 증기공을 불규칙하게 투공한 형태이다. 대형 시루는 입술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소형 시루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시루는 중앙의 큰 증기공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증기공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형태이다.

1호 집자리에서는 장란형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루와 결합된 자비용기는 중도식무문토기 장동옹과, 타날문 유경호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타날문 자비용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취사용기와 자비용기는 모두 타날문토기로 통일되어가는데 발안리 1호 집자리는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준다. 화성 발안리 유적의 시루와 자비용기는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취사방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이런 고고학적 정보를 지닌 화성 발안리 유적은 백제 초기사 연구를 위한

역사고고학적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선은 여·철자형 집자리의 존재로 그 주체세력을 예족^{濊族}으로 본 ‘중도문화유형’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반증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화성 지역은 마한의 영역이지 예족의 영역이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마한권역에서 이런 여·철자형 집자리가 확인된 사실은 여·철자형 집자리를 예계문화의 핵심요소로 본 기존의 견해를 수정케 하는 최초의 단서이자 결정적인 증거라 하겠다.

다음으로 발안리 유적이 화성의 중심 하천인 발안천 하류에 자리하고 있는 점도 그냥 간과할 수 없다. 발안천을 따라 상류에 이르면 그 유명한 화성 마하리 고분군이 위치한다. 이렇듯 발안천의 상류와 하류에는 화성을 대표하는 고고학적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발안천 유역에 마한 소국 중 하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는데, 백제국과 목지국 사이의 한 나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정이 인정된다면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일화국^{日華國}·고탄자국^{古誕者國}·고리국^{古離國}·노람국^{怒藍國}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천안의 목지국과 가까운 안성천 유역을 노람국^{怒藍國}에 비정할 때, 발안천 유역은 고리국^{古離國}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추측이지만, 향후 이런 가정 하에서 역사고고학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04

남양주 장현리 유적과 난방시설



장현리 유적 주거지

외출구들(상) 부뚜막(하)

주거는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거나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한다. 원삼국~한성백제기 중부지역의 집자리는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축조되어온 방형의 집자리와 외부로부터 새롭게 도입된 여·철자형 집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기록을 기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원후 2세기는 매우 한랭한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난방을 극대화한 새로운 집자리 및 난방시설의 도입이 가능한 환경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여·철자형 집자리와 외줄구들, 부뚜막이다.

선사시대부터 만들어졌던 노지는 취사용으로는 적합했지만 큰 규모의 집자리 내부 난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방지역에서는 기원전 시기부터 난방을 위한 구들 시설이 잘 발달해 있었다. 이러한 구들 시설의 일부가 중부지역에도 도입되었는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집자리의 뒷벽에 외줄구들을 시설한 후벽부 외줄구들이다. 이후 늦은 시기가 되면 집자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오른쪽 벽면을 따라 길게 시설한 측벽부 외줄구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기원후 3세기부터 짧은 연도를 가진 부뚜막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한성백제기가 되면 중부지역의 대부분의 난방시설이 부뚜막으로 통일된다.

남양주 장현리 유적은 새로운 형태의 집자리와 노시설의 결합양상을 시간순으로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남양주 장현리 유적은 한강 하류의 북동쪽 지류에 해당하는 왕숙천변의 넓은 충적대지에 위치한다. 남양주 장현지구 택지개발에 앞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이다. 발굴조사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약 500일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집자리 85동, 수혈유구 55기, 구상유구 15기 등 원삼국~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마을 유적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양주 장현리 유적에서는 측벽부 외줄구들, 부뚜막이 시설된 집자리가 시기를 달리하여 다수 확인됨으로써 원삼국시대 난방시설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장현리 유적의 집자리는 시기에 따라 주축방향과 노시설이 변화한다. 우

선 전기마을은 측벽부 외줄구들이 시설되고, 동편향된 출입구를 가진 집자리군이 형성되었다. 후기마을은 부뚜막이 시설되고, 남향하는 출입구를 가진 집자리군으로 변화한다. 특히 후기마을은 주변지역과의 구별을 위하여 큰 도랑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그 내부에만 집자리를 만들었다. 결국 외줄구들을 시설한 집자리와 부뚜막을 시설한 집자리 사이에는 시간차와 함께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장현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측벽부 외줄구들은 오른쪽 벽면 전체에 구들을 시설한 것과, 오른쪽 벽면 반만 활용하여 구들을 시설한 것으로 나뉜다. 집자리의 중복 양상과 화성 발안리 유적의 사례로 볼 때 오른쪽 벽면 전체에 구들을 시설된 것이 앞선 시기의 외줄구들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집자리의 크기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외줄구들이 짧아 보이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즉, 후대로 갈수록 여·철자형 집자리의 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일정한 길이의 외줄구들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부뚜막이 시설된 집자리에서는 주로 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결국 장현리 유적을 통해서 볼 때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노시설은 측벽부 외줄구들(우측벽 전면 구들 설치) → 측벽부 외줄구들(우측벽 반만 구들 설치) → 부뚜막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줄구들과 부뚜막은 결정적인 구조적 차이가 확인된다. 즉 불을 지피는 아궁이와 고래가 직각을 이루는 것이 외줄구들이고, 아궁이와 고래가 직선상에 위치하는 것이 부뚜막이다. 주로 부뚜막은 중국의 화상석(畫像石)이나 무덤에 부장한 명기(明器) 등을 통해서 볼 때 중국과 관련된 노시설로 추정된다. 이에 비하여 아궁이와 고래가 직각을 이루는 구조는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 북부

지역과 관련이 깊다. 결국 외줄구들과 부뚜막은 기원지가 각각 달랐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적·기후적 요인 때문에 외부로부터 난방을 강화한 외줄구들과 부뚜막이 서로 다른 루트를 통해 중부지역에 이식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듯 장현리 유적의 난방시설은 경기지역을 포함한 중부지역의 난방시설의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는 표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이 경기 지역 전체 유적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면 집자리의 평면 형태와 함께 편년 작업의 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난방시설이 유독 경기지역의 집자리에서 발달한 사실은,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날씨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랭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더 나아가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에 포함된 지역에서 발굴된 여·철자형 집자리의 난방시설이 발달했던 사실은 당시 한강 하류 수계와 안성천 수계, 그리고 서해안유역에 비하여 지금의 경기북부지역이 더 한랭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원삼국시대 온돌시설의 출발점인 외줄구들이 한반도 동북부 지역과 연한 연해주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미 원삼국시대에 경기지역이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연해주지역, 더 나아가 초원문화와 연결되어 문물을 주고받았을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북한 지역의 낙랑계 유물과 동북방 계통의 주거양식이 혼재된 바로 그 속에 경기도의 고유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들의 형식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현재 고고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은 구들의 핵심요소인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적합한 용어라 하기 어렵다.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있

는데, ‘구들을 꺾어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땔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이다. 여기서 곡돌은 바람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에 이른바 외줄구들은 곡돌형(曲突形), 일자형(혹은 터널형)은 직돌형(直突形)으로 더 진일보한 용어가 될 듯하다.

한편 외줄구들에서 부뚜막 즉 곡돌형에서 직돌형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 마디를 더하고자 한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는 굴뚝의 개선이 있었지 않나 판단된다. 즉 굴뚝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온돌 내부로의 바람 역류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직돌구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05

하남 미사리 유적과 여자형 주거지



미사리 유적 여자형 주거지



유적지의 현황

서울 근교 라이브 카페촌과 조정경기장으로 유명한 하남 미사동에는 하남 미사리 유적(사적 제269호)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한강 중상류의 남북 4km, 동서 1.5km의 타원형 섬인 미사리(지금은 미사동)의 강변 쪽을 따라 발달한 자연 제방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유적에 대한 조사는 서쪽 지류에 올림픽 조정경기장을 만들면서 동쪽 본류의 수량이 늘어나자 섬의 동쪽 일부를 잘라 강폭을 넓히는 한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 계획되면서 1988년~1993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한성백제시기 마을 유적이 차례로 드러났다. 마을 내부에서는 움집 형태의 집터, 창고 기능으로 추정되는 고상식高床式 건물지, 저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구덩이, 불을 피워 조리를 했던 화덕자리 등이 발굴

되었는데, 그 숫자는 466기에 달했다. 이와 함께 백제시대 문화층에서는 상하로 중복된 밭 유구가 상층 4,700여 평, 하층 1,700여 평 규모로 발굴되었다. 이렇듯 미사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한성백제시기까지의 유구가 시간 순으로 광범위하게 확인되어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기전(畿甸) 지역의 마을이 발전해 온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였고, 그런 까닭에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마을유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사리 유적에서 학술적 가치가 가장 높은 유구는 여자형(呂字形) 주거지이다. 이 주거지는 장방형 집자리의 전면(全面)에 지금의 현관에 비유될 수 있는 소규모의 출입시설이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평면형태가 한자 ‘여(呂)’자와 유사하다. 구조는 지하를 파서 주거공간을 만들고 지표면에 출입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규모는 대형의 경우 약 90m²(약 27평) 정도로 청동기시대의 대형 주거지의 60m²(약 18평)와 비교할 때 크기의 현저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주거지 내부에는 벽체를 따라 온돌을 ‘ㄱ’자 모양으로 꺾어서 설치했고, 중앙에는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노지(爐址)를 마련했다. 유물은 돛자리 문양을 전면에 시문한 둥근 바닥의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여자형 주거지에 설치된 온돌은 외줄이지만,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온돌의 시원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또한 그런 온돌의 원조 지역이 연해주라는 사실은, 우리의 온돌문화와 주거문화가 동북지방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반면에 토기는 낙랑토기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이는 식기(食器)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주거지의 규모는 우리나라 전용 면적으로 볼 때 지금의 소위 33평 아파트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원후 2세기 무렵에 이미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추정케 해 준다. 여자형주거지는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한강 본류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한국고대 경기지역의 고유성을 대변해 주는 특징적인 가옥 구조이기도 하다.

미사리 유적은 우리나라 취락발달사를 보여주는 유적이자 선사·고대 경기인의 주거와 생활 문화를 간직한 유적이다. 그런데 지금 미사리 유적이 소재한 하남 미사동으로 가 보라. 문화재 안내판을 제외하고는 유적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문화시설도 없다. 미사리 유적은 대단위 마을 유적이다. 그것도 경작지를 갖춘 마을 유적이다. 한강을 끼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고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도 탁월하다. 이런 유적에 백제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백제마을을 재현하고, 2000여 년 전의 농경을 복원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국가 사적이기에 국가적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이라는 두터운 수요층이 있기에 최적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으며, 유적이 지닌 문화콘텐츠가 풍부하기에 얼마든지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적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하위에 있는 서울의 암사동 유적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가 하며 적극적으로 정비·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06

수원 서둔동 유적



서둔동 유적 원경(좌상), 청동기시대 집자리(우상), 원삼국시대 집자리(좌하), 유물출토상태(우하)

수원 서둔동 유적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산1-1번지에 위치한다. 이 곳은 정상부 해발 104m에 달하는 여기산에 해당된다. 당초 이 유적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의 자체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발견되었다. 이후 화강암 채석공사 및 경사

면 유실로 인해 유적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 긴급하게 학술조사를 기획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발굴조사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숭실대학교박물관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집자리 3기와 원삼국시대 집자리 6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1호와 2호가 구릉 정상부 가까운 완만한 능선부에서 확인되었고 3호 집자리는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확인되었다. 부분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집자리 간에 중복 조성되었기에 전체적인 정황을 알기 어렵다.

다만 일부 드러난 평면형태 및 기둥구멍의 위치, 유물의 정황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전기의 세장방형 집자리로 추정된다. 유물은 민무늬토기인 바리와 향아리가 나왔다. 토기는 골아가리구멍무늬토기口脣刻目孔列土器로 대표되는 소위 ‘역삼동식’ 토기에 해당한다. 석기는 갈판과 돌화살촉이 나왔다.

서둔동유적의 청동기시대 집자리는 인근의 수원 금곡동·이목동·울전동 및 화성 천천리 유적과 비교·검토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수원 이목동 및 울전동 유적보다는 늦고 수원 금곡동과 화성 천천리 유적의 세장방형 집자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삼국시대 집자리는 모두 6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여묘자형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물은 터널형노지, 부뚜막시설, 기둥구멍, 출입구시설, 화덕자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옹, 시루, 바리, 뚜껑, 향아리 등의 기종을 보이는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류 및 숫돌, 가락바퀴, 단조 쇠도끼, 쇠손칼 등이 나왔다.

집자리의 구조와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원삼국시대 집자리의 연대는 대략

3세기 대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좀 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둔동 유적은 중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쪽구들’ 또는 ‘터널형 노지’로 불리는 온돌식 난방시설이 확인된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러한 시설물은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 전체에서 원삼국시대 집자리의 다양한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원삼국시대 6호 집자리에서는 소규모 단야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쇠조각과 슬래그 및 송풍구편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발굴성과는 경기지역에서는 최초로 원삼국시대 집자리 안에서 쇠를 다룬 흔적이 확인된 점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수원 서둔동 유적 주변으로도 화성 기안동, 화성 고금산, 수원 꽃피 유적이 조사된 바 있으나 수원 일원에는 여전히 원삼국시대의 고고학적 자료가 태부족한 상태이다.

서둔동 유적은 비록 일부분만 조사되어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성격을 잘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유적의 면면과 지표에 드러난 유물의 양으로 보아 여기산 전체에 청동기~원삼국시대에 걸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분적인 조사에서도 집자리들 간에 중복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누차에 걸친 반복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굴사례로 미루어 볼 때 서둔동 유적의 유구 밀집도는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산이라는 독립된 구릉이 개발의 일선에서 비껴난 관계로 유적이 그나마 잘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유적은 장기적인 학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07

김포 운양동 유적과 중국계 유물



영종도 운북동 오수전



운양동 금귀걸이



운양동 철검

‘무덤’하면 보통 생땅을 파서 그 안에 관을 묻고 봉분을 조성하는 토광묘土壙墓로 알고 있다. 2009년부터 김포에 한강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김포 운양동과 양곡 일대에서 ‘분구묘墳丘墓라 불리는 마한馬韓의 묘제가 발견되었다. 분구묘는 토광묘와는 다른 방식으로 축조된 독특한 묘제로, 흙을 다져 돈은 분구(봉분)에 토광형식으로 중심부를 파내어 시신을 안치하고 그 위에 다시 봉분을 올린 것이다. 분포 범위는 주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지만, 경기 내륙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뚜렷한 지역성을 보인다.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지역성을 근거로, 범 마한문화권에 속하지만 한강 유역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 문화가 경기 서해안 연안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15년 현재 인천 시민 중에서 대략 1/3 정도가 대전·충남 출신이라는 흥미로운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육상교통이 발달하기 이전, 경인 연안은 경기내륙보다는 바닷길을 통하여 호남·호서 지역과 더 긴밀하게 교류하였고, 그 결과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지녔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렇듯 먼 삼한시대의 분구묘는 현재 인천, 김포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말해 준다.

경인 연안의 분구묘를 대표하는 유적은 김포 운양동 유적이다. 이 유적은 중국 길림성 소재 부여인夫餘人의 무덤에서 발굴된 1800년 전의 금귀걸이와 같은 모양의 금귀걸이, 독특한 형태의 철검鐵劍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영종도에서는 토기·기와·화살촉 등 중국 한漢나라의 유물과 함께 대표적인 중국 동전인 오수전五銖錢이 꾸러미로 발굴되었다. 이런 이국적인 유물 조합은 당시 대중국 교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인연안과 도서지역에서 발굴되는 외국산 유물은, 바닷길을 통

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며,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기원전부터 서해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오는 ‘교류의 길목’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우리나라의 관문 구실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입지적 필연성을 느끼게 한다.

경기연안에서 출토된 이국적인 금귀걸이·검·그릇·중국동전 등 발굴유물을 통하여 2000여 년 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해외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실과, 바다 건너 중원은 물론 멀리 부여까지 교류하였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런 유물들이 매납되었던 무덤을 근거로 경기연안의 문화가 먼 과거부터 서해안문화권에 포함되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사실은 땅속 매장문화재 발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발굴유물이 우리 역사를 알차게 채워주는 ‘또 다른 1차 사료’라는 점을 웅변해 준다. 따라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매장문화재를 홀대해서도 안 될 것이며, 경제적 손실을 들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리는 천박함(淸畵·도굴)을 범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08

연천 학곡리 · 삼곶리 적석총과 백제초기사



학곡리 적석총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667건의 유적을 발견하였다. 경기도에 속한 연천, 파주, 김포에서 발견된 것이 412건이었고, 이 중에서 연천 소재 93개소의 유적과 파주 소재 134개소의 유적은 학술적 가치도 남달랐다. 특히 육계토성, 파주 동파리 마애사면불,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무덤, 덕진산성과 호로고루 등의

고구려 성곽, 원당리 백제식 토성, 연천 부곡리 분청사기 가마터 등의 발견은 임진강 유역이 한국고고학의 신천지로 주목받게 했다.

연천 삼곶리 적석총은 군사보호구역내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이다. 지표조사 첫해인 1991년에 발견되었고, 다음해인 1992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결과, 자연상태의 모래언덕 위를 평탄하게 만든 다음 강돌을 이용하여 무덤방과 봉분을 만든 적석총이라는 사실과 함께 백제식의 토기가 출토되어 백제고분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기존에 유사한 형식의 백제적석총이 발굴되었지만, 연천 삼곶리 적석총은 제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 형식의 무덤에서는 발견된 바 없는 쌍분이었고, 무덤방의 형식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연천 삼곶리 돌무지무덤’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었다.

1996년 7월 임진강 유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임진강이 범람하게 되어 주변 일대가 막대한 수해를 입게 되자, 임진강 유역의 제방에 대한 대대적인 개수(改修) 공사가 계획되면서, 2002년 연천 학곡리 소재 적석총에 대한 발굴조사가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연천 삼곶리 적석총과 유사한 형식이지만 무덤방을 최소 5개 연결하여 하나의 무덤을 조성한 다곽식(多槨式) 적석총이라는 사실과 함께 출토유물을 통해 연천 삼곶리 적석총보다는 이른 시기에 조성된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천 학곡리 적석총 역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6년 경기도 기념물 제212호로 지정되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시조 주몽이 졸본부여로 내려와 소서노와 재혼해 비류와 온조를 낳았는데, 부여에서 첫째 아들인 유리가 내려오자 비류와 온조

는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건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고대사학자들은 온조가 내려와 초기에 정착한 곳이 한강유역일 것이라 보았고, 그것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임진강 유역의 연천 삼곡리와 학곡리에서 고구려 계통의 적석총이 발굴되자, 학계 일각에서 기존의 통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임진강 유역의 적석총이 서울 강남에 자리한 석촌동고분군보다는 앞선 시기에 조성된 것이고, 지금의 서울시를 관통하는 한강 본류와 그 지류에는 석촌동고분군을 제외하고는 고구려계의 백제적석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조가 임진강 유역에 한동안 머물다가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는 온조가 낙랑과 말갈의 잦은 침략 때문에 천도했다는 기록과도 부합한다.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계통의 적석총과 임진강 중류에 자리한 육계토성은 의문 속의 백제사초기를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 식민사관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던 3세기 중엽 이전의 백제의 역사가 허구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기에 육계토성, 연천 삼곡리 적석총, 연천 학곡리 적석총은 그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바로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이다. 사실事實을 정보情報로 가공하고, 그 정보에 스토리를 입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미지를 통하여 본래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시대이다. 즉 스토리텔링이 문화자산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이다. 이런 시류에 우리는 아직도 지정과 정비만으로 문화유산 정책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온조와 소서노의 이야기가 새로운 버전으로 재등장할 때, 그들의 역사적 무대가 ‘경기의 땅’으로 설정되길 바라고, 그것을 위한 ‘이야기 만들기’에 우리 모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

09

광주 곤지암 적석총



곤지암 적석총 전경

광주 곤지암 적석총은 기념문화재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자면, 임진강유역과 북한강 유역의 적석총과 마찬가지로 강안의 사구 위에 강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형식은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과 마찬가지로의 구조로, 하나의 묘역 내에 중앙부를 중심으로 55기 개의 묘곽을

연접하여 축조하였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벌집처럼 묘곽이 촘촘하게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우리나라 무덤 형식상 아주 희귀한 구조이다.

묘곽의 형태는 대체로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을 기본으로 세장방형과 방형이 일부 확인된다. 벽체는 천석을 가로쌓기 방식으로 2~9단 정도를 쌓아 올렸으며, 서로 연접하여 조성된 묘곽은 기존벽체를 이용하여 붙여쌓는 방식으로 조성되었거나, 동-서방향으로 긴 벽체를 조성한 후 칸막이벽을 쌓아 일정크기로 조성된 묘곽도 확인된다. 벽체에는 보강을 위해 기대어 세워진 받침돌이 확인되며 이를 통해 대체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접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유구 바닥면에서 관옥, 환옥, 집선문타날원저소호, 승문타날토기편, 사격자타날문토기편, 동물뼈 조각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적은 경기남부에서 제대로 발굴된 특이한 구조의 적석총이기에 학술적 의미도 크다.

첫째, 경안천으로 합류하는 곤지암 유역에 축조된 사실이다. 이는 곤지암 적석총이 크게 보아 한강 본류가 아닌 남한강 유역권에 분포하는 유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기존의 남한지역 적석총의 분포권에 벗어나 있지 않다. 이에 경기지역 적석총의 분포권의 남한계선이 경안천 유역까지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의 발굴에서 묘곽 내에서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아서, 유구의 용도가 무덤이 아닐 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곤지암 적석총에서 유구 내에서 부장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옥 등의 구슬류와 타날문토기 등이 출토되어 위와 같은 견해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셋째, 곤지암 적석총은 동시대의 백제시대 마을 유적과 함께 확인되었다.

이 점은 곤지암 적석총의 피장자가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예족의 무덤이 아니라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쉽게 말해서 곤지암 적석총의 피장자는 백제토기를 사용하고 백제식 주거지에 살던 백제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이른바 남한지역의 적석총은 백제적석총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곤지암 적석총의 축조방식이 임진강 유역의 학곡리 적석총과 유사하고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의 그것과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계의 적석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실은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 혈연적 사회집단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필자는 문헌 속의 맥족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삼국사기』의 문헌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계 적석총의 피장자는 주구토광묘(또는 주구묘)의 한족韓族은 물론 무관곽無棺槨 예족과도 문화적·종족적 전통을 달리하는 맥족貊族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곤지암 적석총을 포함한 남한지역 적석총의 피장자는 종족적으로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을 지닌 맥족이면서, 백제의 영역 내에 살았던 백제인이라 할 수 있다.

10

가평 달전리 토광묘 출토 철극

한림대학교 박물관은 2002~2003년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구간 가평역사부지 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4기를 발굴조사하였다. 발굴 조사 이후 이 유적을 학계에서는 가평 달전리 유적이라 이름 붙였다.

이 유적의 발굴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과는 경기도 지역에서 최초로 낙랑계 무덤이 발굴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2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철극鐵戟은 출토유물 중에서 백미白眉라 하겠다.

철극이 출토된 달전리 2호 토광묘의 규모는 길이 300cm, 너비 120cm, 잔존 깊이가 70cm 정도이다. 2호 토광묘 북쪽 단벽은 2단 굴광인데 묘광을 조성하는 과정상의 편의와 유물 부장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한 것으로 보인다. 장축은 남북방향에 가깝고 묘광 내부에는 길이 205cm, 너비 63cm의 목관을 설치했다. 북쪽 단벽에 설치한 단에는 화분형토기와 타날문단경호, 철극鐵戟 등이, 피장자의 허리 지점에서는 환두도와 쌍조식 검파두식이 출토되었고, 또 유견식 단조 철부 2점과 철검 2점도 출토되었다.

달전리 토광묘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보는 설과 기원전 1세기 후반 혹은 1세기 전반으로 보는 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출토된 철극鐵戟을 통해 후자의 설 즉 낙랑군 설치 이후의 무덤으로 보고자 한다.

철극은 찌고 찌르는 기능을 모두 갖추었기에 평지 전투에 적합한 무기이다. 한나라의 대표적인 무기가 철극이라는 사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도 이 철극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 철극은 위진남북조 시기에도 사용되었는데 안악 3호분이 그것을 말해 준다. 주인공 동수^{多壽}는 유주^{幽州} 요동군^{遼東郡} 출신으로 모용황^{慕容皝} 아래에서 사마^{司馬}를 지낸 인물이다. 이에 안



달전리 출토 낙랑토기(상), 철기류(하)

악 3호분의 행렬도의 군대는 전연^{前燕}의 무장^{武裝}을 잘 보여주며, 그 중에 철극 부대가 있다는 사실은 극^戟이 중원^{中原} 무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철극을 무기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연결하면, 철극이 부장된 달전리 2호묘는 낙랑무덤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하겠다.

이렇듯 달전리 2호 토광묘가 낙랑계 무덤으로 인정된다

면, 그 피장자 역시 낙랑 유민일 수 있으며,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북한강 유역에서 살아왔던 토착 마한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철극을 비롯하여 화분형토기 등 출토유물과 이단굴광식의 무덤 형식 등에서 입증된다. 특히 철극을 부장했다는 사실은 2호 토광묘의 주인공의 출자가 고조선인이 아닐 가능성을 높여준

다. 즉 그는 예맥족(濊貊族)도, 마한족도 아닌, 포괄적 의미에서 한족(漢族)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가정 아래 북한강 유역에서 한족의 무덤이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적극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단 북한강 유역에 낙랑에 살던 한인(漢人)의 일부가 옮겨와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가평 대성리 유적 등에서 발굴되는 낙랑계 유물들이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까지 고고자료에 의거할 때 북한강 유역에서 낙랑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나아가 백제초기 낙랑과 백제의 접촉 지역이 임진강 유역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북한강 유역까지 광범위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이 인정된다면, 마한 54개국의 비정과 관련하여 이병도와 천관우의 견해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달전리 유적의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11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과 낙랑계토기



기안리 제철유적 전경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은 특히 중부지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제철 관련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어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원삼국~삼국시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철기 생산 마을을 대표하는 유적이다. 그리고 서북한의 낙랑 지역에서 출토되는 다량의 낙랑계토기, 초기 제철 조업과 관련된 단야로^{鍛冶爐} 및 송풍관^{送風管} 등이 출토되어 낙랑의 유이민이 경기 남부에 정착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학술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안리 유적은 풍성 신미주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이 채집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북쪽의 고금산, 남쪽의 화산, 동쪽의 황구지천이 감싸고 있는 얇은 구릉성 평탄대지에 위치하는데 주변 조망이 쉽고, 수계가 풍부하여 생산에 알맞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서 경관을 복원해 보면 북쪽으로부터 마을(고금산), 생산구역(기안리 및 하천변), 무덤(화산고분군)이 위치를 달리하여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기안리 제철유적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한성 백제 고고학 및 고대 생산 유적에 대한 학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에서 단야로 10기, 도랑 103기, 수혈 222기, 환구 12기, 소토부 14기, 지상식건물지 22기, 수혈공방지 5기, 탄요 1기 등 총 405기가 확인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 조사에서 노 1기, 폐기장 5기, 수혈 1기, 도랑 1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출토유물중 외래유물과 제철 관련 유물이 다수를 차지하여 낙랑으로부터 이주한 이주민 집단이 만들었던 마을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낙랑계 토기는 중부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원삼국시대 중부지역의 토기가 중도식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이외에 외부의 제작기술에 영향을 받은 토기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밝혔다. 낙랑토기는 점토질계토기(점질계토기)泥質系土器, 활석이 혼



기안리 제철유적 출토 낙랑계 유물

입된 토기(활석혼입계토기)滑石混入系土器, 석영이 혼입된 토기(석영혼입계토기)石英混入系土器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그릇의 모양은 짧은목항아리(단경호)短頸壺, 납작밑긴목항아리(평저장경호)平底長頸壺, 통모양굽다리접시(통배)筒杯, 화분모양토기花盆形土器, 동이모양토기盆形土器, 시루 등이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동이모양토기와 시루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종이다.

낙랑계토기는 낙랑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낙랑의 제도기술을 모방하여 중부지역에서 제작한 토기를 말하는데, 대체로 낙랑지역에서 제작한 토기 종류가 대부분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며 몇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짧은목항아

리의 경우 처음 토기의 모양을 만들 때 외면을 두드린 문양(타날문)打捺文이 완성된 이후에도 목과 어깨부분에 그대로 남기고 내면에는 가로방향으로 삿자리문양(승문)繩文의 내박자 흔적이 대칭되게 남아 있다. 긴목항아리와 동이모양토기는 밑바닥과 동체부를 접한 경계 부분을 깎아서 마무리한 흔적이 있고, 물론 질 정리 과정에서 고속 회전을 하므로 외면에 요철면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낙랑계토기는 고운 진흙을 정선하여 만들었다.

기안리 유적은 중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낙랑계토기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된 유적으로서 고고학적 의의가 크다. 그리고 기안리 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주변 지역(마하리, 당하리)에서 이미 조사된 유물 가운데 다수의 낙랑계토기가 포함되어 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경기도는 새로운 사상과 기술이 도입되어 시험을 거쳐 한국화하고, 그 결과물을 조선 팔도로 보급하는 곳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상적으로는 양명학과 실학을 들 수 있고 고고 유적으로는 시흥 방산동과 용인 서리의 벽돌가마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경기도의 역사적 위상에서 화성 기안리 제철유적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첨단기술을 지닌 낙랑의 기술자 집단이 화성에 정착하였고 그들에게서 선진 제철기술을 배운 현지인들이 백제지역의 제철기술을 주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12

화성 기안리 유적의 노 시설과 송풍관



기안리 2호 환구 전경(상) 기안리 탄요 전경(하)



기안리 송풍관

원삼국시대는 철기 유물의 생산과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중부 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완성품을 단순 유통시키는 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중기 이후부터는 마을 유적을 중심으로 원료의 수입과 재가공을 통한 2차 유통이 시작된다. 특히 서북한 지역에 있는 낙랑 및 대방과의 긴밀한 관련성과 유이민의 유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철기의 재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다. 중부지역에서 철 원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후 4세기부터로 알려져 있다.

중부지역의 철기 생산 유적은 원삼국시대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화성 기

안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특히 다수의 낙랑계토기와 철기 생산 유구들이 확인되어 화성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철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기안리 유적은 단일 유적으로는 중부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기생산 유적이며, 특히 철광석의 제련 과정이 확인됨에 따라, 기원후 4세기 이전에 이미 자체적인 철 생산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기안리 유적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면적만 대략 20여만 평에 달하는 경기지역 최대 규모의 제철 유적으로 단야로^{鍛冶爐}, 제련로^{製鍊爐} 등 제철과 관련된 유구와 함께 연료를 만들던 목탄가마^{(탄요)炭窯}도 확인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철기생산이 이루어진 마을로 평가된다. 제철 생산 구역은 규모가 큰 3층의 환호를 둘러서 보호되고 있었고, 생산 유구는 다시 원형 내지 방형의 도랑을 둘러 내부를 보호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에 걸쳐 개보수 및 이동이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로 확인되었다.

기안리 유적은 단야공정을 보여주는 흔적이 대부분이다. 특히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에서는 유출재, 철재, 유리질화된 대형의 송풍관 등 정련공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흔적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조사에서는 제련로 1기^(복원 직경 70cm)와 송풍관, 노벽편, 노바닥, 철괴슬러그 등이 확인되어 안정적인 철기 생산이 이루어진 마을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반도 제련로의 구조는 평면형태가 원형을 띠는 고로^{高爐}의 구조로서 대구경^{大口徑} 송풍관 1개를 꽂은 단일 송풍 구조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유적 내에서 발견된 송풍관의 경우 그 양상이 진천 석장리 유적 출토품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형식과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단야와 제련이 모두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백제 제련

로의 조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안리 유적은 원삼국시대와 한성 백제를 가교하는 중요한 제련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안리 유적의 송풍관은 대량의 송풍력이 필요로 하는 작업에 적절한 지름이 큰 형태인데 경주 황성동 등의 제철로 관련 유적에서 다수가 확인되고 있어 기안리 유적에서 제철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된다. 송풍관은 외면에 세로 방향의 삿자리 문양(송석문)繩蓆文이 확인되고, 내면에는 가로 방향의 삿자리 문양이 뚜렷하다. 그리고 입술 부분은 강한 회전 물손질 방식으로 정리한 특징 등 낙랑계토기 제작기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대표적인 송풍관은 낙랑토성 출토품이 있다.

기안리와 비교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화성 장안리 유적이 있다. 화성 장안리 유적에서는 단야로 노적 5기와 공방지 3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단야슬래그, 용해슬래그, 단조박편, 입상재 등 다양한 형태의 철기 제작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 화성 금곡리 유적에서는 소성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화성 발안리 94호 수혈에서는 송풍관과 슬래그, 화성 석우리 먹실 131호 수혈에서는 유출재와 노벽이 발견되어 마을에서도 소규모의 대장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철기의 생산을 위해서는 숯이 가장 중요한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연료용 숯을 굽던 가마를 백탄(白炭)가마라고 한다. 화성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백탄가마는 반송리 행장골에서 3기, 분천리에서 2기, 기안리 IV지점에서 1기가 있다.

13

평택 마두리 유적 출토 마형대구



마두리 1호 토광묘 출토 마형대구



마두리 1호 토광묘 출토유물



마두리 2호 토광묘 출토유물

평택 마두리 유적에서는 마형대구를 비롯해 유개대부호·단조철부·이단병식
철모·무경식철촉 등 경기지역의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중요 유물들이 출토
되었다. 음각문양이 베풀어진 고식의 마형대구는 경북 영천 어은동, 경주 조양
동 등 영남지역에서만 출토되었는데 최근 평택 마두리 유적과 아산 용두리 진
터유적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마형대구는 청주 봉명동·송절동·송대
리, 천안 청당동, 아산 명암동 밖지르레·용두리 진터 등지에서 200여 점 이상
이 된다. 평택 마두리 1호 토광묘 출토 마형대구는 중서부지역의 가장 높은 위
도에서 출토된 고식으로서 그 출현시기와 확산과정 규명에 매우 중요한 유물
로 평가되고 있다.

마두리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194-9번지 일원으로
독립된 해발 28m 구릉의 북서사면에 해당한다. 서쪽과 남쪽으로 각각 황구지
천과 진위천이 합류해 남쪽으로 흘러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는
데, 구릉의 사면부는 이러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양호한 입지이다.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문화층, 마형대구가 출토된 1호 토광묘를 포함
한 원삼국시대 토광묘 3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마두리 1호 토광묘는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영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209cm, 너비 78cm, 최대깊이 19cm이다. 유물은 묘의 중
양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 마형대구, 서단벽 쪽에서 철부와 철검,
그리고 유리제 경식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2호 토광묘에서는 유개대부호와
단조제 철검·철모·철검 등이, 3호 토광묘에서는 경부 상단이 결실된 원저단
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마형대구는 전체길이 9.6cm, 높이 5.3cm이며, 전체적으로 비례와 균형이 맞아 안정감이 있고, 둔부, 두부, 복부와 다리 사이의 양감이 잘 드러난다. 두부에는 굴레를 표현한 횡·종방향의 끈이 침선으로 표현되었다. 몸통은 3개의 종방향 문양대로 구획되며 횡침선과 돛자리문, 압날삼각문이, 다리 사이의 격판에는 돛자리문이 시문되었다. 목에는 3조의 횡침선을 사이에 두고 위에는 이중의 삼각선문, 아래로는 압날삼각문이 시문되었다. 규모와 문양이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경주 조양동 60호 묘, 경주 덕천리 124호 묘 출토품이 있다.

마두리 마형대구는 경주 조양동 60호 출토 마형대구와 문양 구성과 크기가 매우 유사할 뿐만아니라 단조철부·이단병식철모·무경식철촉 등 철기의 형식과 조합상도 거의 동일하여 조양동 60호묘와 같은 2세기 중엽경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러한 편년은 남동위원소비 분석에서 4세기 이전으로 추정된 마두리 마형대구가 근거리인 충청도 지역 출토품보다 경상도 지역의 마형대구와 원료상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온 것과도 부합한다.

마두리에서 마형대구가 출토되기 전에는 이른 시기의 마형대구는 영남지역에서만 확인되어 중서부지역 마형대구의 근원을 논할 때 영남지역에서 발생·유입되었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평택 마두리와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에서 음각문을 표현한 고식 마형대구가 출토됨으로써 중서부지역에서의 등장 시점이 영남지역보다 늦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평택 마두리에서 마형대구가 출토되어 중서부지역의 마형대구 또한 문양의 표현 범위가 넓고 세밀하며, 구체적인 것에서 범위가 축소되거나 사라져가는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평택·아산 등의 중서부 해안지역에서 출현하여 천안·청주 등의 내륙으로 확산되어가는 전개양상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4

파주 육계토성과 하북위례성



하늘에서 내려본 파주 육계토성과 임진강

1996년 7월 26일부터 3일간 임진강 유역에는 1,500m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집중호우가 내렸다. 임진강은 현무암 대지를 흐르기에 강 유역이 넓지 않다. 이렇듯 좁은 강안에 폭우가 내리니 어지간한 제방은

버티지를 못했고, 파주시 적성군 주월리 마을을 지키고 있던 제방도 일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수마가 지난 어느날, 젊은 향토사학자가 주월리 일대를 탐사했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엄청난 양의 백제토기편과 철제유물을 발견하게 된다.

그해 늦가을 경기도박물관은 한양대박물관과 공동으로 훗날 ‘파주 주월리 유적’으로 불리는 유물출토지역을 긴급 수습 조사하여, 한성백제시대의 전형적인 여묘자형 주거지를 비롯하여 온돌시설, 각종의 백제 토기, 다양한 철제무기, 장신구 등을 발굴하게 된다. 그중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지역에서 드물게

출토되는 고구려 토기도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어쨌든 주거지나 출토 유물들의 학술적 가치가 보통 이상의 것들이어서 고고학계는 물론 고대사학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발굴조사지역이 일찍이 백제토성으로 지목받아 오던 육계토성(六溪土城) 내부였던 점이다. 육계토성은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주위가 7,692척으로 강 건너 호로그루성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육계토성은 현지소로부터 7리에 있고 둘레는 7,692척이다. 성내에 초석(楚石)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것을 옛날 궁궐터가 있었던 자리하고 하는데 고려의 이궁(離宮)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도 기록했다. 한편, 1993년 한국고고학계의 제1세대인 윤무병 교수는 “풍납동토성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곳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기록과 주장은 육계토성이 도성에 준하는 토성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서울의 풍납토성에 준하는 임진강유역의 토성 내부에서 한성백제 시기의 집자리와 유물이 확인되었기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박물관은 2005년 육계토성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한다. 그리하여 육계토성은 임진강 남안의 충적대지에 축조된 평지토성으로 둘레는 약 1,700m이며, 평면은 장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이고, 구조는 내성과 외성의 이중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외성은 판축기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일부구간에는 돌을 덧대어 보강하였음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육계토성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7년 10월 22일 경기도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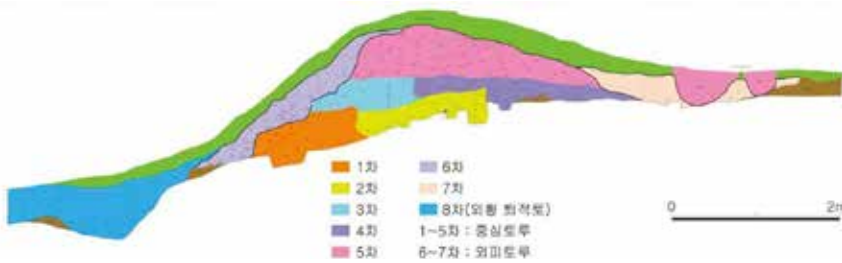
한국고대사학자들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이북

에 도읍을 정했다가, 낙랑과 말갈의 침략을 피하여, 한강 이남으로 천도遷都하였다고 보면서, 첫도읍지를 하북위례성河南慰禮城, 천도한 곳을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 부르고 있다. 또 그들은 하남위례성을 지금 서울의 풍납토성으로 비정比定한 다음, 하북위례성을 서울의 중랑천 일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천도의 배경이 외적의 침략 때문이라는 기록을 감안할 때, 반나절 거리도 되지 않은 곳으로의 천도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풍납토성과 입지·형태·축조방식 등에서 흡사한 임진강유역의 육계토성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일부 학자는 육계토성이 하북위례성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에도 임진강은 접경지역이었다. 백제가 건국한 이래 임진강은 낙랑·말갈과 대치하던 곳이었고, 낙랑 멸망 후 백제의 대고구려전의 최전방이었으며, 한성백제가 북부세력의 중심 거점이었다. 어찌 보면 한성백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축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성백제는 한강본류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일대로만 각인되어 있다. 육계토성을 비롯하여 백제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은 사실상 북한강과 남한강 그리고 임진강 유역이다. 앞으로 백제의 실체에 접근하고 경기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 경기지역의 백제유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육계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천명하고 선양하는 일이 우선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온조가 처음 정착하여 도읍을 정한 곳은 역사적 정황과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임진강유역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 문화상품화하는 세상에 우리는 내안의 보배도 제대로 모르고 묵혀두고 있지 않나 반문해 본다.

15

길성리토성과 소근산성



길성리토성(상), 소근산성 단면(하)

경기도의 대표적인 백제 성곽으로는 길성리토성, 소근산성, 수원고읍성, 한갈리성, 운평리성 등이 있다. 우선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백제 산성으로는 길성리토성과 소근산성이 대표적이다.

길성리토성은 화성시 화성읍 요리와 길성리 일대의 말굽형 구릉의 능선을 따라 만들었다. 황구지천과 진위천이 합류하는 북서쪽에 위치하며, 주변은 얇은 구릉과 평야가 펼쳐져 있어 길성리토성 정상에서 바라볼 때 주변 조망이 매우 탁월하다. 이 토성의 특징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부로 이어진 능선 2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능선 사이의 계곡에 출입구를 두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곡간부를 감싼 형태의 포곡식(包谷式) 토성이다. 규모는 남북길이 약 550m, 동서길이 약 475m로 전체 둘레는 2,311m에 달하며 내부 면적은 261,250㎡(약 79,000평)으로 경기 지역 최대의 토성이다. 그러나 현재는 원지형이 심하게 훼손되어 남아 있는 성벽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토성의 부속시설로는 북문 및 동문터로 추정되는 시설만이 확인되었다. 규모 등으로 볼 때 군사적인 용도가 아닌 행정치소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축성 방식은 성벽 내외면을 절토하여 경사를 만든 후 흙을 다져 외피를 씌우는 방식(삭토법)과 흙을 다져올려 쌓는 방식(협축법)이 구간별로 확인된다. 토성의 성벽을 구성하는 흙은 주변에서 채취한 점토, 사질토, 암반풍화토를 이용하였으며 별도로 가공된 소토와 목탄, 재 등을 첨가하여 사용한 구간도 확인된다. 성토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이루어졌다. 토성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하여 성벽 조사 이전에는 한성백제의 늦은 시기(4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벽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이후 성벽 내

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류를 근거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으로 보거나 성벽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집자리에서 백제토기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4세기 전반으로 보기도 한다. 결국 늦어도 4세기 전반에는 이미 토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근산성은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산 18번지 일대로 동쪽의 진위천과 서쪽의 관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길성리토성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약 4km 떨어져 있으며, 남쪽과 서쪽 및 남동쪽을 조망하기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비탈진 경사면을 삼태기 모양으로 둘러싼 산성으로 내외면 협축 방식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발굴조사에서 일부 구간은 판축법을 이용해 만들었음이 확인되었다. 성의 규모는 둘레 629m, 총면적 15,130㎡으로 성벽의 높이는 최대 4m에 달한다. 토성 내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대다수가 무기, 마구류여서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성벽보다 선행하는 저장 구덩이에서 한성백제Ⅱ기(기원후 5세기)에 해당하는 고배, 병, 대웅 등 백제토기류가 출토되어 이보다는 늦은 시점에 축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백제의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벽의 축조는 성벽심을 중심으로 7차에 걸쳐 판축 성토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소근산성과 인접한 대왕리 및 신왕리 유물산포지에서 다수의 백제토기가 발견되고 있어 산성과 관련이 있는 마을은 소근산성 내부와 서북쪽 및 서남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소근산성에서는 백제토기와 더불어 신라토기 및 고려와 조선시대 유물까지 폭넓게 발견되고 있어 후대에도 중요한 거점 성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길성리토성과 소근산성은 모두 한성백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축조 세력에 대해서는 백제와 다른 마한의 잔여 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특히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 가운데 한성백제기의 토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중서부문화권에서 출토되는 토기 공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와 공존하고 있었던 지역 세력권의 성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6

하남 감일동 백제고분군



하남 감일동 유적의 백제석실분(상), 출토유물(하: 계수호, 부뚜막 모형토기, 누금기법의 금제구슬)

하남 감일동 백제고분군은 감일지구 택지개발조성 과정에서 확인되어 고려문 화재연구원이 2018년에 발굴한 한성백제기의 고분군이다. 묘제는 전체 54기 중에서 횡혈식석실묘가 52기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최대의 한성백제기 석실묘 유적이라 단언할 수 있다. 횡혈식석실묘의 구조는 모두 반지하식으로 오른쪽에 치우친 장방형 연도, 배수시설을 설치한 점이 무엇보다도 주목된다.

감일동 고분군은 한성백제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풍납토성·몽촌토성과 인접한 대단위 고분군으로, 한성백제시대 중앙 귀족의 무덤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유적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다른 고분군과는 다르게 한성백제기 토기만이 출토되고 있어서 매장관념을 비롯한 장제와 축조수법 및 한성백제 묘제의 존속시기 등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주변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한성백제기 매장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물에서는 청자계수호靑瓷鷄首壺 및 호수호虎首壺 등 중국 자기의 출현이 주목된다. 이는 당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대 최고 귀족층의 묘역임을 추정케 하기 때문이다. 인근 풍납토성 출토품인 중국 청자와의 조합은 당시 중앙의 생활방식이 매우 호화로웠음을 알게 해주며, 이러한 문화를 접한 백제 지방귀족에게 중국 자기류가 사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특히 호수호는 중국 남조시대에서 유행시기가 매우 짧았던 유물로 편년자료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또 중국뿐 아니라 고구려 벽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취사용기 조합인 부뚜막 모형토기 두 점이 출토된 점도 특기할 만

하다. 부장유물로 취사용기를 넣는 전통은 횡혈식석실묘 묘제의 도입과 관련되었거나 혹은 낙랑 이래 전해진 요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는 요소이다.

이들 유물 외에 누금구슬, 가랑비녀, 쇠뇌 등은 한성백제기 문화와 생활방식, 대외교류와 관계있는 자료이며, 특히 각 석실묘에서 수습된 각종 토기류와의 교차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감일동 백제고분군 가까이 흐르는 감이천은 감천, 성내천을 통하여 한강본류로 합류하는데, 백제의 왕도였던 풍납토성 및 몽촌토성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런 사실을 감일동 고분군이 한성백제기 최대의 고분군이라는 사실과 연결할 때, 한성기 하남의 중심지역은 감이천 유역일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 이는 곧 한성백제기 동안 지금의 고골일대는 하남지역의 중심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더 나아가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고골일대가 하남위례성(혹은 한산)일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출토유물 중에서 쇠뇌의 발굴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발굴성과이다. 현재까지 한성백제기 고분군을 비롯한 삼국시대 무덤에서 쇠뇌가 정식으로 발굴된 바가 없거나 있어도 한두 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풍납토성에서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청동 초두 등과 함께 청동 쇠뇌가 수습되었다고 전한다. 이 풍납토성 출토 쇠뇌와 감일동 고분 출토 쇠뇌를 연결해 볼 때, 백제에서 쇠뇌를 사용했을 개연성을 열어준다. 만약 이런 추측이 허용되어 백제가 쇠뇌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본 유적 출토 쇠뇌는 백제의 병기체제 연구를 위한 중요한 고고자료가 아닐 수 없다. 쇠뇌는 화살과는 달리 평원에서 사용하는

대기병용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쇠뇌의 제작에는 고도의 주조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유적 출토품은 수입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랑비녀의 출토 역시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 벽화고분을 보면 고구려 여인들은 장식용 가발인 가채加髻를 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가랑비녀는 이런 가채를 고정하고 그것에 장신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인 바, 이런 가랑비녀가 출토된 사실은 백제인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장식용 가발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랑비녀의 출토가 지닌 고고역사적 의미 파악에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17

화성 마하리의 백제고분



마하리 유적전경

화성 마하리 고분군은 백곡리 고분군, 요리 고분군과 함께 화성지역의 대표적인 백제한성기 지역지배 집단의 묘역이다. 발굴조사는 지난 1996년 호암미술관, 1999년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목곽묘 1기, 목관묘 15기, 석실분 1기, 석곽묘 49기, 석곽묘 속의 옹관묘 1기 등 모두 67기의 다양한 묘제가 있는 고분군임이 확인되었다.



마하리 고분군 발굴 후 전경



목관묘

마하리 고분군에서는 목관묘·목곽묘로부터 석곽묘를 거쳐 석실분에 이르는 묘제의 연속적인 변천 과정이 확인된다. 석곽묘는 곱의 재료를 나무에서 돌로 바꾸었을 뿐, 무덤의 축조 기법이나 구조, 장법에서 목곽묘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또한 석실분은 무덤의 규모와 장법에서 석곽묘와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횡목 설치 전통이나 유물의 부장 위치와 유형 등에서 석곽묘와 공유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석실분의 채용이 지역의 매장 전통과 단절된 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묘제와 유물 부장 유형에 얼마간의 계층성이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계층 분화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하리 1기(3세기 후반)에는 목곽묘와 목관묘의 묘제가 상하 두 계층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마하리 2기(4세기 전반)부터 목곽묘를 대체하여 석곽묘가 출현하면서 계층은 최상층으로부터 하층까지 대략 네 계층으로 분화가 진전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4기(4세기 후반)까지 지속되나 다만 4기부터 석실분이 출현하면

서 변화를 겪는다. 즉 석실분이 마하리집단의 최상위 신분층 무덤으로 채용되면서 계층은 더 분화되어 간다.

마하리 집단과 백제 한성지역과의 관련성은 고분군 조영 초기인 3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본격적으로 백제 한성지역의 요소가 등장하는 시점은 3기^(4세기 중엽)부터이며, 4기부터 한성지역 백제 지배세력에 의해 정치·행정적으로 이 지역이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묘제와 부장유물에서 나타난다.

고분군 조영 초기부터 백제와의 관련성은 난형호와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등을 통하여 한성양식토기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기부터 직구단경호를 부장하는 백제 한성지역에 고유한 부장유형이 마하리 고분군에 직접 등장하는데, 등자와 공반하고 있어 마구의 출현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3기에는 이 지역 최상급 무덤축조 집단들이 한성지역 부장유형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4기부터는 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4기부터 마하리에는 석실분이 출현하고 그 안에서는 그 이전에 석곽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금제품이 출토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석실분은 이 지역 최고위 신분층의 묘제로서 백제 한성 중앙집단의 매개를 통하여 채용되었을 것이며, 4세기 후반에 백제 중앙과 이 지역집단 수장 사이에 신속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지역이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성지역 부장유형이 중급 이상의 무덤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백제 중앙 대 지방의 편제가 이 지역에 정착되어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8

용인 마북동 EMS 부지 내 주구토광묘



마북동 3호 토광묘 전경



마북동 3호 토광묘 토기

유적 발굴을 하다보면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적 중 하나가 용인 마북리 EMS 부지 내 주구토광묘이다. 이 유적이 발견된 EMS 부지는 30,000 m^2 면적 이하의 공사 지역이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표조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이루어졌고, 발굴 이전에 이미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런 와중에 ‘용인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건설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지역 경계 펜스 주변의 원지형이 일부 남아있는 범위에서 구연부가



마북동 3호 토광묘 철기, 솥돌

잘려나간 난형호와 철검 1점을 비롯하여 다량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이에 비록 유적의 80% 이상이 공사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어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어 고분군의 대략적인 범위조차 파악할 수 없었으나 조사 결과 백제시대 토광묘 3기와 함께 청동기·조선시대 주거지, 삼가마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3호 토광묘는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주구토광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구는 조사지역 외곽까지 이어지고 있어 크기와 형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으나 매장주체부의 위쪽을 눈썹 모양으로 두르고 있다. 내부에서는 봉분 축조 과정의 영정주로 추정되는 원형 주공이 4개가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시신을 안치한 매장주체부에는 대형의 목곽이 사용되었고, 유물부장공간은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목곽의 흔적은 묘광 내부와 토층상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물은 목곽내부와 부장공간에서 출토되었으며 목곽 내부에서는 소환두

대도素環頭大刀를 비롯하여 금동세환이식·철도자·숫돌 등의 착장품과 목곽에 사용된 관정 22점이 출토되었고, 부장공간에서는 평행타날문대호·원저단경호·직구광



마북동 금제 세환이식

견호 등 크기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성된 3점의 토기와 함께 철부·철검·철착·삼칼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주구와 목곽묘 사이의 공간에는 장란형 토기 2개체를 횡치한 합구식 옹관묘가 매장되었다.

주구토광묘는 입지상의 우월성, 묘제의 규모와 형태, 유물부장상의 탁월한 차별성, 매장묘의 존재 등으로 보아 고분군 내 최고 위계로 추정할 수 있으며, 출토유물 양상으로 4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이후 주구토광묘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보존이 결



마북동 토광묘 매장 옹관묘

정되었으며, 이후 최소한의 보호책을 마련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무덤은 현재까지 용인 구성 지역에서 발굴된 주구토광묘 중에서 무덤의 규모나 부장유물의 질과 양에서 단연 으뜸이며, 옹관묘가 딸림무덤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주구토광묘에서는 별로 확인되지 않지만 석촌동 고분군 등 적석계 무덤에서 종종 발견되는 숫돌이 확인된 무덤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강으로 합류하는 탄천과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신갈천의 분수령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동일 구릉에서 원형수혈 100기, 주구토광묘 7기가 발굴되어 이른바 용인 마북동 백제 유적의 중심 무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고고학적 사실은 다음과 같은 역사고고학적 유추를 가능케 한다. 우선 신라, 고려시대 용인의 읍치였던 구성지역이 백제시대에도 탄천 유역권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토착적 성격이 강한 주구토광묘이지만 그 피장자를 비롯한 구성 일대의 세력들은, 탄천을 통하여 석촌동 중앙세력과 더 긴밀하게 교류하였고, 그 결과 백제 중앙의 문화권 내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장자의 허리 부근에서 숫돌이 확인되고 토기의 종류와 형식이 백제 중앙식과 통하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한편, 이 무덤은 탄천유역에서 현재까지 주구토광묘가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기 남부·충청권 등 우리나라 중부 내륙권 주구토광묘의 북방한계선에 있는 무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무덤은 주구토광묘의 분포권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19

화성 요리 백제고분 출토 금동관



요리 고분군 전경



요리 1호 목곽묘 전경

화성 요리 고분군에서는 경기지역 최초로 백제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1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었으며, 1호 목곽묘 이외에도 목관묘, 분구묘, 석곽묘, 옹관묘 등의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었다. 요리 1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금동관모 등의 유물은 백제한성기에 화성 요리지역이 길성리토성과 더불어 백제의 주요 지방거점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당대 최고의 위세품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백제 금동관은 모두 9점으로 화성 요리 1호 목곽묘, 천안 용



요리 금동관



요리 금동관 세부

원리 9호분, 공주 수촌리 1·4호분, 서산 부장리 5호분구 1호묘,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익산 입점리 86-1호분, 나주 신촌리 9호분 을관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그간 공백으로 남아 있던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금동관이 출토되어, 백제 금동관이 백제의 전 영역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요리 고분군은 화성시 향남읍 요리 산 13-4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주변으로는 길성리토성과 사창리 고분군 등이 분포하는데, 길성리토성의 남동회절부에서 남쪽으로 뻗은 해발 48m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부에 조영되었다.

금동관이 출토된 요리 1호 목곽묘는 묘광을 파 덧널을 만들고 거기에 주검을 넣은 나무널을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봉토를 쌓아올린 무덤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507cm, 너비 310cm로 현재까지 확인된 경기지역 목곽묘 가운데 가장 크며, 위계가 높은 화성지역의 중심 대형무덤이다. 부장유물은 관내의 금동관^冠과 금동신발^{(식리)飾履}을 비롯한 금귀걸이^{(이식)耳飾}, 고리자루큰칼^{(환두대도)環頭大刀} 등의 위세품이 있으며, 부장부의 재갈^{(비)轡}·등자^{鐙子} 등의 마구, 철제 창^{(철}

모)鐵帽 · 낫(철검)鐵鎌 · 도끼(철부)鐵斧,
심발형토기 등이 있다.

백제 금동관은 동관을 투조透彫,
단조鍛造, 절곡折曲, 조금彫金, 도금鍍
金해 만든 여러 부품을 조립하여 제
작한 것으로 해당 부품은 복륜, 대
륜, 대륜과 수발, 측판, 입식, 영락, 원
두정 등이 있다. 요리 금동관은 좌우
측판을 복륜 안쪽에 끼워 넣은 후 좌
우 입식과 대륜을 조립한 고깔형태
이며, 복륜 정수리에 대륜으로 연결
된 수발장식을 올렸다. 금동관의 크기는 수발을 포함한 전체 높이 21.8cm, 너비
13.4cm로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 금동관 중에서 큰 편에 속한다.



참고자료 : 호암미술관 소장 전 고려 지산동 출토 금동행엽

복륜은 정수리 부분이 넓고 완만한 ‘∩’자 형태에 가까우며, 복륜의 하단
끝 부분이 손톱모양으로 벌어져 있다. 대륜은 길이 6.4cm, 직경 0.6cm의 관형이
다. 수발은 직경 3.6cm 가량의 반구형으로 영락 투공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륜
의 너비는 1.4cm 가량으로 점열문 · 파상점열문 · 원점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문양대 사이의 중앙에 원두정이 위치한다. 원두정은 측판과 함께 입식
의 결구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양과 함께 장식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좌
우 입식은 남아 있는 형태로 미루어 보아 조우형鳥羽形으로 추정된다. 요리 금동
관의 전체적인 조립순서는 먼저 대륜과 측판을 복륜에 결합한 후 좌우 입식과
함께 대륜으로 감싸 원두정으로 고정하여 고깔형태의 관을 갖춘 다음 전후 입

식을 덧붙여 마무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양은 측판과 입식에 연봉삼엽문이 투조되었는데, 측판의 외연 상단에 이엽문 2점 1쌍이 서로 대응된 점이 특이하다. 삼엽문은 세 잎의 모양이 다른데 가운데의 것은 끝이 뾰족한 오각형이며, 양 옆의 것은 갈퀴모양에 가깝다. 문양의 외연은 부드러운 곡선을 띤 연봉문(삼엽문)을 표현했다. 전체적인 측판의 문양 단위는 11열 정도로 확인되며, 상하열의 각 문양소가 서로 교차되도록 배치되었다. 측판 상단의 1~5열은 상하 혹은 좌우 2개 1조의 영락 투공이 관찰되는데 반해 6열 이하와 남아 있는 입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록 영락과 금동사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투공의 존재와 투공 주위에서 보이는 마모흔 등으로 보아 영락이 달려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동관이 출토된 요리 1호 목곽묘의 연대는 동반 출토된 재갈과 심발형토기의 상대연대를 통해 가능해 볼 수 있다. 재갈은 원판비이며 인수는 삼자루형이 부착된 구조로 4세기 후반대로 편년되며, 심발형토기 또한 기형 및 사격자 타날문 등으로 보아 승문타날심발형토기가 등장하기 이전의 4세기 후반대에 위치한다.

1호 목곽묘가 조영된 4세기 후반의 경기 남부지역은 분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오산 수청동, 용인 마북리·두창리 등지에서 대형 목곽묘가 등장한다. 이 시기는 한강 이남의 마한연맹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며, 백제가 국가체제를 완성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1호 목곽묘는 4~5세기대 화성을 포함하는 경기지역의 중심 대형묘로 금동관과 금동신발을 반출하는 위계가 높은 수장급 분묘이다. 특히 금동관은 당대 최고의 위세품으로 피장자의 성격, 백제 중앙과의 관계, 백제 중

앙의 영역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요리 금동관은 불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금동관의 전면^{全面}을 장식한 문양이 연화문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양을 자세히 보면 꽃받침이 있는 연봉 내에 이른바 삼엽문이 투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삼엽문 역시 단순한 세잎 문양이 아니라 호암미술관 소장 전 지산동 출토 금동행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꽃받침에 연봉을 양식화한 연봉문이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요리 출토 금동관의 삼엽문을 보면 아주 양식화되었지만 중앙의 둥근 잎은 연꽃이고 양쪽의 아래로 처진 잎은 꽃받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요리 금동관의 피장자는 자신의 금동관에 연봉 연화문을 전면^{全面}에 장식함으로써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염원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확장하면, 4세기 후반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성백제 영역에 불교가 이미 전파되었고, 그것도 불교문양을 애용할 정도로 저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

오산 수청동 유적과 매홀



수청동 유적 전경

백제시대 경기도 서남부 지역, 특히 수원 · 화성 · 평택 · 안산 등지의 행정 거점은 어디였을까? 또 삼국 시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있던 5세기 말엽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때까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매홀 買忽’은 과연 어디인가? 이런 물음에 대하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대부분의 백과사전류에서는 지금의 수원을 ‘매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정



수청동 5-2지점 18호 주구부 목관묘

설은 오산 수청동 유적(烏山水淸洞 遺蹟)이 발굴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산 수청동 유적은 세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발굴된 유적으로 경기문화재연구원(京畿文化財硏究院)이 2004년 12월에 착수하여 2008년 12월에 완료하였다. 발굴 결과 한성백제시대의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 지하에 움을 파서 무덤칸을 만들고 무덤 주변에 도랑을 돌린 토광묘의 한 형식)가 330여 기 확인되었는데, 이미 파괴된 무덤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무덤들을 합하여 총 500여 기의 무덤이 약 3만 평의 범위 내에 밀집 분포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무덤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77,800여점 출토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는데 기원전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또 167기의 무덤에서 총 76,000여 점의 구슬이 출토되어, “마한 사람들은 구슬을 보배로 삼았는데 옥구슬로 옷을 치장 하거나 목걸이와 귀걸이를 사용했으며,

금·은·비단은 보물로 여기지 않았다”고 기술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을 입증해 주었다. 이외에도 경기지역의 백제 무덤에서는 아주 드물게 출토되는 갑옷과 마구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백제의 무기 체제를 밝힐 수 있는 대도, 철모, 화살촉 등의 무기류가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특히, 중국 동진(東晉)에서 제작된 청자반구호와 금동제 화살통이 발견되어 이 수청동 유적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케 해주었다.

오산 수청동 유적은 우리나라 최대의 백제고분군이다. 또 그 조성기간이 250년 이상이나 되고 다종다양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백제의 문화상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고고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학술적으로는 백제의 묘제와 편년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고, 삼국시대 유리의 제작방식과 사용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경기 서남부의 중심지역이 오산 수청동 일대일 가능성이 타진되었고, 이를 통하여 문헌 속의 ‘매홀’이 지금의 수원지역이 아니라 오산지역일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판단은 유적지 주변 일대에 매홀초등학교와 매홀중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사실, ‘매’의 의미가 물과 연결되고 유적지가 자리한 곳이 수청동이라는 점, 바로 인접하여 독산성이 자리하여 읍치(邑治)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 등으로 뒷받침된다.

21

오산 수청동 유적의 청자반구호



수청동 4지점 25호 목관묘의 청자반구호

중부지역의 원삼국~삼국시대 무덤은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분구묘^{墳丘墓}, 경기 내륙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 영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돌무지무덤^(적석분구묘積石墳丘墓) 등 지역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식이 공존한다. 그리고 분구무덤과 도랑움무덤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방형

집자리가 확인되어 두 지역의 문화권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역에 따른 무덤과 집자리의 차별화는 종족적 차이를 대변하기도 하는데 주로 방형 집자리는 마한^{馬韓}을 상징하고, 여·철자형 집자리는 예^濊로 대표되기도 한다. 즉, 중부지역의 경우 원삼국~삼국시대에 마한과 예가 공존하면서 문화상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부지역의 무덤에 끼묻은 유

물들의 성격은 백제가 한성에 도읍을 만들고 고대국가로 성장한 시기부터 크게 달라진다. 즉 백제로부터 사여^{賜與} 받은 고가의 위세품^{威勢品}이 껌문거리로 등장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치품이 껌문거리로 확인된 대표적인 무덤이 오산 수청동 유적이다.

오산 수청동 유적은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토광묘군으로서, 경기 남부에서 조사된 최대 규모의 무덤 유적이다. 유적은 오산시 수청동, 내삼미동, 금암동 일대 방대한 면적에 조영되었는데 자연지리적으로는 동쪽의 반월봉^{半月峰}과 서쪽의 여계산^{女鷄山} 사이에 남북으로 뻗어 있는 능선 남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소금암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금암천이 오산천과 합류한다.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8년 12월 24일까지 만 4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오산 수청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자반구호^{靑磁盤口壺}는 백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유물이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南朝}로부터 다양한 청자류를 공급받았다. 그리고 이를 지방의 유력 계층에게 사여하여 간접지배의 형식으로 지역 세력권을 통치한 것으로 유명하다. 청자반구호가 바로 이러한 사여 정치에 사용한 대표적인 중국제 고급 청자이다.

청자반구호는 오산 수청동 유적 4지점 25호 널무덤^{木棺墓}에서 출토되었다. 널무덤의 구조는 구릉 북쪽에 부장공간을 두고, 남쪽에 목관을 안치한 구조이다. 널이 있었던 남쪽 공간 양쪽 측면에는 고리자루쇠칼, 화살통, 철모 등을 시신과 나란히 놓았으며, 북쪽 부장공간에 청자반구호, 곧은목항아리 등의 토기류를 놓아 두었다. 껌문거리 유물들이 매우 풍부하고, 화살통 및 고리자루쇠칼, 청자반구호 등 일반적인 껌문거리와 차별화된 고품격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무

덤 주인의 신분이 비상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성백제의 중앙 세력이 오산 수청동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고가의 청자반구호를 사여한 결과물로서 당시 백제 중앙과 지방 세력간 통치 형태의 일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오산 수청동에서 출토된 청자반구호는 입술 부분이 1/3 가량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제사 행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당시에는 한쪽으로 누워 있었는데 다른 토기류들과 같이 똑바로 세워 놓았던 것이 토사의 압력에 의해 비스듬히 누워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반구호는 몸통 중간 부분부터 입술까지만 유약이 발려져 있다. 목이 좁고 바닥은 약간 들려 있으며, 몸통은 중앙이 가장 넓은 형태로서 전체적으로 육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횡방향으로 눌러 붙인 귀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데 총 8개가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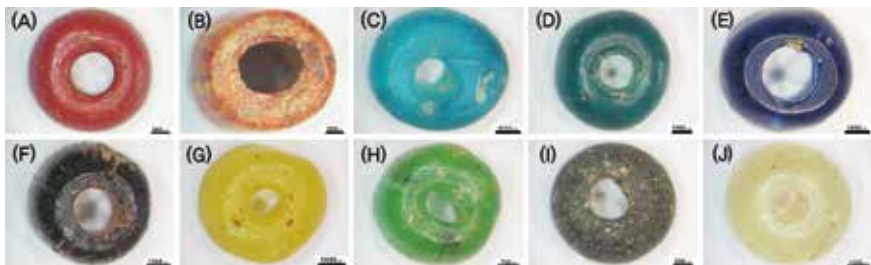
청자반구호는 천안 화성리 고분, 고창 봉덕리 고분 등 주로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공통점이 있다. 수청동의 청자반구호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형태적 특징은 중국 장쑤성(강소성)江苏省 주룽(구용)句容의 서진西晉 원강4년元康4年(294년) 무덤 출토품과 유사한 점에서 기원후 4세기 초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함께 출토된 유물들의 형식으로 볼 때 기원후 4세기 후반에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22

오산 수청동 백제분묘군 출토 구슬 제품



수청동 4지점 19호 주구부 목관묘 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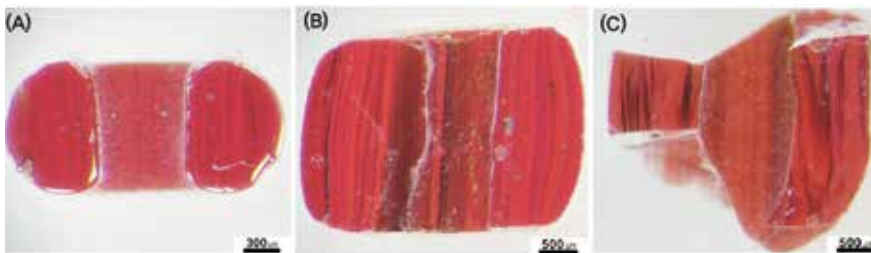


수청동 유적 출토 각종 유리구슬

오산 수청동 유적은 원삼국시대 분묘를 중심으로 총 147기의 유구에서 약 75,000여 점의 구슬 제품이 출토되었다. 구슬 제품은 광물제, 토제, 유리제가 확인되며 토제는 오산 수청동 분묘군 내에서 유일하게 5-1호지점 26호 목관묘에서 출토되었다. 광물제는 주황색, 갈색, 무색, 회색, 벽색을 띠며, 형태는 관옥, 다면옥, 환옥이 확인된다. 유리제는 대부분 환옥이나 곱옥, 금박구슬, 연주옥과 같은 특이한 구슬이 확인되며 색상은 감청색, 자색, 벽색, 청록색, 황색, 녹색, 적갈색, 주황색, 흑색, 무색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구에서는 적갈색 환옥의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특징이 확인되는데, 전체 75,350점의 유물 구슬 중에서 56,885점으로 84.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벽색 7,050점, 감청색 2,729점이나 적갈색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이다.

이렇게 다수가 출토된 적갈색, 벽색, 감청색 구슬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적갈색 유리구슬은 용제가 소다이고 안정제가 LCHA계인 환옥^(2형)이 가장 많은 편이고 안정제가 LCAA계인 환옥도 그 다음으로 주된 유형인데, 4세기 후엽에는 안정제가 LCA-A, LCHA, HCLA, HCA로 다양하게 분류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로 벽색 유리구슬은 용제가 소다이고 안정제가 LCHA계인 환옥이 주된 유형으로 판단되는데, 이 벽색도 적갈색 유리구슬과 마찬가지로 4세기 후엽에 다양한 안정제가 확인된다. 셋째로, 감청색 유리구슬은 용제가 소다이고 안정제가 LCA-B계, 소다원료가 LMK형인 환옥^(3형)이 주된 유형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오산 수청동 유적 유리구슬은 출토 시기별로 유형의 전개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4세기 후엽에 유리구슬의 부장량이 많고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가 수청동 유리문화의 전성기로 볼



수청동 백제 분묘군 유적 출토 유리구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적갈색 유리구슬의 고배율 사진

수 있고, 이전 시기에 비하여 다양한 경로에서 유리구슬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각 색상별 주된 유형이 모두 소다 용제와 산화알루미늄(Al_2O_3)의 함량이 높은 안정제 함량을 보인다. 이는 색상별 주 유형의 조성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로 본 유적 조영집단은 지속적으로 유리구슬을 교역한 경로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는 ‘구슬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하지만, 금과 은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삼한의 사람들은 구슬을 끔찍하게 애호했는데, 수청동 출토 유물 구슬은 이를 고고학적으로 아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색상이 확인되고 다양한 형태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당대 장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구슬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슬 선호는 삼한시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성백제까지 꾸준히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리구슬은 그 자체만으로 값비싼 장식품은 아니다. 광물제 보석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량생산한 보석 대용품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수청동 유적에서 다량의 구슬이 출토되고 그에 비하여 값비싼 보석류가 없다는 점은, 수청

동 세력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단 그들은 마한의 토착세력이었고, 정치·경제적으로는 화성의 마하리고분군 축조 세력 등 석실묘 축조 집단보다는 열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1지점 26호 목관묘 출토 토제 구슬은 주목할 만하다. 출토위치로 보아 목걸이로 판단되는데, 중앙의 수식垂飾을 마노제로 하고 나머지는 토제 구슬로 채웠다. 가장 값싼 광물제 구슬인 마노 2개를 포인트로 삼고 나머지 주체부를 토제만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목걸이는 포인트로 중앙에 광물제의 보석을 한두 점 배치하고 나머지를 토제 혹은 적갈색 유리구슬로 채워서 만든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재력에 따라서는 토제가 아닌 목제를 사용했으리라 판단된다. 어쨌든 마노와 적갈색 유리구슬은 가장 보편적, 일반적, 서민적 장식품이었음은 확실한 듯하다.

수청동 유리 구슬은 그 수량에서 다른 유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색상과 형태도 다양하다. 이에 한성백제기 유리 구슬의 생산과 사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고자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청동 유적이 마한의 54개 소국 하나의 중심거점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23

화성 석우리 먹실 유적과 저장시설



석우리 먹실유적 원형수혈 발굴 모습



플라스크형 수혈의 저장 모식도

화성 석우리 먹실 유적은 삼국시대 지방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중서부지역 원삼국~삼국시대 마을의 구조는 선사시대의 마을 구조와 많이 닮아 있다. 한 마을의 공간을 분할하여 각각의 시설물을 배치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즉, 생산공간, 주거공간, 저장공간이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된 점에서 선사시대 마을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화성 석우리 먹실 마을로서 플라스크형 수혈을 활용하여 저장시설을 운영하였는데 특히 대규모 플라스크형 수혈로 구성된 저장공간이 확인된 점이 주목된다. 이 유적에 대한 조사는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2003년 10

월 1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약 18개월 동안 실시하여 한성백제기 집자리 19동, 플라스크형 수혈 146기 등 410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플라스크형 수혈은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4세기부터 사비기까지 사용된 백제의 대표적인 저장시설로 알려져 있다. 중부지역에서 플라스크형 수혈이 발견되는 지역은 경기 내륙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구토광묘의 분포권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집자리의 형태는 대부분 4주식의 방형 집자리로서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다. 그리고 여·철자형 집자리가 확인되는 영서지역 등에서는 플라스크형 수혈이 발견되지 않는다.

플라스크형 수혈은 한성백제기의 수취제도와 연결된 사회경제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크형 수혈은 폐기 및 함몰 유형에 따라 층위상에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는데 대체적으로 자연적 폐기와 인위적 폐기가 비슷한 비율이다. 마을의 공간 분할 형태는 여러 여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안성 장원리 마을의 공간 활용 양상은 저장공간과 매장공간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 일반적인 취락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저장공간은 구릉의 가장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플라스크형 수혈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매장공간은 구릉의 가시능선을 따라 단독으로 1기씩만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독립적인 공간 점유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주거공간이 확인되지 않고 저장공간이 독립되어 있는 마을 구조는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 오산 내삼미동 마을 등에서 확인된다. 오산 내삼미동은 저장공간이 구릉의 정상부 평탄대지상을 따라 분포한다. 주변에 주거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구릉 하단부에 취락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이 출토된 플라스크형 수혈이 매우 적은 점에서 단순 잉여생산물의 저장을 위한

공간이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화성 석우리 먹실 유적은 양쪽의 구릉을 중심으로 2개의 마을이 확인된다.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는 플라스크형 수혈을 이용한 저장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충적대지와 구릉이 만나는 지점에는 구릉의 등고선을 따라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주거공간의 하단으로는 약 30m 간격으로 지상식건물지군으로 이루어진 저장공간이 위치한다. 취락의 북쪽 저지대로는 생산공간^(논)이 있다.

마을은 전체적으로 구릉과 하천의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성격이 다른 시설물을 배치함으로써 정형화된 경관을 완성하고 있다. 특히 석우리 먹실 유적의 플라스크형 수혈은 바닥면 외곽을 따라 환상으로 대호류를 세워놓거나 거꾸로 놓았다. 그리고 시루, 굽다리접시, 뚜껑 등 저장과 관련이 없는 토기도 함께 발견되었는데 시루는 파손되어 파편이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는 바닥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가 낙하하면서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플라스크형수혈이 일반적으로 생산물만을 보관하던 시설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즉 생산물과 용기를 함께 보관한 증거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안성 장원리 3지점 4호 수혈이 있는데 저장용기 대신에 고배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24

용인 구갈리유적의 원형수혈과 그 용도



구갈리 유적 원형수혈 전경



마북동 원형수혈군 유적

2000년대부터 발굴조사가 급증하여,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대규모 취락, 분묘군 등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어 고대 문화를 밝히는 데 큰 일조를 하였다. 이와 함께 삼국시대 ‘원형수혈’ 유적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 원형수혈에 대한 명칭은 ‘저장공貯藏孔’, ‘토광土坑’, ‘원형수혈圓形豎穴’ 등 다양하게 불려지다가 최근 ‘원형수혈’로 통일되는 추세이다.

원형수혈의 특징은 첫째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백제 영역에서만 확인되는 점, 둘째 깊이가 최소 1m 이상 최대 3.5m에 달하는 심혈深穴이라는 점, 거의 대부분이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구갈리 유적 원형수혈 대웅

원형수혈 유적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3년에 발굴되어 학계에 알려진 유적이 용인 구갈리 유적이다. 이 용인 구갈리 유적의 원형수혈은 같은 시기 주거지와 함께 조성되어 있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웅편 등 저장용기라는 점에서 일단 취락의 부속시설 즉 저장구덩이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이후의 발굴에서 주거지의 부속시설로서 저장용도로만 원형수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형수혈의 용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용도에 대하여 크게 3가지 용도 즉 저장, 주거, 의례로 정리되었다.

저장 목적의 원형수혈은 주로 주거지 등과 함께 조성되며, 크게 곡물저장, 용기수납, 무기수납 등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 취락 내 부속시설로 파악된다. 한편, 특정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도 나타나 공동체의 공동 저장시설로서의 기능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로 볼 때 대부분의 원형수혈은 저장 목적의 수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거용 원형수혈은 주로 충남 공주 장선리 토실과의 유사하다. 즉 원형수혈의 단면 원통형 또는 상협하광형의 구조이면서 구덩이를 아주 깊게 파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도 2-3인이 거주 가능한 면적일 경우이다. 이러한 주거용 원형수혈은 취락 내 조성된 것보다는 단독으로 조성된 유적에서 주로 나타난다.

의례용 원형수혈은 그 내부에서 화기행위 즉, 타결과 파쇄가 이루어진 유물이 확인될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의 원형수혈은 주로 구릉의 정상부나 취락의 높은 곳, 또는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다.

이렇듯 원형수혈은 다종다양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경기도의 발굴사례를 통하여 볼 때, 최하층의 상시적 주거, 한시적 임시거처, 구근식물의 저장, 용기의 수납공간, 의례용기의 화기 장소 등으로 사용된 듯하다. 불을 땀 흔적이 발견되어 사우나실로 이용되기도 하지 않았나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기도 한다.

원형수혈의 분포와 관련해서는 주구토광묘의 분포 범위와 일치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적석총이 출토되는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지역 그리고 주구묘가 발견되는 서해안유역에서는 원형수혈이 존재하지 않거나 집중분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원형수혈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특징짓는 고고학적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분포양상은 앞으로 주구토광묘와 원형수혈을 널리 조성하였던 집단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즉 마한 54개국 중에서 원형수혈과 주구토광묘를 널리 축조했던 나라를 비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원형수혈은 마한의 독특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마한 54개 소국 모두가 애용했던 것이 아

나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마한 54개 소국 중에서 기껏해야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만 널리 만들었던 독특한 굴광 시설이었다. 따라서 원형수혈을 마한 전체의 문화요소로 파악하는 오류는 없어야 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한편, 『삼국지』동이전에 기록된 마한의 ‘초옥토실^{草屋土室}’을 원형수혈로 보는 일각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형수혈이 일부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수혈주거지와 같은 마한 전체의 보편적인 주거양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더하여 원형수혈에 정황상 덮개는 있을 수 있었지만 지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실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요컨대 『삼국지』동이전에 기록된 마한지역 전체에서 발견되는 수혈주거지를 두고 기록한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결코 원형수혈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만약 ‘초옥토실’을 원형수혈을 두고 기록한 것이라면 마한 전체의 보편적인 주거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독특한 주거양상을 호사가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5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적의 파쇄토기와 돌팽이



청덕리 유적 수혈유구 전경

용인 구성 지역은 탄천의 최상류 지점이자 삼국시대 지방 거점이었던 곳으로 백제시대 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이들 유적이 백제의 왕도인 한강 남안의 송파

구 일대와 수계로 직통하고 있다. 즉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용인 구성 지역은 남부지방에서 백제 중앙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중요거점이자 한강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지방 거점 지역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용인 청덕리 백제 수혈유적은 구성지역 일대의 주봉인 법화산(383m)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남사면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산 정상부와 가까운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이다. 청덕리 백제 수혈유적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유구(구덩이) 2기, 조선~근대 무덤 7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수혈유구이다.



청덕리 수혈유구 출토 호고배(상), 대옹(중), 돌랭이(하)

1호 수혈유구에서는 대옹(큰 항아리), 고배(굽다리접시), 소호(작은 단지), 돌쟁이 등 16점의 유물이 포개진 상태로 집중 출토되었다. 유물들은 특정부위를 때려 깨뜨렸거나(타결)打缺, 완전히 깨뜨린 후 묻은 것(파쇄매납)破碎埋納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훼손이라고 하는데, 고대의 제의행위에서 이루어진다. 토기를 훼손하던 습속은 동북아시아 일원에서 장례나 농사, 전쟁, 우물 및 수변제사 등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던 여러 제의행위 중의 하나로 신석기시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 역시 삼국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무덤유적에서 토기를 훼손하는 행위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에는 삼국시대 고분이 다수 분포하는데 용인 보정동 고분군, 보정동 소실 유적, 서천동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훼손행위의 의도는 무엇일까? 훼손행위의 가장 큰 특징인 토기를 파손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타결의 경우 토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구연부 또는 동체부를 훼손하여 주목적인 식량보존 및 섭취의 행위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하여 다른사람 즉, 산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시하는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고배(굽다리접시)의 경우 고배 자체가 제사용기이며 마찬가지로 제사에 사용된 도구일 가능성을 내포한다.

1호 수혈의 출토품 중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유물은 돌쟁이이다. 길이 24.6cm로 자루부분이 매끄럽게 자연 마연된 상태인 점으로 미루어 자루를 끼워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굴지구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이런 돌쟁이를 왜 훼손토기와 함께 매납했냐는 것이다. 또 철제 굴

지구가 일반화되었던 시기에 왜 돌로 팽이를 사용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그런 한편으로는 본 원형수혈을 이 돌팽이로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 본다.

이렇듯 용인 청덕리에서 발굴된 백제 원형수혈은 자료가 매우 드문 제사와 의례 관련 고고학적 정보를 담고 있기에 흥미롭고 가치가 높다. 아울러 원형수혈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며, 앞으로 민속신앙적 접근과 해석이 요구된다.

26

파주 다울동 유적과 백제 토기가마군



다울동 유적 백제 토기가마군 전경



다울동 토기가마 소성실 천정부 잔존 상태



다울동 6호 토기가마 아궁이

파주 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다울동 유적은 장명산(長命山)(해발 약 102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남서사면부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9지점 가구역에서 백제 토기가마 9기, 토기제작 작업장 2기, 태토보관소 3기, 폐기장 2기 등 토기제작과 관련한 유구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9기의 백제 토기가마 중 7기(1~7호)는 한 곳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2기씩 짝을 이루듯이 인접하여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기(8·9호)는 7기가 군집한 곳에서 동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구성되어 있다

토기가마의 규모는 길이 약 5~8m의 소형과 10~17m의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는 지하식과 반지하식으로 ‘요전부-연소실-소성실’로 구성되어 있다.

요전부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연소실과 바로 연결된다. 일부 토기가마에서는 연소실에서부터 요전부까지 길게 도랑(溝) 시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가마내부 물을 외부로 빼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실은 바닥이 강하게 소결(燒結)된 상태이며 소성실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불턱을 조성하였다. 연소실 앞에는 기둥구멍이 2개 또는 4개씩 확인되는데, 이는 연소실 폐기 또는 연소실 상부구조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성실은 경사도가 14~24° 정도이고, 잔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며, 천정부 벽체가 남아 있는 가마도 있다. 바닥과 벽은 소결된 상태이며, 벽체를 만들 때 점토에다 짚과 같은 초본류를 섞어 만든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

특히 1·2호 토기가마는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며, 다른 토기가마와는 다르게 가마의 하단부에 인접해서 폐기장이 확인되고 있어 ‘토기가마와 폐기장’

의 세트(SET)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토기가마군에서 남동쪽으로 인접한 곳에서 토기제작 정황을 알려주는 작업장 시설이 조사되었는데 토기제작 성형(成形) 과정에 이용한 물레구멍(꼭로공)轆轤孔과 점토덩어리가 확인되어 이곳이 토기를 만드는 작업장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토기제작 작업장 주변에서 회백색의 점토가 있는 구덩이(수혈)豎穴가 여러 기 확인되는데 이 구덩이는 토기제작용 태토를 보관한 장소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울동 유적에서 태토보관소-작업장-가마-폐기장이 발굴조사됨으로써 이 일대가 초기백제 토기제작의 전체 공정이 이루어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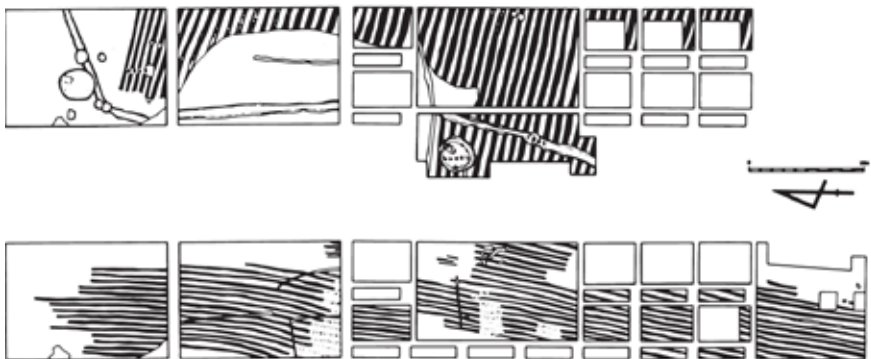
유물은 대웅편(격자타날), 타날문토기편(승문+침선)이 출토되었는데, 대웅편이 주를 이루며, 그 시기는 3~4세기 초기백제로 추정된다.

백제초기 토기가마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다울동 유적은 토기 성형 작업 시설이 가마와 함께 확인되는 경기지역 최초의 사례로 주목되며, 백제초기의 토기생산방식 과 가마구조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다울동 유적 토기가마군은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되었다. 따라서 조사를 완료한 후 가마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를 복토하고 상부를 성토하였으며 향후 파주운정(3) 택지택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공원부지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7

하남 미사리 백제 경작유구



미사리 유적 경작유구(상층 밭과 하층 밭)

중부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된 곡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시작한다. 우선 농사와 관련된 고고학적 흔적은 2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논과 밭 유적을 통해서 농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중부지역에서는 충적대지와 구릉 평탄면에서 발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남 미사리 마을 유적, 의정부 민락동 유적 등이 있다. 충적대지에서 발견되는 발은 고랑과 두둑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데 이는 기경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한편 고고학 유적에서 논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은 주로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계곡이나 저지대에 존재한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최근에야 곡간부 및 저지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논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논두렁 등은 모두 사라지고 경작면도 심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더욱 발견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집자리 또는 움의 내부에서 탄화된 곡물이 발견되는 경우와 토양을 분석하여 토양 내부의 식물규산체를 확인하는 자연과학적 분석(Plant-Opal)을 통하여 농사의 흔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곡물은 자연상태에서 부식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습지의 땔층에 밀폐되거나 화재로 인하여 불에 탄 경우,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불탄 쌀은 가평 이곡리·파주 육계토성·홍천 하화계리·부여 논티 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다. 쌀은 당시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였다. 불탄 팥은 춘천 천전리·춘천 울문리·홍천 하화계리·단양 수양개·철원 와수리·하남 미사리 등에서, 불탄 조는 춘천 중도·홍천 하화계리·횡성 둔내·파주 육계토성·부여 논티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불탄 보리는 양양 가평리·단양 수양개·홍천 하화계리 유적 등에서, 불탄 밀은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불탄 콩은 양양 가평리·단양 수양개 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다.

하남 미사리 유적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미사리선사유적발굴조사단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5개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한 발굴조사였다. 하남 미사리 밭이 발견된 것은 서울대학교 조사구간이었다. 밭은 상층과 하층이 발견되었는데 상층은 상경농법이, 하층은 휴한농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밭에서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 백제토기가 포함된 타날문토기라는 점에서 백제시대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미사리 유적 내에서 발견된 집자리는 대부분 소형이고, 밀집도가 낮은 점에서 생산을 전문으로 한 마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미사리는 왕성(풍납토성)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남 미사리 유적 밭의 규모는 남북으로 약 180여 m에 달한다. 상층 밭은 남북방향으로 이랑과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데 길이가 160m, 폭이 60m이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000여 평에 달한다. 이랑과 고랑을 합한 폭은 약 100cm였다. 상층 밭은 북동방향이 높고, 남서방향이 낮은 지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밭의 북쪽 끝부분에는 큰 도랑을 이용해 경계를 만들고 있다. 북동쪽의 삭평을 감안하면 밭의 규모는 더욱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밭의 내부에서는 대체로 기원후 6세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하층 밭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랑과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데 규모는 길

이 약 50m, 폭 약 110m로서 약 1,700여 평에 달한다. 상층 밭에 비해 이랑과 고랑을 합한 폭이 약 150cm 가량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특징적인 것은 고랑 내부에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구멍이 나 있는 점이다. 아마도 이 구멍은 작물을 심었던 파종공播種孔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남 미사리 유적의 밭이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충적대지에 위치하여 잦은 홍수와 침식작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밭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충적대지상에서 발견되는 많은 논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진주 평거동 유적에서 발견된 밭 역시 하천변에 면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형태의 밭이 확인되었다. 밭 내부에서는 대체로 기원후 4세기~5세기에 해당하는 유물들과 다수의 집자리 및 지상식 건물지가 함께 발견되었다.

5부

고구려의 기상, 경기도에서 만나다.

01

안성 도기동 산성과 경기도



도기동 산성 원경(상), 전경(하)

고구려는 475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을 차지한다. 현재까지 세종 남성골 산성과 대전 월평동 산성에서 발굴된 고구려 군사시설은 고구려가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음을 입증해준다. 또 충주고구려비(국보 제205호)는 남한강 유역도 고구려가 지배하였던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그리고 고구려는 551년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에 의하여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668년 멸망 때까지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대치하였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경기도 지역을 꽤 오랫동안 점령했고, 그 흔적은 한강과 임진강, 그 지천支川을 중심으로 최소 30여 곳 이상이 남아 있다. 관방유적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 한강 하류지역의 아차산 유역,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천보산과 불곡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주일원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또 연천 신답리, 용인 보정동·동천동, 성남 판교동, 동탄 청계동 등에서는 고구려의 고분이 확인되어 고구려의 경기지역 지배와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남한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곳도 경기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 지역의 고구려유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경기도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경기도 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 유적은 관방유적이 절대적이다. 그중에서도 아차산과 용마산 능선을 따라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아차산의 고구려 보루와,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 등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곽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들 모두는 발굴이 이루어져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상태이며,

국가 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성 도기동 산성(사적 제536호)은 2015년 9월에 발굴로 확인된 목책성(木柵城)으로, 목책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무 울타리인 목책을 설치했던 흔적인 구덩이가 일정한 열을 맞추어 발굴되었다. 구조는 흙을 쌓아 올린 둔덕인 토루(土壘)를 중심으로 안쪽에 1열, 바깥쪽에 2열로 목책을 설치했는데, 안팎 목책의 간격은 4.5~5m로 드러났다. 발굴조사단은 토루의 주변에서 짧은목 항아리, 사발, 뚜껑과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등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남성골 고구려 산성과 축조 방법이 흡사한 점을 들어, 이 도기동 산성을 4~6세기 백제가 초축하고 고구려가 재사용한 목책성으로 최종 판단했다. 그리고 학계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금강 일대까지 진출한 증거로 이 도기동 산성을 삼았다.



도기동 산성 북벽 목책열

안성 도기동 산성은 충청도와 가까운 안성천 유역에 자리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민통선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적 사이에는 고구려 유적이 선상^線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고구려 유적의 분포양상은 고구려군의 남진로일 뿐만 아니라, 신라의 북진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에도 대군의 이동로였으며, 지금도 간선도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경기옛길 사업과 연계하여 ‘고구려 대장정’사업을 제안해 본다. 학계의 전문가들이 복원해 둔 고구려 남정로^{南征路}를 따라 고구려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과 도민에게 제공했으면 한다. 아차산, 천보산, 불곡산으로 이어지는 보루를 따라 산행을 겸한 답사를 하고, 중간 중간 유숙^{留宿}하면서 고구려 병사로 돌아가 봄도 좋을 듯하다. 아울러 임진강안의 고구려 성곽들을 따라 걸으면서 조국·국력·전쟁 등을 생생한 안보의 현장에서 느끼어 보았으면 한다.

다시 말해 옛 삼국시대 고구려 유적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고, 삼국간의 국운을 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곳이 경기도이다. 그리고 이곳을 차지한 나라는 국가 발전의 최성기를 구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고대 국가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역이 바로 경기도이었음을 상기해 주며, 한반도 중앙에 있는 경기도를 ‘국가 근본의 땅(국가근본지지)國家根本之地’이라 불렀던 이유를 대변해준다.

02

아차산 일대 고구려 보루군



아차산 4보루 전경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삼국시대 때 아차산 일대에 축성된 20여 개의 보루 중 17개의 유적이다. 보루^{堡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성으로, 보통 방어용 건축물이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아차산과 용마산, 중랑천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중랑구 및 경기도 구리시에 걸쳐서 위치한다. 아차산 1보루 · 아차산 2보루 · 아차산 3보루 · 아차산 4보루 · 아차산 5보루 · 홍련봉 1보루 · 홍련봉 2보루 · 용마산 1보루 · 용마산 2보루 · 용마산 3보루 · 용마산 4보루 · 용마산 5보루 · 용마산 6보루 · 용마산 7보루 · 시

루봉 보루 · 수락산 보루 · 망우산 보루 등이다. 이들 보루 중 일부를 제외한 10여 개 이상이 고구려의 보루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이나 축성 방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551년에 신라 · 백제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상실하기까지의 역사를 밝혀 주는 유적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남한지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고구려 유적으로서, 고구려 군사 시설의 면모를 규명할 수 있는 유적인 이들 고구려 보루들은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킨 후, 한동안 몽촌토성에 군대를 주둔시키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6세기 초 무렵에 군대를 한강 이북으로 후퇴시킨 뒤에 이 아차산 일대의 요충지에 보루를 쌓고 한강과 중랑천, 왕숙천 유역을 감제瞰制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차산 3보루와 아차산 4보루 등 몇 개 보루에 대한 집중 발굴을 통해 고구려 군사 시설의 면모가 규명되었고 고구려 관련 고고학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즉, 고구려 국경 지대 요새의 구조와 성격, 방위 체계, 군편제 등을 밝혀 주는 역사 자료로서, 고구려의 남하 과정이나 한강 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적인 것이다.

아차산 4보루는 타원형 봉우리의 비탈면을 따라 약 20단 이상의 석축을 쌓아 구축한 군사 요새로, 외곽의 석축 성벽과 내부의 건물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1997~1998년에 실시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 이후 2000년대 까지 이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성 내부에서 7기의 건물지 확인되었고, 가장 높은 곳의 건물지 주변에서 명문 토기를 포함한 각종 토기와 투구 및 갑옷,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런 발굴성고를 바탕으로 2004년에 아차산 4보루를 포함한 일대의 보루군이 ‘아차산 일대 보루군’이라는 명칭으로 사적 제455호로 지정되었다.

03

연천 호로그루와 토고



호로그루 발굴조사 전경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적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한 소규모 城郭과 堡壘 등 관방유적이 대부분이다. 임진강과 한강유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치열한 각축장이었던 관계로 그 지류를 포함하는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의 성곽이 조영 주체세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현존하고

있다. 그 중 고구려 관방유적은 대체로 둘레가 300m를 넘지 않는 소규모 보루들이 주요 교통로를 감제할 수 있는 능선에 여러 개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하고 있다. 남한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유적은 수계와 주요 교통로를 고려하여 크게 임진강·한탄강유역, 양주분지 일원, 한강유역, 금강유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유적을 대표하는 것은 연천 호로그루(사적 제467호)이다. 호로그루는 임진강변 고랑포^{高浪浦} 북변에 위치한다. 임진강과 그 지류에 의해 형성된 약 28m 높이의 수직단애를 이루는 긴 삼각형 모양 대지 위에 구축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이다. 강변의 침식대지 위에 높게 자리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지 쪽에만 성벽을 막아서 요새화한 구조이다. 임진강변의 당포성과 한탄강변의 은대리성이 모두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호로그루는 자미성^{紫微星}(또는)紫眉城, 미성^{眉城}, 이잔미성^{二殘眉城} 등으로도 불리었는데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배가 없이도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에 접해 있는 중요한 성이다. 평양지역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이 백제 수도인 한성^{漢城}으로 진격하기 위한 최단코스는 평양에서 개성을 거쳐 강물이 깊어 배를 이용해 건너야 하는 임진강에서 문산 방향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15km 정도 우회하여 장단을 지나 호로그루 앞의 여울목을 배 없이도 바로 건너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호로그루가 있는 고랑포 일대의 임진강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여러 차례의 전투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는 물론 1950

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이 남침에 활용한 임진강 도하지점이기도 하였다.

호로그루에서는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와류이다. 특히 고구려 기와는 현재까지 조사된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중 가장 수량이 많고 층위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정선된 니질 태토를 사용하였고 적갈색 또는 황갈색으로 소성되었는데, 내면에는 1.9~2.4cm 크기의 모골模骨 흔적이 남아 있고 외면에는 승문繩文, 거치문, 격자문, 사격자문, 횡선문 등이 시문되어 있어 외견상 뚜렷한 개성을 갖는다. 특히 2차 발굴에서는 고식의 연화문 막새기와 1점이 수습됨에 따라 와당瓦當을 사용한 위세 건물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토기류는 고구려 토기와 통일신라 토기, 고려시대 이후의 토기류로 대별된다.

호로그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는 주로 흑갈색이나 적갈색을 띠고 표면을 마연한 것이 특징이며 대형 호와 시루 등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역사적으로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단각 고배, 완, 파상문 장경옹 등도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관官’, ‘갑甲’, ‘함국咸國’ 등의 글씨가 쓰인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전돌, 삼족벼루, 호자虎子, 고구려 관모 형태의 토제품 등이 출토되었고, 창고시설에서는 쌀, 조, 콩 등의 탄화곡물과 소, 말, 사슴, 개,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뼈가 수습되었다. 금속유물로는 다양한 화살촉과 도자류, 호신용 금동불상 등이 출토되어 호로그루의 기능과 위상을 말해 주고 있다.

호로그루 출토품에서 특기할 만한 유물은 3차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상고



안악3호분 행렬도에서 보이는 북



호로그루 출토 상고 파편



천보산2보루수습추정 토고 파편

‘相鼓’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고구려 토고(土鼓) 파편이다. 조사단은 흙으로 구워 만든 두께 1.7cm의 ‘상고(相鼓)’명 토제품의 원형을 안악3호분 등 고구려 벽화고분의 행렬도(行列圖)에서 보이는 전투 지휘용 북으로 보았고, 이런 견해는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2007년 10월 경기문화연구원 전통문화실(현재 경기학연구센터)이 고구려유적 정비계획 수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토고(土鼓)로 보이는 또다른 유물이 수습된 바 있다. 양주의 천보산 2보루에서 수습되어 훗날 호로그루에서 발굴로 토고(土鼓)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이 토제품은 두께가 1.5cm가 넘고 수리공의 흔적으로 보기에 꽤 큰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는 모양이다.

『세종실록』에서는 토고(土鼓)를 조선 전기 오례의(五禮儀)에서 사용된 악기로 기술하였다. 전통적인 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팔음(八音) 중 토부(土部)에 드는 토고는 본래 중국 고대악기의 하나로서 북의 일종인데, 이 북의 몸통을 흙으로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생김새가 술통처럼 생긴 몸통의 양쪽에 가죽을 씌우고, 연주자는 역시 흙을 구워서 만든 괴부(賁桴)라는 북채로 가죽면을 쳐서 소리를 낸다. 이런 특수한 토고가 『악학궤범(樂學軌範)/성종 24년(1493) 발

간』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세종대까지 쓰이다가 그 이후에는 연주되지 않은 듯하다.

조선 전기의 기록에서 보이는 토고의 존재가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 때 변방에서 사용된 상고로 실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기록을 참고해 볼 때, 당시 일부에서 호로고루 출토의 상고편이 실제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의례용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잠재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실용위주로 운영되었을 고대 시기에, 그것도 고구려의 최접경 지대였던 임진강변 호로고루와 천보산 2보루 상에서 비슷한 모양의 토제 복조각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토고는 고구려 군부대에서 실제로 일상화된 용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더 많은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다.

04

고구려 고분과 그 분포 의미



판교동 고구려 석실분



보정동 고구려 석실분

한강 유역과 임진강 이남 지역은 475년부터 551년까지 고구려의 점령 하에 있었다. 역사 문헌과 경기지역의 고구려 관방 유적은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고구려인의 정주를 의미하는 고분은 한동안 발굴되지 않았다. 겨우 2001년에야 연천 신답리에서 대형 봉토석실분이 발굴되면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고분의 존재가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007년 이후 용인 보정동·동천동과 화성 청계동에서 고구려토기가 부장된 석실분이 조사되었고, 같은 양식의 고분이 성남 판교동에서도 조사되었다.

경기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고분은 유적별로 1~2기씩에 불과하지만, 보정동 고분의 경우 주변 지역에 다수의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신답리와

보정리 고분은 하천에 인접한 강안 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고구려 고분의 입지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할석이나 판석을 쌓은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석실과 석실 정면 우측으로 달린 연도, 모줄임식 천장 구조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부 고분은 벽체에 회를 바르는 등 고구려석실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보정동 고분과 청계동 고분에서는 고구려 토기 호가 출토되었는데, 어깨에 파상문과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는 점과 형태상의 특징으로 보아 5세기 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신답리 고분은 연천군 신답리의 한탄강변 아우라지 마을에 있으며 남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고구려 고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분은 2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동쪽에 있는 1호분은 봉토 직경 19m, 높이 3m로 서쪽의 2호분보다 크다. 조사 결과 두 기의 고분은 모두 무덤방을 방형으로 조성하고 벽석이나 바닥재는 판상석을 사용하였으며, 1호분은 회반죽을 벽면에 발라 마무리하였다. 출토유물은 흑회색 연질토기 병과 경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삼각고임방식의 모죽임 천장으로 축조하고 무덤방이 지상식인 봉토석실분으로 고구려 후기 무덤 양식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남한 지역에서는 춘천 천전리, 방동리, 신매리 등에서 확인되었다.

성남 판교동 유적에는 넓지 않은 충적지를 사이에 두고 구릉 사면에 고구려 석실분과 한성시기의 백제 횡혈식석실분이 분포하고 있다. 고구려 석실분은 경사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혈식석실분 2기가 확인되었다. 1호인 쌍실분의 경우 바닥에 불다짐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1매 혹은 2매의 판석을 문비석으로 하여 연도부를 폐쇄하였다. 2호인 단실분의 석실 바닥에서는 시상대 흔

적으로 추정되는 작은 석재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2기 모두 천장을 모줄임 방식인 말각조정^{抹角藻井}으로 축조하였다. 봉분은 석실의 벽석 축조와 동시에 축조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용인 보정동 고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01-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007년에 건물신축공사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된 석실분 2기는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으나 봉분 상면부의 훼손으로 1호분과 2호분 모두 개석이 사라진 상태이다. 보정동에서 확인된 석실분들은 소위 말각조정을 한 고구려계 양식으로 우리나라의 한강 이남 지방에서 확인된 가장 확실한 고구려계 석실분이다. 무덤 내부에서는 각각 1개체분의 고구려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목관이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관정과 관고리가 출토되었다.

용인 동천동 유적은 광고산에서 남동쪽의 말구리고개로 이어지는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약 100m 거리에 성북천이 흐르고 있다. 이 성북천은 북쪽의 동막천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3기의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1·2호 석실분이 쌍실묘로 판교동과 청계리 석실분과 같은 구조 즉 하나의 봉분내에 2기의 석실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는 우편재이고, 석실은 평면이 장방형이며, 천장구조가 1호 석실분에서는 네벽을 약간 내경시켜 쌓고 상부에 판석을 얹어 면적을 좁힌(삼각)고임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는 시상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1호는 1단, 2호는 2단으로 조성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관정

이나 목관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고분에서는 부장품이 출토되지 않았다.

화성 청계동 고분의 형태는 봉분이 맞닿은 쌍분의 횡혈식석실분으로, 2기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와 구조상 판교의 고구려 고분과 유사한 쌍실의 석실분이 조사되어 주목된다. 천장부는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연도는 석실의 동쪽 하단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호 석실분 바닥 다짐층 상면에서는 고구려토기의 전형적인 양식을 가진 구형호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고운 니질 점토로 성형되었으며, 외면은 승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고 마연하였다. 동체의 중상부에는 파상문과 선문이 조합된 음각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경기지역의 고구려고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분포와 편년이다. 고구려고분은 분포상 한두 기만 고립되어 분포하는데 이는 연천 학곡리, 연천 삼곡리 등과 같은 백제영역의 고구려계 적석총의 분포 양상과 연결된다. 또 초기 철기시대의 토광묘도 이런 고립 분포양상을 보이며 통일신라의 무덤들도 대부분 한두 기만 발굴된다. 이러한 고립분포에 대하여 지방지배방식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즉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의 고분군이 군집을 이루는 데에 비하여 초기철기, 고구려, 통일신라 고분들은 많아야 2~3기 정도로 고립 분포하는 이유에 대한 역사적 해명이 요구된다.

다음은 한강 이남에서 확인된 고구려고분은 현재까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선으로 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서해안 유역에서는 고분은 물론 관방유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고구려의 중부지역 지배가 탄천 유역의 경기도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반하여 서해안 유역에는 고구려의 지배가

철저하지 못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설령 고구려가 경기만 일대를 점령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의 고고자료는 아주 일시적이었음을 보인다. 바꾸어 말하자면 웅진으로 천도 이후 백제가 해상을 통하여 서해안 일대를 빨리 회복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삼국사기』의 기사와 연결하여 유심히 검토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로 볼 때, 고구려는 500년을 즈음하여 한강이북을 방어선으로 삼았으며, 또 551년을 기점으로 임진강이북을 방어선으로 구축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이 인정된다면 탄천유역의 판교동과 보정동·청계동 고구려고분은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될 수 있다. 너무 단순하고 도식적이지만 고구려 토기의 편년과 관련하여 역사고고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6부

신라의
지방통치방식,
경기도에서
찾아지다.

01

하남 이성산성과 신라유물



이성산(해발 209m)의 능선을 따라 계곡을 끼고 쌓은 길이 1.9km의 이성산성

신라는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점령하여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정복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군사적·행정적 거점에 견고한 산성을 새롭게 쌓았다. 경기도의 대표적 신라산성인 이성산성도 신라의 경기도 일대 진출과 함께 축성된 산성 중 하나로, 신주의 행정소재지 즉 치소^{治所}에 쌓은 둘레 1.9km의 성곽이다. 지금에 비유하자면, 삼국후기부터 통일신라말기까지 경기도청이 자리

했던 곳이 하남의 이성산성인 셈이다.

이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지금까지 13여 차례 이루어졌다. 발굴 결과, 6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쌓았고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 사이에 걸쳐 대대적인 수축修築이 이루어졌고, 성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하는 현문식懸門式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성 내부의 조사에서 정면 17칸의 대형건물지와 8각·9각·12각 등 특수 건물지를 비롯한 20여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한 대형 저수지가 2곳 발굴되어 군현郡縣 단위에 쌓은 산성 보다는 위상이 높은 성곽임이 드러났다.

유물은 토기, 철기, 기와, 목기 등 3,500여 점 이상이 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저수지에서 다른 목간 37점과 함께 출토된 ‘무진년’ 목간‘戊辰年’ 木簡이다. 이 목간에는 무진년(608년) 정월 12일 새벽에 남한성南漢城 도사道使가 수성須城의 도사와 촌주村主에게 내린 행정 명령이 묵서墨書로 적혀 있었다. 이 목간의 발견으로 이성산성이 당시에 남한성으로 불렸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신라의 지방관직 제도뿐만 아니라 문서행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 내부에서 벼루 30여 점이 출토되었다. 이성산성 출토품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벼루가 90여 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경주에서 출토된 것이 54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성산성에서 문서 행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이들 벼루의 다량 출토는 이성산성이 신주의 치소라는 추정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한편 이성산성에서는 8각형과 9각형의 다각형 건물지도 확인되었다. 8각형 건물지는 중심부에 4개의 둥근 돌이 세워져있어 사직단社稷壇으로, 9각형 건

물지는 9라는 숫자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들어 천단^{天壇}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건물지는 이성산성 내에서 국가적 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토제·철제로 만든 말 모형 17개가 매납된 의례유구도 확인되어 이성산성 내에서 벽사적 제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형 저수지 2곳의 바닥면에는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 유지된 상태여서 유기물인 나무뿔, 나무 열레뿔, 나무 팽이, 박바가지, 칠기, 나무 인형, 나무 망치, 짚신, 버들고리, 천 조각 등의 유물들이 썩지 않고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은 다른 성곽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유기질의 일상용품이기에 통일신라 시대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이성산성은 신라후기부터 통일신라말기까지 경기지역의 군사, 행정, 신앙, 건축, 생활문화에 관한 다양하고도 귀중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성산성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정비·복원한 산성과 산성 내의 문화재 안내판, 그리고 인터넷 포털의 간단한 유적 설명에 불과하다. 이성산성이 지닌 문화콘텐츠에 비하여 소략하기 그지없고, 이런 까닭에 도민들은 이성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유적지도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이버 이성산성’의 제작을 제안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산성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블로그 정도면 충분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죽은’ 문화유산이 애정 어린 관심과 적은 예산으로 소생^{蘇生}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관계기관이 지금 바로 실천에 옮겼으면 한다.

02

안성 죽주산성과 죽산현



죽주산성 성벽(오른쪽이 원래의 성벽이고 왼쪽이 복원한 성벽. 복원성벽이 원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주산성의 성벽. 오른쪽이 원래의 성벽이고 왼쪽이 복원한 성벽이다. 복원 성벽이 원상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주산성 竹州山城이 자리한 안성시 죽산 竹山 일대는 조선시대 죽산현 竹山縣이 자리했던 곳이다. 이 일대로는 지금도 충주와 연결되는 38번 국도, 청

주와 연결되는 17번 국도가 지난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일죽 나들목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산지역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잇는 길목이자 관문이었다.

옛날에도 도시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이런 도시에는 사람과 돈이 모였다. 아울러 대군이 진군할 수 있는 대로大路를 여럿 끼고 있기에 군사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다. 죽산 일대로 충청도로 통하는 교통로이자 요충지였던 까닭에 일찍부터 문물이 번창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런 까닭에 죽산일대에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공립 교육시설인 죽산향교(경기도 기념물 제26호)와 읍치의 진산에 축성한 죽주산성(경기도 기념물 제69호)이 소재하고 있고, 또 고려 태조 왕건의 진전사찰眞殿寺刹(왕의 초상을 모신 전각이 있는 절)이었던 봉업사지(경기도 기념물 제189호)가 자리하는데 그 경내에는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보물 제435호),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주변으로는 안성의 미륵신앙을 대변하는 매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7호),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8호),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7호) 등의 유형문화재가 자리한다.

죽주 일대의 역사를 대변하는 죽주산성은 죽주竹州의 방호별감防護別監으로 송문주宋文冑 장군이 몽고군을 물리친 전승지이자 임진왜란 때 변이중邊以中(1546~1611) 장군이 왜군과 전투를 펼친 격전지이다. 삼국시대에 처음 축성된 이래,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본성에 중성과 외성이 더해져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비봉산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축성했는데, 그 전체 길이는 1.6km에 달한다. 남쪽 성벽의 양쪽 끝과 동쪽 성벽의 북쪽 끝에는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성벽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쌓은 치성(雉城)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포루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 안에는 송문주 장군의 전공을 기리는 사당이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삼국시대의 집수시설 6곳과 조선시대의 집수시설 2곳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렇듯 죽주산성은 한국성곽사의 발달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인데, 학술적 고증에 충실하지 않은 복원으로 인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 상태다. 현재 성벽복원은 외성을 제외한 본성과 중성 대부분이 완료된 상태인데, 원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선전기까지 성돌의 재질은 가공이 쉬운 편마암을 주로 사용했는데, 죽주산성은 화강암으로 복원되었다. 또 조선후기까지 성돌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들을 잘라서 썼는데 죽주산성의 성돌은 깊은 땅속에서 채석한 심석(深石)을 사용하여 겉면이 흰색을 띠고 있어서 옛스러움이 없다. 축조방식도 대충 다듬은 할석에 켜기돌을 끼워가며 쌓은 옛날 방식과는 달리 켜기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이렇게 미흡한 복원 성벽이기에 진정성이 떨어져 현재의 죽주산성은 역사교육의 장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 산성 복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죽주산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성벽을 복원할 때는 발굴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역사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죽주산성의 외성은 다행히 현재 미복원 상태이다. 향후 제대로 복원이 이루어져 참된 문화자산이 되었으면 한다.

문화유산의 가치면에서, 죽주산성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국난을 극복한 승전의 장소이자 전쟁 이야기가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역사성’이 매우 뛰어난 문화재이다. 또한 잘못 복원된 구간 외에 원형이 보존된 성벽을 통해 우리나라 성곽축조기술의 발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곽이기도 하다. 아울러 봉업사지를 비롯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반나절만으로도 여러 문화재를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성은 경기도에서 문화유적이 가장 풍부하고 그 종류도 다채로운 곳이다. 여유가 있다면 안성 전체에 대한 문화유적 답사를 권해 본다.

03

용인 구성의 할미산성과 보정동 고분군



할미산성 성벽



보정동 고분군 출토 신라토기

신라는 551년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상류를 차지하고, 553년에는 백제가 일시적으로 점령했던 한강 하류까지도 차지하는데, 고구려와는 달리 영토와 백성에 대한 직접지배방식을 취했다. 즉 그들은 새로운 정복지역의 행정적·군사적 요충지에 산성을 쌓아 점령지 지배를 굳건하게 했으며, 신라의 정복활동으로 복속한 가야인과 기존의 신라인들을 한강 유역으로 이주시켜 살게 했다. 아울러 북한산에 진흥왕순수비를 세워 신라가 한강유역의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하에 공포했다.

이런 신라의 정복지에 대한 직접지배 방식은 고고학적 증거로 잘 남아있는데, 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신라의 산성과 고분군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남 이성산성, 이천 설봉산성·설성산성,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고양 행주산성·고봉산성, 파주 봉서산성, 교하 오두산성, 김포 문수산성·수안산성, 여주 파사성, 안산 성태산성, 안성 죽주산성, 오산 독산성 등이 신라에 의해 새로 쌓아지거나 다시 축성되었다. 그리고 신라고분군으로는 신라산성과 인접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까지 파주 성동리 고분군, 용인 보정동 고분군, 화성 백곡리고분군, 여주 금암산 고분군, 여주 매룡리 고분군·하남 광암동(금암산) 고분군 등이 발굴되어 알려져 있다.

이들 산성과 고분군은 경기도의 주요 행정거점과 군사요충지에 축조되었는데, 이들이 자리했던 지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경기도 행정중심지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기도 통치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시점이 신라후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들 중에서도 경기지역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유적이 용인시 구성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용인 할미산성(경기도 기념물 제215호)과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이다. 할미산성은 전체 둘레가 651m 정도에 불과한 작은 산성이지만 성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물을 모아두기 위한 대형의 집수^{集水}시설, 제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팔각형 건물지의 존재를 보여주는 초석 등이 발굴되었으며, 전형적인 신라양식의 굽다리접시가 출토되었다.

용인 보정동 고분군에서는 80여 기의 고분이 발굴되었는데, 시신을 안치한 매장주체부는 주로 횡구식석곽으로 추가장^{追加葬}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유물은 굽이 달린 장경호를 포함한 전형적인 신라후기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경주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이 좋은 상품^{上品}과 그것보다는 제작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현지생산의 토기가 섞여 있었다. 한편 묘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의 백제 고분군이 있던 곳을 피하였던 점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발굴성과를 통하여 신라는 백제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선영(先塋)을 보호함으로써 유화정책을 펼쳤던 점, 그러면서도 문화적으로 신라의 장례 습속을 강요하여 현지민의 신라화(新羅化)를 모색했던 점, 사민정책을 실시하여 새로운 거점에 대한 지배를 공고하게 하고자 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 읍치의 배후에 피난성을 만들어 환란(患亂)에 대비했으며, 그곳에 집수시설을 만들어 장기항전을 준비하였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치성을 드렸던 사실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경주 주변의 무덤양식, 매장양식, 토기제작기법 등이 그대로 확인되어 신라문화의 이식(移植)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고고학적 발견과 그에 대한 해석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문헌자료에서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는 신라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고고학이 만들어낸 학문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문화재보호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행위에 대한 문화재조사를 의무화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지정·보호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재의 지정을 사유권의 침해만으로 보는 시각에 여론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개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만으로 취급받지 않길 바란다. 도시화로 인한 경관의 파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수단이 문화재 보호일 수 있고,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의 역사를 풍부하게 해 주는 것도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서 비롯되며, 건조한 역사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한국사의 시각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적과 유물이기 때문이다.

04

경기지역의 신라산성과 명문기와



아차산성 출토 '북한산성' 명문기와



당성 출토 '本彼謨(본피모)' 명문기와

서울·경기지역에는 많은 수의 고대 성곽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 및 이후 영토화 하는 과정에서 새로 축성하거나 이전 정치체가 구축했던 산성을 개축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성곽은 교통로와 수계 및 해안을 따라 분포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들 성곽에 대한 조사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성곽을 복원하여 유적공원화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발굴조사가 본격화되었다. 서울·경기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성곽 중에서 17곳 이상의 성곽이 1차례 이상 시굴이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12곳 이상이

2차례 이상 조사되어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신라계 산성을 꼽아보자면 파주 칠중성과 덕진산성·오두산성, 연천 대전리산성, 포천 성동리 산성과 반월산성, 양주 대모산성, 하남 이성산성, 광주 남한산성(주장성), 용인 할미산성, 안성 죽주산성·망이산성, 오산 독산성, 이천 설성산성과 설봉산성, 여주 파사성, 김포 수안산성, 인천 계양산성 등이 있으며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성곽들이다.

이들 성곽은 축조 수법과 저수시설, 수구 등 구조물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고, 그 시기를 추정하여 각 시기별 활용 양상을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나아가서 다른 성곽들과의 비교를 통해 축성 주체에 관한 내용도 언급되었다. 또한 성곽의 분포양상을 비교하여 그 역할을 추출해 내는 연구 등도 진행되었다.

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토기나 금속제품 혹은 명문이 확인된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성곽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기와류이다. 특히 평기와류는 출토량에 비해서 해당 유적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은 많지 않으나 명문이 남아 있는 기와는 예외적으로 특화되어 명문의 해석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성곽의 초축 시기나 주요한 활용 시기 등을 추정하는 연구에 활용되었다.

서울·경기지역 신라계 성곽에서 확인된 명문 자료를 분류해 보면, 당시의 성 이름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명문자료가 확인된 예가 가장 많다. 서울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중에는 ‘북한北漢’·‘○한산○漢山’·‘북북北北’·‘○수○受’ 등의 명문이 확인되다가 마침내 2016년에 ‘북한산성北漢山城’명 명문기와가 수습되었다. 호암산성에서 출토된 청동순가락 및 기와 명문에는 ‘잉벌내仍伐內’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고구려 이후 통일신라시대까지 이 지역의

지명인 잉벌노^{仍伐奴}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양주 대모산성에 서도 ‘덕부^{德部} · 덕부사^{德部舍} · 관^官 · 초^草 · 부부^{富部} · 대부운사^{大浮雲寺} · 성^城’ 등의 명문이 확인되었으며, 파주 칠중성에서는 ‘칠^七’명 기와, 오두산성에선 ‘원^元 · 천^泉 · 천정^{泉井} · 상초^{上草} · 초하^{草下}’ 등의 명문기과가 확인되었는데 고구려 때 금촌 · 교하 · 탄현 일대를 천정구현^{泉井口縣}으로 불렀던 증거로 보고 있다. 고양의 고봉산성에서는 ‘고^高’ · ‘고봉^{高峯}’이 새겨진 명문기과가, 포천의 반월산성에서는 ‘마홀수해구단^{馬忽受蟹口單}’ 명기과가 수습되어 고구려 시기에 이 지역이 마홀지역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천 설봉산성에서도 ‘남^南’ · ‘대사^{大寺}’ · ‘천^天’ 등 명문이 기과에 시문되어 통일신라시대 남천정^{南川停}이 바로 설봉산성이라 추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남한산성 행궁지 하궐터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의 대형 건물지에서도 ‘갑진역년말춘주민고^{甲辰域年末村主敏高}’과 ‘마산정자와초^{麻山停子瓦草}’ · ‘천주^{天主}’ · ‘관^官’자 등이 새겨진 기과가 여러 점 출토되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명문과의 ‘갑진^{甲辰}’년은 824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처럼 간지명의 유물은 산성의 축조시기를 추정케 해주기도 하며, 여타의 명문들도 기과의 제작 집단이나 제작된 시기, 기과의 사용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천 계양산성에서는 부평 지역의 고대 명칭인 ‘주부토^{主夫吐}’명 기과가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교역항인 당항성으로 비정되는 화성 당성에서는 신라 육부가 당성의 축조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 ‘본피^{本彼謨}’자가 새겨진 기과와 ‘당^唐’자 명 기과가 확인되었으며, 안성 비봉산성에서도 ‘본피^{本彼}’명 기과가 확인되어 경기 서부지역에 넓게 본피부의 영향력이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성과 관련된 명문 자료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시사해 준다. 우선 당시의 행정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의 성곽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는 군사적인 시설로만 제한해서 인식하기 쉽다. 그런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군정과 민정이 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군사 시설인 성곽이 동시에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당시의 성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군사 거점이면서 동시에 행정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성 내부의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된 기와에서 해당 군현의 이름이 찍힌 것들이 발견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한산성 내 하궐터의 대형 건물지에서 확인된 사례에서처럼 절대연대가 확인되어 성곽 내 건물 축조 연대를 참고하여 성곽의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갑진^{甲辰}’년은 824년으로 추정되어 적어도 그 이전 시기에 성곽이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단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관^官’명 기와에 대한 해석에 있어 기와의 사용처 혹은 공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현명과 결합된 ‘관’명은 기와의 사용처가 신라의 지방 관청이나 관용 건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05

화성 백곡리 고분군과 원효의 깨달음



백곡리 석실본

원효대사元曉大師는 도반 의상義湘과 함께 당나라에 불법을 구하고자 길을 떠났다. 본국 신라의 해문海門인 당주唐州(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에 도착하여 당나라로 가는 큰 배를 구해 서해를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심한 폭우를 만나 길 옆의 토굴에 몸을 숨겨 비바람을 피했다. 다음날 날이 밝아 바라보니 그곳은 해골이 있

는 옛 무덤이었다. 굿은 비는 계속 내리고 땅은 질퍽해서 도저히 길을 나설 수 없었다. 그래서 또 무덤 속에서 머물렀다. 밤이 깊어지자 귀신이 나타나 놀라게 했다. 원효대사는 탄식하면서 “전날 밤에는 토굴에서 편히 잤는데 오늘은 귀신 굴에 의탁함에 근심이 많구나. 이제야 알겠도다. 마음이 생김에 갖가지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닌 것을. 또 삼계三界는 오직 마음시오 만법이 오직 인식임을. 어찌 따로 구하라. 나는 당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소.”말하고는 바람을 메고 경주로 돌아갔다.

이상은 『송고승전宋高僧傳』 권4 ‘신라국의상전’에 실려 있는 유명한 일화이다. 우리에게 흔히 ‘원효의 해골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석문임간록石門林間錄』이라는 또 다른 책에 실린 원효와 해골물 이야기는 원효를 당나라 승려로 표현하고 있는 점, 그가 해골물을 마셨다는 곳이 당나라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이런 까닭에 『송고승전宋高僧傳』의 내용이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원효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원효가 그의 사상의 중핵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사상을 깨달은 역사의 현장은 과연 어느 곳일까? 현재까지의 역사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를 종합할 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자리한 백곡리 고분군 일대를 단연 일순위로 손꼽을 수 있다. 백곡리 고분군은 신라 대당 교역의 창구였던 신라의 당성唐城과 바로 인접해 있는 당시 신라인들의 공동 묘역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라는 551년 한강 유역을 점령한 다음, 서해안에 자리한 당성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중국과 본격적인 교역을 시작하였고,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약적인 국력의 발전을 하게 된다. 한강 유역을 확보했기에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가능했던, 그 결과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유

일한 창구가 바로 지금의 당성과 그곳의 국제포구였다.

현재 백곡리 고분군의 무덤은 단 6기만 발굴되어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아쉽게도 4~5세기 무렵의 백제고분만이 발굴되었다. 그러나 신라산성 옆에는 반드시 신라시대의 고분군이 있다는 일반적인 현상에 의거할 때, 백곡리고분군에서 신라고분이 적지 않게 발굴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 당시 신라의 무덤 양식은 돌을 쌓아 무덤방을 만들어 조성한 이른바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이 유행했던 사실로 미루어, 동일 형식의 무덤이 조사될 것이라 예상한다. 어쨌든 원효와 의상이 당으로 가고자 한다면, 신라의 해구^{海口}였던 지금의 당성에서 출발해야 했고, 그들이 비바람을 피해 무덤에 들어갔다면 당시 백곡리에 자리했던 신라의 횡혈식석실분이었음은 가장 설득력 있는 상상이다.

역사는 현장감을 지녀야 그 가치가 승화된다. 백곡리 고분군은 원효가 깨달음을 얻은 현장일 가능성이 높고, 그를 대표하는 대중불교의 단초가 마련된 곳이 그곳의 횡혈식석실분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문화유산은 역사적 일화와 고고학적 사실이 손을 잡아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백곡리 고분군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고고학적 정보가 더 많이 확보되어, 당성 일대가 원효의 해골물 이야기와 함께 화성의 명물이 되길 바란다.

06

오산 가수동 유적과 신라마을



가수동 유적 전경



가수동 우물



가수동 발유구



가수동 목제유물 칠기용기(상좌), 목제 발화구(상우), 추정 대형수레바퀴(하)

오산 가수동 유적은 오산시 가수동 49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주)늘푸른주택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약 3년동안 조사가 이루어진 가수동 유적은 삼국시대(한성기 백제~신라)에 조성된 마을유적으로 밝혀졌는데, 기원후 6~7세기 경의 신라취락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확인된 유구는 곡간부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수로를 비롯하여 우물 3기 · 저수시설 4기 · 수리와 관련된 목제시설물 2기 · 수혈주거지 25기 · 수혈구덩이 88기 · 다수의 구상유구 및 주혈군 · 경작유구(밭) 등이 있다.

전체적인 유구의 배치는 중앙 곡간부에 형성되어 있는 북→남방향의 자연

수로를 따라 북쪽 사면부에는 주거지 및 수혈유구와 같은 생활공간이 자리했고, 중앙부에는 자연수로와 관련된 수리시설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가장 남쪽에는 경작유구(밭)가 형성되어 있었다. 구제밭굴인 까닭에 취락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지는 못했으나, 이와 같은 유구의 분포양상은 삼국시대 후기 취락의 구조 및 지형활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특히 신라의 마을 유적이 매우 드문 경기도에서 본 유적이 확인됨으로써 신라 후기 경기지역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 주거지의 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유구의 보존이 용이한 퇴적요건으로 주거지 내 부뚜막을 만드는 데에 이용된 목재골격이 남아있어, 부뚜막 조성에 나무도 사용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 일부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시설의 연도부가 주거지 내부공간 밖으로 돌출된 상태로 확인되어 당시 굴뚝시설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자연수로 내부 및 곡간부 층적층에서 출토된 다량의 목제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실생활 도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가수동 유적은 저습지 유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라후기 곡간부의 자연수를 중심으로 자연마을이 형성·유지되다가 통일신라시대의 어느 시점에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의 폐기 원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근거도 남아있지 않지만, 농업생산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 경작지가 오산천변의 층적대지로 확장됨에 따라 좁은 곡간부에 있는 본 유적이 방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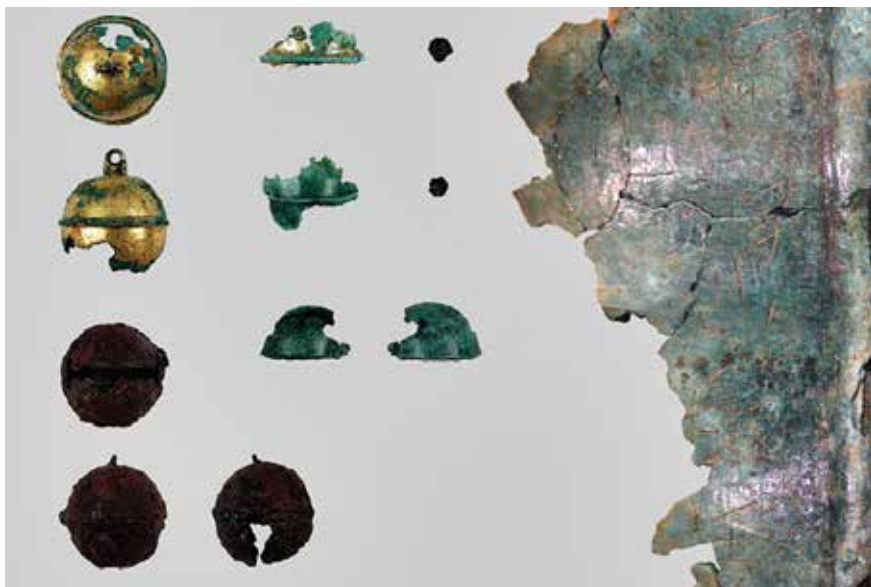
가수동 유적의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발굴의 제도와 규칙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이해(利害)와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라는 조사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친 구제밭굴이었다. 지표조사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저습지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건

설공기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는 시행처로 하여금 유적의 훼손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한편으로 조사기관은 시행처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라 심적 부담을 안고서 정상적인 발굴방법과 절차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시행처와 조사기관 모두에게 힘겨운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발굴을 수행할 수 있었고 유적의 기본정보를 대과 없이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도 새롭고 알찼다. 시행처도 발굴의 최종단계에서는 문화재보호와 관련된 현실적 상황을 인지하여 순조로운 발굴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였다. 더 나아가 목제유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처리장비의 일부를 기증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모든 와중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한 조사원은 물론이고 시행처의 실무책임자도 마음고생, 몸 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가 소기의 목적을 쟁방 달성할 수 있었다. 어쨌든 본 유적의 발굴은 21세기 벽두 우리나라 발굴현실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고, 후일 한국발굴사의 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07

광주 대쌍령리 유적과 ‘남한산조사南漢山助舍’명 청동방울



9호 석곽묘 출토 방울류와 명문

고고학에서 명문이 새겨진 방울이 출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런 면에서 광주 대쌍령리 유적 출토 ‘남한산조사南漢山助舍’명 청동방울은 학술적 의미가 남다르다.

대쌍령리 유적은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산 2-8일대에 위치하며 조사면적은 약 3,200㎡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구간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2005~2006년에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 14기, 묘 3기, 회곽묘 2기, 수혈 6기 등 총 2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입지상으로 광주읍과 곤지암읍을 잇는 소쌍령고개에 위치하는데, 서울-광주-충주-죽령-영주-봉화를 잇는 봉화대로는 지나는 곳이며, 현재는 3번 국도의 쌍동JC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렇게 교통요충지에 유적이 자리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간선도로가 이미 고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통일신라시대 분묘의 입지가 교통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하남 이성산성과 이천 설봉산성을 잇는 축선상에 위치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명문에 새겨진 청동제 방울은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9호 석곽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229cm, 너비 111cm, 깊이 70cm이다. 석곽의 벽석은 4~5단이 남아 있으나 남단벽은 최하단석만 남아 있고, 유물은 북단벽에 접해 토기 5점, 허리부분에서 금동제·청동제·철제 방울과 청동제·철제 과대금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무덤의 축조연대는 대략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당시 방울은 녹과 흙으로 덮여 형태와 재질을 알 수 없었다. 유물의 흙과 녹을 털어내고 작은 편을 접합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등 과학적 보존처리 과정에서 명문이 확인되었다. 처음 명문을 발견할 때에는 ‘남한산조 사南漢山助舍’ 중 마지막 글자인 ‘사舍’자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웠

으나 접합·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었다. 청동방울편에서 새겨진 명문의 표면기법은 조이질이 사용되었다.

명문은 동체 중앙의 테 방향으로 5자가 새겨져 있는데 길이는 약 19.62mm로, 각각 글자는 5mm 이하로 작게 음각되었다. 명문의 표면기법을 살펴보면 모조기법 중 하나인 둥근 날을 가진 정釘을 이용한 환모조기법이나 끝이 뾰족하고 명문을 새길 때 이용되는 침서針書기법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방울의 두께가 약 1.5mm 정도로 얇아서 명문은 정 망치로 두드리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여 선을 그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청동방울의 가치는 ‘남한산조사南漢山助舍’라는 다섯 글자에 있다. 특히 ‘남한산南漢山’이란 지명은 현재의 남한산을 특정하는 산의 이름보다는 행정명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다.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광주와 하남 일대, 서울 송파구 일원이 ‘남한산’으로 불리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리고 ‘남한산’이란 지명이 ‘남한주南漢州’, ‘남한성南漢城’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앞으로 연구 과제이다.

‘조사助舍’는 회궁전會宮典과 예궁전穢宮典 소속 관원인 ‘조사지助舍知’일 가능성이 있다. 조사지에 대한 직급과 임무가 불명하지만, 내성 산하 관부에서 행정 실무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청동방울의 ‘南漢山助舍남한산조사’ 명문 또한 남한산에 속한 하급 관리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명문방울이 부장된 무덤이 동일 고분군 내의 다른 무덤에 비하여 형식이나 규모가 월등한 점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재지인在地人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추정이

인정된다면 피장자는 지금의 광주 곤지암 일대의 토호세력으로 고려시대 향리 鄉吏와 같은 역할을 한 지위의 인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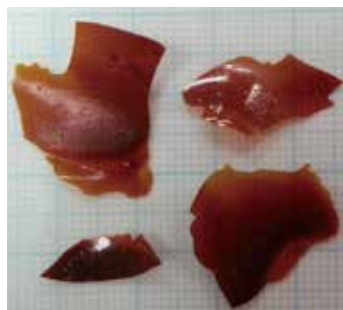
또한 방울 자체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고고자료이다. 특히 재질이 철, 청동, 금동 등으로 차이가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를 대금구와 연결해 생각해 보면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철제 방울, 청동제 방울, 금동제 방울을 대금구에 달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 이 가정이 인정된다면, 통일신라시대에는 방울로 관직의 고하를 나누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런 상상과 함께 이 방울들은 남명 조식 선생이 항상 웃고름에 달고 다녔다는 성성자 惺惺子와 같은 용도가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무덤의 피장자는 두 개의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스스로 경계했을 수도 있겠다.

요컨대 이 명문방울은 8세기 후반 지금의 광주·하남·서울 강남 일대가 남한산이라는 행정명으로 불리었고, 지방행정조직의 말단에 조사라는 관직이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또 남명 조식의 성성자의 원형이 고대부터 이어진 것일수 있다는 추측과 함께 방울이 하급관리의 직위 표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상상도 펼치게 한다.

08

영흥선靈興船, 경기만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난파선



경기만 영흥도 섬업벌 부근 유물 출토상태(상좌), 황칠(상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각종 유물(하),

지난 2007년 한 어부가 주꾸미를 낚아 올렸는데, 흥미롭게도 주꾸미의 빨판에 청자대접이 붙어 올라왔다. 이에 어부는 관련기관에 문화재 발견 신고를 했고, 다음 해인 2008년 고려청자가 인양된 충청남도 태안 마도 및 대섬 일대에 대한 수중발굴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나주, 해남, 장흥 등지에서 거둔 곡물과 강진의 청자를 신고 가다 1208년에 난파된 배의 잔해와 함께, 청자·도기류·목간·곡물·젓갈·땃돌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는 청자매병을 비롯한 최상품의 청자들도 다수 있었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직접 발견한 유물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다. 만약 홍길동이 자기 밭에서 신라시대 토기 5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계기로 그 주변에 발굴이 이루어져 다른 유물이 500점 출토되었다 해도 홍길동은 신고한 5점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아야 했고, 그 상한액도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주꾸미가 건어올린 고려청자’를 신고했던 어부에게 문화재청이 줄 수 있는 포상금은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었다. 그의 신고로 인해 고려청자가 1만여 점이나 출토되었고, 그 값어치가 약 200~300억 원 정도인데 비하면 너무나 약소했다.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고, 그 결과 문화재청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발견신고품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일종의 보너스격인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으며, 지급 최고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그 어부는 국가로부터 1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몇 년이 흘러 2010년, 웅진군 영흥면 섬업벌 인근 해역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두 사람이 청자대접 4점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그 중 윤모씨는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객 중에 고고학자가 있어서 그에게 발견 유물의 처리 문제를 의논했다. 유물을 처음 접한 고고학자는 4점의 청자가 포개진 상태였다는 이야기들 듣고서는 바로 난파선의 유물일 것이라 직감하고 발견신고의 절차를 알려주는가 하면, 수중발굴전문기관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도 별도로 발견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중 발굴 전용인양선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 결과, 통일신라시대의 고대 목선과 그 내부에서 황칠黃漆일 가능성이 높은 도료와 쇠솥 등을 발견하고 선박 주변에서 고려자기 600여 점을 수습하였다. 이후 영흥선靈興船으로 불리는 이 난파선은 해양에서 발굴된 최초의 통일신라시대 선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중국에도 알려질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던 황칠의 발견은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과적으로 관심 어린 신고로 국가적으로 유익한 문화자산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영흥선 발굴에서는 최상품의 도자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술적 가치는 높았지만 재화적 가치는 낮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포상금 1,000만 원이 확정되어 발견신고자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되었다. 참고로 남의 토지에서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발견자는 포상금의 50%만을 받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우연히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마땅히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호기심에 주변을 파서도 안 되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으로 정한 기한 즉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발견 유물을 기념품으로 삼기 위하여 집 안에 두거나 골동품으로 팔기 위하여 인사동 등으로 가져가서도 안 된다. 물론 일반인이 골동품업자를 상대로 제값을 받기도 사실상 어렵다.

위와 관련하여 만약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 발견 즉시 시·군의 문화재 담당 부서나 문화재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무지와 탐욕으로 패가망신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함이 현명하겠다. 운이 좋으면 돈과 명예 모두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7부

고려의 건국, 경기도가 한반도의 배꼽이 되다.

01

하남 교산동 건물지와 광주객사



하남 교산동 건물지 전경

하남 교산동 건물지는 일부 지역학자에 의하여 하남 위례성과 관련된 왕궁터로 지목되었다. 이에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실시되었고,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기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통일신라~조선시대에 걸쳐 장기간 사용되었던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김단산의 한 줄기인 객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건물지는 북

쪽을 제외한 동·서·남쪽에 ‘ㄷ’자 형태로 대형 건물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곽으로 토루와 담장이 둘러싸고 있었다.

건물지의 성격과 관련되는 ‘광주객사(廣州客舍)’, ‘광(廣)’, ‘관(官)’, ‘목관(牧官)’ 등의 각종 명문와가 출토되고, 온돌시설이 확인되지 않아서 광주 주치소(州治所)와 관련한 관영건축물로 추정되었다. 이런 추정은 『광주전도(廣州全圖)』(1872년)와 『여지도(輿地圖)』(18세기 중엽)에 교산동 건물지가 자리한 곳이 ‘고읍기(古邑基)’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따라서 교산동 건물지는 조선후기 광주의 치소가 남한산성으로 옮기기 이전의까지의 공해건물(公廨建物)일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이 유적은 관영건물 중에서도 광주객사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그 이유는 ‘광주객사’라는 명문기와가 적지 않게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고골일대에서 ‘광주객사’ 명의 기와가 이 교산동 건물지에서만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산동 건물지에서 가장 밀도 있게 출토되는 사실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또 광주객사의 건립에 사용되었던 기와를 주변 일대의 다른 건축물의 지붕 개보수에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그런 사실로 위의 결론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문헌기록에 의하면 광주의 진산이 검단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적이 검단산에서 뺀어 내린 객산을 배후로 하고 있는 사실과, 이런 사실을 읍치에서 객사가 전체 관영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입지한다는 사실을 연결할 때, 이 유적이 객사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더욱이 객사에서 유래되었을 객산(客山)이란 산 이름 자체도 교산동 건물지를 객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산동 건물지가 관아(官衙)였다면 주변에 내아(內衙)와 부속건물이



교산동 건물지 명문와



교산동 건물지 귀면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교산동 건물지는 토루에 둘러 있어 상기의 건축물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또 『허백당집(虛白堂集)』 권5 청풍루기(淸風樓記)에는 1502년에 중창된 광주객사의 구조 즉 ‘대청(大廳)-헌우(軒宇)-상하낭무(上下廊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도 교산동 건물지의 전체 평면 형태와 상응한다. 이런 사실 역시 본 유적이 관영건물 중에서도 객사일 개연성을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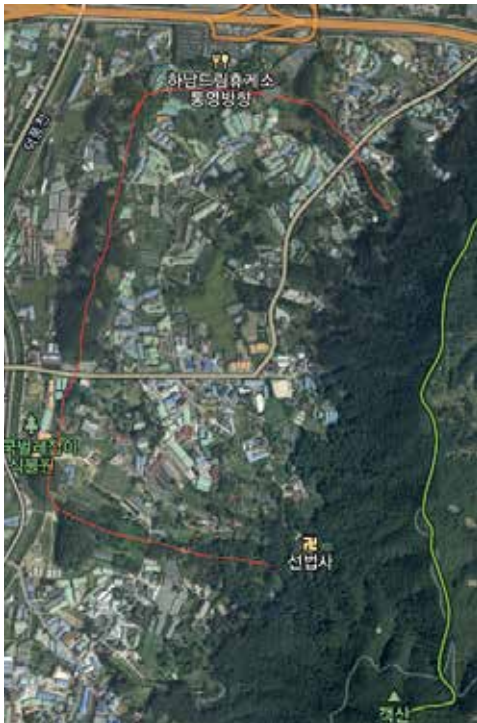
한편, 본 유적의 맨 아래 문화층에서 나말여초시기의 건물지로 볼 수 있는 유구가 확인되었고, 후삼국 통일과정(920년 전후)에 참여했던 애선(哀宣)·성달(城達)의 이름이 새겨진 ‘애선백사(哀宣伯士)’, ‘성달백사(城達伯士)’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이 유적은 고려초기에 이 지역의 토호세력에 의하여 초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상으로 본 유적은 광주 치소에 자리했던 관영건물이었고, 그 중에서도 광주객사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런 판단이 옳다면 본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모가 확인된 고려시대 객사건물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 학술적 가치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유적의 발굴로 인하여 광주의 읍치가 자리했던 곳이 덕풍천 서쪽 즉 지금의 광주 향교 부근이 아니라 교산동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런 사

실은 본 유적 출토의 ‘목관牧官’명 기와의 출토와 함께,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위치가 광주전도廣州全圖와 여지도輿地圖의 기록대로 덕풍천 동쪽이었음을 확정해 주었다.

한편, 본 유적에서는 이성산성에서 확인된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이성산성이 9세기 중반까지 운영되었다는 사실과 연결할 때 우연의 일치로 볼 수는 없는 듯하다. 이는 이성산성의 기능 상실과 본 유적의 창건이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구체적으로 9세기 후반에 한산주의 치소가 이성산성에서 현재의 교산동 일대로 옮겨 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정이 인정되고, 이를 확대·비약하여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읍치소가 통일신라시대 후반에 들어서서 산성에서 평지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추정은 현재까지 경기지역의 발굴에서 읍치의 관영건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이 평지에서 발굴되지 않은 사실로도 방증된다. 어쨌든 교산동 건물지는 우리나라 역사고고학에서 읍치소의 입지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교산동 건물지가 광주객사이고 그 일대가 주치소였다면 소위 ‘하남위례성 광주고읍설’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지하듯이 홍경모洪敬謨의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 권1, 성지城池조 등을 비롯하여 『대동지지大東地志』 광주부廣州府 연혁沿革, 그리고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3의 위례고慰禮考 등에서 하남위례성이 광주고읍에 있다고 했다. 또 일제강점기에 토위土圍가 있었다는 현지조사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현재의 고골지역에 성곽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골일대에서는 백제 관련 유적이나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광



광주읍성 추정선

주고읍에 성곽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백제의 위례성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럼 고골에 있었다는 성곽의 정체는 무엇인가? 현재까지의 유적조사 결과와 역사적 정황에 근거할 때 고려시대의 광주읍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위의 항공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남 교산동 건물지가 포함된 장방형의 윤곽일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현지조사 기록에 남아있는 토위土圍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교산동 일대가 광주고읍의 치소였고, 기존의 문헌에서 하남 위례성으로 보았던 성곽이 사실은 광주읍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정밀조사를 통하여 확인해볼 만한 추정이다.

02

하남 천왕사지와 그 문화재적 의미



하사창동 철불

천왕사지는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일원에 위치하는 대략 1만평 규모의 평지 가람 사찰이다. 유적이 위치한 하사창동은 조선시대 창우포 · 둔지포에서 운반된 쌀 · 소금 등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어서 사창리라 하였는데 그중 아랫마을에 있다하여 하사창리로 불렸으며 객산 아래에 있어 ‘골말’ 이라고도 한다.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원종대사탑비(元宗大師塔碑)’에 원종대사가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에 머물기를 청했다는 기록과, 사지에서 다수 발굴된 ‘천왕(天王)’, ‘천왕사(天王寺)’ 등의 명문기와 자료로 볼 때, 현재 하사창동 340번지 일대가 천왕사지임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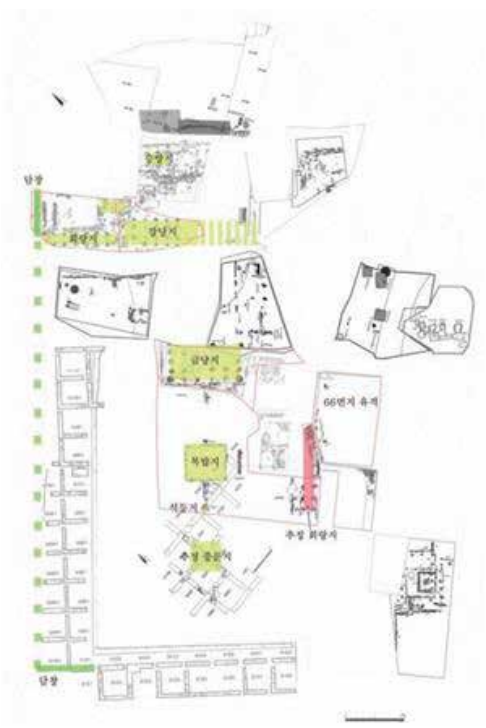
『고려사』권132 열전45 반역6 신돈(辛旽) 편에는 “신돈이 재추(宰樞)와 함께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의 부처님 사리를 맞이하여 왕륜사(王輪寺)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세종실록』에는 1446년(세종 28)에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의 사리(舍利)를

利 열 개를 궐내闕內에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보물 제332호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이 천왕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하고 있다.

추정 사역 범위 내에 대한 발굴조사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를 포함하여 26차례 이상 실시되었다. 이런 조사들을 통하여 각종 건물지, 목탑 추정지, 담장지, 배수시설, 소성유구, 우물 등과 범종梵鐘을 주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

인되었다. 유물은 고려시대 유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나 주름무늬병, 연화문·보상화문의 수막새, 당초문 암막새 등과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조사 성과와 기록을 연결하여 판단할 때, 사역의 조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이루어져 조선전기까지 이어졌던 것은 확실한 듯하다.

가람은 목탑, 금당, 강당, 승방이 일렬로 배치된 1탑 1금당식의 배치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천왕사지와 유사한 시기에 축조된 사지는 보령 성주사지,



천왕사지 가람배치도 (화랑문화재 연구원)

강릉 굴산사지, 남원 실상사지, 여주 고달사지, 원주 거둔사지, 충주 송선사지, 안양 안양사지가 있다. 이중 최근에 발굴된 안양사지는 전면발굴조사가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사찰의 중심시설들이 발굴되어 그 배치를 가늠할 수 있다. 안양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강당지, 승방지, 회랑지, 금당지, 전탑지, 보도, 중문지 등 중심시설들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금당지의 평면형태중 중앙부의 통칸구조와 함께 중문-전탑-금당-강당-승방으로 이어지는 일자형 배치는 현재까지 발굴된 천왕사지의 가람배치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이런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 성과를 학술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건연대가 어느 정도 밝혀진 점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당초문 막새기와와 연질의 격자문 수막새의 편년에 근거할 때, 천왕사의 창건연대는 7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

둘째, 창건 당시의 유물로 볼 수 있는 당초문 기와편을 비롯한 기와들의 문양과 제작기법이 이성산성 출토품과 형식상 상통하는 점이다. 이는 하남을 대표하는 이성산성과 천왕사지를 비교·검토하여 한산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셋째, 추정범종주조유구와 기와기마, 솟가마 등이 확인되어, 사역 내에서 일정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안성 봉업사지 등의 발굴에서 공방시설이 확인된 사실과 연결할 때, 고려시대 사찰의 운영에 관한 작은 단서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소성유구의 경우 목탑지와 매우 인접해 있고 그 조성시기가 통일신라시대로 편년할 수 있어, 목탑의 건립 시기를 유추하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바로 위와 관련하여 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막새기와는 문양이나 제작방식에서 상품에 속하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특히 통일신라기와의 경우 경주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형식이 동일하고 품질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편이다. 이런 사실은 천왕사지가 주읍_{州邑}의 중심사찰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다수의 ‘천왕_{天王}’을 위시하여 ‘왕사_{王寺}’, ‘관_官’, ‘우차_{又且}’, ‘만_卍’, ‘평_平’, ‘천_千’ 등의 명문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들과 동일한 기와들이 하남의 춘궁동과 하사창동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기와의 분포는 한산주와 광주 읍치의 범위를 잠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실시한 2차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통일신라 시대의 기와가마와 함께 전술한 소성유구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소성유구에서는 적갈색 및 회황색의 승문, 선문, 무문 기와와 함께 ‘관_官’자 명문와와 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기와들은 한 유구에서 출토되어 하남 지역 출토 통일신라기와의 편년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역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실시한 2차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통쪽와통을 이용한 태선격자문 암키와와 주연부에 연주문이 없는 연화문 수막새는 백제기와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런 사실은 하남 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된 백제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덟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1차 시굴조사에서 수습된 고드레·실패는 흔히 발굴되지 않는 유물로, 고려시대 일상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홉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1차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원형의 주좌가 새겨진 초석 2개는 천왕사지의 조영시기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된다는 기존의 견해를 보강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형식의 주초석이 춘궁동에 있는 동사지桐寺址에서 확인되어 두 사지寺址의 관계를 살피는 데에도 본 유물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천왕사지는 한산주, 광주라는 주읍에 조성된 평지가람의 사찰이다. 이런 사실은 경기도 지역의 대부분 사찰이 산지 가람이면서 주읍에서 벗어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학술적 가치가 있다. 요컨대 천왕사지는 고려시대 주읍의 사찰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고, 이런 천왕사지에 대한 발굴 성과는 고려시대 사찰의 위계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03

여주 원향사지와 청동소종



원향사지 청동소종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절터가 있었다.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유적이 자리한 동리(洞里)의 이름을 따서 ‘원부리사지’라 이름하여 왔다. 그러던 중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절터를 가로질러 설계됨에 따라,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2000~2001년 2년 동안 실시되었다.

원향사지의 발굴조사에서는 목탑지를 비롯하여 21여 개소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경주에서 제작된 최상품의 기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귀면와 등 특수기와, 12세기 고려불교의 기복적 성향을 시사하는 ‘양천기복(仰天祈福)’명의 평기

와, 당시 활발한 국제 교류를 증명하는 다양한 형식의 중국자기, 고려초기 나한상으로는 처음으로 발굴된 소조나한상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발굴조사 지

역 밖에서 청동소종^{靑銅小鐘}과 금동탄생불을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국가에 귀속 처리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이 청동소종은 원향사지 출토 문화재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크기가 높이 27cm에 불과한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기의 전형적인 동종에서 확인되는 주악천인상^{奏樂天人像}과 비천상^{飛天像}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그런 반면에 종의 다른 부위의 조각기법은 사실감이 떨어지고, 위아래 띠장식의 문양이 섬세하지 못하여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며, 유관^{乳廓}이나 유두^{乳頭}의 표현 수법 또한 정교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예술작품으로서 최전성기를 지나 대중화 단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형식적 속성을 통하여 이 청동소종의 제작시기는 대략 9세기 말에서 10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범종은 완형과 파종^{破鐘}을 합하여 9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5점만 국내에 남아있고 나머지 4점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국내 5점 중에서도 양양 선림원지 범종은 화재로, 남원 실상사 범종은 반파된 상태로 출토되어 완형은 상원사 범종, 성덕대왕 신종, 사용된 사찰을 알 수 없는 청주 운천동 출토 범종 등 3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원향사지 출토 청동소종은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갖춘 출토지가 분명한 유물로서 불교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04

여주 고달사지와 원향사지 출토 중국 송대 자기



고달사지 출토 송대 건요계 흑유완



원향사지 출토 송대 경덕진요 청백자 절요접시

여주 고달사와 원향사는 나말여초에 초창되어 고려 중기에 크게 중창重創되었다가 고려 후기 이후에 사세寺勢가 기울거나 폐사된 사찰이다. 고려 중기에 두 사찰의 사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사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중국 송대 자기가 출토되어 주목받았다. 고달사지와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송대 자기는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고려와 송의 교역품 중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실물 자료이다. 또한 고려시대 사찰에서 사용된 수입 도자의 양상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음다飲茶 문화 및 생활상을 복원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고달사는 의천이 천태종天台宗을 개창할 때 회합된 5대 사원 안에 들 정도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이었다. 사지는 남한강으로 흘러나가는 금당천

의 발원지인 고래산 줄기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 이래로 8차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지형을 따라 크게 3단의 축대 위에 법당지, 불전지, 승방지, 욕실, 요사채 등 28동에 이르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되는 중국 자기는 주로 건물지 Ⅲ층과 Ⅳ층에서 확인되며, 대부분 12세기부터 13세기 경에 제작된 송대 자기이다. 출토된 자기는 요주요耀州窯 청자, 경덕진요景德鎮窯 청백자, 건요계建窯系 흑유자, 복건성 일대에서 제작된 백자 등이다. 고달사지에서는 당말·오대에 제작된 월주요 청자와 형요 백자도 출토되어서 중국 자기의 유입이 사찰의 초창 시기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향사지는 여주시의 가장 남쪽에 해당하는 점동면 원부리를 지나는 청미천 남쪽에 위치하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과정 중 출토된 기와에서 확인된 ‘원향사와장승순문元香寺瓦匠僧順文’이라는 명문 때문에 영월寧越 흥령사興寧寺 징효대사탑비澄曉大師塔碑에 나오는 음죽현陰竹縣 원향사元香寺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원향사지는 8~9세기 경에 초창되어 11세기에는 호족세력의 후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지고 12세기에 또 중창이 있었지만, 13세기에 이르러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향사지에서 출토되는 중국 자기는 요주요 청자, 경덕진요 청백자, 건요계 흑유자 등이 확인되었다.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송대 자기는 전반적으로 고달사지와 유사한 양상이지만 수량이나 품종은 적은 편이다.

고달사지에서 출토된 경덕진요 청백자는 다른 중국 자기에 비해 수적으로 많은 편이며, 북송대와 남송대로 제작 시기를 나눠볼 수 있다. 가-3, 13건물지에서 출토된 끝부분을 꽃잎 모양으로 오린 화형접시편은 11세기 말부터 12세기 1/4분기에 제작된 북송대 청백자이다. 남송대 청백자는 선문이 음각된 대

접과 절요접시이며, 연꽃·연잎·물고기가 압출양각된 연지어문 절요접시이다. 남송대 청백자는 13세기 경에 경덕진 호전요지에서 수출용으로 대량 제작된 것이며, 고려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동남아 일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남송대 청백자 절요접시는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어서 압출양각된 연지어문의 형태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고달사지와 원향사지에서 확인된 경덕진요 청백자는 파주 혜음원지, 전주 실상사지, 원주 법천사지, 보령 성주사지, 안성 봉업사지, 익산 미륵사지, 부여 왕흥사지, 경주 불국사 등 사찰 유적뿐만 아니라 개성 일대 고분, 삼척 삼화리 석실분, 강화도 중성, 자강도 희천시 서문동 교장^{窖藏} 등 무덤·관청·교장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송대 자기이다. 북송대 청백자는 고달사지를 비롯한 일부 사지^{寺址}에서만 확인되지만 남송대 청백자는 한반도 전역에 위치한 사찰과 관청 유적에서 확인되어 출토 범위가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덕진요 청백자가 고려에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남송대인 13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요주요 청자나 건요계 흑유자는 대부분 차를 마시는데 사용된 완류로 추정되며, 선종 사찰에서의 음다^{飲茶} 문화와 관련성을 보인다. 요주요는 섬서성^{陝西省} 황보진^{黃堡鎮}에 위치한 북송대 대표적인 청자 가마이다. 고달사지와 원향사지에서 출토된 요주요 청자는 모두 내면에 국화당초문이나 모란당초문이 압출양각되고 외면에 사선문이 음각되어 북송 시기에 제작된 특징을 보인다. 두 사지에서 출토된 흑유자도 대부분 완으로 추정되며, 복건성 일대에 위치한 우림정요지^{遇林亭窯址} 등 건요계 가마에서 남송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복건성 건양시^{建陽市} 수길진^{水吉鎮}에 위치한 건요에서 제작된 검은색 찻잔인 흑유

다완이 북송대부터 대대적으로 유행하면서 그 주변에 위치한 무이산(武夷山) 우림정요, 남평(南平) 차양요(茶洋窯) 등지에서 제작된 흑유완은 건요계라고 구분한다. 건요와 건요계 가마에서 제작된 다완은 태토의 색에서 차이가 나며, 건요의 태토는 검은 빛을, 건요계는 주로 미색과 같은 옅은 황색을 띠고 있다.

여주 고달사지와 원향사지에서 출토되는 송대 자기는 사찰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와 송의 무역 및 문화 교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주요 청자, 정요 백자, 경덕진요 청백자, 자주요 자기 등 송대 자기는 고려청자의 조형과 장식 기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발굴을 통하여 고려에 유입된 송대 자기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고려청자와 함께 사용된 송대 자기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백자류의 출토량이 많은 원인을 고려백자의 대체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는 발굴 자료가 없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였을 것이며, 향후에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되는 중국 자기의 양상은 한·중 교류사뿐만 아니라 한국도자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05

여주 원향사지와 청자접시



원향사지 13호 건물지 아궁이 주변 청자접시 출토 모습



원향사지 13호 건물지 출토 고려청자접시

원향사지에서는 12세기부터 13세기 경에 제작된 고려청자와 중국 송대 자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21기의 건물지 중에서도 13호 건물지는 아궁이가 설치된 구조와 그 주변에서 다량의 고려청자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13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확인되었지만 측면의 주간거리가 짧고, 중앙의 초석이 정연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서 실제로는 측면 1칸의 건물로 추정되었다. 건물지의 서측 밖에서 길이 약 3m, 너비 약

0.8m의 아궁이와 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와를 쌓아 독을 만들고 위에 덮개돌을 얹은 모양으로 건물의 측면과 평행하게 놓인 상태였다. 이 시설은 아

궁이로 추정되어 건물 밖에서 취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주변에서 청자 접시 54점이 일괄 출토되었다. 이 건물지에서는 청자접시 54점 외에도 도기편 19점, 청동접시 4점, 소형 동종, 용뉴, 지화원보(至和元寶(1054-1055))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자나 금속기의 기종은 모두 소형 접시이고 도기는 대부분 항아리와 병 등의 저장용기이다.

3호 건물지의 아궁이 시설 주변에서 출토된 청자는 뚜껑 2점, 완편 1점, 구경 8cm에서 10cm 내외의 소형 접시 54점으로 분류되었다. 적지 않은 수량의 청자 접시가 취사 시설 주변에서 출토된 예가 처음이어서 건물지의 성격이나 청자의 용도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청자 접시는 기형, 번조 받침, 시문기법 등 여러 면에서 고려 중기의 특징을 보이는데, 구연이 밖으로 벌어지거나 수평으로 꺾인 형태가 많고, 틀로 형태와 문양을 찍는 압출기법으로 성형된 화형접시류도 대표적인 예이다.

원향사지 출토 청자 접시는 굽이 없는 평저(平底)이거나 굽을 제대로 깎지 않은 경우가 많고, 번조받침은 대부분 내화토와 모래를 섞어서 사용하였으며 규석 받침은 한 점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압출기법으로 문양을 찍는다거나 굽을 깎지 않는 평저에 내화토 모래빛음을 번조 받침으로 사용한 소형 접시는 강진 용운리 가마터 퇴적 Ⅱ층 나유형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출토된 청자 접시의 조형은 강진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유약이 묻혀있었다거나 유면이 균일하지 않고 번조 온도가 낮아서 유약이 제대로 녹지 않는 등 품질이 떨어져서 강진 이외 지역의 청자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진 용운리 10호가마터 Ⅱ층, 부안 진서리 18호, 20호 가마터, 부안 유천리 7구역 가마터에서 출토된 기종 중에 접시류가 43%-5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12세기 이후에 접시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퇴적 층위가 조사된 강진 용운리 10호가마터에서도 퇴적 II층부터 소형 접시의 기형이 다양해지고 수량이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중기에 강진, 부안에서 제작된 소형 접시류가 여러 지역의 청자가마에서 모방되고 재 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인 보정리, 용인 서리 도장골·사기막골, 음성 생리, 대전 구완동, 여주 안금리, 칠곡 봉계리 등의 여러 청자가마터에서 강진 유형이 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소형 접시류가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전반 경까지 제작되었다. 원향사지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주나 용인 일대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자 소형 접시의 용도는 여러 사지에서 출토되는 상황이나 청동제 소형 접시의 용도 등을 고려해서 볼 수 있다. 소형 접시는 청자뿐만 아니라 청동제로도 적지 않은 수량이 확인되며, 고려 중기에 운영된 여주 고달사지, 안성 봉업사지, 보령 성주사지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원향사지에서는 청자 소형 접시가 취사 시설 근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공양하는 공양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성 봉업사지에서는 청자 소형 접시 23점과 청자잔 10점이 일괄 출토되어 소형 접시가 잔받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보령 성주사지에서는 청동 소형 전접시가 등잔을 놓는 광명대의 등좌 부분과 함께 출토되었고 제주 법화사지에서는 청동 소형전접시를 법화경 앞에 놓는 등잔 용도로 만들었다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지에서 출토되는 청자 소형 접시류는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예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음식을 담는 공양구 외에 잔받침이나 등잔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06

여주 원향사지와 명문기와



원향사지 전경

여주 원향사지는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에 위치하는 고려시대 절터이다. 원향사지의 연혁은 영월 흥녕사지興寧寺址에 있는 정효대사보인탑비澄曉大師寶印塔碑의 음기陰記에 새겨진 기록으로 보아 통일신라 진성여왕 2년(888)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기록에 “...진성여왕이 원향사를 영원히 선나별관禪



원향사지와 명문 元香寺(좌), 元香寺瓦匠僧順文(중), 仰天祈福(우)

那別觀에 속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원향사가 선종사찰禪宗寺刹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징효대사 절중折中은 통일신라 말 유행하였던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을 개창開創한 인물로 흥녕선원興寧禪院에 머물다가 난을 피하여 음죽현陰竹縣(현 음성) 원향사 등으로 옮겨 다녔으며, 효공왕 4년(900) 강화도 은강선원銀江禪院에서 입적하였다.

여주 원향사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되면서 사전지표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어 1999년~2000년 발굴조사에서 ‘원향사元香寺’명 기와가 출토되어 문헌에 기록된 원향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여주 원향사지에서는 이외에도 ‘양천기복仰天祈福’, ‘원향사와 장승순문元香寺瓦匠僧順文’명 기와 등이 출토되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원향사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양천기복仰天祈福’명 기와는 200여 점 출토되어 이 기와가 제작되던 시기

에 대규모 불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문의 내용은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 중 하나인 기복양재^{祈福揚災}적 경향을 보여주며, 이는 당시 원향사 중창^{重創}에 참여했던 단월세력^{檀越勢力}이 품었을 현실세계에서의 바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단월세력의 기복사찰^{祈福寺刹}로서 원향사가 기능하였음을 나타낸다.

‘원향사와장승순문^{元香寺瓦匠僧順文}’명 기와는 말 그대로 ‘원향사의 와장인 승려 순문’이라는 뜻이다. 즉 원향사 중창에 와장으로 참가했던 승려인 순문에 대한 기록으로, 와장^{瓦匠}은 곧 대장^{大匠}으로 와공의 대표를 뜻하는 직책^{職責}이며, 승^僧은 승려로서의 신분을, 순문^{順文}은 법명을 뜻한다. 이 명문기와는 당시 와공 집단^{瓦工集團}으로 승장조직^{僧匠組織}이 존재했으며, 순문을 대표로 하는 승장조직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사찰 조영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준다. 즉, 고려 초기 중앙집권체제 정비 시 공부^{工部} 산하의 장작감^{將作監}에 설치된 관청^{官廳} 영선조직^{營繕組織}과는 별도로 지방의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였던 승장조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승장조직을 운영할 만큼 당시 원향사에 관여했던 세력의 경제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문이라는 승려의 법명이 밝혀짐으로 인해, 순문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원향사의 중창시기 및 원향사 중창과 관련된 불교 세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7

여주 고달사지와 쌍사자석등



고달사지 쌍사자석등 시계방향으로 옥개석 없는 모습, 옥개석이 올려진 현재의 모습, 석등을 올렸던 시대석, 발굴 당시의 옥개석

여주 고달사지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의 혜목산 서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시대 사찰유적이다. 고달사는 신라하대의 고승인 현옥玄昱이 주석한 이래 선종禪宗 계열의 사원으로 알려졌으며, 고려 초기인 971년(광종 22) 희양원曦陽院, 도봉원道峰院과 더불어 부동사원不動寺院으로 지정될 만큼 왕실의 강력한 보호를 받던 절이었다.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종단 통합을 시도할 때에도 고달사는 천태오문天台五門에 속할 정도로 고려시대 불교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여주 고달사지에는 현재까지도 사찰 곳곳에 여주 고달사지 승탑(국보 제4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탑비(보물 제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보물 제7호),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보물 제8호) 등 중요 문화재가 남아 있으며, 고달사 터 자체가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고달사지는 1998년부터 2019년까지 10차에 걸쳐 학술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고달사는 신라말 경문왕에 의해 원감선사圓鑑禪師 현옥(787~868)의 하산소下山所로 지정되면서 종풍宗風과 법맥法脈을 형성하였으며, 진경대사眞鏡大師 심희審希(855~923)를 거쳐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869~958)에 이르러 대선림大禪林을 이룩하였다. 찬유는 890년(진성여왕 4) 삼각산 장의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892년(진성여왕 6)에 입당하여 서주舒州 투자산投子山의 대동大同에게서 선禪을 배우고, 921년(고려태조 4) 귀국하였다. 924년(고려태조 7) 왕의 청에 의하여 광주廣州 천왕사天王寺에 잠시 머물렀으나 곧 혜목산으로 옮겼다. 고려 혜종惠宗(943~945)은 향기 좋은 차와 비단 법의를 선물하였고, 정종定宗(945~949)은 운납가사雲衲袈裟와 마납법의磨納法衣를 보냈다. 광종은 그에게 증진대사證眞大師라는 호를 내리고, 개경 사나원舍那院으로 초빙하여 설법하게 하였으며, 곧 국사國師로 삼았다.

고달사로 돌아온 후 수많은 제자와 중생이 모여들었으며, 958년(광종 9) 고달원 선당에서 입멸하기까지 고달사는 당대 최고의 선종사찰로서 위세를 떨쳤다.

광종이 고달사에 이처럼 특별한 조치를 내린 것은 선禪과 화엄華嚴을 융합融合한 선교일치禪敎一致를 내세우는 법안종法眼宗의 사상적인 특징이 왕권 강화라는 당면 과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찬유가 이끄는 법안종의 중심이었던 고달사는 당대 고려 왕실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크게 번창할 수 있었다.

고달사지에는 일제강점기 때에 고려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쌍사자석등(보물 제282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1938년 이 석등이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폐사지 근처에 살던 이기모라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그렇게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은 흘러 해방이 되었고, 이기모씨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그런 내력도 모르고 1957년 9월에 서울 종로 4가에 위치한 동원예식장 주인에게 3만 8천원에 팔았다. 이렇게 국보급 문화재가 팔려나간 사실을 알게 된 문교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문제의 석등을 인도하여 1959년 경복궁 경회루 옆에 옮겨 놓았고, 1963년 보물 제282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갈 때까지 절터를 떠난 석등은 궁궐이라는 원래의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긴 세월을 보내었고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이라는 어색한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계승한 형식으로 고려전기 석등의 대표작이다. 형태상, 쌍사자상이 두 발로 서서 직접 상부 대석을 받들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네모난 하대석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또 통일신라시대 석등에서는 사자 두 마리가 간주석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달사지 석등에서는 마주한 쌍사자가 하대석의 역할을 하고 있어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처음 발견 때부터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은 옥개석이 없는 상태여서 불완전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60여 년이 흐른 2000년, 여주 고달사지를 연차 발굴조사하던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은 추정 법당지 바로 앞에서 옥개석을 발굴하고, 그것이 보물로 지정된 쌍사자석등의 옥개석일 것이라고 발표하게 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정밀 측량을 거쳐 새로 발견된 옥개석이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의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이 옥개석에 대한 관리를 석등을 소장한 국립중앙박물관에 맡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 여주 고달사지에는 고달사지 승탑, 원종대사탑비, 원종대사탑, 석조 대좌 등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쌍사자석등이 올려져 있었던 지대석이 정식 발굴을 통해 발견되었고, 쌍사자석등이 자리했던 지점이 법당 앞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진 상태이다. 그리고 지금 고달사지에는 CCTV가 설치되어 문화재의 훼손과 도난의 위험도 예전 같지 않다. 따라서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이 여주로 귀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화유산은 원래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다른 유물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자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술적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이 도심의 소음과 조명에서 벗어나 고즈넉한 달빛 아래에서 자기의 짝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08

여주 고달사지 출토 대형 약연



고달사지 전경

고달사지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에 있는 절터로 1993년 7월 23일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었다. 764년(경덕왕 23)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으며, 고려시대 광종光宗 이후 역대왕들의 비호를 받던 지방사원이었다. 고달사지에서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 승탑高達寺址 僧塔, 보물 제6호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高達寺址 元宗大師塔碑, 보물 제7호 고달사지 원종대사탑高達寺址 元宗大師塔, 보물 제8호 고달사

지 석조대좌^{高達寺址 石造臺座} 등 주요 문화유산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고달사지는 경기도 사찰터 중에서도 국보와 보물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러나 1998년부터 근 10년간 이루어진 중심사역에 대한 조사에서 팔목할 만한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가가 있어서 유구와 유물의 훼손이 심하고, 도굴꾼들이 금속탐지기 등을 동원하여 유적을 살살이 도굴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런데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한 고달사지 6차 발굴조사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으면서도 다른 발굴유적에서는 거의 출토된 바가 없는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것은 약선과 약환, 그리고 약선대로 구성된 완전한 세트의 약연 발굴이다.

약연은 한방에서 약재를 뺑거나 즙을 낼 때 쓰는 기구이다. 중국에서는 모양이 배처럼 생겼다고 하여 약선이라 한다. 일본에서는 약연^{藥研}이라 표기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약갈이라고도 하고, 약연^{藥碾} 또는 약연^{藥研}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보통 배 모양의 홈이 패인 약선과 그 안에 넣고 굴리는 주판알 모양의 연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큰 한약방 같은 곳에서는 길이가 1m를 넘는 대형 약연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재료는 다루는 약의 종류와 성분에 따라 돌, 나무, 청동, 놋쇠, 청자, 백자, 오지, 무쇠, 유리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다. 약연은 하부 다리의 유무 및 개수에 따라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다리가 없는 약연의 경우에는 홈을 판 목재용기를 따로 제작하여 그 안에 넣어 고정시켜 사용한다. 다리는 2개, 3개, 4개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다리가 놓여진 방향에 따라 분류된다. 다리가 2개인 경우 서로 마주보고 평행하게 위치한다. 다리가 3개인 경우 2개는 나란히 배치하고 나머지 하나는 두 개의 다리와 직교하여 위치하기도 한다. (발췌: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민간의약』)

고달사지 출토 약연은 고려시대 우리나라 약연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그것도 정식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물이다. 이에 그 제원과 모양을 소개해 두고자 한다.

약환^{藥丸} : 철제 약환으로 약선에 약재나 차를 넣고 뺑기 위해 약선의 'V'자 홈에 맞춰 주판알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있어 나무 등으로 제작된 축을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멍의 안쪽은 중앙으로 갈수록 오목하게 들어간다. 고 16.6cm, 지름 35.6cm, 무게 56.45kg

약선^{藥船} : 대형의 철제 약선으로 하부에 다리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홈이 파인 목재용기에 넣어 사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가운데 연잎형으로 'V'자 홈이 오목하게 파여 있으며, 양쪽 미부가 완만하게 위로 올라가는 배모양이다. 'V'자 홈 옆으로 약 120mm가량의 전이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 끝 부분은 홈이 파져있고, 바닥면은 볼록하게 되어있어 뺑아낸 약재나 차를 퍼내지 않고 그대로 쏟아거나 다른 그릇에 부을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14.8cm, 길이102.4, 너비 36.4cm, 무게 32.20kg

약선대^{藥船臺} : 장방형의 철기로 횡방향의 평행한 세 줄의 대선이 있어 단면이 '山'자 형태이며, 대선에 횡방향의 균열이 여러 개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흙 및 부식화합물 등의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었으며, 대선에 사선의 꼬임 흔적이 있는 요철이 관찰되었다. 이 요철은 약선을 사용할 때 힘에 의해 밀리지 않도록 바닥면과의 마찰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판단된다. 한쪽 부분에 1개의 구멍이 반 정도 투조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대선의 일부분은 결실되었다. 약선의 한쪽 미부 하단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약선대로 사용한 철기로 관찰되나 약선을 고정하기 위해 약선대 위에 나무와 같은 지지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14.8cm, 길이 102.4cm, 너비 36.4cm, 무게 22.80kg

불교의 융성기를 맞은 고려시대의 고달사는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각종 불교행사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때 많은 승려들에게 공양을 베풀어야 했으므로 대형의 약연이 필요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약연은 약재를 빻을 뿐만 아니라 즙을 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음식을 만들 때 다양하게 이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 번에 다량의



보존처리 후 약연(①약환 ②약선 ③약선대)

차를 대접하기 위해 차 잎을 가는 다연으로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고달사지 출토 약연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식 발굴에서 출토된 약연이라는 점, 약선·약선대·약환이 완전한 일식으로 출토된 점, 그 크기가 초대형인 점 등으로 고달사지 출토 최고의 명품 유물이라 할 수 있다.

09

고려 남경길과 혜음원지



혜음원지 전경

조선시대 왕이 온천을 가거나 능행을 할 경우, 또 외침을 당해 피난을 갈 경우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행궁이다. 이런 행궁은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국가적으로 관리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화성 행궁, 남한산성 행궁, 북한산성 행궁



해음원지 출토 청자류

등이 조선시대 행궁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 고려시대는 어땠을까? 주지하듯이 고려는 불교국가였다. 그러니 교통의 요충지마다 사찰이 있었고, 왕실은 이런 사찰에 행궁을 두거나 행궁의 기능을 하는 건물을 두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소개되는 해음원이다.

고려 예종대에 창건된 해음사는 승려들의 수행 장소와 백성들의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는 신앙처였다. 아울러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도로의 운영 체제 속에서 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하고 여행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사역 내에는 사회문화로의 창구기능을 염두에 둔 해음원이 조성되고 운영되었다. 문종 숙종 예종대의 남경경영과 관련하여 볼 때 해음령은 개경을 잇는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해음사의 사역 내에 별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은 역대 왕들의 남경순행에 있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음원지는 해음령 고개를 접하고 있는 가장 깊은 계곡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개경에서 문산을 거쳐 남경으로 이동하는 옛길에서 약 500m이상 떨어져 있다. 약 500m 이격거리가 있는 공간에는 현재 마을이 형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해음원지는 남쪽으로 계곡 하단부를 차단하여 남벽을 조성하고, 북쪽으로는 능선상단부와 계곡부를 차단하여 북벽을 조성하였다. 동,서 측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암산 비호봉의 가지능선과 경사면에는 각각 동·서벽을 조성하여 하나의 일곽을 이루고 있다. 외곽담장의 규모는 길이 약 700m내외, 너비 1.7~2.0m이며, 총면적은 약 25,000㎡ 가량이다. 이러한 입지와 규모를 볼 때 흡사 성곽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음원지가 입지한 곳은 계곡부의 중심에 해당한다.

해음원지는 기록에 의하면 별궁, 원지, 사지 등의 권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부식이 작성한 「해음사신창기」를 보면 해음원지는 1차적으로 1120년 2월 착공하여 1122년 2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후 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별원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1122년 2월부터 김부식이 기문을 작성하였던 1144년 사이에 행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음원이 조성되는 초기에는 원지와 사지만 조성되었고, 행궁은 이후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해음원지의 규모는 동서 약 100m, 남북 약 129m이며, 11단에 걸쳐 총 3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동·서 두 개의 남북 축선 상에 비교적 대칭된 양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음원지는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유물 중 기와류는 용두·취두·잡상을 비롯하여 다량의 일회문 막새기와가 출토되었으며, 자기류는 강진이나 부안산의 고급 청자편들이고 송나라에서 수입된 중국자기편이 확인되어 소위 ‘왕실호텔’의 위상을 대변해 주었다.

한편, 1144년 이후 혜음원에 대한 고려시대의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조선 시대에 기록된 혜음원에 관한 것은 1530년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파주 연원조와 고적조에 보이고 있다. 고적조에 고혜음사로 기록되어 사찰은 이미 폐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역원조에는 혜음원이 그대로 있어서 원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혜음원지는 남한에서 발굴된 유일한 고려시대 행궁유적이다. 또 여행자에게 숙박과 편의를 제공했던 역원의 기능도 하던 곳이다. 한편으로는 배후에 자리한 혜음령에서 도적이나 맹수로 인한 희생자가 한해에 수 백명에 달해서 혜음원을 건립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런 역사고고학적 사실들은 고려시대 사찰의 기능과 입지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사찰 특히 큰 고래 아래에 자리한 사찰들의 기능 중 하나가 역원의 기능이었음을 분명하게 해 준다. 아울러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들이 역원의 기능은 물론 행궁의 기능도 함께 했음 개연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시각에서 회암사지와 고달사지 등 경기도 사찰들의 기능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고달사에서 ‘고달원^{高達院}’이란 명문기와와 ‘고달사’란 명문 기와보다 월등하게 많이 출토된 사실, 고달사 뒤편의 고개 너머에 단종이 영월로 쫓겨 가는 길에 마셨다는 ‘단종어수정’(여주시 향토유적 11호)의 존재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 회암사에서 회암령을 넘으면 바로 함흥으로 통하는 경흥대로(현 43번 국도)와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10

안성 봉업사지와 명문기와



봉업사지 전경



능달(能達)이 새겨진 명문기와

봉업사지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에 자리 잡은 절터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향완과 반자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절 이름은 ‘봉업사奉業寺’이고, 1081년(고려 문종 35) 이전에 세워졌음을 알게 되었다. 『고려사』에 1363년(공민왕 12) “왕이 죽주에 이르러 태조의 진영을 알현하였다.”는 기록으로 태조의 진영眞影을 모신 진전사원眞殿寺院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역 내에 안성 봉업사지오층석탑(보물 제435호), 안성 봉업사지석불입상(보물 제983호, 칠장사로 이전), 안성 죽산리 당간지주(유형문화재 제89호) 등 관련 석조물이 남아 있고, 주변에 장명사지, 매산리사지, 칠장사 등 불교유적이 밀집 분포한다.

1998년 경기도박물관이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까지 3차례 발

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화차사華次寺’명 기와 등 다수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봉업사의 위상과 역사적 성격을 밝혀주었다. 명문기와는 크게 연호명, 간지명, 지명명, 인물명으로 구분된다. 연호명 기와는 ‘태화육년太和六年(832)...’, ‘준풍사년峻豐四年(963)...’, ‘건덕오년乾德五年(967)...’, ‘태평흥국칠년太平興國七年(982)...’, ‘흥국팔興國八(983)...’, ‘...옹희雍熙(984~987)...’ 6종이 있으며, 간지명 기와는 ‘을유乙酉’,



봉업사지 오층석탑 출토 사리병

‘병진丙辰’, ‘무오戊午’, ‘신유辛酉’, ‘기사己巳’, ‘갑술甲戌’ 6종이 확인된다. 지명을 나타내는 기와는 ‘개차관皆次官’, ‘서주관西州官’ 2종이 있고, 인명을 나타내는 기와는 ‘백사伯士’, ‘백사佰士’, ‘천년주인광대千年主人光大’ 등이 확인되었다.

태화육년太和六年은 832년(흥덕왕 7)에 해당하며, 9세기 전반 봉업사의 전신인 ‘화차사華次寺’ 창건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 연호는 967년(고려광종 14)에서 987년(성종 6)까지이며, 10세기 중후반 봉업사가 융성하였던 시기의 단면을 보여준다. ‘을유乙酉’명 기와에서는 ‘...□年乙酉八月日竹.../...里凡(佰士)能達毛’ 글자가 확인되는데 ‘능달能達’은 『고려사』에 태조 왕건 때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개차관皆次官’명 기와는 죽산의 옛 지명 중 하나인



봉업사지 오층석탑

‘개차皆次’와 일맥상통하며, ‘서주관^{西州官}’명 기와는 청주의 옛 지명인 ‘서원경^{西原京}’과 관련이 있다. ‘백사^{伯士}’와 ‘백사^{伯士}’는 지방세력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천년주인광대^{千年主人光大}’의 천년주인은 광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명문기와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봉업사의 역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일신라 때 ‘화차사^{華次寺}’였던 봉업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청주 사람인 ‘능달’을 일종의 지방호족인 ‘백사^{伯士}’로 삼아 청주지역과 연관을 맺고 있으

며, 고려 광종 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명문기와를 통해 광종의 주요 정치적 기반이었던 ‘충주유씨^{忠州劉氏}’를 비롯한 청주, 이천 세력과 함께 ‘죽산(안성)박씨’ 등 경기 남부 및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지방호족세력이 고려 초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고려 초기 지방호족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했던 시절에 개혁군주인 광종이 왕실에 대항하는 지방호족을 대대적으로 숙청 하였던 시기에 죽주지역의 봉업사에 대규모 불사를 일으킴으로써 주변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화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북한산 중흥산성과 그 범위 비정



중흥산성 성벽(치석된 북한산성 성벽 아래의 합석으로 축조된 부분)

중흥산성은 현재의 북한산성이 축성되기 이전에 북한산에 축조된 성으로 여러 문헌에서 보이고 있다. 『원사元史』에 “1253년(현종 3) 종왕宗王인 야호耶虎에게 명하여 고려를 정벌하게 하여 삼각산, 양근, 천룡 등의 성을 함락하였다”는



정밀지표조사로 발견된 중흥산성의 내성 북벽의 일부부분)



보국문과 석가령치성 중간 부분에서 확인된 중흥산성의 성벽으로, 북한산성 성벽의 기초부로 이용됨

기록이 있어, 13세기 중엽 이전에 삼각산(지금의 북한산성이 자리한 곳)에 산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도 확인되는데, 1387년(우왕13), 11월 요동정벌에 앞서 중흥산성을 수축하기로 결정하고, 다음해 1388년 2월에 경성의 방리군을 보내 축성하고 3월에 세자 창昌 및 정비_{定妃}·근비_{謹妃} 이하 여러 왕비들을 중흥산성으로 보낸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여기서 14세기말 요동정벌에 즈음하여 삼각산에 있던 산성을 수축하였고 그 산성의 이름이 중흥산성임을 알 수 있으며, 『원사』의 삼각산성이 곧 중흥산성임도 확인할 수 있다.

1596년(선조 29) 선조의 명을 받아 삼각산에 폐성_{廢城}으로 남아있던 중흥산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한 이덕형의 ‘중흥산성_{中興山城} 간심서계_{看審書啓}’에는 중흥산성의 대략적인 위치와 형세가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흥산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성이었던 사실



조선시대 성랑하부 고려시대 유구



고려시대 유구 출토 기와

은 분명하고, 또 외성의 범위는 현 중성문-기린봉-노적봉-용암봉-석가봉-문수봉-나한봉-나월봉-중취봉-현 중성문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문헌에 근거한 중흥산성의 범위는 학술조사로도 뒷받침되었다. 지표조사에서는 외성의 북벽과 내성의 북벽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보국문과 석가령치성 중간 부분에서 확인된 중흥산성의 성벽은 현 북한산성의 성벽이 중흥산성의 성벽하단을 기초부로 삼아 축조되었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 발굴조사한 부왕동암문구간에서는 조선 숙종대 축조된 북한산성 성벽 바로 아래에서 중흥산성으로 보아도 무방한 성벽이 확인되었고, 성랑지 아래에서 고려시대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성랑지 조성 이전에 고려시대 중흥산성과 관련한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중흥산성의 위치 비정은 중세고고학에서 문헌기록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 준 사례이다. 문헌기록은 고고학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발굴자료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이렇듯 고고학은 문헌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고정보를 더 풍부하게 · 더 알차게 ·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상위학문인 역사학과 인문학에 공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고고학적 접근을 해야만 대중 속으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우리만의 편협한 고고학’을 고집하는 고고학자들이 한번은 성찰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12

용인 처인성과 출토 대도



처인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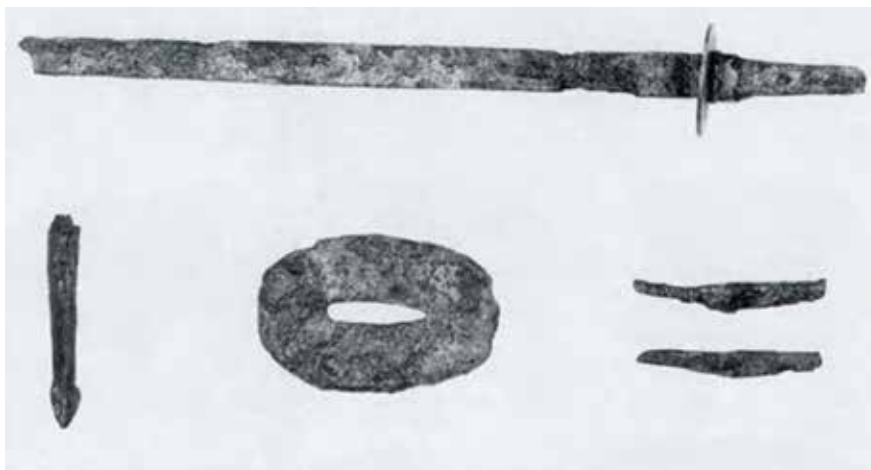
13세기 동아시아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몽골의 급성장 때문이었다. 칭기즈칸이 건설한 몽골제국이 백여 년 간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금(金)을 파상적으로 압박했다. 더 나아가 남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세력이 미쳤다. 고려도 몽골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1218년(고려고종 3) 몽골에 쫓겨 고려 경내로 들어온 거란족을 토벌 하면서 고려는 처음 대제국 몽골과 마주하였다. 당시 강동성에 웅거해 있던 거란 잔족을 고려와 몽골군이 연합하여 토벌한 후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그러나 고려에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인식한 몽골

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흔들렸다.

1225년(고려고종 10)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고려 국경에서 피살된 것을 계기로 국교가 단절되고 1231년(고려고종 18) 8월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면서 오랜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골과의 전쟁은 이후 125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전개된다. 1차 침입 당시 수도인 개경이 포위되면서 고려는 몽골에게 강화를 청하게 된다. 몽골군은 철군하였으나 이후 내정 간섭과 과도한 경제적 요구가 지속되었고 고려는 1232년(고려고종 19) 7월 강화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강화 천도 이후 몽골군은 재차 고려로 침략하는데 이것이 제2차 침입이다.

몽골군의 침입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고려 정부의 긴장을 해소시킨 사건이 바로 처인성 전투였다. 1232년(고려고종 19) 12월 용인의 처인성에서 적의 장수인 살레타이撒禮塔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처인성 전투는 귀주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승전으로 몽골군이 고려에서 철수하고 전쟁은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전투 현장으로 알려진 처인성은 해발 70m의 구릉 경사면에 건설된 토성이다. 평면형태가 정방형에 가까운 사다리꼴인데 둘레가 350m로 소형 성곽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성벽 구조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구릉 경사면에 판축으로 중심토루를 쌓고 외면을 흙으로 보축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성벽의 높이는 4.8~6.3m 정도로 파악되었다. 성 안에서는 자기와 도·토기, 기와, 철제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철제 대도大刀와 철촉, 도자, 철모 등 무기류가 확인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철제 대도는 길이가 약 61cm로 끝이 일부 부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성 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기와와 토기가 출토되어 처인성이 고려 시대 이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처인성 출토 무기류

한편 작은 토성인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장수를 사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30여 년간 지속된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의지한 것은 산성이었기 때문이다. 유사시 평지를 비우고 산성에 들어가는 청야전술(淸野戰術)은 우리나라의 오랜 방어 전략이었다. 특히 기동성이 높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는데 산성 입보(入保)는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1232년 강화로 천도를 결정하면서 고려 정부는 산성과 섬으로 이동을 지시하였다. 산성은 고대 산성을 수리하여 재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기도 했다. 당시 주요 격전지는 산성이 많았다. 평안북도 귀주성은 몽골군의 공세를 격퇴한 대표적인 전적지다.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 때도 거란군을 격파한 귀주성은 몽골군의 4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다. 춘천 봉의산성에서처럼 입보한 백성의 대부분이 적에게 도륙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안성 죽주산성과 충

주산성, 상주산성 등에서 고려는 몽골군의 파상공세를 견뎌냈다. 이러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높은 산에 쌓은 산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어가 취약한 얇은 구릉지의 소규모 토성에서 어떻게 적장을 사살하고 승전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이 전투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것이 아니라 살레타이가 소수 병력을 이끌고 정찰 및 숙영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처인성은 13세기 몽골과의 전쟁을 겪었던 고려인의 공포와 경험에 담긴 역사적 공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처인성 발굴조사는 기대와는 달리 팔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다만 철제대도만은 특기해 둘 만하다.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볼 때, 고려시대 무기 관련 자료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단 한 점의 대도^{大刀}이지만 이 대도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면, 고려대도의 표지적 유물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이 대도에는 타원형의 칼코등이 심부^{鋤部}가 칼몸과 손잡이 사이에 부착되어 있다. 이런 심부가 삼국시대 대도에는 일반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대도의 쓰임새 즉 검술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칼코등이와 함께 끝은 날을 지닌 직도^{直刀}인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환도가 약간 곡선을 그리는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이런 속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대도는 칼코등이가 부착된 직도^{直刀}였다고 일단 가정해 둘 수 있겠다.

13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



서곡리 벽화고분 석실 내부

비무장지대인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는 ‘파주 서곡리 고려벽화묘’가 자리하고 있다. 1991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하여 그 전모가 드러난 고려시대의 무덤이다. 이 무덤에는 잘 다듬은 화강암 판석 위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네 벽에 걸쳐 12인의 인물상을, 천장 중앙에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뚜렷하게 표현했다. 인물상의 관모에는 십이지신상을 그려 무덤을 사귀(邪鬼)로부터



서곡리 고려벽화묘 주인공 상

보호코자 했다. 주인공을 제외
한 인물들의 체형이나 모
습이 엇비슷하여 하나의 모
본^{模本}으로 윤곽을 잡아 그
렸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도굴을 당하여 중국 동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무덤
은 발굴 당시 학계와 언론
의 큰 관심을 끌었다. 분단
이후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
굴된 고려벽화고분이었고,
무덤의 주인공이 고려말기
의 문신인 창화공^{昌和公} 권

준^{權準}(1280~1352)이라는 사실을 새긴 석제 묘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이다. 이 무덤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묘의 주인이
세조 때에 권세를 누린 한명회^{韓明澮}의 할아버지인 한상질^{韓尙質}(?~1400)로 알
려져 있었고, 청주 한씨 문중은 600여 년간 제사를 지냈으며, 묘역도 당연히 청
주 한씨 문중 소유였다. 발굴 승낙까지 해 준 청주 한씨 문중의 입장에서는 실
로 황당무계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청주한씨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권
준이 한상질의 외증조 할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 연유는 불분명하지만 청주한
씨 집안에서 외가 쪽의 무덤을 관리해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의 주인공

이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청주한씨 문중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법원은 묘지석의 발굴 상태와 벽화의 제작 연대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 무덤은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고려 귀족들은 사후, 대부분 개성 근처에 묻혔기 때문에 옛 장단군 일대에는 고려 귀족의 무덤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0년대 초 비무장지대를 조사할 당시에 이미 고려 고분 주변에서 많은 도굴 흔적을 확인한 바, 문화유산의 보호 차원에서도 고려고분의 체계적인 조사는 필요하다. 이에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사업으로 장단군 내의 고려무덤에 대한 남북 공동발굴을 추진해 볼 만하다. 한국 전쟁 이전, 장단군을 포함한 개성 일대는 ‘경기도의 땅’이었고, 개성의 고려문화는 경기도가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쏟아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14

용인 마북동 고려무덤과 고려 묘제



마북동 고려 분묘군 3호 토광묘



부장품 출토 모습

무덤을 만드는 제도를 묘제(墓制)라 하고 이를 포함해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제반 절차를 장제(葬制)라 한다.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 등을 매장하는 방식이나 절차는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다르고 작게는 집안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덤이 단순히 시신을 안치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묘·장제는 쉽사리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만일 보수적인 묘·장제에 변화가 나타났다면 곧 당대의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덤의 구조와 형태,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 수 있다.

1100년 전 건국된 고려는 나말여초라 부르는 대변동의 시기에 등장한

나라다. 이 전환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여기에는 삶의 한 축을 이루는 죽음을 다루는 방식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려시대에는 석실분과 판석재 석곽묘, 할석재 석곽묘, 토광묘 등이 무덤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화장묘도 성행하였다. 고려인들은 위계에 따라 다른 무덤을 만들었는데, 왕과 왕비는 무덤으로 석실을 조성했고 고위 관료 계층은 판석재 석곽묘, 그 이하는 할석재 석곽묘와 토광묘를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려시대 무덤 유형은 대개 이전 시기에도 사용된 것이지만 삼국~통일신라시대 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널리 사용된 황혈식 석실분이 사라지고 기존에 성행한 석곽묘가 점차 쇠퇴하는 반면 토광묘가 가장 보편적인 무덤의 형태로 자리 잡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늘날까지도 흔히 사용되는 토광묘가 널리 조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토광묘는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도 무덤으로 사용되었지만 고려시대에 들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덤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토광묘는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시대는 한반도 묘제의 흐름이 석축묘에서 토축묘로 변화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하겠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 부근 마북동에서는 고려시대 분묘군 2개소가 발굴되었다. 마북동 유적과 마북동 고려 분묘군이 그것인데 현재는 유적이 있던 곳에 각각 단국대학교 캠퍼스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마북동 유적에서는 총 9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석곽묘 5기와 토광묘 2기가 고려시대 분묘이다. 나머지 2기는 황혈식석곽묘로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 분묘가 한 곳에 있어 시대에 따른 묘제 변화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석곽묘에서는 석곽 주위에 호석을 두르고 앞면에 방형의 대석을 갖춘 묘역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 유적은 발견 당시 대다수 무덤의 뚜껑돌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채로 이미 도굴된 상태였는데 발굴과정에서 철제 관고리와 관정, 동곳, 동전(해동통보), 도기와 청동수저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 결과 마북리 유적의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북동 분묘군에서는 석곽묘 4기 토광묘 3기 등 고려시대 분묘 7기가 발굴되었다. 경사가 비교적 급한 지역에 있어 유구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다. 특히 석곽묘는 하단부 단벽이 유실되어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토광묘에서는 모두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구의 상당부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곽묘와 토광묘에서는 청자대접과 청동합, 청동수저, 동경, 철제가위, 동곳, 동전, 도기병, 구슬 등 비교적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3호 토광묘는 부장품의 위치가 정연하게 확인되었는데 머리 쪽에 동곳과 구슬이, 허리 쪽에는 청자대접 위에 청동합과 수저가 차례로 얹힌 형태로, 발 치에는 동경 위에 토기병이 얹혀 출토되어 주목된다. 출토 유물로 보아 마북동 고려 분묘군은 고려 전기인 11~12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북동 일대의 고려 분묘 부장품은 대부분 일상용품으로 대개 망자(亡者)가 사용했던 일용품을 무덤에 넣었던 고려시대 부장 풍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마북동 고려 분묘에 묻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부장품의 종류가 일정한 갖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덤의 주인공은 일

반 민보다는 현재 마북동 일대에 자리했던 고려시대 용구현龍駒縣의 향리층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묘제를 삼국과 조선의 그것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점은 군현郡縣 단위에 대형분이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석실분과 같은 대형분은 개경과 그 주변 일대에 집중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는 곧 고려시대의 명문세족과 고위관료는 대부분 개경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보여주는데,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향촌을 기반으로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어쨌든 이런 대조는 중세사회의 향촌사회를 이해하는 고고정보임은 분명하다. 한편 경기도의 관점에서 볼 때 왕릉을 비롯하여 고관 대작과 향리의 무덤이 모두 발견되는 기전畿甸지역은 고려묘제의 보고임이 분명하다.

15

용인 제일리 분묘군과 청동순가락



제일리 1호 석곽묘와 묘역 전경



제일리 고려시대 6호 황구식 석곽묘 전경

용인 제일리 분묘군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산48-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석곽묘 16기,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와 회곽묘 50기 등 총 66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북쪽의 금백산(해발 424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독립구릉의 남쪽과 남서쪽 경사면에 방위관념 보다는 지형적 조건에 따라 조성되었다. 이는 인접한 양지리 유적, 좌향리 고려분묘군, 공세동 고분군, 마북리 고려고분, 보정리 소실유적 등과 유사하며, 고려시대 일반적인 묘지 선정 방식과 일치한다.

고려시대 석곽묘는 석곽축조 방식에 따라 I 유형~III유형으로 구분된다. I 유형은 11세기대에 편년되는 해무리굽완이, II·III유형은 12~13세기대의



제일리 고려시대 6호 황구식 석곽묘 출토유물

청자완, 윤형굽과 죽절굽의 중간 형태인 청자발, 평굽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용인지역 고려분묘군 중 I 유형 유적은 마북리 고려고분, 창리·공세리 유적, 마성리 마가실 유적, 보정리 소실유적 등이 있고, II 유형 유적은 제일리 분묘군과 3km 내에 위치한 양지리 유적과 좌항리 유적 등이 있다. 11세기부터 13세기 대까지 조영된 제일리 고려시대 석곽묘는 용인지역 고려 석곽묘의 양식변천과 부장유물의 변화양상 연구에 표지유적이라 할 수 있다.

석곽묘 이외에 고려~조선시대 토광묘도 확인되었는데 청자 발·접시, 백자 잔·접시·발, 도기 유병·호, 청동발·동경·동곳, 청동숟가락·젓가락, 동전(송녕중보, 조선통보) 등의 다양한 부장품이 부장부, 충전토, 목관 내부, 벽감 등에서 출토되었다.

제일리 분묘군의 피장자는 주로 평민(일반민) 계층으로 추정되나, 좌항리 고려고분군의 예로 보아 일부 향리 계층의 분묘도 공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일리 출토 청동술가락 및 청동유물 일괄

제일리 분묘군의 부장품들은 고려 전기의 서리 가마와 고려 중기의 보정리 청자 가마에서 생산된 제품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인근에 소재한 가마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토품의 시간적 위치 및 피장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학술적 근거가 된다.

청동술가락은 고려 석곽묘에서 3점, 조선 토광묘에서 12점 모두 15점이 출토되었는데 11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청동술가락의 형태는 네 가지로 출토유물의 편년과 세부 속성에서 기본형-쌍어형-장릉형-기본형·연봉형으로 이행하며, 술자루는 만곡도가 작아지면서 점점 직선으로 변화한다. 용인지역에서는 보정리 소실유적 23호 석곽

묘 출토 기본형이 가장 고식이고, 제일리Ⅱ지점 2호 묘의 죽절문이 부가된 젓가락과 세트로 출토된 장릉형 순가락이 1427년에 배포된 조선통보와 동반하고 있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며, 이후 기본형과 연봉형이 15~16세기대 백자와 같이 출토된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보편화된 청동순가락은 11세기 후반에 등장해 17세기 대까지 이어지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Ⅲ지점 13호 토광묘의 벽감에서 출토된 17세기(제작연대 1630년 또는 1640년)의 ‘별별’명 백자와 동반하는 유엽형 술잎과 직선형 술자루 순가락이 가장 늦은 단계의 형태이다.

한국의 젓가락은 중국과 일본의 나무젓가락과는 달리 쇠젓가락이다. 길이도 중국보다는 짧고 일본보다는 길다. 국문화가 발달해서 목제보다는 금속제가 더 위생적이기에 금속제이다. 또 일본은 찰기가 없는 쌀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입 가까이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먹으니 우리보다 짧고 중국은 반찬에 기름기가 많고 집기가 어렵기 때문에 젓가락이 가늘고 길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문화가 발달한 습식음식문화이기에 고기와 빵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와는 달리 순가락이 매우 발달하였다.

이렇듯 ‘물건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넓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중세시대의 순가락의 형태와 크기는 당대의 음식문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대의 수저와 고려조선시대의 수저는 길이와 모양에서의 확연한 차이는 바로 음식문화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다. 이에 아주 인상적인 형태의 고려시대 순가락을 통하여 고려시대 음식문화의 대강을 유추해 보는 작업도 흥미로울 듯하다. 그리고 이런 도전적 작업이 적극 추진될 때 고고학도 대중인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듯하다.

16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가마터와 제기



서리 상반 고려백자가마터 전경

용인 서리 상반 가마터는 서리 중덕 가마와 함께 고려 전기에 백자를 제작한 대표적인 유적이다. 용인 서리 내에 상반과 중덕은 지도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다. 중덕 가마터의 경우 토축으로 지어진 가마 하층에서 벽돌로 지어진 전축요^{博築窯}가 확인되었지만 상반 가마터는 진흙, 갑발, 할석으로 축조된 토축요였으며 전축요의 흔적은 없었다. 중덕 가마는 전축요로 운영되다가 토축요로 전환되었고, 상반 가마는 처음부터

토축요로 축조되어서 두 가마의 시기적인 선후 관계를 볼 수 있다.

서리 상반 가마는 토축요이지만 길이가 약 53m에 달해서 남부 지역에서 축조된 길이 10~20m 정도의 토축요와 차이가 있다. 가마의 규모로 보면, 40m 내외 길이를 가진 시흥 방산대요나 황해도 원산리요와 같이 10세기 경에 중서부 지역에 축조된 전축요와 유사하다. 그릇 하나에 갑발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전축요에서 많이 보이는 번조 방법인데, 상반 가마터 조사 지역에서도 다량의 갑발이 확인되었고 가마 축조시에도 폐갑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서리 상반 가마터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 보이는 전축요의 흔적이 남아 있는 토축요라는 의미가 있다.

가마 구조는 아궁이, 번조실, 연도(굴뚝)로 이루어진 반지하식 단실(單室) 등 요(窯)이다. 가마에서 굴뚝 역할을 하는 연도는 대부분 파괴되어 확인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상반 가마터는 갑발을 사용하여 만든 배연 시설이 확인되었다. 아궁이의 위치가 옮겨지고 있어서 가마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토 유물은 백자가 81.9%를 차지하여서 청자 1.6%, 도기 1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용인 서리 상반 가마터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출토품은 특수한 형태를 가진 총 196편의 제기편이었다. 제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완·대접·접시와 달리 거북이 모양의 장식물이 붙어 있거나 크기가 크고 두께가 상당히 매우 무거운 편이었고, 보(匏)·궤(甌)·두(豆)·작준(著尊)·호준(壺尊)·희준(犧尊) 등 종류도 다양하였다. 출토된 백자제기들은 일반 그릇에 비해서 태토의 수비 상태가 치밀하고 잡물이 거의 없으며, 만듦새나 마무리가 정세하여 좋은 품질의 제기를 제작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반 가마터에서 출



용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가마터 전경

토된 백자 제기는 서리 중덕 가마터에서도 출토되었지만 종류와 수량은 상반 가마터에 미치지 못한다.

상반 가마터에서 출토된 제기는 대·중·소사에 해당하는 나라 제사에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그릇이다. 황해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992년의 ‘청자 두’와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된 993년의 ‘청자호’는 고려 왕실의 조상을 모시는 태묘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특수 형태의 제기이다. 고려 왕실의 태묘는 989년(고려

성종 8) 4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992년(고려성종 11) 11월에 완공되었고, 청자 제기들은 이때 시행된 태묘 제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나라 제사에서 어떤 형태의 제기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상반 가마터 출토 백자 제기는 청자 제기와 함께 고려 초에 예제의



상반 가마터 출토 제기(靑, 白, 뚜껑)

정비 과정에 따라서 새롭게 제작된 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려 초에 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예제 정비를 위해서 새로운 예서禮書와 제기의 제작이 필요했을 것이다. 983년(고려성종 2)에 박사 임노성이 송에서 『대묘당도』, 『대묘당기』, 『제기도』를 비롯한 많은 예제 관련 자료를 가져 온 기록이 처음 확인된다. 이때 가져 온 『제기도』는 962년에 섭송의 叡崇義가 편찬한 『삼례도三禮圖』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반 가마터에서 출토된 다량의 백자 제기가 『삼례도』의 제기 도해圖解와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타당성 있는 견해이다. 용인 서리 중덕, 상반 가마터에서 출토된 궤와 보의 형태 및 거북이 형상이 부착된 뚜껑은 『삼례도』에 수록된 제기 도해에서만 확인되는 특이한 형태이다. 궤籠은 안쪽은 사각형이고 바깥쪽은 둥근 형태, 즉 내방외원內方外圓이며, 보籠은 궤와 반대로 안쪽이 둥글고, 바깥쪽이 사각 형태, 즉 외방내원外方內圓이다. 출토된 궤와 보의 뚜껑에 윗면 가운데 거북이 형상이 붙어 있는 모습도 『삼례도』와 일치한다. 이외에도 용인 서리 중덕과 상반가마터에서 출토된 변, 두, 호준, 착준, 상준, 희준으로 추정되는 제기편들이 『삼례도』에 포함된 제기 도해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용인 서리 상반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제기에는 황해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제기처럼 사용처나 제작자 등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지지 않아서 태묘 등의 특정 장소가 아니라 대·중·소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나라 제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백자 제기가 용인 서리 상반, 중덕 가마터에서만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려초 용인 지역이 국가적 용도의 백자 제작지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7

용인 보정리 청자가마터와 청자 불상



보정리 청자가마터 전경



보정리 청자가마터 출토 보살상



보정리 청자가마터 출토 나한상

용인 보정리 청자가마터는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등요^{登窯}이며, 진흙과 할석으로 축조된 토축요^{土築窯}이다. 가마의 규모는 총 길이 16m, 너비 1.1~1.4m, 경사도 10~15°이며, 가마 앞쪽에서부터 아궁이, 번조실, 굴뚝부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번조실은 칸을 구분하는 격벽 시설이 없이 한 칸으로 이루어진 단실요^{單室窯}이다. 번조실의 가운데 부분이 이미 파괴된 상태였으며, 4회 이상 보수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길이 1.7m, 너비 1.1m, 높이 68cm로, 아궁이에서 번조실로 넘어가는 불턱이 높고 직각을 이루고 있다. 보정리 가마의 길이, 폭, 직각의 높은 불턱 등을 보면 대전 구완동, 부안 유천리 등지에 조성된 고려 중기 가마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석렬 유구 일부는 가마와 관련된 구들 시설로 추정되며, 작업도구 및 수비공 역할을 한 도기가 출토되어 작업장 시설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용인 보정리 가마터 유적은 청자 가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업 시설까지 확인되어서 청자의 생산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용인 보정리 가마터에서 대접, 접시, 발, 잔, 합 등의 일상 용기와 장고, 두침, 타호, 화분, 돈, 버루, 연적 등 특수 기종의 청자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향완, 향로, 정병, 발우, 불상 등 불교와 관련된 청자 기물이 적지 않게 출토되어 다른 지역의 청자가마와 차별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중에서도 보살상과 나한상 등 청자 불상편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자 불상은 함평 용천사지, 강진 용혈사지 등 사찰 유적에서 출토되었거나 강진과 부안 일대에서 수습된 예가 있었지만 가마터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경우는 없었다.

보정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불상편들은 전체적으로 기벽이 두꺼운 편으로 유약도 묻치거나 제대로 유리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벽의 두께가 두껍

게 성형되어 번조 과정에서 터지거나 갈라진 예가 대부분으로 제작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 이후에 복원 작업을 통하여 보살상과 나한상 일부가 원형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복원되었다. 복원된 불상들은 대체로 높이 40-50cm 정도의 소형 보살좌상과 나한좌상으로 추정되었다. 청자 보살상은 얼굴과 가슴 부분이 파손된 상태이지만 보관과 합장한 수인은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용인 보정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 나한상은 보살상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개체 수가 확인되었다. 나한상의 머리 형태는 민머리 승려형, 두건을 쓴 피모형被帽形, 관모를 착용한 형상으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청자 나한상은 현재 확인되는 청자 불상 중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되는데, 강진 용혈암지에서 청자 나한상의 얼굴편 12점과 수인편 등이 출토되었고, 강화도 국화리에서 출토된 ‘청자 퇴화점문 나한좌상(국보 제173호)’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한상은 이외에도 ‘오백나한도’나 소조상으로 전하는 예가 적지 않다.

다른 불상에 비해 청자 나한상이 많이 확인되는 원인은 고려시대에 나한신앙의 유행으로 나한상을 주존으로 모시는 나한전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 다른 존상들과 달리 나한상은 오백나한이나 16나한 등 여러 존상을 전각에 모시기 때문에 사지 발굴에서 청자나 소조 나한상이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한신앙의 하나인 나한재羅漢齋도 외적의 침략이나 기우제와 관련하여 고려시대에 크게 거행된 예가 기록에서 많이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나한상을 포함한 청자 불상은 대부분 12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서 고려 중기에 청자 제작 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

용인 보정리 청자가마터는 강진과 부안 일대에서만 제작되던 청자가 여

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12세기 이후 고려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출토된 청자의 기종·기형·문양소재·시문기법 등에서는 강진 청자의 영향이라는 청자 제작 기술의 확산과 동시에 지역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과 그 이외 지역에서 제작된 청자가 양질과 조질로 구분되면서 청자의 품질 분화가 본격화되었음을 알려준다. 출토된 불상편들도 강진 지역에서 제작된 청자 불상에 비하여 조형적인 면이나 시유·성형·번조 등 제작 기술적인 면에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강진·부안 이외 지역의 청자 가마터 중에 불상편이 출토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려 중기 용인 지역의 청자 제작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8

용인 죽전 도기가마터와 ‘사온서’ 명 도기 편



죽전 도기가마



죽전 도기가마 출토유물

죽전 도기가마터는 2개 지점에서 4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구릉 사면부에 분포한다. 가마는 단실의 지하식 평요로 잔존 길이 4.45m, 너비 1.66m, 높이 1m 내외이다. 아궁이와 연도는 거의 유실되어 소성실과 연도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소성실은 타원형으로 경사도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벽은 진흙을 발라 조성하였다. 유사한 구조의 가마로는 봉천 봉암리, 서산 무장리, 시흥 방산동, 안성 화곡리, 화성 매곡리 가마가 있다.

가마터 주변에는 폐기장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유물은 대부분 폐기장에서 수습되었다. 기종은 호, 병,瓮, 장군, 시루 등 다양한데 평저의 호가 압도

적으로 많고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동체부에 구연부를 만든 장군도 다수를 차지한다. 유물 가운데 ‘사온서司醞署’라는 음각명문이 새겨진 호편이 포함되어 있다.

사온서司醞署는 고려시대 궁중에서 쓴 주류酒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문종文宗 때에는 양온서良醞署라 칭하였고, 뒤에 장례서掌禮署라 하였다. 1098년(고려숙종 3)에 다시 양온서라 개칭하였다. 그러다가 1308년에 충선왕忠宣王이 고쳐 사온서司醞署라 했다.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양온서라 칭하다가 1362년에 사온서로, 1369년에 양온서라 고쳤으며, 1372년에 다시 사온서가 되어 조선시대에도 존속되었다.

이런 사온서의 업무를 설치 연대를 고려할 때 용인 죽전 도기가마터는 그 상한이 14세기 초기早期를 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는 본 유적에서 출토된 장동호의 편년 설정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또 장동호와 장군의 기능이 술과 감주를 빚는데 사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유사 이래 술 담는 항아리의 동체가 상하로 길쭉한 장동형인 점으로 틀림 없다고 본다.

이 용인 도기가마터가 조사된 곳이 탄천 유역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곳은 풍덕천이 탄천 본류와 만나는 지점으로 이 물길을 따라가면 바로 한강과 만나는 입지이다. 바로 인접한 보정리 청자가마터와 함께 지금의 죽전 지역이 고려시대 개경開京과 남경南京의 도자기 공급처 중 하나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9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와 명문기와



목리 기와가마터 전경



목리 2호 가마

이천은 남한강의 지류인 복하천, 청미천, 양화천이 모두 지나가는 지형적 조건으로 선사시대 이래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최대의 각축장으로 세력 교체가 빈번하였다. 삼국시대에 이 지역을 처음 차지한 것은 3세기 경 백제였으며, 그 이전에는 마한의 영향권으로 마한 54국 중 노람국과 자리모로국의 터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남천南川 혹은 남매南買에 해당하는데 이는 5~6세기 경 고구려의 지명으로 475년(장수왕 63) 한성 함락과 고구

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이 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553년(진흥왕 14)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신주新州를 설치하면서부터이며, 568년(진흥왕 29) 신주정을 파하고 남천정南川停을 설치하였다. 이후 604년(진평왕 26) 남천정을 파하고 한산정漢山停을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568년(진흥왕 29) 북한산주北漢山州를 폐지하고 남천주南川州를 두었다가 604년(진평왕 26) 남천주를 폐지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목리 기와가마터 출토 '南川官' 명 기와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는 마장복합문화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가마 6기와 적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기와가마터에서는 '인국因國', '남천관南川官', '남천南川', '전田' 4종의 명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남천관南川官'명 기와는 인근 이천 설봉산성雪峯山城에서 출토된 '남南'명 기와와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설봉산성에서 '명南'명 기와가 출토되었을 때 문헌에 기록된 '남천주南川州' 혹은 '남천정南川停'과 관련되어 해석된 바 있다. 그런데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에서 '남천관南川官'명 기와가 출토되어 이 지역의 지명 혹은 행정체계 관련 문헌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에서 생산된 기

와가 인근 관방유적인 설봉산성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와의 수요와 공급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다만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 출토 기와의 연대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치고 있는 반면 설봉산성은 삼국 통일기를 중심으로 편년되고 있어서 두 유적 간의 시간적 간극을 연결할 수 있는 후속 자료 및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천 목리 기와가마터는 이천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기와가마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인근 설봉산성 출토 기와들과 동일한 구성의 기와가 확인되므로 공급처와 수요처가 확인된 유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조사지역이 주변 능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정확한 가마터의 범위 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천 설봉산성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들이 이 지역에 여전히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8부

조선의 개국으로
경기도!
근본의 땅으로
자리매김하다.

01

광주 백자요지와 분원

경기도 광주 일대는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는 관요官窯가 설치된 지역으로 조선 시대 백자 제작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관요는 사기소沙器所, 분원分院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었으며, 1467년을 전후한 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69년에 완성된 『경국대전』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 사용원조에 는 사용원에 속한 장인의 수가 380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관요가 설치되면서 부터 사용원에서 왕실용 백자 제작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원分院이라는 명칭은 광주에 설치된 관요가 사용원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16세기부터 여러 기록에 등장한다. 현재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를 제작한 가마터는 실촌면, 초월면, 중부면, 퇴촌면, 도척면, 남종면 등에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 광주에서 좋은 품질의 백자가 15세기 초 경부터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여러 문헌기록에서 확인된다. 세종이 1425년에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 장본獐本 10개를 정세하게 제작하여 올리라고 명하는 기록이 대표적인 예이다. 1424년에서 1432년 사이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광주목廣州牧에 자기소가 벌을천伐乙川, 소산所山, 석굴리石掘里, 고현羔峴 네 곳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벌을천은 중부면 번천리, 소산은 퇴촌면 우산리로 추정되고 있다. 지리지에 벌을천 자기소는

상품^{上品}으로, 소산과 석굴리 자기소는 하품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번천리 일대에 1425년 경에 명나라에 바칠 백자를 제작한 가마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성현^{成僉}(1439~1504)이 쓴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도 경상도 고령에서 만든 백자보다 광주에서 만든 백자가 더 정교하고 좋다는 내용이 전한다.



분원리 백자 요지 (문화재청)

광주 일대에서 발굴 조사된 가마터와 출토 유물의 양상과 명문 내용을 살펴보면, 가마의 시기별 이동 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5세기 전반에 운영된 가마는 퇴촌면 우산리와

중부면 번천리에 집중되어 있다. 우산리 1호, 2호, 4호, 17호 가마터가 발굴 조사되었는데, 백자, 상감백자, 청자 등이 확인되며, 내용^{內用}, 내^內, 용^用, 왕^王, 중^中, 전^殿, 사^司, 귀^貴, 인^仁 등의 명문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15세기 전반에 운영된 번천리 1호 가마터에서는 백자와 상감분청사기편이 함께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중반 경에 운영된 가마터도 퇴촌면 우산리, 중부면 번천리, 초월면 무갑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발굴 조사된 가마터는 우산리 9호요지^(1482 또는 1542), 번천리 9호요지^(1552~1558), 도마리 1호요지⁽¹⁵⁰⁵

전후), 관음리 10호요지^(1560경) 등이 있다. 이들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지는 이전 시기에 비해 백색도가 높아지고 수직굽이 등장하고 태질이 치밀해지는 등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시기이다. 이들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의 굽 안 바닥에는 천^天·지^地·현^玄·황^黃 등의 명문이 유면^{釉面} 위에 음각되는 특징이 있다.

16세기 후반에 운영된 가마터는 관음리, 곤지암, 대쌍령리, 무갑리, 정지리 등에 분포하며, 관음리 10호 요지, 곤지암 1호 요지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천·지·현·황의 명문이 사라지고 좌^左·우^右·별^別 등의 명문이 새롭게 확인되는 변화가 보인다.

발굴조사되어 운영 시기가 파악된 17세기 가마터는 탄벌동 요지^(1606~1612), 학동리 요지^(1613~1617), 상림리 요지^(1618~1625, 1628~1636), 용인 왕산리 요지^(1626~1627), 선동리 요지^(1640~1648), 송정동 요지^(1649~1654), 유사리 요지^(1655~1664), 신대리 요지^(1665~1676) 등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백자에는 굽 안 바닥에 ‘간지^{干支}+좌^左·우^右’, 혹은 ‘간지+좌·우+숫자’가 새겨지는 특징으로 운영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백자의 백색도가 떨어져서 대부분 회백색을 띠지만 철화백자의 제작이 현저히 증가하여 철화백자의 절정기를 맞는다. 갑발의 사용예가 많지 않고, 굽 형태는 낮은 역삼각형이 주류이며, 모래를 받쳐 굽고 있다.

17세기말에서 18세기 전반에는 지월리 요지^(1677~?), 오향리 요지^(1717~1720), 금사리 요지^(1721~1751)가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는 백자의 백색도가 좋아지고 청화 안료의 사용이 다시 증가하는 등 품질이 개선되었다. 금사리요지에서 호나 병의 몸체를 깎아서 팔각면을 만든 형태가 새롭게 보이고, 문양에서

도 청화 안료를 사용하여 대나무, 난초, 국화 등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관요는 1752년에 땔감의 조달을 위해 수운이 편리한 현재 남종면 분원리 分院里에 고정되었으며, 분원리라는 마을 이름은 이때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분원리 백자요지는 1752년부터 1884년까지 약 130년 간 사옹원 관할의 분원으로 운영되었으며, 1884년 이후에는 분원이 민영화된 상태로 20세기 초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발굴된 분원리 백자요지는 분원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커다란 구릉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조사 결과, 상태가 양호한 4기의 가마 유구, 2기의 공방지, 백토 저장공, 폐기물 퇴적장 일부가 확인되었다. 출토 기종은 매우 다양하며, 분원汾院, 운현雲峴 등의 명문이나 길상문자, 초화문, 사군자문, 운룡, 나비, 국화문 등이 나타나 19세기의 특징을 보인다.

경기도 광주에 조선관요가 있었던 것은 도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수운으로 생산품을 쉽게 나를 수 있는 최대의 수요처가 바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또 도화서圖書署의 화공이 한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광주산맥에 자리하고 있어 땔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이유 중의 하나였다. 어쨌든 광주의 관요는 왕실용 도자기를 위하여 운영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바로 경기도의 정체성이 있다. 즉, 왕실문화와의 관계성이 경기문화의 특징 중 하나였다.

02

포천 길명리의 조선시대 흑유자기 가마터



길명리 흑유자 가마 전경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광주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자기 가마가 조사된 바 있다. 조선 후기 가마터에 대한 조사도 지금까지 백자 가마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포천 길명리 흑유자 가마 조사는 흑유자 단독가마로서 가마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동시기 백자 가마와 비교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전공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발굴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발굴된 흑유자 가마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미진하였던 흑유자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



길명리 가마터 출토 흑유자

키고 또 그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었다.

포천 길명리 흑유자 가마는 아궁이와 연소실 일부가 훼손되어 그 전체 규모를 알 수는 없었으나 5칸의 번조실과 굴뚝부가 양호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현존길이가 16.5m, 너비는 1.6~2.4m에 달하고 연도부 방향으로 갈수록 넓어지며 불창기둥은 8~11개, 단을 만들지 않고 벽을 세워 가마 칸을 구분한 구조이다. 즉, 불창기둥 위에서 천장까지는 ‘품품’자 형태로 점토덩어리를 쌓아서 벽을 막는 격벽이 있는 칸 가마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길이가 긴 가마는 크게 분실요(分室窯)와 연실요(連室窯)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길명리 가마는 분실요에 해당된다. 이처럼 길명리 요지가 분실요인 사실은 편년을 19세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는 출토유물의 형식과 제자기법으로도 입증되었다.

가마 유구와 함께 가마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속 유구들도 조사되었다. 폐기장을 비롯하여 주거지, 수비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 수

혈들, 노지, 소성유구, 자기 건조장으로 보이는 구들 유구 등이 그것이다.

출토유물은 그 출토 위치와 층위에 상관없이 기형이 같고 품질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흑유자가 단연 높은 비중으로 출토되었고 그 외 백자, 도기, 요도구 등도 나타난다. 흑유자는 길명리 가마의 주 생산품으로 기종은 발, 종자, 편구발, 병, 항 등 일상 생활용기가 주류이다. 백자도 일부 생산되었는데 발, 대접, 종자, 잔, 접시 등 반상기가 주류이고 항아리, 합, 뚜껑, 제기류도 일부 보인다. 길명리 자기는 대체적으로 성형 후 기면을 다듬어 기벽을 얇게 제작하여 무게가 가벼우며 기술적으로도 세련된 제작기법을 나타낸다. 초벌 구이를 거쳤으며, 번조시에도 포개 굽지 않아 정성들여 제작한 정황이 파악된다. 이런 점은 조선후기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운영된 일반 가마의 생산품과는 비교되는 특징으로 본 가마가 다른 일반 가마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자기를 생산하였음을 보여준다.

포천 길명리 가마 조사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의의는 가마터 출토 흑유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조사단은 출토유물에 대한 가시적 특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물리적 특성 분석 및 화학적 조성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런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가마터 주변에서 채취한 흙을 원료로 삼아 재현실험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런 분석과 재현실험은 도자사 연구에 좋은 선례가 되었고, 이후 유사한 분석과 실험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편, 포천지역은 조선초의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각종 지리서에 토산품으로 자기(사기, 도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다. 실제로 길명리 가마터 주변지역에는 기존의 조사에서 몇 군데의 요지가 보고된 바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조사단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유적 반경 10km범위 내외에서 기조사된 가마터와 지명유래를 바탕으로 간략한 지표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초에서 근대에 이르는 가마터 13개소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중에는 새롭게 발견한 유적만도 7개소나 되었다. 이 역시 길명리 가마 발굴이 지닌 학술적 의미이기도 하다.

길명리 가마를 운영했던 도공은 광주 분원리 소속의 공장^{工匠}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도자기를 빚은 솜씨가 명장의 면모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인정된다면 분원 소속의 장인들이 낙향(또는 은퇴) 후 자신의 공방을 운영했던 사례 중 하나가 이 길명리 가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며, 그들에 의하여 고급 자기기술이 향촌에 전파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03

문산 당동리 출토 중국 청화백자



당동리 8지점 2호묘 전경



당동리 2토묘 출토 유물

문산 당동리 유적은 문산천이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두물머리의 위로 저평한 구릉사면 문산천을 바라보는 문산고등학교 뒤편의 구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고토양층과 신석기시대 주거지·수혈 야외노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 원삼국시대 주거지·밭·구상유구,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주거지·토광묘·탄요 등 22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8지점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 4기, 조선시대 토광묘 10기, 탄요 3기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 중앙 서측의 해발 35m지점에 위치하는 2호 토광묘는 묘광의 동장벽과 서장벽 북측에 편방을 두었다. 동장벽 편방에서 백자접시 3점, 백자완 1점, 중국 명대^{明代} 청화백자 대접, 도기 장군, 청동합, 청동발, 청동손가락·젓가락이, 서장벽 편방에서 도기 장군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 중에 중국 명대 청화백자 대접은 편년 추정이 가능한 자료로서 일괄 출토된 다른 유물의 연대 추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토광묘의 조성시기까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청화백자는 몸체가 둥글면서 구연으로 가면서 점차 밖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구연외반식^{口緣外反式} 대접의 형태이다. 문양은 몸체의 안쪽 바닥과 바깥면에 산화코발트 안료를 이용하여 동자들이 공놀이를 하는 등 여러 놀이를 즐기는 영희문^{嬰戲紋}이 묘사되어 있다. 중국에서 남자아이 형상은 다산을 상징하고 함께 등장하여 놀이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소재는 출세, 장수, 부귀 등 길상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서 영희문은 도자·회화·자수 등 다양한 분야에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도자에서는 송대 정요 백자나 경덕진 청백자의 문양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명대에는 청화백자의 문양 소재로 등장하였다. 명 황실용 자기의 제작지인 경덕진 주산^{珠山}의 발굴 결과, ^{成化年間} 충위에서 영희문이 시문된 구연외반식 청화백자 대접이 출토되어서 대체로 성화연간⁽¹⁴⁶⁵⁻¹⁴⁸⁷⁾과 홍치연간⁽¹⁴⁸⁸⁻¹⁵⁰⁵⁾에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동리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화백자는 문양 형태가 모호하면서 간략화되었고 필치가 거칠게 표현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운영된 명

대 경덕진 민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15세기 전반 경에 조선에 유입된 명대 자기는 황제가 하사하거나 명 사신이 조선 왕실에 바치는 물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성종연간(1469-1494)에서 중종연간(1506-1544)에는 왕실이 아닌 사대부, 호부^{豪富}, 대신, 척리^{戚里} 등의 일반 사가^{私家}에서 집집마다 중국산 화기^{畫器}, 청화기^{靑畫器}, 청화자기^{靑畫磁器}를 사용한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산 청화백자의 사용이 만연해지자 사치풍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명대 청화백자와 함께 출토된 백자접시와 완은 모두 백색도가 떨어지고 유면에 잡물이 많고, 대마디 형태의 죽절^{竹節} 굽이면서 굽 안바닥에 시유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서 공반 출토된 백자들은 지방 백자 가마에서 제작된 품질이 떨어지는 조질^{粗質} 백자 계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번조반침도 태토 빚음을 사용하였고 포개구이를 한 점도 이러한 특징을 뒷받침한다. 동반 출토된 백자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에 제작된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헌기록의 내용처럼 당시 중국산 청화백자의 사용자층이 지방 백자를 사용하는 계층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동리 토광묘 출토 청화백자의 유입 시기는 15세기 4/4분기부터 16세기 1/4분기 안에서도 15세기 말 경에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일반 사가에서 중국산 청화백자의 사용이 만연하다는 문헌기록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04

남양주 평내 기와가마터와 가마 구조



남양주 평내 기와가마터 전경

기와는 삼국시대 이래 왕실이나 주요 관청, 사찰 등지에서 사용한 지배계층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따라서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는 유적지는 적어도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관영건물이거나 재력을 갖춘 양반가의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와를 생산하였던 조선시대의 기와공장터가 남양주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되었다. 이 기와공장터는 수운과 육운을 통하여 도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상의 요지에 위치한 점으로 미루어 그 수요처가 한양일 가능성이 있다. 또 조선왕조에서는 와서瓦署나 별와요別瓦窯 등을 설치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기와를 공급·관리하는 체제가 중심이었기에 유력 왕실 세력과의 관계 아래에서 운영되었으리라 짐작되기도 한다.

남양주 평내동과 호평동에서 확인된 기와가마는 총 8기이다.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추정된 절대연대값으로 조선 전기 이후로 편년되는 것이 6기, 조선 후기로 판단되는 것이 2기이다. 그런데 평내 지역의 경우 현대에 들어와서 조사 대상 지역의 상단부 지역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지형을 감안한다면 최소 3~4기의 가마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가마터의 규모는 더 컸으리라 짐작된다.

2001년 발굴조사된 남양주 평내·호평 기와가마는 처음으로 대규모 발굴된 조선시대 기와가마이기에 당시 기와가마의 구조와 특징을 밝힐 수 있는 고고학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기존의 기와가마와는 구별되는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마의 입지 및 구조가 대부분 반지하식의 오름가마로 소성실의 경사도가 10도 내외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가마의 일반적 특징으로 지하식, 세장방형의 대형화된 소성실, 20~30도의 높은 경사도 등을 들었는데, 이런 정설을 재고하게 하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둘째, 가마의 조성은 점토를 주재료로 하였으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폐와나 천석, 할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선시대 가마의 구조와 구축방법을 밝히는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다.

셋째, 연소실 및 소성실의 구조가 대량생산 및 양질의 기와를 생산해 내기 위해 점차 보강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소실의 평면형태가 아궁이 쪽이 좁고 소성실 쪽이 약간 넓어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궁이의 단면형태가 외고내저형인 공통적 구조형태와 어울려 적당량의 땀감으로 최상의 화력을 유지하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기술적 고려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연소실의 평면구조 변경과 단벽 높이의 적당한 높이조절은, 적절한 화력

유지와 대량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판단된다.

한편, 조사지역에서는 가마와 함께 공방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속시설들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기와편은 대부분 가마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동일하고, 공반유물도 분청사기편이 많아 시기적으로 가마 운용시기와 비슷한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 또한 조선 후기 가마 주변으로도 흙물구덩이 수혈유구와 기와 건조 수혈유구, 탄재구덩이 등이 조사되어 다양한 제작 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마에서 출토된 기와는 수천 점에 이르며 이 중 통계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745점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 전, 후기 기와의 유물적 속성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 당시로는 기와가마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경기도는 조선시대 최고의 소비지인 한양 도성을 둘러싸고 있다. 그런 까닭에 수공업 제품의 주요 공급처였다. 특히 기와와 도자기는 광주산맥이 지나가는 경기도의 동부지역이 최대의 생산기지였다. 이 중에서 기와의 경우 경기도에는 고관대작의 고대광실이 집중되어 있고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왕릉의 원찰이 끊임없이 지어졌기에 그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에 경기도는 조선시대 기와생산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기와가마터가 상대적으로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고고학의 주된 연구주제 중 하나가 기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런 의미에서 본 유적이 지니는 역사고고학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05

오산 세교지구 숯가마와 숯의 생산 유통



세교지구 9지점 숯가마



세교지구 16지점 숯가마

숯(목탄)木炭은 나무를 숯가마에서 연소 또는 불완전 연소시켜 탄소화炭素化 한 덩어리를 말한다. 이러한 숯은 단순히 나무를 연소시킬 때보다 훨씬 높은 고온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연소시간과 강도조절이 쉽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숯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체 에너지원으로 개발 활용되기 시작하여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효율 높은 연료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인류생활과 궤를 같이하여 온 숯의 사용은 석탄, 석유의 활용과 가스,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에 따라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고기집이나 집안의 제습제 정도로만, 즉 생활의 특정한 부분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양도 급격하게 감소되

었다. 이전까지 숯의 용도는 난방, 취사, 제철과 제련과정의 필수불가결한 연료였다. 이외에도 건축물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한 판축작업의 재료, 장담그기에 있어서는 불순물 여과재, 신생아의 출생을 알리는 금줄, 분묘의 매장 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였다.

조선시대 숯가마에 대한 연구는 이전시기인 고대 숯가마에 대한 연구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다만 조선시대 편찬사료 기록에서 숯에 대한 기록들이 여럿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주로 목탄의 생산, 관리와 지급, 사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목탄의 생산은 1년 내 아무 때나 가능하나 농업 중심 사회이므로, 주로 추수 이후부터 농사 시작 전인 ‘농한기’에 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숯 생산에 필요한 원목의 보급과 운송이 용이한 지역에서 생산하였다.

두 번째로 숯의 관리와 지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목탄은 당시 중요한 열에너지 자원으로 국가(호조)에서 관할하였으며 목탄이 필요한 관청의 요청에 따라 분배 지급 하였다. 또한 호조 이외에도 목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청인 선공감(繕工監)을 두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목탄을 거두어들였다. 이외에도 목탄을 소비하는 관청에서 목탄을 직접 거두어 들였으며 소비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세 번째로 목탄의 사용은 주로 ①제철 및 제련 ②조세물품 ③의례용 ④기타용(장례 및 난방)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오산 세교지구 유적에서 확인된 숯가마는 어떤 용도일까?

오산 세교지구 유적에서 숯가마는 모두 3기가 확인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고 군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구릉 사면부에 조선시대 수혈

주거지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세교지구의 조선 시대 숯가마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 납품하기 위한 것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지역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거나 향촌사회를 수요처로 삼아 운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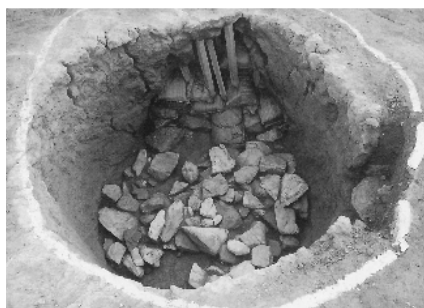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용 숯이 대량으로 생산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일본식 가옥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 다다미방이 늘어나면서 화로가 애용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숯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이에 고고유적에서 발굴되는 숯가마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도 적지 않을 듯하다. 앞으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숯가마에 대한 편년 설정과 유통을 해석했으면 한다.

06

파주 당하리 유적의 조선시대 석회가마와 교하현



당하리 석회가마 전경



당하리 석회가마 소성실 전경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삼국시대부터 석회를 사용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건축물을 만들때 결합제나 회곽묘의 축조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처럼 석회가 여러 방면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그것을 만들어 낸 가마, 즉 석회가마는 파주 당하리에서 발굴되기 전까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당하리 유적에서 석회가마가 발굴됨으로써 조선시대 석회가마의 기본적인 구조가 밝혀졌다.

석회는 분묘 조성과 회벽의 축조, 체질안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어져 왔다. 석회는 석회석을 태워서 만든다. 석회석을 태우면 생석회生石灰(CaO)가 되며, 여기에다 물을 넣으면 소석회消石灰가 되는데 이것을 석회라 말한다. 소석회는 점결성이 좋아 중요한 건축 재료로 쓰이며, 공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여 단단하면서 녹지 않는 탄산칼슘(CaCO_3)으로 변한다.

인류가 석회·석고를 결합제로 사용하여 만든 구조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이다. 이때 쓰인 결합제는 석회석을 구워서 만든 생석회와 석고를 구워서 만든 소석고로서 기경성(氣硬性) 시멘트였다.

우리나라에서 석회의 사용은 고구려 고분에서 벽면에 회칠을 하여 벽화를 그리는 화장지법(粧地法)의 사용과 『삼국사기(三國史記)』 옥사(屋舍)조의 기록 등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석회 생산 과정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석회는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료인 석회석의 채취에서부터 고온으로 생석회를 구워내고 사용하기까지에는 당시로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통제 대상으로서의 석회는 그 효용성으로 인해 시대 변화와 함께 차츰 용도와 사용 계층이 확대되어 갔다.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석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천공개물(天工開物)』 등에서 보이는 석회 소성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와 함께 석회의 용도에 대한 내용이다. 능묘의 조성과 관련된 것과 성곽 축조 및 보수, 석회를 이용한 함정인 ‘회정(灰阱)’ 등의 실용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석회 생산 및 산지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었다. 태조대부터 정부(丁夫)를 징발하여 강화도에서 석회를 굽

게 한 기록과 교하현에서도 석회를 구워 만든 기록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문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나온다. “전 현령 김승비가 석회를 만드는데 드는 폐단을 상서하기를 “옛날에는 석회石灰를 구워 만드는 데는 돌이 좋고 나무가 무성한 곳을 골랐기 때문에 들어가는 힘은 적으나 이루어지는 공효功效는 많았습니다. 요즈음에는 나무가 부족하고 그 돌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교하交河에서 백성들을 독촉하여 그 시목柴木을 운수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봄철 농사일이 바쁜 때에 파리하고 피곤한 소가 쉽게 밭을 갈지 못합니다. 그 가격으로 말한다면 1바리(태)駄의 가격이 쌀 2, 30두斗에 이르니, 부자는 좋지만 가난한 사람은 불쌍합니다. 신臣의 어리석은 생각으로서는 도읍都邑을 옮긴 이래로 석회를 구워 만들 곳이 양주楊州와 강화江華의 두 고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양兩 읍邑에서 구워 만들 때에 관官에서 일을 폐하는 탄식이 없었고 백성들이 나무를 운수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신臣은 다시 그 옛 곳으로 환원하기를 원합니다.”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능실陵室을 보수補修한다면 모름지기 품질이 좋은 석회石灰를 써야 합니다. 만약 보통 때 나라에서 쓰는 것이라면 양주·강화의 석회를 도로 쓰도록 하소서.”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이런 문헌기록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파주 당하리 유적과 함께 인접한 와동리·목동동 등 운정지구 발굴조사에서도 석회가마가 조사된 바 있어 주목된다.

이런 석회가마 중에서 처음 조사된 곳이 파주 당하리 유적이다. 이 석회가마는 풍화암반을 파고 등고선에 직교하여 조성되었다. 일부 유실되었으나 회구부,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부가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었다.

회구부는 가마의 장축방향과 직교하며, 바닥에 목탄이 얇게 남아있다. 아

굴이에는 무른 상태의 편평한 석회석 덩어리가 겹쳐진 채로 확인되었다. 내부
는 소토덩어리와 점토 등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소결흔과 함께 목탄
이 깔려 있었다.

연소실은 터널식으로 소성실과 연결되었으며, 연소실의 평면형태는 소성
실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며, 대체로 편평하다. 소성실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높
이 36cm, 경사도 28° 가량의 불턱이 남아있다. 소성실은 타원형의 평면형태로,
내부에는 자기·도기·기와 등의 유물과 굴 껍데기, 말 턱뼈 및 이빨, 할석과
석회석 등이 무질서하게 퇴적되어 있었다. 이런 바닥의 경사도는 9°이다. 연도
부는 소성실 서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회구부와 거의 평행하게 조성하였다. 소
성실과 연도부의 경계에는 비교적 큰 편평한 할석과 주먹 크기의 할석이 함께
확인되어 연도 폐쇄용으로 추정된다.

이 석회가마의 축조시기는 고고지자기분석 결과, A.D. 1415±35, A.D.
1730±70의 절대연대가 확인되었다. 가마 내부에서 출토된 백자로 보아 대체
로 조선 전기로 추정할 수 있으나 조사지역 내에 자리했던 영조~순조대 4명의
내시부 상선 묘역(이경화李景和·정상우鄭商佑·김윤겸金允謙·이단의李團宜)과의 관련
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석회가마는 지역적으로 당하리를 비롯한 파주 일대 이외에도 오산·안
양·평택·화성 등의 경기 남부지역과 아산·진천·보은·청양·대전·괴
산·서산 등 충청지역에서만 주로 분포하였으나 최근 들어 강원도 영월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 또한 11기가 군집을 이루는 충북 보은 적암리 유적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독 분포하거나 대체로 2~3기의 소규모 생산유적 특징을 보인다.

최근 들어 발굴조사를 통해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석회가마

의 조사 성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사된 석회가마 유적의 보고서를 통해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개별유구 자체의 구조적 특징과 이를 통해 문헌기록 및 현대적 공정의 석회생산방식 등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조사된 유적이 많지 않고 조사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가마 자체의 구조적 특성 등 많은 방면에서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본 유적은 조선시대 석회가마가 장기적·대대적으로 운영된 곳으로 기록된 교하현에서 발견된 점, 일찍부터 석회 산지로 유명한 교하면 장명산 자락에 위치한 점에서 다른 석회가마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 석회가마와 인접하여 ‘조선시대 사대부 묘 야외박물관’이라 일컫는 대규모 파평윤씨 선영이 있어서, 그들의 무덤 조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낳게 한다.

07

남한산성 인화관지와 조선시대 객사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복원한 인화관

남한산성은 672년(문무왕 12) 신라가 당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한산주에 쌓은 주장성(畫長城)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남한산성에 대한 수축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이괄의 난과 청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624년(인조 2)에 들어서 남한산성의 수축과 행궁 건립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626년(인조 4)에 공역이 완성되자 광주부의 읍치를 남한산성으로 옮겨 산성의 방어체계를 강화하였고, 1683년(숙종 9)에는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행정과 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곽 방어를 위한 다양한 모민정책(募民政策)을 시행하여 숙종대에는 성내 인구가 4천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산성도시로 발전하였다.



인화관지 전경



인화관 서익헌지 온돌

남한산성 행궁은 조선시대 행궁으로는 비교적 초창기에 건립된 것으로, 평시에는 유수^{留守}의 집무처로 사용되다가 왕의 행차시에는 거처용으로 사용하고, 전시 등 유사시에는 도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왕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조대에 처음 조성된 남한산성 행궁은 순조대까지 지속적으로 건물이 조성되는데, 후대로 갈수록 행궁 본래의 기능보다 행궁의 준공과 더불어 옮겨진 광주부 치소로서 행정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

인화관지^{人和館址}는 광주부의 객사^{客舍}로 행궁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따르면 1624년(인조 2)에 목사 유림이 건립하고 목사 이태연이 ‘인화^{人和}’라는 편액을 걸었으며, 1829년(순조 9)에 유수 이지연이 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화관의 규모와 관련하여 『여지도서』(1760년 추정)에는 36칸, 『광주부읍지』(1842년경, 규10740)·『광주부읍지』(1871년경, 규12180)·『광주부읍지』(1899년, 고915.12-G994b)에는 68칸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선고적도보』에는 1909년에 촬영된 사진이 남아있는데, 이 사진 속에서 인화관

은 정전과 양익헌이 담장에 둘러싸인 채 남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인화관은 훼손되었고, 그 자리에 식당이 축조되면서 상당 부분 파괴되었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초석 및 기단 등을 비롯한 기초부와 유물이 발굴됨에 따라 복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인화관지는 전후면 기단과 서쪽 측면 기단이 남아있어 위치가 명확하게 밝혀졌고, 서쪽 담장지와 중문이 위치했던 남쪽 담장지가 확인됨에 따라 객사 영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인화관지는 한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4칸의 건물 3동(정전과 동·서익헌)으로 구성된 총 36칸의 객사건물로, 초석열과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을 근거로 할 때 정전 부분은 맞배지붕으로 하여 한 단 높게 구성하고, 양익헌은 정전에 맞대어지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팔작지붕으로 구성되는 솟을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익헌지는 정면 3칸, 측면 4칸 건물로 좌협칸(8자)~어칸(7자)~우협칸(6자) 순으로 1자씩 정면 주칸거리를 짧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칸거리가 가장 넓은 좌협칸에는 온돌방 2칸을 들이고 나머지는 마루를 깔 것으로 추정된다. 서익헌지의 구들은 후면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전면 축대쪽에 'Y'자형 연도부가 하향하도록 설치한 특이한 구법을 보여주고 있다. 곧, 후면 퇴칸부에는 아궁이가, 중앙 2칸 실에는 4줄 고래와 개자리가, 전면 퇴칸부에서 축대면까지는 연도부가 남아있다. 이처럼 연도부의 구배를 점차 낮게 설치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과 땀감의 종류에 따른 차이라는 의견이 있다.

축대와 기단은 대체로 풍화암반층을 기반층으로 하여 굴착한 후 성토하여 조성하였으며, 기단석이 놓이는 부분은 약 35~50cm 너비로 다시 굴토한 후

기단석을 놓고 작은 할석과 와편으로 뒤채움 해주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화관은 북고남저의 자연지형에 순응하며 대지를 조성함에 따라 전면부에만 축대를 축조하여 기초부를 조성하고 후면부에는 기단을 놓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화관지 출토 자기

인화관지 출토 자기는 대부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제작된 백자와 청화백자로 인근 광주 분원리에서 출토된 것들과 일치한다. 또한 막새 및 평기와는 남한산성 행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적의 성격 및 조성시기면에서 남한산성 행궁과 궐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08

남한산성 연무관지와 상량문



연무관 전경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연무관(演武館(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호))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왕이 직접 연무관에 거둥하여 군사훈련을 보거나 문무관의 시험을 보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고적도보』의 옛 사진을 보면 앞으로 넓은 연병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무관지 전경



연무관 상량문

현재는 연무관 한 동의 전각만 남아있으나, 18-19세기 고지도와 읍지 등을 통해 볼 때 수어영 당시 일백 칸의 큰 규모를 이루고 있었으며,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연무당(鍊武堂)’이라 부르던 것을 숙종조(1674~1720 재위)에 수어사 김좌명이 개수할 때 ‘연병관(鍊兵館)’이란 현판을 하사하였고, 1779(정조 기해년)에는 ‘수어영(守禦營)’이라 개칭하였으며, 이후에는 ‘연무관(演武館)(1813년 중수상량문에 보임)’이라 부르고 있다.

연무관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2고주5량(二高柱五梁) 구조이다. 초익공(初翼工) 형식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양측면과 배면 퇴칸에 판벽이 설치되어 있다. 2008~2009년 광주시에서 해체보수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연무관 해체 후 창건기와 관련된 유구 확인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무관의 조영과정에 관한 학술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남한산성 중앙의 북쪽 산기슭 아래에 위치한 연무관은 풍화암반토를 기반토로 하여 자연지형을 따라 초석 및 기단의 높이를 조절해 가며 조성하였으며, 하부에 퇴적층(고려시대 문화층)이 있는 범위에 한해 일부 성토한 후 축조하였음

이 밝혀졌다. 또한 연무관 하부에서는 5차례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었다. 고려 시대 유구 및 문화층^(1차)과 조선 후기 창건된 연무관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대 건물지^(2차), 연무관지 중창 및 중수와 관련된 유구^(3~5차)가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정면 3칸 규모의 선대 건물지^(2차)는 초창기 연무관과 관련된 유구로 추정되며, 그 위에 현재 연무관^(3차: 정면 5칸, 측면 4칸)이 중창되었다. 이후 후면 퇴칸거리가 좁게 초석이 재배열^(4차)되었으며, 구조적 보강을 위해 후면 어칸부 초석이 추가 배열^(5차)된 이래 기단석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들 유구의 중창 및 중수시기와 관련하여 해체보수공사 중 발견된 1건의 상량문과 2건의 중수기를 참고할 만하다. 이밖에 지난 연무관지 해체보수공사 중 1건의 상량문과 2건의 중수기가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해체한 종도리에 서는 1702년(숙종 28)에 입주상량^{立柱上樑}한 기록이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서는 1763년(영조 39)의 중수와 관련된 상량문으로 공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으며, 나머지 하나에는 1813년(순조 13)에 중수 당시 참여했던 인물들의 명단만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대개 60년 간격으로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기와편들이 대부분이고 자기는 소량만 출토되어 시대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조선 후기의 유물들로 볼 수 있어 연무관지 조성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09

남한산성 한홍사지



남한산성 한홍사지 원경(중앙부가 불사공간, 10시 방향의 건물터가 군영공간이다)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는 연 330여 만 명의 탐방객들이 다녀간다. 그들 대부분은 남한산성을 축성하고 지키는 데에 승병의 공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잘 모른다. 그간 몇몇 사료를 통해 당시 운영되었던 남한산성 내 승영사찰의 이름과 위치, 승군수와 무기수에 관한 기록이 전해질 뿐이었는데, 한홍사지의 발굴

로 조선시대 남한산성 승영사찰의 전모가 드러났다.

승영사찰이란 승군이 머무는 사찰로 불사공간(佛事空間)과 군영공간(軍營空間)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승영사찰의 건립 목적은 산성 등 주요 방어거점이 되는 위치에 승려들이 머물면서 방어의 수축과 수비를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산세가 높고 가팔라서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므로 승려들을 모집하여 들여보내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선시대 군역의 문란으로 군인만으로는 군사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남한산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진왜란 때 해전에 참여하였던 각성(覺性, 1575~1660)은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을 때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으로 임명되어 팔도의 승군을 모집하여 3년 만에 성을 완성시켰다. 이때 성 안에는 수비가 필요한 요해처(要害處) 부근에 7개의 승영사찰을 조성하여 부역에 동원된 승군들에게 음식과 머물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축성이 끝난 후에도 산성의 수축과 유지 보수, 군기 및 화약의 보관, 군사 훈련과 무기 제조 등의 임무를 승군이 분담케 했다. 당시 승려들이 성곽 축조나 국가 공사에 동원된 데에는 지방에 유능한 기술을 갖춘 민간 장인이 많지 않은 반면 승려들은 오랫동안 연마하고 숙련된 장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청에서는 민간 장인과 승군의 작업능력을 비교하여 “민정이 3일 걸려 일할 것을 승군은 하루도 걸리지 않는데 승려들이 부역할 때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남한산성 내에는 7개의 사찰에 대략 400여 명의 승군이 배치되었다.

산성 내 승영사찰은 대개 성문과 암문, 그리고 웅성 바로 곁에 두어, 주요 시설물의 축조와 산성 수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12년에 남한산성의 한홍사지를 발굴했다. 한홍사



한흥사지 출토 무기

지는 남웅성 가까이에 건립된 유적으로, 17세기에 창건되어 20세기초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람의 구조는 “중심축선상에 불전과 누각을 두고 좌우에 승방이 둘러싸는 산지중정형 가람”과 “군기고지, 창고지, 군포지를 중심으로 한 군영공간”이 결합된 독특한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절터임에도 철촉, 도자, 창, 탄환 등의 무기류가 출토되어, 역사 속 기록으로만 어렵פות이 전해오던 호국사찰의 일면이 드러났다.

흔히들 문화유산은 역사교육의 장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승영사찰 한흥사지의 발굴은 ‘호국불교’의 일면을 제대로 보여준 귀중한 고고건축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복원이 이루어져 호국불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전파하는 ‘역사교육의 도량’이 되었으면 한다.

10

남한산성 남옹성과 추정 노대^{弩臺}



남한산성 남옹성의 위치

남한산성 본성의 남쪽에 설치된 세 개의 남옹성은 청나라 홍이포의 화포공격을 겪고 난 후 이에 대비하여 병자호란 직후 축조되었다. 경사도가 급격하여 천혜의 요새를 갖춘 북쪽에 비하면 남쪽은 완만한 지형으로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은 남한산성이 내려다보이는 성 밖의 동쪽에 있는 별봉과 한봉, 남쪽에 있는 검단산 꼭대기에 포대를 구축해서 홍이포를 성 안으로 쏘아 공격하였다. 홍이포는 네덜란드에서 청나라를 거쳐 유래된 대포로 최대사정거리가 2~5km이고, 유효사거리가 700m인 전장포다. 한봉에서 쏜 포탄이 원성의 동벽을 무너뜨리고, 검단산에서 쏜 포탄은 행궁 근처까지 도달하였다고 한다. 남웅성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의해 점거된 검단산 정상과 마주한 곳이다.

1638년(인조 16)에는 병자호란 당시 도망한 패잔병인 케군 1,000명을 우선 징발하여 남한산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진다. 전쟁과정에서 노출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남웅성과 포루 및 제2남웅성의 치가를 수축한 것이다. 당시 개축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금석문인 “남장대웅성무인비(南將臺甕城戊寅碑)”가 발견되었다. 무인비는 제2남웅성의 포루에 출입문의 기능을 한 홍예문의 내부 석재로 쓰인 장대석이며,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웅성(제2남웅성)의 축성을 위한 임시기구인 도청을 설치하였으며, 책임자는 통정대부 수광주부윤 겸방어사인 홍전이며, 별장에는 절충장군 침지중추원사인 최만득, 영장에는 어모장군 행용양위 사과인 송효상, 감역관에는 전부장 김명울, 전사과 경이효, 전부장 김의용을 삼았다. 무인년(인조 16년, 1638) 7월 일에 준공하였다. 목수편수는 양남 등 14명, 석수편수는 강복 등 13명, 야장은 이기탄 등 2명, 니장은 김돌시 등 7명이다.”

이때 무너진 원성의 보수 및 개축과 함께 세 개의 남웅성이 축조되었고 연주봉 웅성을 포함한 4개의 웅성에 포루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웅



제1남웅성 전경



노대(弩臺)로 추정되는 제1남웅성의 방단시설

성이 설치된 곳에는 원성으로의 출입을 위한 암문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지형상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에는 원성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치가 덧붙여졌는데, 세 개의 남웅성은 치를 길게 감싸는 형태로 축조되었다. 본성에 주로 사용된 석재는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인데, 남웅성에 사용된 석재는 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강편마암을 이용하였다. 화강편마암은 결을 따라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때의 초축 포루는 청나라의 힐책으로 다음 해인 1639년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남웅성에 대한 개축은 봉암외성, 한봉외성 등이 축조되는 1700년 전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남웅성의 1, 2, 3 웅성은 모두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중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는 것만을 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남웅성 전경

1웅성의 포루는 평면형태가 각진 사각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둥근 기미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초축 당시 그대로의 포루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동안 그 용도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던 포루 중앙에 높게 쌓아올린 평면사다리 모양의 방단시설은 노포^{弩砲}를 발사하기 위한 노대^{弩臺}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화성의 지휘소 격인 서장대 바로 옆에 노대가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타당성이 인정된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화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조준이 가능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포노^{砲弩}를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치상 남벽과 서벽을 모두 감제할 수 있는 위치인 점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제2남웅성은 세 개의 남웅성 중 맨 가운데 위치하며, 둘레 318m, 길이 134m, 면적 $3,583m^2$ 의 규모인데 홍예의 포루 성문을 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수구와 군포지가 각각 1개소 확인되었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수구는 서쪽 체



제2남웅성의 포루 부분(하단의 반원형 석축은 초축 포루의 평면형태)

성벽에서 확인되었으며, 입수구와 수로, 출수구가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포석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입수구의 덮개돌도 안전한 형태로 잘 남아있다. 군포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포루와 인접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화약고로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초축포루의 포혈에 사용된 대형의 석재가 개축성벽에 남아 있어 초축 당시 포루의 레벨을 추정할 수 있었다.

제3남웅성은 체성부 내에서 계단시설이 확인된 점, 여타 웅성이 본성 내부와 바로 연결되는데 비해 제3남웅성의 출입용 암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점, 포혈은 철^ㅂ자 형태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개축 포루 아래에서 열쇠구멍 형태의 초축 포루 흔적이 발견된 점이 가장 특기할 만하다.

한편 남옹성 모두의 성벽과 그것과 연결되는 치는 본성의 성돌 재질과 축조방식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성곽전문가들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성벽 축조기술이 적용된 것이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남한산성의 옹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한산성의 옹성 중 연주봉옹성은 원성 축성과 함께 축조되었으며, 세 개의 남옹성은 병자호란 이후인 1638년(인조 16)에 화포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된다. 그러나 1년 후 다시 허물게 되는데, 1639년(인조 17)에 청나라 칙사가 남한산성을 수축한 사실을 알아 큰 문제가 되자 조정 대신이 간절히 요청하여 겨우 새로 축성한 포루만 허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새로 수축한 곳만 허물었다는 기록이 『인조실록』(권38, 17年)에 남아있다.

이 기록은 제2, 3남옹성의 발굴조사에서 상부 생활면과 하부 생활면이 각각 확인된 것과 일치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제2, 3남옹성의 현재 남아있는 포루는 1700년 전후에 개축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개축된 포루 아래 남아있는 초축 포루는 1638년 축조되었다가 1639년에 훼손된 포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1남옹성은 청나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훼손시키지 않고 초축 포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남옹성 발굴은 여러 가지 단상斷想을 가지게 한다. 우선 용어 자체이다. 옹성甕城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데 화포 발사를 위한 전용시설에 그 이름을 붙였다. 남한산성의 옹성은 돈대시설이고 이 돈대를 연결하는 용도甬道가 성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옹성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기록에서 전문용어의 오용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산성의 사례만이 아님은 물론이다.

남한산성은 초축 시 화포 공격을 대비해 축조되지 않았고 성위에서 화포를 발사하기 위한 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축성의 총책임자였던 이회李晦는 화포 발사로 생겨나는 연기가 오히려 수성에 방해가 된다면서 포루를 설치하지 않았다. 성벽도 전통병기인 궁노弓弩의 공격에 적합하도록 축조해 성의 높이는 높으나 성벽은 두껍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화포 공격에 취약했고, 임진왜란 당시 왜적 격퇴의 일등공신이었던 화포를 주력 무기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당시 수구적 서인 정권이 국제정세에도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에도 무능했던 사실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무능은 제2남옹성의 무인비戊寅碑에서도 볼 수 있다. 혼쫓이 나고서야 항복 후 부랴부랴 화포공격을 위한 옹성을 남벽 3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바로 철거하게 된다. 이 때 제2, 3 남옹성은 철거되었지만 1옹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어쨌든 청나라의 감시 눈길이 번득이던 시점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성벽을 수축하고 바로 그 사실이 발각되어 허무는 모습에서 당시 조정의 정치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남옹성의 개축은 전술했듯이 1700년 무렵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북한산성의 축조 시점인 1711년(숙종 27) 무렵일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때를 기하여 청나라가 조선에서의 성벽 수축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2남옹성 군포지의 기본구조와 형태가 숙종 27년에 만들어진 북한산성 성랑지의 그것과 거의 흡사한 점으로 단편적이거나 입증된다. 어쨌든 이런 판단이 인정된다면 남옹성 수축 당시의 문화층 즉 제2문화층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조선후기 기와의 편년자료로 적극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요청해 본다.



제2남웅성 무인비

마지막으로 남웅성의 활용과 관련해서이다. 현재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탐방객은 대부분 수어장대와 남한행궁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부분만을 답사한다. 이런 현실에서 남웅성을 적극 활용하여 탐방객을 분산하고, 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특히 제2남웅성은 대략 1,000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 이런 공간을 이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유적은 나라사람들이 애용할 때 참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북한산성의 성벽과 시설물



북한산성 전경

2011년 12월 경기도 · 고양시 · 경기문화재단이 북한산성을 조사 · 연구 · 보존 ·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맺고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을 신설하였다. 다음 해인 2012년부터 북한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되어

2018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단의 노력으로 학술성과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2013년까지 북한산성 성벽의 길이는 12.7km로 알려졌고, 모든 책자와 인터넷 정보에 그렇게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정밀측량을 한 결과, 전체 둘레가 11.6km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성벽이 축조된 구간이 8.63km,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곽을 축조하지 않은 구간이 2.97km라는 정확한 수치도 확보하였다. 아울러 북한산성 내부의 총면적 527만 m^2 중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 면적이 523만 m^2 로 전체의 99.3%를 차지하는 한편, 전체 둘레 11.6km 중에서 고양시 구간이 8km로 전체의 69%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산성이 바로 ‘경기도의 산성’임을 일깨워주었다.

북한산성 성벽에 대한 조사에서는 순찰을 위한 회곽로廻郭路 일부가 발굴되었다. 기본적으로 성벽 위에 넓은 판석을 깔아 기초부를 마련한 다음, 마사토와 진흙을 2-3차례 번갈아 다져 걷기에 편하면서도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 구조였다. 이런 회곽로의 발견은, 북한산성의 탐방로를 원형에 가깝게 친화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지』등 문헌에는 지금의 초소哨所격인 성랑城廊이 143개소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성랑에 대한 성격도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것은 대문이나 암문에 가까운 주요방어시설 주변에 주로 입지하고, 정면 3칸 측면 1칸의 기와건물이며, 정면만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폐쇄 구조라는 사실 등이다.

조사단은 2시간 30분을 등반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나한봉 치성(해발 688m)에 대한 발굴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화포를 쏠 수 있는 포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포루보다는 감제^{瞰制}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혀냈다. 이로써 북한산성 내에 10개소 정도 설치되었던 치성^{雉城}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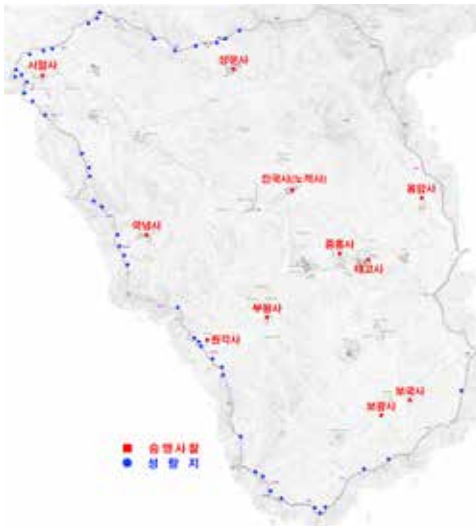
증취봉 아래에 대한 성벽조사에서는 1711년(숙종 37)에 축성된 지금의 북한산성 성벽 아래에서 그 이전에 쌓은 것이 확실한 성벽의 일부를 발견했고, 그것이 고려시대에 쌓은 중흥산성^{中興山城}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그 축조시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려 우왕^{禡王}대가 아니라 고려 전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출토 유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외에도 성 내부의 물을 성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성 기저부에 마련한 수구^{水口}를 발굴했으며, 수문 좌우에 남북으로 돈대^{墩臺}를 설치했던 사실도 문헌을 통하여 확인했다.

이 모든 학술자료는 만 4년만의 고고학적 조사로 거둔 결실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학술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혹자는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놓고 볼 때, 북한산성의 가치는 남한산성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경기문화재단이 2000년대 중반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다. 표면에 드러난 남한산성의 가치만을 두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산성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산성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현재 북한산성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리라 믿는다. 선부른 속단보다는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북한산성 바로알기’를 해 주었으면 한다.

12

북한산성 성랑지와 조선후기의 군초소



북한산성 내 승평사찰과 확인된 성랑지 위치

북한산성(사적 제162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겪은 조선이 양난으로 드러난 방어 체계의 취약성에 대한 정비와 전란에 대비하여 도성의 방어력을 극대화하고자 왕과 도성 주민의 입보 산성으로서 축성되었다.

북한산성에 대한 축성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조정의 재정 사정과 청나라와의 외교 문제 등으로 실제 축성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711년(숙종 37)에 삼군문 소속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과 승군(僧軍) 등이 합심하여 단 6개월 만에 쌓았다.

축성된 북한산성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여러 시설이 조성되었는데, 산성 내 물자의 보급과 병력의 이동 등을 위한 성문과 암문, 적의 접근을 조기



북한산성 성랑 추정도 : 기존 모식도



북한산성 성랑 추정도 :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추정도

에 관측하고 전투 시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인 치성(雉城(또는 곡성)曲城과 군사들이 산성을 지키기 위한 현대의 군 초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성랑 등이 있다.

북한산성의 성랑은 성벽을 따라 총 143개소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랑에 대한 조사는 2013년부터 실시된 북한산성 성벽 및 부속시설 발굴조사에서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규모와 축조방식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성랑은 성벽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으며, 성문과 수구, 곡성 등의 중요 시설물에는 일정한 간격과 상관없이 성랑을 배치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감시와 정보 전달의 용이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양상을 보면 성랑의 위치가 성벽이 바깥으로 돌출되거나 휘어진 곳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각 성랑 간의 사각(死角)을 없애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랑과 성랑 사이의 간격은 약 40~60m 정도로 유사시 이동하거나 육성과 시각적인 정보전달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량의 축조방식을 보면, 북한산은 지세가 험하여 성벽이 축조된 부분이 매우 협소한데 이러한 지형 조건에서 성량을 조성하기 위하여 암벽 봉우리들 사이의 낮은 지세를 가지는 능선부에 성벽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성벽 회곽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성토(또는 삭토)하고, 경사면의 유실을 막고자 3~5단 정도 계단식으로 석축을 들어 쌓아 성량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석축시설은 성벽 방향인 전면으로 단이 낮아지며 연결되다가 출입구로 추정되는 전면 중앙부를 비워 두고 마무리 하였다.

성량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세장한 건물지로, 세 벽면은 토석벽이 올라가며, 정면인 성벽 방향은 고막이돌만 확인되어 석벽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벽 구조에 대해서는 자료가 빈약하여 정확한 구조 파악이 어려워 막연하게 토석 담장과 같은 벽체와 상부를 기와로 덮은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양상으로 볼 때 벽면은 지붕까지 올라가지 않고 일정 높이까지 토석 벽체로 올린 후 지붕까지는 토벽으로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기와로 덮였으며, 정면은 뚫린 구조로 확인되었다. 성량을 손쉽게 지을 수 있는 초막草幕이 아닌 기와와 흙, 돌로 축조한 이유는 유사시 화공火攻 등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북한산성 성량의 기둥들도 벽체에 최대한 감춰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세웠다. 내부에서는 취사나 난방을 위한 시설인 아궁이나 구들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량이 거주 목적보다는 성곽 방어 및 순찰로 상의 거점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성량들이 설치된 성곽인 북한산성, 남한산성 등은 군사들이 상주하지 않고 성곽 내 승영사찰僧營寺刹에 머물던 승군들이 관리와 방어를 담당하여 평상시에는 사찰 경내에 머무른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북한산성 성랑지



남한산성 군포지

성곽 방어와 감제를 위한 초소건물인 성랑과 군포는 남한산성, 수원 화성, 한양도성, 강화산성에서도 확인되는데, 남한산성의 성랑은 군포軍鋪로, 한양도성은 군포와 성랑으로 혼용하여 표기되고 있다. 남한산성 군포는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총 125개소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부 발굴조사로 알려진 7개소의 군포 외에 근래에 이루어진 군포지 지표조사에서 51개소의 군포지가 추가로 확인되고 일부 군포에 대해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한양도성 남산 봉수대지에서 확인된 건물지도 동일한 구조의 성랑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북한산성 내에서 확인된 성랑지는 기록으로 전하는 143개소 중 약 50여 개소가 확인되고, 그 중 14개소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근래에 남한산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군포지 발굴조사의 자료가 모두 정리된다면, 향후 조선시대 후기 성곽의 중요한 방어시설 중 하나인 성랑(또는 군포)의 구조 파악 및 입지의 효율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로 향후 정비사업 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13

북한산성 돈대의 발굴과 그 의미



도수문의 돈대



중성 수문의 돈대와 여장

『비변사등록』 1711년
(숙종 37) 10월 3일의
기록에는 “10월 3일
판부사 이이명李頤命이
입시하여 북한산성의
축조상황에 대해 논
의하면서 ‘북한산성의
성벽을 축조하면서
넷가의 두 바위를 이



도수문 북쪽 돈대

용하여 수문을 만들고, 바위를 이용하여 돈대^{墩臺}를 쌓았으니 산성은 두 돈대에



도수문 북쪽 돈대_3D 스캔

서 시작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문헌에서는 북한산성의 도수문 바로 옆에 돈대를 쌓았다고 했지만, 그 존재와 실체는 2016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이 지상에 드러나 있었음에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2016년 경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된 북한산성 성벽에 대한 2차 발굴조사에서 수문의 좌우에 설치된 돈대가 모두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서암문으로 이어지는 북쪽 돈대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확인되었고, 대서문으로 이어지는 남쪽 돈대는 상당 부분 파괴되어 절개된 상태로 드러났다. 그 구조를 원형이 잘 남아 있는 북쪽 돈대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돈대 상단의 성벽 내탁부는 급경사면으로 인해 층단 석축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내탁부와 연결하여 평면 사다리꼴로 축조하였다. 성벽 내부로 연결되는 층단 사이에 계단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계단과 성벽 내탁부는 층단 사이 통로처럼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단의 성벽에 설치된 여장은 북한산성의 대문에 설치한 여장들과 마찬가지로 통돌을 깎아 만들었는데 중앙에 근총안 1개를 만들었다. 현재는 대부분 유실되고 2개의 여장만이 잔존하고 있다.



도수문 남쪽 돈대

한편,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은 북한산성의 옛 모습을 담은 1900년대 초기 사진을 수집하였다. 이런 사진 중에는 중성 사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에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돈대가 확인되었다. 중성문에도 돈대를 설치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산성의 수문에 돈대를 설치하였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북한산성 돈대의 발굴과 확인은 고고학자에게 문헌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새삼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또 다각적인 자료의 수집과 면밀한 검토도 빠뜨리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시대가 근대로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14

북한산성 행궁지



1902년 북한산성 행궁 전경과 최근 발굴로 드러난 행궁의 내전지 모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왕실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필요했고, 그래서 북한산성을 1711년(숙종 37)에 축조한다. 그리고 피난 시 왕이 머물 수 있는 북한산성 행궁, 일명 북한행궁을 산성이 축성된 다음 해인 1712년에 건립한다. 남한산성과 남한행궁이 있지만 한강의 포구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행궁(行宮)이란 글자 그대로 임금이 행차하여 머무는 임시 궁궐인데, 북한행궁은 임시궁궐보다는 피난용 궁궐로 만들어졌다. 이는 왕실을 상징하는 종묘와 사직을 갖추지 않은 점으로 알 수 있다. 참고로 임시궁궐이라 할 수 있는 남한산성 행궁에는 종묘와 사직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좌전과 우실이 갖추어져 있다.

북한산성 행궁은 임금이 집무를 보는 정전(正殿)(외전)外殿을 앞에 두고, 뒤에는 침전(寢殿)(내전)內殿을 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인 궁궐 건축물의 배치원칙인 ‘전조후침(前朝後寢)의 원리’를 만족시킨다. 규모는 내전 28칸, 외전 28칸, 부속건물 68칸 등 총 124칸 정도였다. 행궁의 관리는 1712년 산성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설치된 경리청(經理廳) 소속의 관성장(管城將) 1원(員)이 담당하였고, 행궁의 수직은 관성소(管城所) 소속의 행궁군사 2인이 맡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행궁의 기능도 다양해져, 왕실 족보를 보관하기 위한 보각(譜閣)을 두게 된다. 또 고종대에 이르면 사고(史庫)로 전용되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왕실의 어제나 어보, 어책, 의궤를 비롯한 중요 물품들을 보관하게 된다. 이렇듯 북한행궁은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피난처였다.

1912년 1월 8일, 순종(純宗)은 조선총독부의 요청을 받아 북한행궁의 사고건물을 10년간 영국 성공회에 대여해 준다. 그런데 최근 발견된 당시 주교의 편지에는 “우리는 월세 내는 것을 대신해서 행궁을 수리 보존하기로 하였고, 매년 여름 이 곳은 더위를 피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행궁 전체를 자신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은 유니언 기(Union flag)를 행궁 내전에 걸고 대청마루에 앉아 독서를 즐기는 성공회 일행들의 사진이 발견되어 분명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어쨌든 그렇게 유지되던 북한행궁은 1915년 북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새 천년을 맞이할 때까지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런 북한행궁이 경기문화재단과 고양시의 노력으로 원래의 위용을 되찾고 있다. 2007년 고양시의 노력으로 국가사적 제469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경기문화재단에 의하여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연차발굴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1915년 산사태로 매몰된 내전과 외전의 하부구조가 온전하게 발굴되었으며, 왕실 문서를 보관했던 사고^{史庫}로 추정되는 건물도 확인되었다.

발굴로 드러난 북한행궁의 전모는 놀라웠다. 내전과 외전의 기단, 왕이 지나는 길인 어도^{御道}, 기둥을 받치던 주초석^{柱礎石},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 등이 매몰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온돌은 구들장 위에 두텁게 바른 황토바닥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고, 기단과 주초석에 사용했던 석재들은 재사용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만큼 보존 상태가 좋았으며, 거의 대부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듯 북한행궁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유구에서 매우 드문 것이어서 북한행궁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북한산성 행궁지는 북한산성 내에서 가장 아늑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내에 자리하여 원형을 거의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 발굴로 그 구조가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이다. 1910년 무렵에 촬영한 사진들이 여러 장 전하고 있어 원형복원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요컨대 복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관심 속에 복원이 이루어져, 북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에 일조하는 한편, 북한산성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북한산성 행궁의 복원은 등산지로만 각인되어 있는 북한산성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 분명하다.

15

새로 찾은 북한산성 근대 기록사진



〈사진1〉 북한산성 동장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의 조사·연구·복원·활용을 위하여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을 설립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형복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확보되어야 하겠다. 한편으로 이는 꼭 세계유산 등재가 아니라도 문화유산을 훌륭한 문화공간, 더 나아가 귀중한 문화자산



〈사진2〉 수구의 돈대



〈사진3〉 북한 행궁

으로 탈바꿈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건일 것이다.

일찍이 북한산성 지역은 근대 시기 이후 서울지역에 머물렀던 서양인들이 즐겨 찾았던 휴양지였고, 일제강점기 이후로도 서울에 사는 여느 사람들이 곧잘 산행을 즐겼던 공간이었다. 그래서 다른 관방유적에는 드문 근대 기록사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지금보다 북한산성의 원형이 훨씬 더 잘 남아있을 때 그들이 촬영한 사진은 북한산성의 원형복원에 더 없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에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은 북한산성 관련 미발굴 근대기록사진을 찾기에 남다른 공력을 들였고, 그 결과 여기에 소개한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진을 통해 우리가 북한산성의 원래 모습을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사진 1〉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가 찍은 동장대의 모습이다. 현재 복원된 2층 누각건물이 아니라 단층 건물이다. 현재 복원된 동장대가 잘못 복원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발 600m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2층 누각건물을 세웠



〈사진4〉〈사진3〉을 확대함



〈사진5〉북한행궁 내전

다면 관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화성의 저장대를 본 따서 복원하는 실수를 범했다. 어쨌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동장대의 원형이 파악되었다.

〈사진 2〉는 중성 수구 옆에 중성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적대의 사진이다. 현재 중성문 주변에는 적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진은 중성 수구의 북쪽으로 돈대 형태의 적대가 있었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향후 원형 복원을 위한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진 3〉은 북한산성 행궁을 멀리서 본 것이다. 북한 행궁 관련 사진은 이것 이외에도 한두 컷이 더 있지만 이렇게 선명한 사진은 이것이 처음이다. 건물의 배치가 정확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화소가 뛰어나 〈사진 4〉와 같이 건축물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진 5〉는 성공회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북한행궁 내전의 사진이다. 유니온 기가 걸려 있고, 신부와 수녀가 여름 피서를 북한행궁에서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을 통하여 북한행궁을 영국 성공회가 임차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축물의 구조는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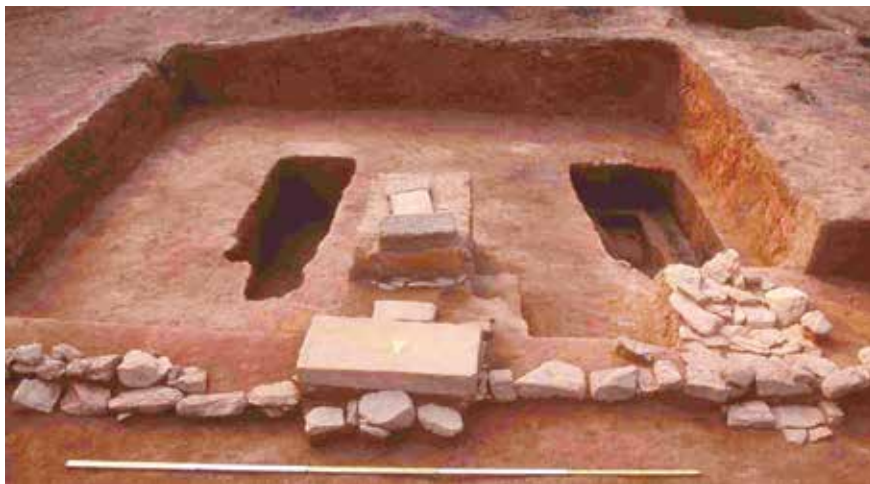
론 단청 등이 디테일하게 확인되어 향후 북한행궁을 복원할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와 최근 발굴조사의 결과, 그리고 문헌기록을 참고하면, 북한산성의 행궁은 물론 적대 등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형복원의 중심에 근대 기록사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음을 먹고 덤벼든다면 생각 이외로 많은 수량의 사진자료가 발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땅에 체류했던 어느 서양인의 후손을 통해, 그게 아니라면 먼 이방의 어느 대학도서관에 숨어있을 지도 모를 사진자료들이 속속 알려진다면, 북한산성에 관한 옛 사진자료 창고는 머지않은 장래에 훨씬 더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어쨌든 ‘발굴’이란 말 속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만 포함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유적에 따라서는 문헌기록과 사진자료의 발굴 역시 현장발굴과 함께 병행되어야 마땅하겠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산성 관련 근대 기록사진의 발굴은 모범사례라 하겠다.

16

남양주 평내 유적의 내시 묘역과 정계동묘



정계동묘 전경

조선시대 내시들의 삶은 일반 사대부·중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인을 맞이하여 결혼도 하고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다. 그리고 사후에도 사대부와 마찬가지로 선산에 묻혔다. 이런 까닭에 서울 근교에는 내시 묘역이 여러 곳 자리한다. 구과발 이말산 은평뉴타운 부근, 북한산 의상봉 입구 백화사 입구, 노원구 초안산 등지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

그들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인이었다. 이런 연유로 그들은 다

른 고관대작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경기 땅에 세거하였고, 그런 만큼 과거 양주와 고양지역에 주로 묻혔다. 조선시대 도읍 한양의 지기(地氣) 보존을 위하여 성저십리(城底十里) 즉 도성 밖 10리 안에는 무덤을 쓰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였다. 이를 금장(禁葬)이라 하는데, 그 범위는 과거 한성부와 경기의 경계 밖으로 보면 된다.

조선시대 신도비의 70%는 경기도 지역에 분포한다. 이는 지금의 경기도에 고관대작이 세거하고 또 묻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내시의 정원이 140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서울 지역은 물론 바로 인접한 양주, 남양주, 고양에는 내시의 무덤이 적지 않게 분포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 그리고 이는 내시 사후에 안장된 묘소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 내시 족보『양세계보(養世系譜)』가 입증해준다. 이 기록에 의하면 내시의 묘소는 양주뿐만 아니라 고양, 과천, 안성, 용인, 파주 등 경기도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록을 뒷받침해 준 발굴이 남양주 평내동에서 발굴된 내시묘역이다. 지금은 휘황찬란한 아파트촌으로 변모한 옛 남양주 호평동, 평내동 일대는 2000년부터 한국토지공사의 요청으로 경기문화재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크게 구석기시대와 조선시대 분묘군, 조선시대 기와가마군에 대한 학술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런 남양주 호평·평내유적에서는 총 21기의 조선시대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그중에서 1호분으로 명명된 정계동(鄭繼全)의 무덤은 단연 주목받을 만하다. 그는 실록에 비록 3건밖에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1483년(성종 14) 내관직에 몸담고 있었으며, 이때 몇몇 내시와 더불어 궁중의 나인(內人)들과 모여 앉아서 술을 먹다가 의금부에 적발되어 벼슬을 파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다음 해인 1484년(성조 15) 7월에 고신告身(사령장)을 돌려받았지만 12월에 다시 고신을 돌려 받은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7월과 12월 사이에 한번 더 관직을 박탈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실록에서 그의 이름은 정계동鄭繼同, 정계동鄭季同 등으로도 기록되는데 이는 사관이 내시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긴 혼동으로 보인다.

이상이 정계동에 관련된 실록 기사의 전부이며, 그가 무슨 관직을 역임하였는지를, 또 어떠한 행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발굴된 묘표에 새겨진 관직이 ‘가선대부내시부상선嘉善大夫內侍府尙膳’으로 되어 있어 그가 여러 직책을 거친 뒤 내시부의 우두머리인 종2품 상선의 지위에까지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몰년沒年은 묘표 뒷면의 건립연대로 미루어 1524년(중종 19) 즈음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무덤은 부인과 이혈異穴 합장묘로 주희朱熹 가례家禮에 따라 남편의 왼쪽 즉 전문용어로 부좌附左하였다. 정계동의 묘광에서 특징적인 점은 바닥면과 보강토 사방에 솟을 깔아 방습과 방충을 도모한 점, 묘광과 계체석階砌石 사이에 할석을 깔 점 등이 특징적이다. 또한 관정 6점이 발견되어 관은 나비장보다는 관못으로 결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계동 묘표

이 정계동 묘의 발굴은 피장자와 축조연대가 분명한 내시의 우두머리 무덤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 고고학이 문헌기록을 보완하고 교정할 수 있음을 입증해 준 발굴이었으며, 경기도 고고학은 역사학과 더욱 절친해야 한다는 사실을 점검케 해 주었다. 그런 한편으로 정계동 묘의 발굴은 우리 고고학자에게 문헌사학자 수준의 역사적 지식을 갖추고, 문헌정보를 좀더 철저하게 활용할 것을 일갈하고 있다. 한편 정계동 묘를 기록한 『남양주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서(1)』⁽²⁰⁰¹⁾에는 ‘조선시대 내시에 관한 소고’, ‘남양주 호평·평내지구 조선시대 분묘 인골의 분석’, ‘남양주 호평 2지구 12호분 출토 출토복식’ 등의 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작금의 발굴보고서들은 이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듯하다. 고고학은 기록이다. 특히 개발에 따른 발굴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고고학에서는 기록보존 아닌 경우가 거의 드물다. 이런 현실이기에 발굴에서 얻은 정보를 좀더 많이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성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또 독자에게 사라지고 없는 유적을 좀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한다. 발굴유적은 사라지고 보고서만 후세에 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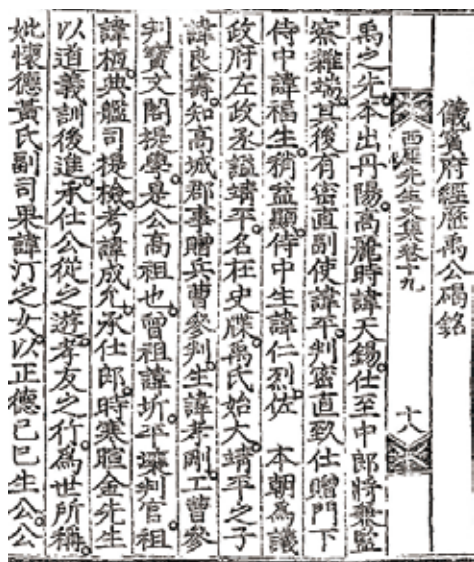
17

남인의 거두 우성전의 생부 우언겸 묘와 만사



4호 회곽묘의 외곽벽에서 발견된 만사 일부

우리문화재연구원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남 고등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의 평면 ‘口’자형의 건물지와 이와 관련한 석렬과 수혈, 고려시대의 제철 관련 폐기 수혈 확인되었다. 학술적 가치



유성룡의 『서애집』에 실린 '의빈부경력우공갈명'

높은 유구가 발굴되지 않아 유적보존 조치없이 공사가 허용되었다.

한편 사업지구 내 6구역에 서는 이장하고 난 뒤에 파손된 묘비 등 석물, 노출된 상태의 회곽묘가 남아 있었다. 발굴조사단은 이들 문화재를 모두 매물하기보다는 일부를 전시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판교박물관은 회곽묘(4호, 6호)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1월에 경기문화재연

구원에 이전작업을 의뢰하였다.

이렇게 이전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4호 회곽묘 외곽벽에 만사(挽詞(죽은 이를 추모하는 글))로 추정되는 글씨와 그림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에 정식학술조사를 통하여 만사가 무덤에서 발굴된 경우가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회곽묘의 외벽에 만사가 적힌 종이를 붙인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학계에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이들 만사는 보존처리가 진행 중인데 글씨의 크기와 방향, 글씨체가 다르고 그림도 있어 여러 장의 만사를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사에 대한 해독과 번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더 이상 특기할 만한 것이 없어 일단 소개만 해 둔다.

만사와 함께 4호 회곽묘의 학술적 가치를 높인 것은 피장자가 우언겸(禹彦謙(1509~1573))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우언겸은 중종(中宗 32년(153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에 생원(生員)으로 입격하여 안동판관, 경력(經歷(종4품)벼슬까지 이른 인물이다. 본관은 단양(丹陽)이며 자는 익지(益之)이다. 가족관계는 부는 승사랑(承事郞) 우성유(禹成允)이며, 동생은 우준겸(禹俊謙)이다. 우언겸에 대한 행적(行蹟)과 관력(官歷), 가족관계는 우경력(禹公諱)의 경력(官歷) 우공감명(儀賓府經歷 禹公諱)에

해남 율선도 집안에서 만든 『만가보』에 실린 우언겸의 선조와 후손

우언겸에게는 성전^{性傳}과 도전^{道傳}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문을 가장 빛낸 역사적 인물이 동생 우준겸에게 양자로 간 우성전^{禹性傳}(1542~1593)이다. 대사헌 허엽^{許曄}의 사위이기도 한 우성전은 1561년(명종 16) 진사가 되고, 1564년 성균관 유생들을 이끌고 요승 보우^{普雨}의 주살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1568년(선조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문관검열·봉교^{奉敎}, 수찬^{修撰} 등을 거쳐 1576년 수원 현감으로 나가서는 명망이 높았다. 동서분당 때 동인으로 분류되었다. 그 뒤 이발^{李潑}과 틈이 생기자 우성전은 남산에 살아서 남인, 이발은 북악^{北岳}에 살아서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남인의 거두로 앞장을 섰으며,



4호묘와 함께 이전 대상이었던 6호 회곽묘 보존처리 중 발견된 운아삼. 회곽묘의 측벽에 운아삼을 붙인 경우도 매우 드문 편이다. 한편 이 6호 회곽묘의 내부 목곽과 목관 사이에 역청이 발견되었다.

동서분당 때나 남북의 파쟁에 말려 미움도 사고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1591년 서인인 정철(鄭澈)의 사건에 연좌되어 복인에게 배척되고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풀려나와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집해 군호(軍號)를 ‘추의군(秋義軍)’이라 하고, 소금과 식량을 조달해 난민을 구제하였다. 또한 강화도에 들어가서 김천일(金千鎰)과 합세해 전공을 세우고, 강화도를 장악해 남북으로 통하게 하였다. 병선을 이끌어 적의 진격로를 차단했으며, 권율(權慄)이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에서 행주에 이르자 의병을 이끌고 지원하였다. 그 공으

로 봉상시정에서 대사성으로 서용되었다. 그 뒤 계속 활약하였으며, 용산의 왜적을 쳐서 양곡을 확보해 관군과 의군의 식량을 마련하였다. 그 뒤 퇴각하는 왜군을 경상우도 의령까지 쫓아갔으나, 과로로 병을 얻어 경기도 부평에서 사망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계갑록 癸甲錄』, 『역설 易說』, 『이기설 理氣說』 등이 있다. 시호는 문강 文康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우성전’ 항목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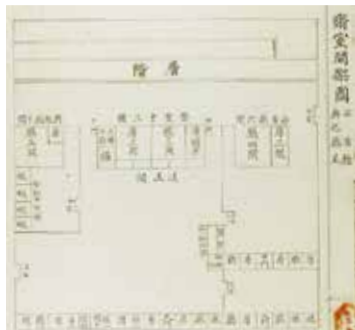
이렇듯 성남 고등동 공공주택지구에서 수습된 4호 회곽묘의 만장은 회곽 벽에 붙인 만장이라는 점, 그 묘주가 역사인물인 우성전의 생부인 우언겸으로 밝혀진 점, 서애 유성룡이 찬한 묘갈명이 『서애집』에 기록되어 있어 묘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하는 점 등에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덧붙여 그가 김안로 등 당대 명현들과 교유한 사실을 감안할 때, 만장 중에는 조선전기 유명인물의 필적도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럴 경우 이들 만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18

구 건릉 재실지



구 건릉 재실지 전경



『健陵山릉도감의궤』 재실간가도(1800)
(자료: 奎13640, 오대산사고본)

수원부읍치는 1789년 정조가 아버지 장헌 세자의 묘소인 양주 배봉산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부(水原府) 화산(花山) 아래로 천장(遷葬)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의 수원시 팔달산 아래로 옮기게 되었다. 이후 정조가 1800년 6월 28일 유시에 창덕궁(昌慶宮) 영춘헌(迎春軒)에서 승하하자, 능호(陵號)를 건릉(健陵)

이라 하고 현릉원 형국 내 옛 강무당 터에 왕릉을 조성하게 되었다. 순조 21년(1821) 3월 9일에 효의왕후孝懿王后가 승하하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릉원의 서쪽인 현재 위치로 천장하여 합장하였다. 당시 건릉의 모든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건릉 재실도 현재 융·건릉 관리사무소 자리로 이전하면서 변형되었다.

조선후기 왕릉 재실은 1757년 정성왕후貞聖王后의 홍릉재실弘陵齋室을 조성하면서부터 집약적이고 간소화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전례를 상고할 만한 자료가 소실되고,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재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되어 원형이 보존된 경우가 거의 없다. 이제까지 원형의 일부가 남아있는 재실로는 영릉재실寧陵齋室, 동구릉의 수릉재실綏陵齋室, 서오릉의 명릉재실明陵齋室, 장릉재실長陵齋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 태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 건릉 재실지舊健陵齋室址는 『정종대왕건릉산릉도감의궤正宗大王健陵山陵都監儀軌』(1800)에 실린 「재실간가도齋室間架圖」와 거의 일치하여 1800년 조성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유적은 현릉원 조성에 따른 수원부읍치의 이전과 건릉 조성 및 천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현장에 원형 보존토록 조치되었다.

재실은 흥례가 끝난 후 산릉을 지키는 헌관들이 머물고 재계하는 공간인 재실齋室, 임금이 내려준 향과 축문을 보관하는 장소인 안향청安香廳, 제사음식을 만드는 공간인 전사청典祀廳,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와 부속행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 건릉 재실터의 전체규모는 전면 52m, 측면 32m이며, 각 영역은 중심 건물과 부속행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간 위계와 기능의 구분, 동선의 흐름은 문과 담장을 설치하여 적절히 조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에는 12칸의 재실과 넓은 마당이 자리잡아 있고, 동쪽에는 안향청과 제기고 영역이, 서쪽에는 전사청 영역이, 남쪽 전면에는 18칸의 행랑채와 대문 2곳을 두었다. 유적은 낮은 구릉부에서 이어지는 사면을 굴토한 후 외곽담장을 축조하였으며, 건물의 벽은 바닥면을 굴토한 후 굵은 모래를 채워 기초를 마련하였다.

재실지에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 초기까지 제작된 자기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17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제작된 백자편이 가장 많으며, 그 가운데 굽다리가 높은 제기류의 백자접시와 잔이 상당량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은 구수원부읍치의 치소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 이후 재실齋室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 조탁 명문을 통한 제기관리와 수급방법, 사용처에 관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

용건릉 내 정조 초장지



정조 초장지 전경

화성시 안녕동 산 1-15에 위치한 용건릉(사적 제206호)은 조선의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아버지 장조(사도세자, 사후에 추존)와 현경왕후를 모신 용릉, 정조와 효의 왕후를 모신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용건릉내 정조대왕 초장지

初葬地(정조대왕 승하 후 최초로 묻힌 터)로 추정되어온 지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 명하고 향후 정비복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은 용건릉 경내 동남쪽 경계부분에 위치하면서 용주사의 서편으 로, 지난 2007년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정조대왕 초장^{初葬} 왕릉의 재실^{齎室}터가 발견된 곳에서 북서편 인근에 해당된다. 현재 건릉^{健陵}은 1800년 정조대왕이 승하한 이후 1821년 왕비였던 효의왕후^{孝義王后}와 합장하기 위해 당초 초장지로부터 이장^{移葬}해 조성한 능이다. 그러나 문헌기록에서 확인된 정 조대왕이 승하한 1800년의 초장^{初葬}된 위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발굴지역은 초장지로 유력하게 지목되어 오던 곳으로 발굴조사 결과, 정 조대왕의 초장지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발굴 결과 묘광은 철자형^{凸字形}으로 드러났으며, 묘광^{墓塋} 북편에서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백자 명기, 백자호류, 칠기함, 청동편종, 난간석의 하부 지대석 등이 있다.

출토유물 중 유개호^{有蓋壺}(뚜껑이 있는 단지)는 18세기 백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형태로, 7개가 일괄로 부장되어 있었다. 또한 백자명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 며, 특히, 작^爵은 다른 일반 분묘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유물이다. 더불어 궁 중제례악에서만 사용하던 악기인 편경^{編磬}과 편종^{編鐘}이 각각 명기로 제작되어 출토되었다는 점은 이 무덤이 왕릉으로서의 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장조)가 뒤주 속에서 세상을 떠난 후 1776년 25세 에 왕위에 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정조는 군왕이 된 후 헌신적인 노력으로 살아 있는 동안 다하지 못했던 효심을 눈물겹도록 펼 쳤다. 1762년(영조 38) 5월 21일 뒤주 속에서 죽은 사도세자는 7월 23일 배봉산



정조 초창지 출토유물 좌로부터 백자명기, 유개호, 편경, 편종

拜峯山 아래 언덕에 예장되었으며,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다. 1776년 정조는 수은묘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개칭하고, 존호도 사도(思悼)에서 장헌(莊獻)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789년 정조는 다시 영우원을 현릉원(顯隆園)으로 바꾸었고, 같은 해 10월 7일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24년의 재위기간 내에 지금의 화성 용릉인 현릉원으로 옮긴 후 아버지를 참배하기 위해 11년간 총 13번의 원행을 했으며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용주사를 중창했다. 이는 성리학이 주도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사찰로, 건립 배경에는 부친에 대한 정조의 각별한 효심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

화협옹주 묘 출토 일괄 유물



화협옹주 묘 출토 화장품 일습

화협옹주(和協翁主)(1733~1752)의 무덤은 2016년 이장(移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화장용구가 일식으로 출토되어 조선후기 여성용품을 규정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물은 화협옹주의 장지(葬地)라는 것을 증명하는 묘지(墓誌)·지석(誌石)과 함께, 목제 말, 청화백자 분합 6점, 중국산 분채 분합 1점, 뚜껑이 있는 단지 2점, 열레빗 1점, (추정) 참빗 1점, 유병동경과 거울집 1점, 분접시 2점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물 중에서 청화백자합과 분채에는 화장품류로 추정되는 내용물로 채워져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어쨌든 이들 유물은 화협옹주가 사용했던 것

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화장용품 일괄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요컨대 이들 유물은 모두 여성의 애용품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 화장세트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유병동경 즉 병경이 여성 애용품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열레빗은 물론 참빗이 여성 전용품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또 지금의 밥그릇처럼 생긴 합합은 분말류의 화장용품을 담긴 위한 용도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화장용 분이 있었고, 그런 만큼 화장용 다수의 분합이 필요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납작한 종지와 소완小溫은 화장용 분말과 화장기름을 섞기 위한 분접시로 사용되었고, 뚜껑 있는 단지는 화장용 기름 즉 화장유化粧油를 담긴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화협옹주 묘에서 출토된 중국 청화백자를 보면 마음이 씁쓸하다. 이 유물들이 옹주에 불과했던 화협옹주의 사치를 상징해 주고, 그런 사치와 당시 궁가宮家의 궁방전宮房田 때문에 신음하던 백성의 모습이 겹쳐 왔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은 궁방전이라 불리는 소유권 혹은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토지가 있었다. 이것이 궁방전으로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비용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런 궁방전의 경작에는 면역의 특권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민전民田의 투탁投託이 날로 많아져 농장이 확대되었다. 또 면적의 제한이 없었으며 수세액도 규정된 정액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궁가는 궁방전을 늘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권력을 이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남의 토지를 빼앗은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궁

방전을 늘려갔다. 이외에도 농민들이 피역이나 기타의 편의를 위해 투탁한 토지, 소속 노비의 자손 단절로 그들의 토지를 인수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도 욕심을 채워나갔다. 한편으로는 전국 여러 곳에 걸쳐서 토지를 겸병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토지 확장은 아래로는 농민을 협박하고 위로는 국가 재정의 부족을 초래해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폐단을 자아내었다.

이처럼 궁가는 왕실 권력을 동원하여 백성이 힘들게 개간한 땅을 빼앗거나 정해진 전세田稅의 감절되는 세금을 거둬으로써 가난한 백성을 곤궁으로 빠뜨렸다. 한편으로는 각종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면세지인 농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좀먹어 들어갔다.

이처럼 조선후기 궁방전은 백성을 침탈하는 대표적 사례이기에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그 폐단을 『목민심서』에서 말했다. “여러 궁방면세전宮房免稅田으로 도장導掌으로 내려온 자는 차인差人으로서 그곳의 세를 거두어 궁방에 바치면서 자신이 자리를 사서 받은 세를 착복하기도 한다. 요컨대 굶어먹는 자는 많고 은혜와 동정을 베푸는 자는 적다. 그래도 궁방전을 경작하는 백성은 대개 제역除役되어 그 고을의 요부徭賦에는 응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수령은 이들의 빈부와 고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 같은 백성인데 어찌 널리 돌보지 않겠는가. …궁방전이 있는 마을은 더러는 폐망하여 유지하지 못하기도 하며, 더러는 충실한 데다 민역民役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을이 민역을 포탈하는 소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조선후기 궁가宮家가 백성들의 고통 위에서 사치를 누렸을 것이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추측을 화협옹주 묘의 부장품이 입증해 준다. 이는 고고유물이 역사의 실체를 현물現物로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고학의 존재감을 더하는 중요한 공헌 중 하나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궁방전의 피해를 극심하게 본 곳 중의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하의도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하의도 소작쟁의’를 검색하여 그 역사적 전개를 읽어보면, 궁방전이 얼마나 가난한 백성을 긴 세월 동안 힘들게 했는지 절감할 수 있다.

21

안산 신길동 유적 출토 무구



신길동 III지점 71호묘 출토 청동 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대신칼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우리나라 무속의 출발점은 대략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연현상이 인간의 생존에 크게 영향력을 미친 구석기시대부터 절대적인 힘과 소통하고자하는 무속행위는 원시적인 형태로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무속은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면서 변화·존재해 왔다. 정치적·사회적·개인적 기능 모두를 발휘하던 선사시대부터 이제는 다 사라지고 개인적 기복만이 남아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무속은 개인과 집단, 사회, 나아가 정치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역사 속에서 변화해왔다.

무속은 무속의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 무속의례에 사용되는 제반의 모든 물건을 무구(巫具)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무구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서 각각의 종교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길동 III지점 41호묘 출토 청동 거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명두

안산 신길동 유적에는 신석기시대 주거군이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무덤이 다수 조사되었으며, 이중 몇몇 무덤에서 청동 칼과 청동 방울, 청동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청동유물들은 일반적인 무덤의 부장유물이 아닌 제의도구 즉 무구(巫具)라는 점과 결국 이 무덤의 피장자가 무속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산 신길동 유적 이외에도 서울 은평 2지구 C공구 E-2구역 385호에서 도자 2점과 방울 3점이 출토되었는데, 귀걸이가 공반 출토되어 그 피장자는 여성 무속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구 중에서 청동 칼은 원래 명칭이 ‘대신칼’이며 사용용도에 따라 부정칼과 신칼로 달리 불리기도 한다. 보통 낫쇠나 무쇠로 만들어지며, 길이는 대략 30cm 인데, 폭은 2~3cm 대이다. 그 종류와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나 대체로 무당과 제신들의 위엄을 상징하며, 동시에 각 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 액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들이며 그 자체로 신을 의미한다.

청동 방울은 ‘칠성방울’, ‘열두방울’ 등이 있는데, 칠성방울은 한쪽에는 방울이 3개가 달려 있고, 반대쪽에는 4개가 달려 있으며 이는 각각 남·녀로 상징된다. 열두 방울은 ‘+’고리에 각각 3개씩 달려 있는데, 이는 사방을 상징한다.

원래 칠쇠방울을 주로 사용하며, 굿의 대부분 거리에서 사용되는 무구이다. 방울은 소리를 내어 신령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내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방울이 신령을 불러들이는 동시에 쫓아낼 수 있는 상징적 무구로 인식되는 것은 신령이 쇠소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방울은 점을 치는 도구로도 사용되거나 악기^{樂器}의 구실을 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방울은 악기와 입무자^{入巫者}의 자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무구 또는 조상신의 신격을 대표하는 무구로 인식된다.

청동 거울은 원래 명칭이 ‘명도^{明圖}’이며 명두^{明斗}·경^鏡 혹은 무경^{巫鏡}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 무속에서 신령의 거울 내지 신령 마음의 거울이라 관념된다. 특히 강신무에게는 무당이 모시는 신이 깃들어 있는 무구로 인식된다.

조선시대 무덤에서 무구^{巫具}류가 매납된 토광묘의 발견은 무속인들이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흥미롭다. 또 조선시대 무구 기본 세트가 칼, 방울, 거울 3종인 사실은 청동기시대의 동검·동령·동경이 무속 행위를 위한 무구이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신앙용구의 전통이 장구한 세월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아울러 지금도 그러하지만 무당굿은 조선전기에도 여성이 전담했을 가능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세집 이상 있는 마을이면 모두 무녀^{巫女}가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로 미루어 조선후기 무녀의 수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조선시대 무덤에서 대신칼, 복수의 방울, 손잡이 없는 거울이 출토될 경우, 무녀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22

파주 동패리 유적과 방제경



파주 동패리 유적 전경



19호 묘 출토 방제경

우리나라에서 고고 유적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 대규모 택지조성 등으로 조사가 늘어나면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다양한 유적이 대거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고려~조선시대 유적의 조사 사례도 급격히 늘어났는데 파주 동패리 유적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요즘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2000년대 초반 서울 인근의 김포·파주·평택 등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2기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동패리 유적은 파주 운정 신도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동패리 유적에서는 고려~조선시대 주거지와 수혈 40여기, 분묘 26기가 발굴되었는데 조선시대 조성된 유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움집인 주거지는 내부에

취사와 난방 등 일상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근 분묘 조성과 관리를 위한 묘막^{墓幕}의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묘는 모두 토광묘로 대부분 목관을 사용해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장품은 분청자와 백자, 도기, 청동숟가락 등으로 단출한데 자기 양식으로 미루어 보면 16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시대 무덤으로는 석실묘와 석곽묘, 회격^(곽)묘, 토광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석실과 석곽은 유교식 예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회격묘와 토광묘가 대표적인 무덤 형태로 자리 잡았다. 회격묘는 조선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무덤의 형태로 목곽과 묘광 사이에 삼물^(회, 황토, 세사)을 넣은 것이다. 회격묘는 일찍이 사대부층의 묘제로 자리 잡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형식이 간소화된 회곽묘가 널리 사용된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단연 토광묘다. 동패리 유적에서 조사한 유구처럼 조선시대 토광묘는 단순히 묘광을 판 형태가 많지만 조선 중기에는 광 중앙부에서 단을 이루는 이단굴광식 등이 등장하고, 목관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장 공간으로 편방이 마련되기도 한다. 동패리 유적 토광묘 상당수에서도 편방이 확인되는데 이는 회곽묘에서 부장을 위해 설치한 편방을 모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덤에는 분청사기와 백자 등 자기류와 수저, 동전, 동경, 가위 등을 부장품으로 넣었는데 수량은 많지 않다. 조선 초기에는 분청대접과 접시, 청동합, 수저, 가위, 동경 등 고려시대 부장양상과 비슷하나 점차 대접과 접시, 수저 등 반상기만 부장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후기에는 아예 부장을 하지 않거나 동전 등 극히 소량의 유물만 부장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 전기에 조성된 동패리 유적의 토광묘에서는 소량의 반상기만 발견되는데 이는 조선시대 무덤 부장품의 변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동패리 유적의 분묘 출토품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19호 묘에서 발견된 청동거울(銅鏡)이다. 동경은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근세까지 사용된 것으로 분묘의 주요 부장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동경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선사~고대에는 제의 또는 사악함을 물리치는 벽사의 도구였으나 중세 이후에는 실생활 용구로 의미가 변화한다. 동경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일부 제한된 계층만 보유할 수 있었으나 고려시대부터는 동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동경들이 발견된다. 또한 동경은 무덤에 넣는 주요 부장품으로 조선시대 묘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19호 묘 출토 동경은 거울의 뒷면 중앙의紐紐 주변으로 4개의 꼭지(乳)가 있고 그 사이에 8마리의 새가 표현된 모습으로 사유팔조문경(四乳八鳥鏡)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의 거울은 중국 한나라 때 유행한 거울로, 동패리 유적 출토 동경은 당대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한경(漢鏡)을 모방해 다시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모방해 만든 거울을 방제경(倣製鏡)이라 하는데 한반도에서는 한사군 설치 이후 한반도에 유입되어 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한경을 모방한 방제경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지만 중국 거울을 모방해 다시 찍어내는 제작방식이 유행하였다.

1300년대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방제경은 원형을 찍어낸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주물사를 부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방제경은 지금까지 옛 낙랑과 개성 부근 고려 분묘에서만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작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부장되었거나 혹은 오랫동안 전세(傳世)된 한경을 모방해 우리나라에

서 다시 주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쨌든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시대에도 방제경이 유행하였고 그런 방제경 중에는 한경을 모방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리고 이런 방제경은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폐 동전을 무덤에 매납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사실과 함께 당시 고려인들의 부장풍습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23

용인 서천동 ‘음성박씨 묘’와 출토복식



서천동 ‘음성박씨 묘’ 관내 모습



서천동 음성박씨 복식 해포 모습 (서울대학교해부학실)

역사 속 사실을 연구하는 데 있어 당시의 유물을 마주하는 것만큼 더 흥분되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옷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고려 이전의 것은 실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고려 말기에서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불상 또는 불탑 등에서 옷이나 직물조각이 발견된 사례가 있으나 수량이나 종류가 몇 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래된 유물이 있는데 이것은 색상과 형태가 잘 남아 있어 복식(服飾) 연구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은 조선 말기에 집중되어 있고 주로 궁중유물에 국한되다 보니, 이 역시 조선시대 복식을 연구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무덤을 이장하는 가운데 관 안에서 시신이 입고 있거나



당코깃저고리



칼깃한삼

함께 넣었던 옷들이 다량으로 출토되면서 우리 옷 연구자들은 무덤에서 나온 복식 자료를 살려내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무덤에서 나온 옷들은 조선시대 복식 연구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현이나 전시회를 통해 왕실과 사대부가의 의복을 박물관에서 실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2008년 8월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용인 서천동 유적의 회격묘에서 복식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묘는 무연고로 묘주가 어느 시대 어느 집안의 여성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것은 명정(銘旌)에 ‘음성박 씨지구(陰城朴氏之柩)’라 쓰여 있는 여섯 글자가 전부이다. 무덤의 축조시기는 절대편년 자료가 부재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덤의 형식과 출토 복식을 통하여 대략 17세기 후엽에서 18세기 전엽으로 설정된다.

복식의 상태는 매우 열악하였고, 면, 마와 같은 식물성 섬유는 완전히 퇴화되어 거의 흔적이 없었으며, 견직물 위주로 남아 있었다. 수습된 복식은 총 20건으로 저고리 2건, 한삼(속옷) 1건, 치마 1건, 바지 1건, 요대 1건, 허리띠 1건, 모자 1건, 얼굴덮개 1건, 손싸개 1건 2점, 손발톱 넣는 작은 주머니(조낭) 1건 2점, 수의용 신(습신) 1건, 이불 1건, 맨 위에 덮는 작은 이불(천금) 1건, 아래에 까



기하문(위 당코깃 저고리 몸판)



나비매화문(위 당코깃 저고리 소매)

는 요(지요) 1건, 베개 1건, 직물편 1건, 소창의(남자 옷) 1건, 명정 1건, 현/훈(판 위에 놓는 천) 1건 2점이다. 직물은 모두 건 재질로 무늬가 있는 직물은 3건이다.

이런 음성박씨 묘 출토 복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음성박씨 묘에서 출토된 저고리의 깃이 당코깃이라는 점이다. 둘째, 속옷으로 입은 칼깃 적삼이 출토된 점으로, 칼깃 적삼의 무덤 부장 풍습은 17세기 중후반을 소급하지 않는다. 셋째, 음성박씨의 직물 중 마름모형의 기하학적인 무늬, 매화와 나비가 번갈아 반복된 무늬가 시문된 점이다. 이런 문양은 17세기 중반에 유행되는 것으로 18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호문(虎文) 흉배(團領)과 금원문(金圓紋) 저고리도 특기할 만하다. 단령은 묘주가 수의로 가장 겹에 입었던 복식으로, 가슴과 등에 호문흉배가 연금사로 직성(織成)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사의 제작방법은 심사에 편금사를 감아 만드는 것이지만 출토된 호문 흉배의 연금사는 편금사가 없이 심사에 금박만이 부착된 특이한 형태로 남아 있다. 금원문저고리는 수의 중 단령 안에 두 번째로 입혀진 저고리로 소매를 제외한 길, 깃, 셔에 금박으로 원형의 운조문(雲

鳥紋이 시문되었다. 이처럼 금문金紋이 앞뒷길 전체로 시문된 저고리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음성박씨 묘의 경우 비록 무연고이나 당시의 상·장례 풍습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복식사적 측면에서 복식의 형태, 무늬, 직물의 분석을 통하여 시대를 추정하고 나아가 당시의 또 다른 예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일례를 남겼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음성박씨 묘 출토 복식은 회격묘에서만 출토된다. 이런 회격묘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은 단연 경기지역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조선시대 복식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는 포천 가양리 김학 묘, 하남 춘궁동 의안군 이혁 묘, 파주 분수리 심익창 묘, 파주 분수리 심설 묘, 하남 춘궁동 이연웅 묘, 용인 어비리 심수륜 묘, 안성 무릉리 전주류씨 묘, 남양주 광전리 선성군 이흠 묘 등에서 출토된 복식들이 대변해 준다. 이들 복식을 포함하여 경기지역 출토 복식만으로 조선시대 복식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으니, 한국복식문화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그런데 이들 조선시대 복식들은 무덤의 이장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이 대부분이다. 즉 정식적인 발굴조사를 거친 다음, 학술적인 기록을 하고 과학적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드물다. 이런 점에서 정식발굴을 통해 수습되고, 전문가에 의하여 분석과 학술적 가치가 드러난 본 유적의 복식은 또 다른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용인전투와 임진산성, 그리고 황자총통



용인 임진산성 현자총통(玄字銃筒)의 발견 당시의 모습
(임진왜란 당시 '용인전투'에서 우리 관군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우수한 원거리 화포가 있었기에 이순신의 승전도 가능했다.)

1592년 6월, 임진왜란 당시 전라, 경상, 충청 즉 하삼도의 관찰사들은 여기저기 관군을 모집하여 '서울 수복'을 목표로 북상한다. '10만 대군'이라 외쳤지만 사실은 6만 정도였다. 이때 용인지역에는 일본 수군장수 와키사카(협판아치)脇坂安治 휘하의 1,6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수적 우세를 믿은 조선군은 별다른 전략도 없이 왜군을 몰아붙였으나 왜군의 기습전에 제대로 싸움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완패한다. 이 전투를 '용인전투'라 하고 이 때 하삼도의 관군을 삼도군왕병三道勤王兵이라 한다. 당시 대군의 죽음으로 현재 용인구 수지구를 흐르는 풍덕천

이 핏물로 변했다고 전한다.

1910년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이후, 본격적으로 통치와 수탈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조선 전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그것으로 축척 1/50,000의 지형도를 작성한다. 우리 산하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삼았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 현황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라는 책에 담아 남긴다. 이 책에 임진산성이 문헌상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구상^{丘上}의 땅을 고른 것으로 주위^{周圍} 약 50간 풍덕천진지^{豐德川陣址}라 칭한다. 임진역^{壬辰役} 일본군이 쌓은 것이라 한다”라고 기록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왜성으로 본 것이다.

1997년, 지금의 수지구청 맞은 편에 삼성 래미안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지에는 임진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진산성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지표조사 수행기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허락했다. 본격적인 절토에 앞서 수목 이식 작업이 진행되었고, 눈썰미 좋은 아무개가 그 이식 작업에 투입되었다. 어느 날 중장비가 떠올린 흙 속에 철제 파이프 같은 것이 있었고 모두들 그것에 무관심했지만 아무개는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총통^{銃筒}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1996년 ‘거북선 가짜 총통 사건’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조선시대 총통의 기본 형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거북선 가짜 총통 사건’은 해군 발굴단이 가짜 ‘별황자총통’을 만들어, 1992년 바다에 빠뜨린 뒤 그것을 자신들이 직접 발굴한 것이라고 발표한 조작 사건이다. 이 가짜 총통은 ‘귀함별황자총통^{龜鑑別黃子銃筒}’이란 이름으로 1992년 9월에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1996년 8월에 지정 해제되었다.

1997년 5월 1일, 경기도박물관에 총통 발견 사실이 접수되었고, 그해 6월

4일 긴급발굴조사에 착수한다. 발굴 결과 총통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나, 당시 조선군의 무기로 볼 수 있는 칼, 창, 화살촉 등이 다수 출토되었고, 흙을 다져서 만든 토루土壘도 발견되었다. 당시로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총통을 비롯하여 전통무기들이 처음으로 발굴되었고, 용인전투에 대한 실증자료가 확보되었기에 학계의 관심을 크게 끌었다. 그리고 조선군이 사용한 무기가 일식一式(set)으로 발견되었기에 임진산성이 왜성이라는 일본인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아무개가 신고한 총통은 현자총통玄字銃筒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크기를 정할 때, 『천자문』을 따라 천, 지, 현, 황 순서로 이름을 붙였다. 따라서 현자총통은 조선의 총통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것이었다. 어쨌든 아무개는 문화재 발견 신고로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현자총통 2점을 신고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기 땅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기에 전체 포상금의 1/2만 받은 것이다. 나머지 받은 부지의 소유자인 삼성건설이 받았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발굴유적 중에서 상당수는 정식 지표조사가 아닌, 우연한 발견과 그에 따른 신고로 세상에 알려진다. ‘주꾸미 빨판에 붙어 올라온 청자 한 점’이 1208년에 난파한 고려 선박과 그 배에 선적하였던 귀중한 고려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연한 기회로 땅이나 물속에서 유물을 발견하게 되면 ‘진품명품’에 들고 가지 말고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으로 달려가서 7일 이내에 신고하길 바란다. KBS로 가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고, 발견신고를 하면 보상금은 물론 운수대박일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25

여주 파사성과 조선시대 포루



파사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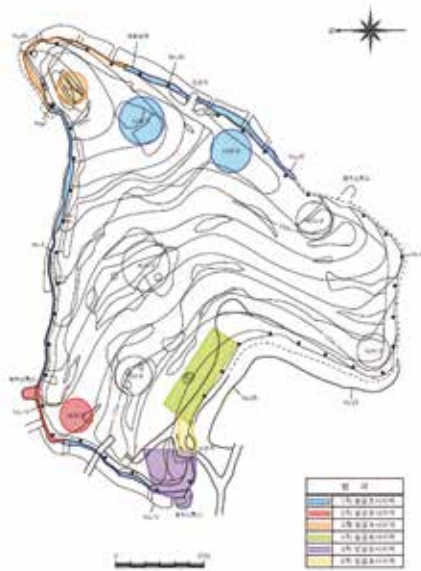
사적 제 251호로 지정된 파사성은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8-10번지 일원과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산43번지 일원의 경계를 이루는 파사산(해발 235m)에 위치한다. 둘레 936.5m, 내부면적 약 12,000평의 석축산성이며, 산 정상과 파사산의 남쪽 계곡을 일부 포함하면서 능선부를 따라 축조되었다. 이는 한강유역에 분포한 여타 신라산성의 입지조건과 유사하며, 규모면에서도 1,000m내외의 둘레를 가진 서해안 주변과 남한강유역의 신라산성들과 같은 범주 안에 속한

다. 파사성은 포천 반월산성, 서울 아차산성, 인천 계양산성, 인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 충주 남산성(충주산성), 여주 북성산성 등과 더불어 군현단위로 분포한 신라 중형급 산성 중 하나이다.

파사성은 남한강 중류 동안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에 험난한 산지가 없어 양평과 여주 일대의 넓은 강안 충적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한 남한강 하류나 상류방향으로 진입하는 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주지역은 남한강유역의 교통로를 따라 한양방향으로 진격하기 위한 관문이었으며,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세 진격로 가운데 중로(中路)에 위치하는 길목이 되었다. 때문에 파사성은 삼국 통일 전쟁기에 한강유역 쟁탈전과 관



파사성 포루1 전경



파사성 포루 위치도

련된 산성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임진왜란 당시에는 한양으로 진군하는 왜군을 차단하고 의병이 결집하는 지역과 관련된 산성으로 주목되었다. 류성룡이 직접



포루 구조도(『화성성역의궤』)

파사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결국 승려 의엄에 의해 1592년 수축된다.

파사성은 현재 역사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9년 긴급 및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7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삼국~통일신라에 걸쳐 내외협축 성벽, 성벽 기단보축, 건물지, 구들유구, 곡성(池), 문지, 등성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루 3기가 확인되었다. 포루와 관련하여 파사성이 수축되는 과정은 『선조실록』·『서애집』·『군문등록』의 기록에 비교적 자세히 남아있다.

임진왜란 시에 왜군의 조총과 화포의 위력을 경험하고 난 후 병자호란을 거치며 산성에 화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포루이다. 포루는 보통 성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화포를 쏠 수 있도록 장치한 누각을 말한다. 성벽을 돌출시켜 만든 치성 위에 설치한 목조 건물이며 군사 초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파사성의 포루 3기는 가장 높은 동쪽을 제외한 성벽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계곡방향에서 성으로 향해 오르는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남문지 옆에 있는 포루 1의 경우 기존에 있던 삼국시대의 치

성을 조선시대에 개축하면서 그 위에 방형으로 쌓아올렸다.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2칸이며 상부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된 사실로 미루어 기와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의 양평 방향을 경계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된 포루 2는 포루 1과 달리 조선시대에 새로 성벽에 덧붙여 쌓았다. 또한 포루 내부에 조선 전기로 추정되는 기와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화약보관고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류성룡(1532-1607)은 『서애집』에서 조선의 특장무기인 화포의 위력을 최대 화하기 위해서는 포루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구조와 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내용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전면 에 모두 구멍을 만들 것, 아래로는 천지현자총통을 안치시키고 조금 위에는 승자총통을 안치할 것, 맨 위에는 누를 만들어 활도 쏘고 적의 동정을 관망하는 장소를 만들 것 등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발굴결과와 문헌기록을 종합할 때 파사성 포루는 3층의 누각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서애집의 내용과 같이 1층은 대형 화포를 설치하고 2층에는 승자총통을 두었으며 3층은 누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적이 성벽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포를 설치하는 포루는 치성의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남한산성에도 포루가 설치되었으며, 이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에서 포루의 전형적인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포루의 시원적^{始原的}인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파사성의 포루이다. 파사성 포루는 류성룡의 주장에 따라 축조된 포루의 첫 단계이며, 화약 무기의 유입에 따라 조선시대 산성의 치성이 포루로 전환하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26

양주 관아지 발굴과 읍치소



양주 관아지 전경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을 두었다. 각 행정단위마다 중앙에서 수령을 파견하여 정무를 보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축조된 건축물이 바로 관아(官衙)이다. 양주목은 목사가 파견되었으며, 읍성이 축조되지 않았고, 17세기 중엽에 중영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주 관아는 본래 건주의 옛터(현 양주시 고읍동)에 위치하였다. 1504년(연산군 10)에 일시적으로 폐목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현재의

위치인 불곡산(佛谷山)(현재는 불국산佛國山) 남쪽의 유양리로 이전하였다. 이후 1922년 시둔면(현 의정부시 의정부1동)으로 옮길 때까지 양주군의 치소로 기능하였다.

관아는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東軒), 수령의 생활공간인 내아(內衙), 기타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동헌은 내삼문 안에 위치하여 가장 중요한 독립영역을 형성한다. 동헌의 대청은 뜰과 더불어 법정을 이루는 시설의 일부였다. 수령은 좌기할 때 대청에 앉았다. 뒷칸은 마루의 연장선으로 개정시 각 신분이 서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우선 마루 위에 서거나 앉을 수 있는 자들은 수령과 낭청을 비롯한 상층관리였으며, 수령의 명령을 받아서 길게 복창하는 급창이나 수행비서격인 비장은 섬돌 위에, 그리고 형리와 청원자인 죄인은 뜰 아래 서거나 엎드렸다. 이때 수령의 잔신부름을 거드는 통인이나 기록을 맡은 서리는 직무 특성상 대청 위에 국궁을 하거나 부복한 채 수령의 지근거리에 붙어 있었다. 동헌은 긴장감을 조성하여 위엄을 드러내도록 동선과 눈높이에 신경을 썼다. 곧바로 보도를 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양주 관아지의 경우 추정 문지 주변이 교란되어 내삼문지나 외삼문지로 볼만한 뚜렷한 유구가 잡히지는 않았다.

양주 관아지는 문헌기록이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다른 지방관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영되었으며 여러 차례 증·개수와 변화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유적의 중심축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외동헌지가 증축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동헌권역이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화재흔적이 남아있어 양란을 거치면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성 및 운영의 중심시기는 17~18세기로 판단된다. 동헌의 서쪽

에는 내아가 있으며, 길을 사이에 두고 그 서쪽에는 중동헌^{中東軒}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헌의 내삼문을 들어서면 동헌에 직교하여 좌우에 행각이 조성되었다.

동헌지는 중창 후 정면 9칸, 측면 3칸의 평면을 갖춘 일고주 오량의 팔작 지붕집으로 추정되는데, 그 정면길이는 약 24.6m로 규모에 맞게 상당히 큰 동헌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헌의 기단은 대부분 장대석 기단으로 지역에 따라 외별대, 두별대, 세별대, 네별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양주 동헌지의 경우 1단의 장대석 기단이 남아있으나 적심과 레벨을 감안할 때 세별대 또는 네별대로 추정된다. 동헌의 적심은 장방형, 방형, 원형의 모습을 띤다. 이 가운데 장방형 또는 방형 적심은 객사나 동헌 등 중요한 관아 건축물에서 보이는 특이한 형태로 원형 적심과 함께 쓰인다.

이밖에 조사지역 내에서는 ‘자복사^{資福寺}’명 기와, 귀목문·범자문 막새, 초석으로 재 활용된 불상대좌 등이 확인됨에 따라 양주 관아지가 들어서기 이전에 사찰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 유물들이 조선 전기~중기 유물들과 같이 출토되고 있어, 고려~조선 초에 형성된 문화층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양주 관아는 동헌과 내아의 복원이 마무리되어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복원된 양주 관아는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위치를 고증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증언을 통하여 원래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복원되어 다행이다.



양주 관아지 출토 백자

27

용인 양지향교 발굴과 향교건축



양지향교 전경



1899년 양주군 읍지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현^{儒賢}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받들며 유학을 가르쳐 인재를 양성하는, 곧 제향과 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교육기관이다. 성균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이라면 향교는 초등교육기관이라 할 서당을 마친 유생들이 중등교육을 받는 지방 최

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중앙의 사부학당(중·동·서·남학)에 대응된다. 또 다른 교육 기관인 서원과는 기능이나 목적은 같으나 서원이 사학기관임에 반하여 향교는 지방관청에 속한 관학기관임에 차이가 있다.

향교의 공간구성은 담장과 내삼문을 사이에 두고 대성전과 동·서무가 이루는 제향공간과, 명륜당에 동·서재가 딸린 강학공간으로 구분된다. 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묘후학(前廟後學)과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으로 나눈다. 전묘후학은 남북을 축으로 하여 제향공간이 정문을 들어선 앞뜰에 들어 서고 강학공간이 그 뒤로 들어서는 배치형식이다. 전학후묘는 강학공간이 앞뜰에 자리잡고 제향공간이 뒤뜰에 자리잡는 형식이다. 이때는 사당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역시 신위의 위엄성이 우위에 있게 된다.

16세기 경부터 향교는 수용인원, 교수진이나 교생의 질적인 면에서 점차 부진한 상태를 드러내다가 임진·병자의 양란을 겪은 뒤로는 건물과 인재의 손실, 재정의 궁핍 등으로 유명무실한 형편이 되었다. 게다가 서원의 성행은 향교의 쇠퇴를 부채질해 마침내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현재 남한에는 231개소의 향교가 남아 있다.

용인 양지향교는 ‘자오축배치(남북배치)’라는 일반적인 향교건축 배치형태와는 다른, 주요건물이 종축선상에서 어긋나 있는 배치형태를 보이고 있다. 양지향교가 종축선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배치형태를 갖게 된 것은 발굴조사와 고지도를 검토해 볼 때, 1899년 이후인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배치형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양지향교의 건물 배치에서 원위치를 유지하는 건물은 명륜당뿐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명륜당 기단석에 건륭원년(乾隆元年(1736))이 새겨져 있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호 건물지(외삼문지)의 중심칸과 현 명륜당과의 중심축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현재의 대성전, 내삼문, 외삼문 등은 원래 위치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성전은 외삼문과 명륜당을 잇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어 원래 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원래 양지향교는 일반적인 향교의 배치인 ‘자오축배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판단은 『경기지』(1843-43)의 ‘해좌사향(亥坐巳向)’(북북서를 등지고 남남동을 바라보는 것)이란 주축방향과 거의 일치하므로 대오는 없을 듯하다.

한편,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는 공사청, 전사청 등은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여 원래 양지향교의 주건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향교배치의 변화, 새로운 건물의 축조 등은 향교의 교육기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이 크게 약화되면서 명륜당·동재·서재 등의 강학공간은 규모가 축소되고, 향교가 지방유림의 회합장소로 널리 활용되면서 공사청과 같은 비본질적 건물이 새롭게 건립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렇듯 조선시대 향교는 강학 기능은 크게 떨어지고, 대신에 향촌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회합의 장소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런 변화는 양지 향교의 발굴에서도 확인되는데, 그것은 (추정)공사청이 동재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고지도에서 서재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확인된다.

28

회암사지와 북한행궁의 온돌시설



회암사지 온돌 구조 일례

온돌문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중 하나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이 인정되는 주거문화이다. 이런 온돌문화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지만,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것은 조선시대이다. 즉 조선시대의 온돌문화는 곧 우리나라의 온돌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궁궐건축의 온돌은 우리나라 온돌 중 가장 정연한 구조를 지



회암사지 서송당지 구들

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복궁 등 궁궐의 온돌은 빠르면 19세기 말, 늦게는 최근에 복원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그 이전의 온돌구조가 보존되었다고 해도 그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다. 즉 조선전기와 후기의 온돌 구조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나라 온돌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건축학적 자료가 발굴되었으니, 양주 회암사지와 고양 북한행궁에서 발굴된 온돌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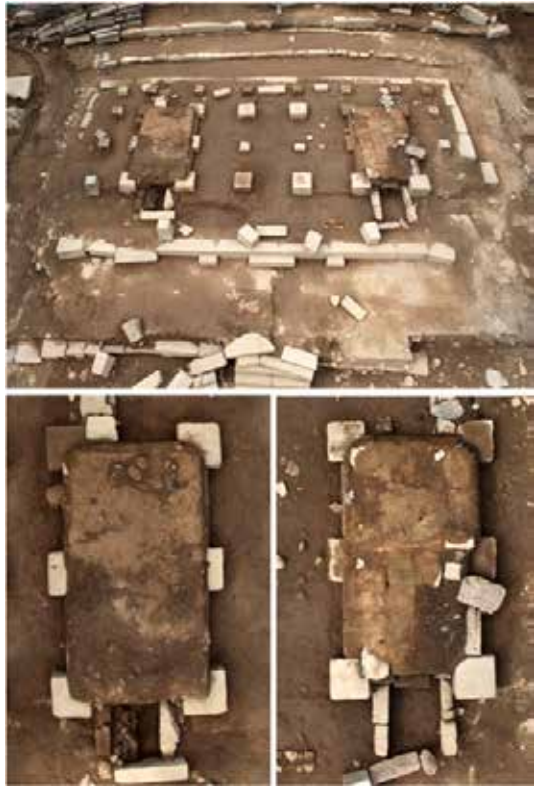
양주 회암사지는 우리나라 대형의 건물유적지 중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유적이다. 대략 1만 평에 달하는 중심사역 전체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전면 발굴이 이루어진 유적이다. 이처럼 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했기에 그곳에서 발굴된 건물지의 온돌구조도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굴되었다.

회암사지 건물 중에서 온돌이 확인된 건물지는 동방장지, 서방장지, 시좌료지, 서승당지, 수좌료지 등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함실 구조의 아궁이, 5-10렬의 고래골,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래 독은 기와편이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회암사지 온돌 중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더욱 빛나는 유구는 서승당지의 구들시설이다. 이곳의 구들은 탁상식으로 ‘ㄷ’자 평면을 한 구들을 좀 떨어져 마주보게 하여 외벽을 따라 배치하고, 중앙부에는 ‘—’자 평면의 폭넓은 구들을 ‘ㄷ’와 붙지 않게 좀 띄어서 배열하여 마치 ‘ㅉ’자가 서로 떨어져 마주본 평면구조이다. 여기에서 탁상식으로 높은 구들은 쌍줄구들이며, 중앙부의 구들은 이중으로 놓여 결과적으로 네줄의 구들이 되었다. 탁상식 구들의 높이는 대략 바닥에서 45cm내외 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바닥통로는 보광전을 향하여 ‘中’자로 통해 있다.

이런 회암사지 서승당지 온돌구조와 비교되는 것이 경남 하동 칠불사의 탁상식 구들이다. ‘아자방’이라 흔히 불리는 이 구들구조는 고려 말~조선초의 초기형 탁상식 구들로서 구들평면이 ‘아’^亞자처럼 되었다고 하여 ‘아’자방 구들이라 불린다. 이 ‘아’자방 구들은 가운데의 ‘십’^十자 모양의 통로부분은 낮게 하고 네 귀의 방형부와 이를 연결하는 벽면부는 높게 꾸며져서 스님들이 걸터앉아 토론과 강론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근래에 온돌의 구조를 해체하여 조사한 결과 부엌의 두곳 아궁이에서 불을 때서 여러 줄의 긴 구들로 뻗어 윗목의 개자리를 통하여 굴뚝으로 배연되도록 한 구조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탁상식으로 높게 한 구들은 그 부분만 구들돌을 높게 쌓아 올린 것일 뿐으로, 그 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만들기도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 회암사지 서

승당의 탁상식 구들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응용한 구들이라 말할 수 있다. 구들을 덮히는 아궁이는 남측과 북측에 각기 두 곳에 있는데 북측에 있는 것은 건물 측면의 중앙부에 대체로 놓이고 남측의 것은 측면의 양 끝부분에 위치하여 불을 지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북측 아궁이는 고래에서 좀 떨어져 화구가 있고 남측의 것은 고래에서 가깝게 화구가 놓이고 함실이 고래 바로 밑에 놓였다. 그러나 이 두 아궁이에



황토바닥까지 온전히 남아있는 북한행궁의 온돌 모습

서 불길을 들이는 부넝기 고래는 쌍줄고래로 각기 벽선을 따라 놓인 고래로 분리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부의 고래로 통하는 연도는 바닥통로를 밑으로 가로질러 통하게 되었고 벽쪽의 고래는 불길이 바로 들어가다가 끝부분에서 통로부 밑에 놓인 배연부로 연결되어 배연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총길이 80여m에 달하는 쌍줄 고래가 어떻게 골고루 열을 전달한 것

인지, 대규모의 탁상식 구들이 네 곳의 아궁이를 기점으로 어떻게 운용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어쨌든 이 서승방지의 온돌은 정점에 달했던 우리나라 온돌구조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의미가 심대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회암사지에서는 대형의 온돌구조가 잘 보존된 상태로 여러 건물지에서 발굴되었지만, 고래줄 위에 놓였던 구들장이 거의 대부분 멸실되었다. 그리하여 온돌의 마감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 이런 아쉬운 처지에서 그것을 달래 주는 온돌유구가 발굴되었으니, 삼각산 북한산성 내의 북한행궁에서 발굴된 온돌이 그것이다. 이온돌은 원형이 그대로 간직된 채 발굴되어, 구들장은 물론 그 위의 황토 방바닥까지 남아있어, 조선중기 이후 온돌구조를 원래 모습 그대로 보여준다.

요컨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회암사지와 북한행궁에서는 온돌구조가 원형을 잘 간직한 채 발굴되었다. 그 중에서 회암사지 서승방지는 완숙의 경지에 오른 우리나라 온돌 축조기술을 보여주며, 북한행궁 온돌방은 궁궐 온돌의 모든 요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유적의 온돌구조를 조합하면, 우리나라 전통온돌을 복원하고, 그 과학성을 입증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이에 회암사지와 북한행궁의 온돌은 두 유적의 명성만큼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다.

29

양주 회암사지의 청동금탁과 명문



회암사지 출토 청동금탁



청동금탁 명문세부

양주 회암사지는 우리나라 폐사지 중에서 가장 잘 보존 절터이다. 또 명종 대에 유생들에 의하여 강제로 폐사되었기에 전체 가람의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절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회암사지 출토 유물 중에서 가장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은 본전인 보광전지에서 출토된 청동제靑銅製의 금탁金鐸이다. 이 금탁은 처마 끝에 매달아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게 만든 작은 종 즉 풍탁風鐸인데, 후술할 명문 속에 이 풍탁을 ‘금탁’이라 했기에 ‘청동금탁’이란 명칭을 얻게 되었다. 거문고에 건줄 만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기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측된다.

양주 회암사지 출토 청동금탁은 모두 2점으로 보광전지 모서리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하나는 보광전지 북동쪽 모서리 아래 박석 상부에서 다른 하나는 북서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북동쪽모서리에서 출토된 한 점은 비교적 양호하나 북서쪽모서리 출토품은 상·하단 중 하단부만 복원 가능한 정도이다.

금탁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탁의 본체와 건물에 매달게 하는 연결부, 그리고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도록 하는 부속구로 이루어졌다. 출토위치와 명문의 내용으로 보아 건물 추녀 끝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체 부분은 출토당시에 깨진 채로 출토되었는데, 보광전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추녀 끝에 매달렸던 금탁이 건물의 붕괴와 함께 깨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속구는 금탁 안에 위치하여 종을 때려 소리를 내는 추錘, 바람에 흔들려 추를 움직이는 바람판, 그리고 연결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추는 십+자형, 바람판은 윤판형태인 점이 주목되다.

이 청동금탁이 회암사지 출토 최고의 유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본

체에 새겨진 146자의 명문 때문이다. 2단으로 된 본체의 상단에는 ‘왕사묘엄존자王師妙嚴尊者 조선국왕朝鮮國王 왕현비王顯妃 세자世子’ 순으로 우에서 좌로 15자의 명문이 음각으로 중서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모두 131자의 명문이 음각으로 4자씩 우에서 좌로 중서되어 있는데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천보산에 있는 회암사 보광전 네 모퉁이는 금벽으로 화려하게 꾸미어 천궁보다 훌륭해 금탁을 달아 놓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 바라네. 또한 작은 티끌 같은 중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신묘하고 아름다운 연기를 만들어 조선의 국호가 만세에 전해지도록 하소서. 전쟁(우과于戈)이 영원히 그쳐서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고 마침내 같은 인연의 깨달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홍무 27년^[1394] 갑술 6월

天寶山中檜岩寺普光明殿四校角金粧碧彩勝天宮願縣琴鐸供諸佛亦使微塵諸衆生聞聲皆悟本心佛願我承此妙良緣朝鮮之号傳萬歲于戈永息國民安畢竟同緣歸覺際-洪武二十七年甲戌六

천보산중회암사보광명전사교각금장벽채승천궁원현금탁공제불역사미진 제중생문성개오본심불원아승차묘양연조선지호전만세우과영식국민안필경동 연귀각제-홍무이십칠년갑술육

功德主 嘉靖大夫判內侍府事 李得芬 施主 貞信宅主許妙淨 咸陽郡夫人朴妙湛 寧順宅主 朴氏 鎰(?)城翁主尹氏 檢校門下侍中 李崇

공덕주 가정대부 판내시부사 이득분 시주 정신택주허묘정 함양군부인박묘담 영순택주 박씨 협(?)성옹주윤씨 검교문하시중 이송

이 명문에서 ‘왕사묘엄존자王師妙嚴尊者’는 무학대사, ‘조선국왕朝鮮國王’은 이성계, ‘왕현비王顯妃’는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 ‘세자世子’는 이방석을

말한다. 공덕자가 판내시부사 이득분인 점으로 미루어 상기 네 사람의 만수무강 등을 축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덕주 가정대부 판내시부사 이득분^{功德主 嘉靖大夫判內侍府事 李得芬}’이란 명문도 주목된다. 일단 이득분의 주도하에 이 금탁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구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5월 8일 현비의 병환이 위독하자 이득분의 집으로 옮겼고 태조가 이득분의 집을 찾았다.”, “태조 5년 8월 13일 현비가 이득분의 집에서 사망하자 임금이 통곡하며 슬퍼했다.”, “정종 1년 이득분이 불사^{佛事}를 행하도록 권하여 창고를 탕진시켜 죄를 물었다.” 등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이득분이 신덕왕후와 특별한 사이였고, 불교계의 한 축이었기에 금탁불사를 책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주자 검교시중^{檢校侍中} 이승^{李崇}도 『태조실록』에 줄기가 실려 있는데, “본관이 고성으로 문하 시중 이암^{李巖}의 아들이며 천성이 순후하고, 공민왕 때에 활 잘 쏘기로 이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394년 12월 16일에 사망하였으니, 청동금탁에 시주한 6개월 이후이다. 죽기 6개월 전에 이 금탁을 만드는데 시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사실들과 함께 이 금탁의 명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시사한다. 첫째로, 회암사가 태조의 즉위와 함께 대대적으로 중창되었던 사실을 전한다. 중심 건물인 보광전이 1394년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조선건국과 함께 회암사 불사가 바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로 이득분은 결국 조선개국의 주체 세력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부원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불교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구세력이며, 신덕왕후 강씨의 비호를 받은 인물로 추정된다. 이런 그

의 존재는 이성계가 신진사대부와뿐만 아니라 구세력 불교세력을 일소하지 않고 조선건국에 참여시켰을 개연성도 보여준다. 한편 이 청동금탁은 직경 30cm에 달하는 대형으로 일반적인 풍탁보다는 월등하게 크다. 이런 사실은 보광전의 규모를 유추케 하며, 더 나아가 왕실 사찰인 회암사의 사격을 웅변해 준다. 마지막으로 무학대사의 존호가 국왕인 이성계보다 앞에 자리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와의 특별한 관계는 물론, 당시 무학대사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칠 수 있게 한다.

이성계와 현비 강씨는 무리하게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것도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서둘러 세자 책봉을 강행했다. 이런 세자 책봉에 이방원을 중심으로 건국세력 중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이방석의 이름이 금탁에 새겨져 있는 점과 연결해 보면, 이방석의 순조로운 왕위계승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 본다.

이상과 같이 이 금탁은 우리에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고, 영성했던 사료를 보강하게 하며, 아울러 역사적 상상을 더하게 한다. 이에 회암사지 출토품 중에서 가장 학술성이 높은 탐픽(top-pick)으로 꼽는다.

30

화성 만년제萬年堤, 정조를 말하다.



만년제 위치

조선은 '민본(民本)'의 나라였다. 백성의 대다수는 농민이었고 농업이 기간산업이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나라의 슬로건이었고, 농업생산력을 높이고자 온힘을 기울였다. 전통농법의 성패는 '물 관리'에 달렸고, 수리시설의 확장과 관리는 그 성패의 가늠자였다. 조선 후기, 현군(賢君) 정조는 문예 진흥에 박

차를 가하는데, 그중 우선은 출판 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기록화 사업은 그가 이룬 문화적 치적의 백미이다. 이는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케 한 일등 공신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조선후기 빼어난 출판기술을 보여주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가 잘 말해 준다.

화성 만년제(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는 치수를 통해 민본정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자 정조시대 기록문화를 현물現物로써 입증하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아울러 조선시대의 풍수사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기도 하다. 18세기말 정조는 화성을 축성하면서 백성들의 논과 밭을 관개하는데 도움을 줄 제방을 화성 밖 사방에 축조하였는데, 동쪽(수원시 지동)에 축조한 것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서쪽에는 축만제祝萬堤가, 북쪽에는 만석거萬石渠가, 남쪽에는 만년제萬年堤가 남아있다. 이중 만년제는 1798년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군정軍丁·모군募軍·승군僧軍 등 연인원 37,920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굴착과 준설 작업으로 이룩한 조선후기 대표적인 수리시설이다.

만년제의 시설 중 사도세자의 무덤인 용릉의 형국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풍수적 결과물로 괴성塊星을 들 수 있다. 괴성은 만년제 가운데에 축조한 동그란 섬이다. 석재로 쌓은 12층은 일년 12달을 상징하고, 둘레의 81보는 천자의 숫자인 9×9에 합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 의도야 어떻든 작은 시설물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자연만물과의 조화를 도모한 선조들의 멋과 운치가 기막히다.

만년제는 최근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는데, 『일성록日省錄』에 기록되어있는 괴성과 제방 등의 규모와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유적의



발굴조사로 드러난 만년제 과성

크기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 그 기록의 철저함과 정확성에 감탄할 지경이다. 또한 화성 일대에 수리시설을 두어 민생의 안정을 도모코자 했던 정조의 진정성과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물 관리’에도 정조와 같은 깊은 철학적 · 과학적 사유의 결과가 실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31

여주 삼합리 · 가야리 경작유구와 조선시대 농경지



삼합리 경작유적(1구역 하층)



가야리 경작유적(하층)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조선시대 후기 경작유구는 대부분 밭유구로 모두 이랑밭이다. 이랑짓기에 의한 경작은 작휴^{作畦} 또는 작묘^{作畝}畝라고도 불리며, 경운^{耕耘}과 쇠토^{碎土}를 통해 토양을 이용하여 파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이랑밭은 토양 성질, 작물 종류, 태양의 위치(자연방위), 지형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이랑밭의 조성방법은 재배작물의 종류와 지형조건의 차이에 따라 평휴법^{平畦法}, 휴립법^{畦立法}, 성휴법^{盛畦法} 등으로 다양하다.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경작유구 중에서 정확한 조성방법

을 알 수 있는 것은 극소수로, 대부분 남아있는 부분으로 경작 형태를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구획 발이나 소형 수혈발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는 논 경작에 더 어울리는 경작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조선후기 경작유구의 빈곤 속에서 확인된 여주 삼합리 경작유적과 여주 가야리 경작유적은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과정에서 알려졌으며 유적의 성격 규명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삼합리와 가야리 두 유적에서 조사된 발 유구는 모두 남한강변에 형성된 하상범람원에 자리하고 있다.

삼합리 경작유구는 남한강 좌안의 하천범람원 하단에 위치하는데, 남쪽의 배후 구릉지 사이에는 자연제방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 3개 구역에서 상·하층의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는데, 하층의 경작유구가 조성되어 사용된 후 상층의 경작유구가 바로 조성되어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유구는 두둑과 고랑이 이어지며 조성된 전형적인 이랑밭으로, 남한강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개별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하층 밭의 경우 원래 밭 경작 시 단절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져 있던 밭이 폐기 이후 하천 범람의 영향으로 일부 훼손되면서 단절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야리 경작유구는 삼합리 경작유구와 동일한 양상이나 자연제방과 연결한 부분에 조성되면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연제방 등고선과 동일한 'S'자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총 2개층에서 확인되고 있다. 상층과 하층 모두 고랑과 두둑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 전형적인 이랑밭이다.

여주 삼합리 경작유적과 가야리 경작유적에서 보이는 이랑을 만드는 방법은 조사된 두둑의 원래 높이를 잔존하는 두둑으로 추정해 보면 고랑보다 약간

높으면서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이 두 유적에서 조사된 이랑밭은 두둑이 고랑보다 폭이 넓게 조성된 점이나 잔존하는 이랑의 형태로 미루어 휴림법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두 유적에서 보이는 양상으로는 휴림법의 두 종류인 휴림휴과법인지 휴림구과법으로 경작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남한강변의 조선후기 경작유구는 조선시대 충적지 경작방식과 밭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전면 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발굴이 마무리되었다. 어떤 학자의 눈에는 학술적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조선시대 농경사를 전공한 학자에는 더 없이 귀중한 수도 있는 유적이 제대로 된 발굴을 거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술한 발굴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가야 고분보다 우리나라에서 발굴 사례가 매우 드문 조선후기 경작지가 왜 학술적으로 더 가치 없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 발굴이었고, 이런 아쉬움 속에서 한국고고학의 관심과 외연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그레이트북스 22

고고학이 발굴한 경기도

초판 1쇄 발행 2019년 12월 23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 1990)

기획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집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전현직 연구원

편집 진디자인 (전화 031-256-3614)

인쇄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전화 031-442-0470)

ISBN 979-11-958557-7-3 04900

ISBN 979-11-958557-1-1 (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